

용역보고서 2024-62

발 간 등 록 번 호

11-1352000-003871-01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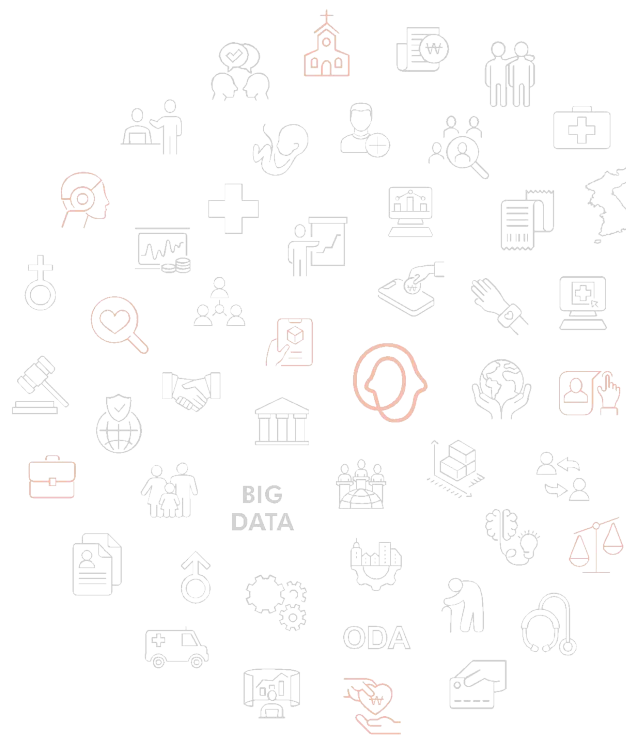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늘봄학교 시행에 따른 마을돌봄시설 영향분석 및 발전방향 연구

임성은

김은정·오정아·강현주



■ 연구진

연구책임자	임성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진	김은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오정아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연구위원
	강현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제출문

보건복지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귀부와 용역계약(2024.5.31.)한 「늘봄학교 시행에 따른 마을돌봄시설
영향분석 및 발전방향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4년 11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직무대행
강혜규

목차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요약	1
제1장 서론	5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7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0
제2장 늘봄학교와 마을돌봄시설 운영 제도 현황 및 주요 쟁점	13
제1절 늘봄학교 추진 동향	15
제2절 마을돌봄시설 제도 현황	19
제3절 주요 쟁점 및 시사점	23
제3장 늘봄학교 시행 후 마을돌봄시설 영향분석	24
제1절 마을돌봄시설 이용 변화(행정조사)	25
제2절 늘봄학교 시행과 마을돌봄시설 영향(FGI)	28
제3절 늘봄학교-마을돌봄시설 공급 영향(GIS)	31
제4장 마을돌봄시설 이용 실태조사	35
제1절 조사 개요	35
제2절 조사 결과	38
제5장 결론	229
제1절 연구 결과 종합	231
제2절 마을돌봄시설 발전방향	232
부록	243
[부록 1] 마을돌봄시설 이용 실태 및 욕구 조사표	242

표 목차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표 2-1> 늘봄학교 대상별 맞춤형 지원 내용	8	1
<표 2-2> 늘봄학교 관련 학교 안팎의 다양한 자원 연계 방안	8	1
<표 2-3> 늘봄학교 저학년 맞춤형 프로그램 강사 관련 기관별 역할(안)	9	1
<표 2-4> 늘봄학교 프로그램(초1~6) 질 제고 및 다양화 방안	0	2
<표 2-5> 저녁늘봄 지원 및 안전관리 강화 방안	1	2
<표 2-6> 늘봄지원실 구성 및 구성원 역할	1	2
<표 2-7> 늘봄학교 참여 학교 현황(2024년)	2	2
<표 2-8> 늘봄학교 이용 초1 아동 현황(2024년)	4	2
<표 2-9> 늘봄학교 전담인력 현황(2024년)	5	2
<표 2-10> 늘봄학교 초1 맞춤형 프로그램 현황(2024년 2학기)	6	2
<표 2-11> 늘봄학교 초1 아동친화적 교실 구축 현황(2024년 2학기)	7	2
<표 2-12> 늘봄학교 교사연구실 구축 현황(2024년 2학기)	8	2
<표 2-13>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 개요	0	3
<표 2-14>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 추진체계	1	3
<표 2-15>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기준	2	3
<표 2-16>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아동 기준	3	3
<표 2-17>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배치 기준	4	3
<표 2-18> 지역아동센터 운영 프로그램	5	3
<표 2-19>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 프로그램	6	3
<표 2-20>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시간	7	3
<표 2-21> 특수목적형 및 토요운영 지역아동센터 선정기준 및 예산지원	8	3
<표 3-1> 마을돌봄시설 행정조사 내용	5	4
<표 3-2> 마을돌봄시설 행정조사 응답 기관 수	6	4
<표 3-3> 지역아동센터 운영주체	7	4
<표 3-4>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방식	8	4
<표 3-5> 마을돌봄시설 토요일 운영 여부(학기 중)	9	4
<표 3-6> 마을돌봄시설 공휴일 운영 여부(학기 중)	0	5
<표 3-7> 마을돌봄시설 토요일 운영 여부(방학 중)	0	5
<표 3-8> 마을돌봄시설 공휴일 운영 여부(방학 중)	1	5
<표 3-9> 늘봄학교 시행 이후 마을돌봄시설 이용 변화(초등학교 1학년 아동)	2	5
<표 3-10> 늘봄학교 시행 이후 지역아동센터 이용 변화(초등학교 1학년 아동)	3	5

<표 3-11> 늘봄학교 시행 이후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변화(초등학교 1학년 아동)	4	5
<표 3-12> 현재 지역아동센터-늘봄학교 연계·협력 여부	5	5
<표 3-13> 현재 다함께돌봄센터-늘봄학교 연계·협력 여부	6	5
<표 3-14> 지역아동센터 평균 이용 아동 수(N=4,119개소)	8	5
<표 3-15> 다함께돌봄센터 평균 이용 아동 수(2023~2024년)(N=1,136개소)	8	5
<표 3-16> 서울 지역아동센터 평균 이용 아동 수(2023~2024년)	6	6
<표 3-17> 서울 다함께돌봄센터 평균 이용 아동 수(2023~2024년)	6	6
<표 3-18> 부산 지역아동센터 평균 이용 아동 수(2023~2024년)	7	6
<표 3-19> 부산 다함께돌봄센터 평균 이용 아동 수(2023~2024년)	7	6
<표 3-20> 대구 지역아동센터 평균 이용 아동 수(2023~2024년)	8	6
<표 3-21> 대구 다함께돌봄센터 평균 이용 아동 수(2023~2024년)	8	6
<표 3-22> 인천 지역아동센터 평균 이용 아동 수(2023~2024년)	9	6
<표 3-23> 인천 다함께돌봄센터 평균 이용 아동 수(2023~2024년)	9	6
<표 3-24> 광주 지역아동센터 평균 이용 아동 수(2023~2024년)	0	7
<표 3-25> 광주 다함께돌봄센터 평균 이용 아동 수(2023~2024년)	0	7
<표 3-26> 대전 지역아동센터 평균 이용 아동 수(2023~2024년)	1	7
<표 3-27> 대전 다함께돌봄센터 평균 이용 아동 수(2023~2024년)	1	7
<표 3-28> 울산 지역아동센터 평균 이용 아동 수(2023~2024년)	2	7
<표 3-29> 울산 다함께돌봄센터 평균 이용 아동 수(2023~2024년)	2	7
<표 3-30> 세종 지역아동센터 평균 이용 아동 수(2023~2024년)	3	7
<표 3-31> 세종 다함께돌봄센터 평균 이용 아동 수(2023~2024년)	3	7
<표 3-32> 경기 지역아동센터 평균 이용 아동 수(2023~2024년)	4	7
<표 3-33> 경기 다함께돌봄센터 평균 이용 아동 수(2023~2024년)	4	7
<표 3-34> 강원 지역아동센터 평균 이용 아동 수(2023~2024년)	5	7
<표 3-35> 강원 다함께돌봄센터 평균 이용 아동 수(2023~2024년)	5	7
<표 3-36> 충북 지역아동센터 평균 이용 아동 수(2023~2024년)	6	7
<표 3-37> 충북 다함께돌봄센터 평균 이용 아동 수(2023~2024년)	6	7
<표 3-38> 충남 지역아동센터 평균 이용 아동 수(2023~2024년)	7	7
<표 3-39> 충남 다함께돌봄센터 평균 이용 아동 수(2023~2024년)	7	7
<표 3-40> 전북 지역아동센터 평균 이용 아동 수(2023~2024년)	8	7
<표 3-41> 전북 다함께돌봄센터 평균 이용 아동 수(2023~2024년)	8	7
<표 3-42> 전남 지역아동센터 평균 이용 아동 수(2023~2024년)	9	7
<표 3-43> 전남 다함께돌봄센터 평균 이용 아동 수(2023~2024년)	9	7
<표 3-44> 경북 지역아동센터 평균 이용 아동 수(2023~2024년)	0	8

<표 3-45> 경북 다함께돌봄센터 평균 이용 아동 수(2023~2024년)	0	8
<표 3-46> 경남 지역아동센터 평균 이용 아동 수(2023~2024년)	1	8
<표 3-47> 경남 다함께돌봄센터 평균 이용 아동 수(2023~2024년)	1	8
<표 3-48> 제주 지역아동센터 평균 이용 아동 수(2023~2024년)	2	8
<표 3-49> 제주 다함께돌봄센터 평균 이용 아동 수(2023~2024년)	2	8
<표 3-50> FGI 내용	3	8
<표 3-51> FGI 참여자 일반특성(지역아동센터)	4	8
<표 3-52> FGI 참여자 일반특성(다함께돌봄센터)	5	8
<표 3-53> FGI 참여자 일반특성(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보호자)	5	8
<표 3-54> 2024~2029년 초등학생 수 추계(2023년 기준 추계)	9	1 1
<표 4-1> 조사 설계 개요	161	
<표 4-2> 조사 내용	21	
<표 4-3> 응답자 일반 특성	361	
<표 4-3> 응답자 일반 특성(계속)	4	6 1
<표 4-4> 초등학교 1학년 아동 일반 특성	5	6 1
<표 4-5>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등록장애 유형	6	6 1
<표 4-6>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이 갖고 있는 어려움	6	6 1
<표 4-7>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이 현재 다니고 있는 마을돌봄시설 유형	8	6 1
<표 4-8> 지역아동센터 이용 시점	9	6 1
<표 4-9> 지역아동센터 주된 이용 이유	0	7 1
<표 4-10> 지역아동센터 주된 이용 이유(1순위)	1	7 1
<표 4-11> 지역아동센터 주된 이용 이유(2순위)	2	7 1
<표 4-12> 일주일 평균 지역아동센터 이용일 수	4	7 1
<표 4-13> 하루 평균 지역아동센터 이용 시간	5	7 1
<표 4-14> 지역아동센터 이용 시간대	6	7 1
<표 4-15> 지역아동센터 이용을 위한 등록 대기 경험 유무	7	7 1
<표 4-16> 지역아동센터 만족도(1)	9	7 1
<표 4-17> 지역아동센터 만족도(2)	0	8 1
<표 4-18> 지역아동센터 중요도(1)	1	8 1
<표 4-19> 지역아동센터 중요도(2)	2	8 1
<표 4-20> 지역아동센터 전반적 만족도	3	8 1
<표 4-21> 지역아동센터 만족도-중요도 분석	5	8 1
<표 4-22> 지역아동센터 개선사항	6	8 1
<표 4-23> 지역아동센터 개선사항(1순위)	7	8 1

<표 4-24> 지역아동센터 개선사항(2순위)	8·8 1
<표 4-25>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시점	9·8 1
<표 4-26> 다함께돌봄센터 주된 이용 이유	0·9 1
<표 4-27> 다함께돌봄센터 주된 이용 이유(1순위)	1·9· 1
<표 4-28> 다함께돌봄센터 주된 이용 이유(2순위)	2·9· 1
<표 4-29> 일주일 평균 다함께돌봄센터 이용일 수	4·9 1
<표 4-30> 하루 평균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시간	5·9 1
<표 4-31>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시간대	6·9 1
<표 4-32> 다함께돌봄센터 이용을 위한 대기 경험 유무	7·9· 1
<표 4-33> 다함께돌봄센터에서의 급·간식 이용 여부	9·9· 1
<표 4-34> 다함께돌봄센터에서의 월평균 급식비	0·0 2
<표 4-35> 다함께돌봄센터에서의 월평균 간식비	1·0 2
<표 4-36> 다함께돌봄센터에서의 월평균 이용 요금(급·간식비 제외)	2·0· 2
<표 4-37> 다함께돌봄센터 만족도(1)	4·0 2
<표 4-38> 다함께돌봄센터 만족도(2)	5·0 2
<표 4-39> 다함께돌봄센터 중요도(1)	6·0 2
<표 4-40> 다함께돌봄센터 중요도(2)	7·0 2
<표 4-41> 다함께돌봄센터 전반적 만족도	8·0 2
<표 4-42> 다함께돌봄센터 만족도-중요도 분석 결과(IPA)	9·0· 2
<표 4-43> 다함께돌봄센터 개선사항	0·1 2
<표 4-44> 다함께돌봄센터 개선사항(1순위)	1·1· 2
<표 4-45> 다함께돌봄센터 개선사항(2순위)	2·1· 2
<표 4-46> 놀봄학교 인지 정도	312
<표 4-47> 현재 아동이 다니는 초등학교의 놀봄학교 운영 여부	4·1· 2
<표 4-48> 놀봄학교 이용 경험 유무	512
<표 4-49> 놀봄학교 프로그램 미이용/중단 이유(1순위)	7·1· 2
<표 4-50> 놀봄학교 프로그램 미이용/중단 이유(2순위)	8·1· 2
<표 4-51> 놀봄학교 이용 프로그램	912
<표 4-52> 일주일 기준 놀봄학교 프로그램 참여 빈도	0·2· 2
<표 4-53> 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 외 놀봄학교 이용 이유(1순위)	2·2· 2
<표 4-54> 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 외 놀봄학교 이용 이유(2순위)	3·2· 2
<표 4-55> 놀봄학교 계속 또는 향후 이용 의향 유무	4·2· 2
<표 4-56> 방과 후 아동 돌봄을 위한 향후 이용 희망 기관(놀봄학교 이용 의향 없음)	5·2· 2
<표 4-57> 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 지속 이용 의향 유무(놀봄학교 이용 의향 있음)	7·2· 2

그림 목차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그림 1-1]	연구수행체계	1
[그림 2-1]	늘봄학교 추진체계	6
[그림 3-1]	17개 시·도별 2026~2028년 초등학생 수 추계(2023년 기준 추계)	9
[그림 3-2]	전국 늘봄학교 및 마을돌봄시설 분포 현황(2024년)	3
[그림 3-3]	전국 초등학생 현황 및 초등학생 수 대비 마을돌봄시설 분포 현황(2024년)	4
[그림 3-4]	서울 늘봄학교-마을돌봄시설 분포 현황(2024년)	5
[그림 3-5]	서울 초등학생 현황 및 초등학생 수 대비 마을돌봄시설 분포 현황(2024년)	6
[그림 3-6]	부산 늘봄학교-마을돌봄시설 분포 현황(2024년)	7
[그림 3-7]	부산 초등학생 현황 및 초등학생 수 대비 마을돌봄시설 분포 현황(2024년)	8
[그림 3-8]	대구 늘봄학교-마을돌봄시설 분포 현황(2024년)	9
[그림 3-9]	대구 초등학생 현황 및 초등학생 수 대비 마을돌봄시설 분포 현황(2024년)	9
[그림 3-10]	인천 늘봄학교-마을돌봄시설 분포 현황(2024년)	1
[그림 3-11]	인천 초등학생 현황 및 초등학생 수 대비 마을돌봄시설 분포 현황(2024년)	2
[그림 3-12]	광주 늘봄학교-마을돌봄시설 분포 현황(2024년)	3
[그림 3-13]	광주 초등학생 현황 및 초등학생 수 대비 마을돌봄시설 분포 현황(2024년)	4
[그림 3-14]	대전 늘봄학교-마을돌봄시설 분포 현황(2024년)	5
[그림 3-15]	대전 초등학생 현황 및 초등학생 수 대비 마을돌봄시설 분포 현황(2024년)	6
[그림 3-16]	울산 늘봄학교-마을돌봄시설 분포 현황(2024년)	7
[그림 3-17]	울산 초등학생 현황 및 초등학생 수 대비 마을돌봄시설 분포 현황(2024년)	8
[그림 3-18]	세종 늘봄학교-마을돌봄시설 분포 현황(2024년)	9
[그림 3-19]	세종 초등학생 현황 및 초등학생 수 대비 마을돌봄시설 분포 현황(2024년)	9
[그림 3-20]	경기 늘봄학교-마을돌봄시설 분포 현황(2024년)	1
[그림 3-21]	경기 초등학생 현황 및 초등학생 수 대비 마을돌봄시설 분포 현황(2024년)	2
[그림 3-22]	강원 늘봄학교-마을돌봄시설 분포 현황(2024년)	3
[그림 3-23]	강원 초등학생 현황 및 초등학생 수 대비 마을돌봄시설 분포 현황(2024년)	4
[그림 3-24]	충북 늘봄학교-마을돌봄시설 분포 현황(2024년)	5
[그림 3-25]	충북 초등학생 현황 및 초등학생 수 대비 마을돌봄시설 분포 현황(2024년)	6
[그림 3-26]	충남 늘봄학교-마을돌봄시설 분포 현황(2024년)	7
[그림 3-27]	충남 초등학생 현황 및 초등학생 수 대비 마을돌봄시설 분포 현황(2024년)	8
[그림 3-28]	전북 늘봄학교-마을돌봄시설 분포 현황(2024년)	9
[그림 3-29]	전북 초등학생 현황 및 초등학생 수 대비 마을돌봄시설 분포 현황(2024년)	9

[그림 3-30]	전남 늘봄학교-마을돌봄시설 분포 현황(2024년)	1	5	1
[그림 3-31]	전남 초등학생 현황 및 초등학생 수 대비 마을돌봄시설 분포 현황(2024년)	2	5	1
[그림 3-32]	경북 늘봄학교-마을돌봄시설 분포 현황(2024년)	3	5	1
[그림 3-33]	경북 초등학생 현황 및 초등학생 수 대비 마을돌봄시설 분포 현황(2024년)	4	5	1
[그림 3-34]	경남 늘봄학교-마을돌봄시설 분포 현황(2024년)	5	5	1
[그림 3-35]	경남 초등학생 현황 및 초등학생 수 대비 마을돌봄시설 분포 현황(2024년)	6	5	1
[그림 3-36]	제주 늘봄학교-마을돌봄시설 분포 현황(2024년)	7	5	1
[그림 3-37]	제주 초등학생 현황 및 초등학생 수 대비 마을돌봄시설 분포 현황(2024년)	8	5	1
[그림 4-1]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IPA) 개요	4	8	1
[그림 4-2]	지역아동센터 만족도-중요도(IPA)	5	8	1
[그림 4-3]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만족도-중요도(IPA)	9	0	2



요약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000년대 들어 저출산 문제의 심화와 함께 자녀 양육과 돌봄 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됨
 - 특히 초등학생에 대한 돌봄 공백이 문제로 지적되었고, 기존의 초등돌봄 서비스는 돌봄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여 정부는 2018년부터 ‘온종일 돌봄체계’를 구축하여 추진하였으나 돌봄 공백 해소에는 한계가 있음
- 2024년부터 ‘미취학아동부터 초등학생까지 단절 없는 돌봄체계 구축’을 국정과제의 하나로 제시하고, 초등 전일제 학교를 구체화한 ‘늘봄학교’를 도입·운영함
 - 늘봄학교는 기존의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돌봄을 통합한 전일제 돌봄 시스템으로, 교육과 돌봄을 융합적으로 제공하고자 함
 - 2024년 초등학교 1학년부터 시작해, 2025년 초등학교 1~2학년, 2026년에는 전 학년으로 단계적 확대 예정임
- 늘봄학교의 도입은 지역사회에서 돌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는 마을돌봄시설(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에 영향을 미치게 됨
 - 이용 대상 아동 중복에 따른 경쟁관계 양산, 마을돌봄시설 운영 위축 가능성, 파편적 체계 지속 등의 우려가 있음
 -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는 이용 자격 기준과 비용 문제로 돌봄의 형평성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저출산에 따른 이용 아동 수 감소와 운영의 어려움도 겪고 있음
 - 따라서 2026년까지의 늘봄학교 전면 확대에 대비하여, 지역사회 기반 마을돌봄시설의 역할과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한 시점임

- 이 연구는 “늘봄학교 전면 시행 시 마을돌봄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마을돌봄시설의 역할 재정립 및 향후 발전 방향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초등 돌봄의 정책환경 변화 진단과 늘봄학교 전면 시행 시 마을돌봄시설의 영향을 분석하고 늘봄학교 시행 전후 마을돌봄시설 이용 변화를 파악함
 -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보호자와 마을돌봄시설의 의견을 반영하여 향후 마을돌봄시설 발전 방안을 모색함

2. 주요 연구 내용

- 통계 및 행정자료, 선행연구 등 문헌 자료 분석
 - 늘봄학교 및 마을돌봄시설 운영제도 현황 및 주요 쟁점 파악
- 늘봄학교 시행 후 마을돌봄시설 영향 분석
 - 전국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 대상 행정조사 실시
 - 일반 특성, 2024년 늘봄학교 시행 이후 변화, 이용 아동 현황 및 변화 파악
 - 늘봄학교 시행과 마을돌봄시설의 영향 파악을 위한 초점집단인터뷰(FGI) 실시
 - 17개 시·도 지역아동센터 지원단 실무자, 다함께돌봄센터 시설장, 초등학교 1학년 아동 보호자의 총 3개 집단으로 구분하여 집단별 FGI 실시
 - 지리 정보 시스템(GIS) 분석
 - 늘봄학교,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의 지역별 공급 현황 파악
 - 전국 단위, 광역 지자체 단위 영향 파악
- 마을돌봄시설 이용 실태조사 실시
 - 지역아동센터 또는 다함께돌봄센터(서울: 우리동네키움센터)를 이용 중인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보호자 대상
 - 센터 이용 경험, 개선 욕구, 늘봄학교 이용 여부 및 경험 파악

3. 주요 연구 결과 및 마을돌봄시설 발전방향

□ 마을돌봄시설 관련 행정조사 및 FGI 분석 결과, 늘봄학교 시행에 따른 마을돌봄 시설의 영향은 다음과 같음

○ 늘봄학교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큰 변화나 영향은 아직 나타나지 않음

- 이는 늘봄학교가 1학년을 대상으로만 시행되었고, 나머지 학년은 기존 돌봄체계를 유지했기 때문으로 보임
- 또한, 제도적 안정성이 부족하고 늘봄학교와 기존 돌봄 서비스 간의 차별성이 명확하지 않아 그 영향이 미비한 상황임

○ 늘봄학교 도입 이후 가장 큰 변화는 1학년 아동의 이용 시작 시간대가 지연됨

- 늘봄학교 참여 후 마을돌봄시설을 이용하여 센터 이용 시간대가 지연됨
- 기존에는 수업 종료 및 학교 돌봄 시간이 상이하여 저학년과 고학년의 센터 이용 시간대가 분산되었으나, 향후에는 특정 이용 시간대에 더 집중될 가능성이 있어 이를 대비한 공간 활용과 프로그램 운영 변화 준비가 필요함

○ 늘봄학교 시행 후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의 이용 아동 구성에 변화가 있음. 전반적으로 저학년 아동의 이용은 감소했지만, 고학년 아동의 이용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 다만, 이 변화는 늘봄학교의 영향보다는 아동 인구의 감소에 더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됨

○ 마을돌봄시설과 늘봄학교 간의 연계 및 협력은 아직 미진한 상태로, 연계·협력 비율이 낮고, 관련 정보가 충분히 공유되지 않음

○ 프로그램 운영이나 인력 유출에는 큰 변화가 없었으나, 일부 센터에서는 늘봄학교로 강사 등이 이동하여 인력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낮은 근무환경과 처우 문제로 인해 향후 인력 유출이 우려되는 상황임

○ 학부모들은 늘봄학교와 마을돌봄시설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고, 관련 정보를 충분히 습득하지 못한 상태로, 특히, 늘봄학교와 마을돌봄시설이 연계하여 운영될 수 있다는 정보는 학교 안내에서 제대로 전달되지 않음

- 마을돌봄시설을 이용하는 학부모들은 대체로 이용 만족도가 높았지만, 프로그램 질 향상과 인프라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됨

□ 본 연구에서 도출한 마을돌봄시설의 발전 방안은 다음과 같음

- 지속 평가와 점검을 통해 마을돌봄시설 특성화 확대를 고민할 필요가 있음
 - 특히 기존 운영되고 있는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을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며 장애·다문화가정 아동 등 특수한 돌봄 욕구를 가진 아동에 대한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비와 인건비 지원 확대, 전문 프로그램 개발과 인력의 전문성을 확보해야 함
 - 다양한 특성화 대상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통합 운영 센터의 확대도 필요함
- 늘봄학교-마을돌봄시설 간 프로그램 공유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급·간식비 무료 지원 확대 방안을 제안함
 - 범부처 계획에 따라 마을돌봄시설에도 늘봄학교와 유사한 수준의 돌봄 프로그램 제공이 필요함.
 - 마을돌봄시설에는 돌봄 아동 집중 시간대에 추가 인력 배치가 필요함
- 마을돌봄시설 역할 재정립 관점에서 지역아동센터는 일반아동 비중을 지속 확대하되, 대기자 발생 시 우선돌봄아동 자격기준을 적용할 것을 제안함.
- 마을돌봄시설과 늘봄학교의 연계·협력 강화를 위해 체계적인 거버넌스 구축과 상호 지원의 역할 수행 방안을 마련하고, 마을돌봄시설의 지역사회 내 인지도 제고를 위해 오픈하우스(Open House) 방식의 전략적·적극적 홍보가 필요함

주요 용어: 늘봄학교, 마을돌봄시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2000년대 들어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가 더욱 가속화되면서 저출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자녀 양육과 돌봄의 문제가 대두되었다(김두섭 외, 2007). 그러나 저출산 대응 정책은 미취학 영유아 양육지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자녀를 본격적으로 양육·교육하는 시기인 초등학교 이후 아동에 대한 돌봄은 사각지대에 놓이는 문제점이 지속 지적되었다(김은정 외, 2019). 초등 학령기 아동은 대부분 정규수업이 오후 3시 이전에 종료되고 초등학교 저학년은 이보다 더 일찍 하교하므로, 특히 맞벌이 가정 중심으로 방과 후 돌봄 수요가 높음에도 초등돌봄교실이나 방과후학교와 같은 학교돌봄은 공급이 수요에 비해 부족하여 돌봄 공백 문제가 해소되지 못하였다(임혜정, 2017). 이에 따라 초등 아동 돌봄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정과제의 하나로 범정부 차원의 ‘온종일 돌봄체계’를 구축하여 맞벌이 또는 취약계층 가구의 방과 후 및 방학 중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와 지역사회, 공공기관 등이 협업하는 돌봄 제도를 추진하였다(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 2018년부터 구축된 온종일 돌봄체계는 초등학생이 방과 후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시간에’ 접근하기 편한 학교와 지역사회 내 공공시설에서 돌봄을 받고, 아동들의 흥미·적성·진로를 고려해 다양한 방과 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이희현 외, 2021). 따라서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돌봄센터와 같은 마을돌봄시설이 학교 내에서의 공적 돌봄 공백에 대한 보완적 역할을 지역사회에서 수행하도록 하였다. 즉, 온종일 돌봄은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방점을 두고 학교돌봄과 마을돌봄의 연계·협력을 통해 수요자인 아동 중심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빈틈없는 통합 돌봄 체계를 완성하고자 한 공공성 강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이희현 외, 2021).

그러나 학교돌봄은 교내 공간 부족, 이용 자격요건 등으로 인하여 증가하는 돌봄 수

요를 여전히 충족하지 못하였고, 마을돌봄은 낮은 인지도 및 이해도와 함께 지역 특성에 따른 이용 아동 수에서 차이를 보여 돌봄 공백 해소에 한계를 보였다(양윤이, 양애정, 2022; 정혜주 외, 2023). 또한 부처 간 분절성을 극복하지 못하여 학교돌봄과 마을돌봄의 연계·협력 활성화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다(김은정 외, 2021).

현 정부도 미취학아동부터 초등학생까지 단절 없는 돌봄체계 구축을 국정과제의 하나로 제시하고, 초등 전일제 학교를 구체화한 ‘늘봄학교’를 도입하였다. 2018년부터 추진하였던 온종일 돌봄체계 확대의 연장선으로 초등 전일제 학교 도입 논의가 이루어졌고, 2023년 시범사업 이후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늘봄학교가 추진되었다(정재훈, 2023). 즉, 늘봄학교는 새롭게 추진되는 성격의 초등돌봄 제도가 아니라, 교육부 차원에서도 이원화되어 분절적으로 운영되는 현행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돌봄을 단일체제로 통합·전환하는 제도이다(교육부, 2024). 무엇보다 기존 초등 학령기 아동 대상의 돌봄 제도와 달리 별도 ‘자격 기준 없이’, ‘희망하는 학생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교육부, 2024). 지난 정부의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은 지자체와 마을돌봄을 중심으로 운영체제를 구축하고자 하였던 반면, 현재 정부의 ‘늘봄학교’는 총괄 사업주체를 교육청으로 명시함으로써 돌봄 기능뿐만 아니라 교육 기능을 강조하고자 한 차이가 있다.

특히 늘봄학교는 학교 중심으로 초등교육·돌봄을 융합적으로 제공하고자 한다. 교육부가 2024년 2월 발표한 “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에 의하면, 늘봄학교는 방과 전·후인 오전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운영하고, 정규수업 이외의 프로그램을 매일 2시간씩 무료로 제공한다. 다만, 시행 첫해인 2024년에는 초등학교 1학년, 2025년에는 초등학교 1~2학년, 2026년에는 1~6학년까지 모든 초등학생에게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학교 내 공간이나 담당 인력 등 인프라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시·도 교육(지원)청이나 학교별 특성에 맞게 마을돌봄시설을 포함한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교육부, 2024).

이처럼 초등돌봄 정책이 늘봄학교 중심으로 전국 확대되면, 지역사회에서 돌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는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돌봄센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마을돌봄시설 종사자나 아동돌봄 관련 전문가들은 늘봄학교 조기 시행에 따라 이용 대상 아동 중복에 따른 경쟁관계 양산, 마을돌봄시설 운영 위축 가능성, 교육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등의 파편적 아동돌봄체계 지속, 장시간 학교교육·돌봄을 통

한 아동권 침해 등의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무엇보다 늘봄학교와 달리, 지역아동센터는 우선돌봄을 위한 이용 자격 기준이 존재하고, 다함께돌봄센터 역시 지역여건과 센터 정원을 고려하여 입소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으며 이용 비용도 요구되므로 부처 간 분절성 외에 지원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대다수 운영주체가 민간인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이용 수요 변화에 따라 운영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며, 다함께돌봄센터는 기존에 목표한 전국적 확대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 특히,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돌봄센터는 저출생으로 인한 이용 아동수 감소에 당면해 있고, 여전히 극복하지 못하는 여러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2026년 늘봄학교 전면 확대에 대응한 지역사회 기반 마을돌봄시설의 역할을 심도 있게 고민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 되었다.

2. 연구의 목적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최근의 초등돌봄 정책환경 변화를 학교돌봄과 마을돌봄을 포괄하여 진단하고,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를 중심으로 향후 늘봄학교 전면 시행 시 이들 마을돌봄시설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늘봄학교 시행 전·후 마을돌봄시설 이용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수요자인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보호자와 공급자인 마을돌봄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늘봄학교와 차별되는 마을돌봄시설 발전방향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종합하면,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늘봄학교 전면 시행 시 마을돌봄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마을돌봄시설 역할 재정립 및 향후 발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본 연구의 내용은 네 영역으로 구성되며, 해당 연구 내용 수행을 위해 문헌분석과 양적 및 질적 조사 등의 연구 방법을 활용한다. 구체적인 연구의 내용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늘봄학교와 마을돌봄시설 운영 제도 현황 및 주요 쟁점 분석이다(제2장).

통계자료, 행정자료, 선행연구 등 문헌자료를 분석 시·도교육청 및 시·도청 간담회 하여 늘봄학교 추진 동향, 마을돌봄시설 제도 현황, 주요 쟁점을 파악한다. 늘봄학교의 도입 배경, 추진방향 및 추진과제, 운영체계와 2024년 늘봄학교 운영 및 이용 현황, 마을돌봄시설인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의 제도 현황을 살펴본다. 향후 늘봄학교 전면 확대를 앞두고 마을돌봄시설과 늘봄학교 간 연계·협력 측면에서 제기된 주요 쟁점을 제시한다.

둘째, 늘봄학교 시행 후 마을돌봄시설 영향분석이다(제3장)

현재 공표된 통계자료는 2022년 말 기준으로, 2024년 최근 현황 및 변화 파악에 한계가 있어 전국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를 대상으로 행정조사를 실시한다. 2024년 늘봄학교 시행 전·후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변화와 영향을 파악한다. 2024년에도 늘봄학교 시행이 단계별로 추진되었으므로 시행시기를 1학기, 여름방학, 2학기로 구분한다. 다음으로 17개 시·도 지역아동센터 지원단 실무자, 다함께돌봄센터 시설장, 초등학교 1학년 아동 보호자를 대상으로 질적 조사인 초점집단면접(FGI)을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지리정보시스템(GIS) 분석을 실시하여 늘봄학교-마을돌봄시설 공급 영향을 파악한다. 구체적으로 전국 및 17개 시·도별 늘봄학교, 마을돌봄시설(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분포 현황, 초등학생 수 대비 마을돌봄시설 수, 저출산 영향에 따른 향후 초등학생 인구변화를 살펴본다. 이를 통해 2026년 늘봄학교 전면 도입에 따른 마을돌봄시설에의 영향을 종합 진단한다.

셋째, 늘봄학교 시행 후 마을돌봄시설 이용자 측면의 이용 영향분석이다(제4장).

구조화된 설문지를 개발하여 현재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하는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양적 조사인 “마을돌봄시설 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마을돌봄시설 이용 경험 및 개선 욕구, 늘봄학교 이용 경험 및 향후 의향을 파악한다.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기관 유형별, 17개 시·도별, 지역특성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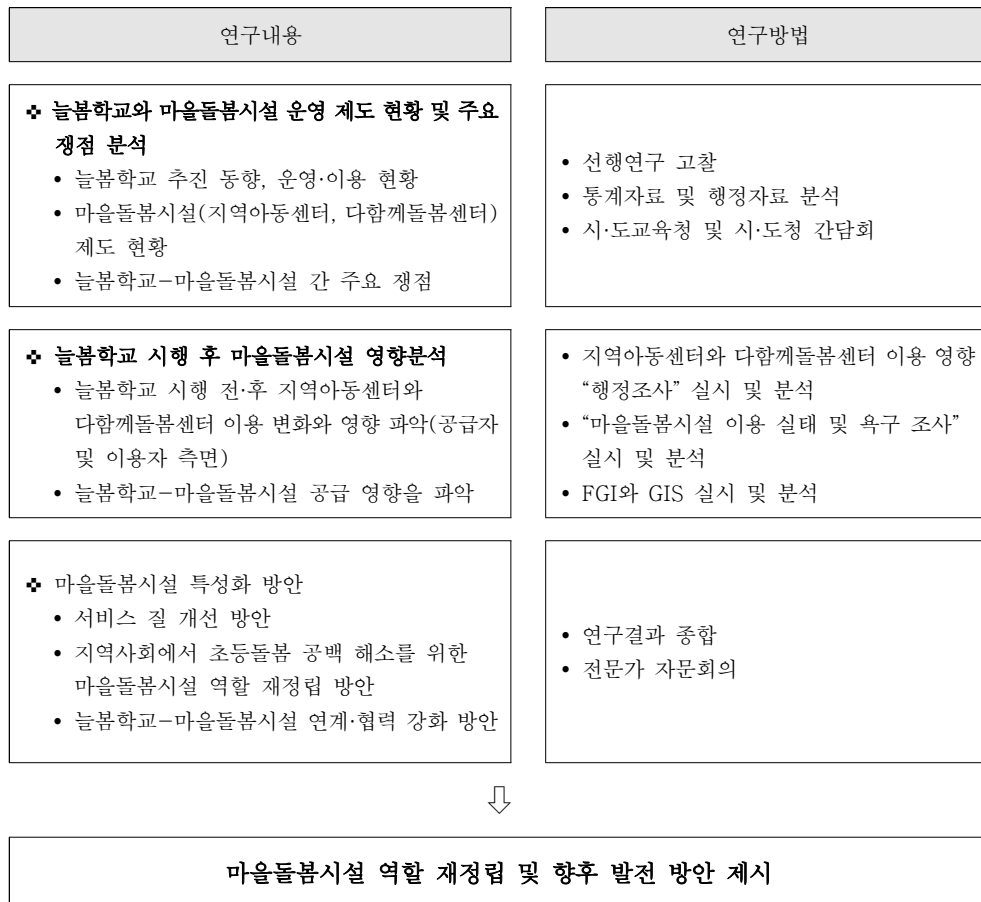
시지역 vs. 농어촌지역)로 분석한다. 표본조사로 수행되며, 응답자의 자기기입식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을 채택한다.

넷째, 위의 연구 내용을 종합하고, 마을돌봄시설 발전방향을 도출한다(제5장).

문헌분석, 조사결과 분석, GIS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마을돌봄시설 발전방향과 역할 재정립 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늘봄학교-마을돌봄시설 연계·협력 강화 방안을 제시한다. 특히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마을돌봄시설의 ‘늘봄센터’로의 명칭 변경(안) 등을 포함하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2024.6.19.) 계획에 대응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내용과 방법에 따른 연구수행체계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그림 1-1] 연구수행체계





제 2 장

늘봄학교와 마을돌봄시설 운영 제도 현황 및 주요 쟁점

- 제1절 늘봄학교 추진 동향
- 제2절 마을돌봄시설 제도 현황
- 제3절 주요 쟁점 및 시사점

제 2 장

늘봄학교와 마을돌봄시설 운영 제도 현황 및 주요 쟁점

제1절 늘봄학교 추진 동향

1. 늘봄학교 도입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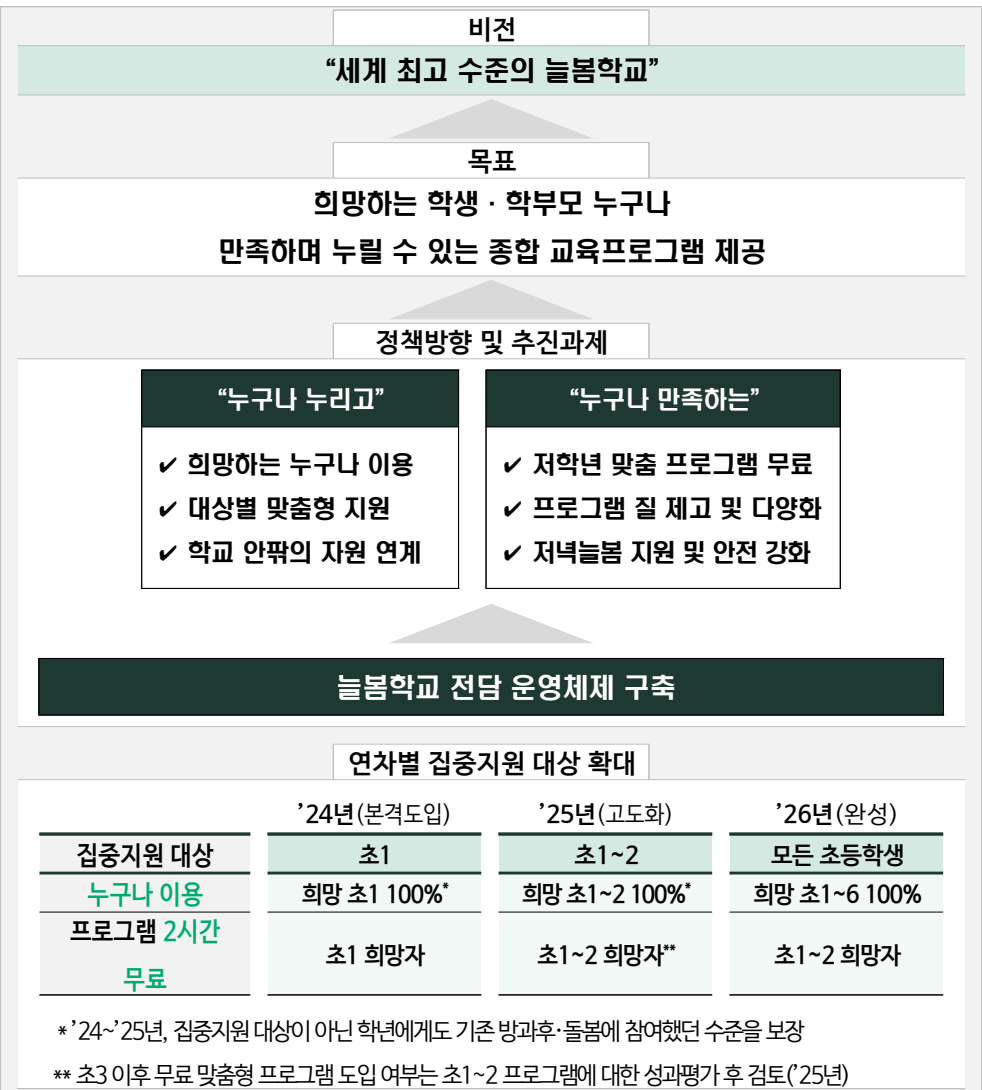
정부는 기존 초등 돌봄과 방과 후 체계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2023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4년 늘봄학교를 본 사업으로 시행하였다. 기존 초등돌봄체계는 돌봄 수요 대비 공급 부족에 따른 대기 아동 발생, 교내 공간 제약에 따른 제한적인 돌봄교실 확대,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의 이원화된 운영에 따른 비효율성, 제한적 프로그램의 운영과 전반적인 서비스 수준의 문제, 초등돌봄교실 및 방과후학교 운영에 따른 교사의 행정업무 부담에 따른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에도 불구하고 학교 중심의 돌봄과 지역 중심의 돌봄이 융합되지 못하고, 지역 중심 돌봄 내에서도 부처별로 다른 기관을 운영하는 등 서비스가 분절적으로 제공되는 한계가 존재하였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2024년 2월, 교육부는 “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을 발표하였다. 늘봄학교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84. 국가 교육책임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의 일환으로 기존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의 이중체계를 통합·개선하여 단일체제로 전환하는 학교 중심의 초등돌봄정책이다. 초기에는 ‘초등 전일제 학교’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전일제 학교는 학생을 종일 학교에 머물도록 한다는 부정적 인식이 있어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용어로 ‘늘 봄처럼 따뜻한 학교’라는 의미를 담아 ‘늘봄학교’라는 이름으로 변경하였다(교육부, 2023). 2023년 1학기부터 5개 교육청, 214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늘봄학교’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으며 2023년 2학기에는 시범사업 학교를 확대하였다. 2024년부터는 시범사업을 종료하고 1학년을 시작으로 본격 도입되었다.

2. 늘봄학교 추진방향 및 추진과제

교육부(2024)의 늘봄학교 추진방안에 따르면, 늘봄학교의 비전은 ‘세계 최고 수준의 늘봄학교’이며, ‘희망하는 학생·학부모 누구나 만족하며 누릴 수 있는 종합 교육프로그램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림 2-1] 늘봄학교 추진체계



자료: 교육부, (2024). 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 p.5.

정책 추진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누구나 누리는 늘봄학교’, ‘누구나 만족하는 늘봄학교’이며, 이를 위해 각각 세 개의 추진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그림 2-1] 참조). 이와 같은 추진방향 및 추진과제는 늘봄학교 전담 운영체제 구축을 바탕으로 수행된다. 다만, 현재 늘봄학교는 도입 초기로 완전히 정착된 제도가 아니므로 운영 과정에 대한 평가 및 논의 과정을 통해 향후 추진 과제나 운영 방향 및 방식은 다소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가. (정책방향 ①) ‘누구나 누리는 늘봄학교 추진’

첫 번째 정책방향인 ‘누구나 누리는 늘봄학교 추진’을 위해 다음의 세 가지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첫째, 희망하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이용 대상을 2024년에는 초등학교 1학년으로 한정하고, 2025년에는 1~2학년까지 확대하며, 2026년에 1~6학년까지 모든 초등학생으로 연차별로 확대할 계획이다. 늘봄학교에서 강조하는 주요 특징은 자격 기준 없이 원하는 학생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하루 2시간 무료 프로그램이 제공된다는 점이다. 또한 늘봄학교는 기존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가 통합된 형식을 취하므로 방과후 프로그램이나 돌봄교실 중 선택하는 방식이 아니라 시간대별 수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2024년 1학기에는 늘봄학교 참여를 희망하는 2,000여 개 초등학교에서 우선 운영하고,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운영할 예정이다. 현재는 운영 과다기로 초1 맞춤형 무료 프로그램, 돌봄, 방과후 중 선택할 수 있다. 향후 운영시간은 기존 방과후학교와 돌봄 시간(오후 1~5시 중심)보다 연장하여, 아침 또는 정규수업 후 희망 시간까지(최장 오후 8시)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다만, 학생·학부모 수요를 바탕으로 교육청·학교별 여건에 맞는 방식으로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둘째, 대상별 맞춤형 지원 강화 방안으로 장애학생, 이주배경학생, 저소득층 등 누구나 늘봄학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 대상별 맞춤형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상별 지원 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2-1〉 늘봄학교 대상별 맞춤형 지원 내용

구분	지원 내용
장애학생	- 일반학교뿐만 아니라 특수학교 초등과정도 지원 • 다양한 지원 인력 확대 (보조강사, 시간제 인력, 퇴직교원, 자원봉사자, 예비 특수교사 등) 및 맞춤형 교재교구 제공 - 지역사회 장애학생 지원 전문기관과 연계한 맞춤형 늘봄 프로그램 운영학교 확대 - 장애학생이 희망할 경우, 학교 밖 지역사회 방과후·돌봄서비스 이용 지원
이주배경학생	- 맞춤형 한국어 교육 제공 및 기초학습 지원 등을 위한 대학생 멘토링 제공 -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의 늘봄학교에서는 이중언어 능력향상 및 글로벌 마인드 함양 프로그램 등 개발·운영 - 늘봄학교의 예·체능 프로그램을 통해, 함께 소통·협력 기회 확대 - 이주배경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부모 교육, 가족 단위 교류 기회 등 확대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 현행 저소득층 등 중심으로 지원 중인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 대상 및 사용처 확대·개편한 ‘늘봄 바우처’ 도입

자료: 교육부, (2024). 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 pp.9-10 내용 재구성.

셋째, 학교 안팎의 다양한 자원 연계를 위해서는 학교 공간 확충 및 수요에 맞는 탄력적 활용과 함께 학교 밖 다양한 교육자원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한 학교 안과 학교 밖 자원 활용·연계 방안은 다음과 같다.

〈표 2-2〉 늘봄학교 관련 학교 안팎의 다양한 자원 연계 방안

구분	내용
학교 안	- (공간 확충·개선) 늘봄교실(기존 돌봄교실) 확충, 학교공간 리모델링, 모듈러 교실 설치 추진 - (기존 공간 활용) 늘봄과정(기존 방과 후 및 돌봄)에 따라 학교 여건에 맞게 특별실, 도서관, 일반교실 등 탄력적 활용 - (효율적 운영) 학생의 공간별 이용시간을 분석하여 공간 활용을 시간대별로 효율화하고 공간 재배치 추진 - (늘봄교실 학생수 자율화) 늘봄교실(기존 돌봄교실) 1개 실당 학생수를 교육청, 학교별 여건에 맞게 자율 운영
학교 밖	- (거점형 늘봄센터) 인근 과대·과밀 학교의 늘봄학교 수요 흡수를 위한 거점형 센터 신축 또는 지정·운영 - (대학) 대학 내 유휴공간 등을 활용한 늘봄 프로그램 위탁 - (지자체) 아파트단지 내 공간, 체육공간, 도서관, 복지공간 등 지자체의 다양한 공간을 늘봄학교와 연계·활용 • 교육청, 지자체, 교원단체 등이 참여하는 가칭 ‘지역늘봄협의체’ 활용(기존의 초등돌봄협의체를 지역늘봄협의체로 전환·운영 추진) - (지역기관) 지역의 방과후·돌봄기관(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과 연계·협력 - (교육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를 활용하여, 학교-지역사회 간 연계형 늘봄학교 모델 발굴·확산 추진 - (인력활용) 퇴직교원, 실버인력, 교수, 대학생, 학부모, 자원봉사자, 행정인력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인력풀 활용
기타	- 공간, 인력 확보 및 지자체, 지역사회 연계협력 등의 내용을 담은 늘봄학교 관련 법적 근거 마련 추진

자료: 교육부, (2024). 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 pp.11-13 내용 재구성.

나. (정책방향 ②) ‘누구나 만족하는 늘봄학교 추진’

두 번째 정책방향인 ‘누구나 만족하는 늘봄학교 추진’을 위해서도 세 가지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늘봄학교 만족도 향상을 위한 추진과제는 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영 영역이 주로 해당한다.

첫째, 저학년 대상의 하루 2시간의 무료 맞춤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과 다른 초등학교 하교 시간에 따라 발생하는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 교육 및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2026년의 초등학교 3학년 이후 무료 맞춤형 프로그램 도입 여부는 초 1~2 무료 프로그램 제공의 성과평가 결과 및 지방교육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검토될 예정이었으나(교육부, 2024),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2027년까지 전 학년에 무료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4). 프로그램의 구성은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의 학교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놀이 중심의 예·체능, 사회·정서 관련 프로그램을 학교 여건에 맞게 제공하며 교육부와 지자체 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강사 섭외 및 학교-강사 간 매칭을 지원한다. 프로그램 강사는 외부 강사를 원칙으로 하되, 희망하는 교원은 강사로 참여 가능하다. 강사 섭외를 위해서는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의 다양한 사업에서 이미 확보된 외부강사 인력풀을 적극 활용하여 지원한다. 저학년 맞춤형 프로그램 강사 섭외 및 운영과 관련한 기관별 역할은 다음과 같다.

〈표 2-3〉 늘봄학교 저학년 맞춤형 프로그램 강사 관련 기관별 역할(안)

구분	역할
교육부	• 중앙 단위 프로그램 우수 공급처 발굴 및 업무협약 등 추진 • 한국과학창의재단, 문화예술교육진흥원, 대한체육회 등 연계·협력
교육(지원)청	• 학교 대상 수요조사 및 강사 인력풀 마련, 강사 섭외, 매칭 지원 • 강사 연수 및 강사료 지급·수강료 환불 등 학교 회계업무 지원
학교	• 강사 수요 제출(→ 교육(지원)청), 프로그램 운영공간 제공 등

자료: 교육부, (2024). 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 p.15.

둘째, 앞서 기술한 내용이 저학년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한 내용이라면, 만족도 향상을 위한 두 번째 추진과제는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늘봄학교 프로그램의 질 제고 및 다양화이다. 사교육과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미래역량 함양, 진로탐

색 등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4b).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 기관, 대학, 기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우수 공급처를 지속 확대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여 프로그램 공급처를 개방화하며, 여타 사업과 연계·협력을 지원한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2-4〉 늘봄학교 프로그램(초1~6) 질 제고 및 다양화 방안

구분	내용
프로그램 우수 공급처 확대	- (지자체) 도서관, 박물관, 역사관, 유적지, 문화·예술 및 체육시설 등과 연계·협력하여 다양한 교육경험 지원 - (지역대학) 대학의 우수 인적·물적 인프라를 활용하여, 전문성 있는 양질의 프로그램 제공 - (단체·협회) 예·체능, 디지털, 경제 분야 등 다방면의 단체·협회와 연계·협력 추진 - (기업·언론사 등) 늘봄학교와 기업, 언론사 등이 보유한 특화형 프로그램 연계 및 기업의 교육 사회공헌 활용
온라인 플랫폼 구축	- 학교가 직접 전국의 우수프로그램을 탐색·연결할 수 있게 지원하는 온라인 플랫폼(가칭, '늘봄허브') 구축('24년 하반기 개통) - 대학, 기업, 기관, 전문가 등 공급자 간 경쟁을 통해 양질의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도록 플랫폼 구축·운영 - (가칭)'늘봄허브'를 통해, 전국 늘봄학교의 프로그램 수요·공급분석 및 교육청·학교별 프로그램 격차 해소 지원
여타 사업과 연계·협력	- (체육·예술 프로그램) 학생 체육·예술 동아리 프로그램을 늘봄학교에서 활용하여 운영 내실화 및 확대 추진 - (AI·디지털 프로그램) 학생의 디지털역량 함양을 위한 민관협력 '디지털 새싹' 사업을 늘봄학교에 우선지원 - (진로체험) 지역사회 진로체험기관을 활용하여, 늘봄학교 안팎에서 학생들이 다양한 진로체험을 할 수 있게 지원 - (기초학력) 정규수업 외에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학습지원 대상 학생 지원 프로그램을 늘봄학교와 연계 운영

자료: 교육부, (2024). 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 pp.16-17 내용 재구성.

셋째, 만족도 향상을 위한 세 번째 추진 과제는 저녁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해 저녁 늘봄을 지원하고, 늘봄학교 참여 학생을 위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것으로 세부 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2-5〉 저녁늘봄 지원 및 안전관리 강화 방안

구분	역할
저녁늘봄 식식비 지원	- 저녁 늘봄학교 이용 학생에게 저녁식비 전액 지원('23년, 약 8,562명)
늘봄학교 안전관리 강화	- (늘봄학교 맞춤형) 학교 안팎으로의 이동이 있는 늘봄학교 운영방식에 맞게 안전관리 강화 추진, 늘봄학교 전담조직인 늘봄지원실은 연초에 늘봄학교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연말에 평가를 통해 차년도 안전계획에 반영 - (학교 밖 안전) 거점형 늘봄학교, 지역의 늘봄 프로그램 운영 공간 등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통학버스 등을 지원, 학교 밖 이동시, 늘봄학교 안전인력 인솔하에 안전한 교통수단으로 이동 - (안전인력) 교육청·학교별 여건에 따라, 늘봄 안전인력을 채용·배치하고, 다양한 지역사회 인력 등을 활용 - (안전시스템) 이동 동선 등을 고려하여 CCTV·비상벨·인터폰 등을 설치하고, 필요한 안전장치 등을 보강

자료: 교육부, (2024), 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 p.18 내용 재구성

다. 늘봄학교 전담 운영체제 구축

교육부(2024)의 늘봄학교 추진방안에서는 ‘누구나 만족하고’, ‘누구나 누리는’ 늘봄교실 운영을 위해서 ‘늘봄학교 전담 운영체제 구축’을 추진한다. 이는 교사의 늘봄학교 관련 행정부담을 해소하고 늘봄학교의 안정적 추진을 위함이다. 전담 운영체제는 학교에 설치되는 전담 조직인 늘봄지원실을 기반으로 운영되며 인력구성은 늘봄지원실장, 늘봄실무직원, 늘봄전담사, 늘봄프로그램 강사로 구성되며 자격 및 역할은 다음과 같다.

〈표 2-6〉 늘봄지원실 구성 및 구성원 역할

구분	자격	역할
늘봄지원실장	- 큰 학교는 지방공무원(전문직 또는 교육 행정직) 전임발령 - 그 외 학교는 늘봄지원센터 공무원 또는 교감이 담당	- 늘봄지원실 업무 책임
늘봄실무직원	- 시도교육청별 여건에 따라 공무원, 공무원, 단기계약직, 퇴직교원 등으로 채용	- 행정업무 전담 - 운영계획 수립, 프로그램 편성, 강사선정·관리, 민원처리, 수요조사 등 행정업무 일체
늘봄전담사	- 기존 돌봄전담사 명칭변경, 공무원	- 기존 돌봄전담사 업무
늘봄프로그램 강사	- 기존 방과후 강사 명칭 변경 - 외부강사 또는 교사	- 기존 방과후 강사 업무

자료: 교육부, (2024), 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 p.19 내용 재구성.

3. 늘봄학교 운영·이용 현황

가. 늘봄학교 참여 학교

2024년 늘봄학교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을 우선 대상으로 운영하였으며, 1학기에
는 2,741개교로 시작하여 점차 확대되어 6월 28일 기준 2,963개교(전체 초등학교의
48%)에서 운영하였다. 그리고 2학기부터는 전체 초등학교 6,185개교 및 초등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 178개교에서 운영하고 있다(교육부, 2024).

〈표 2-7〉 늘봄학교 참여 학교 현황(2024년)

(단위: 개교)

구분	1학기			2학기			
	3.11.기준 ¹⁾	3.29.기준 ²⁾	6.28.기준 ³⁾	8.9.기준 ⁴⁾			9.27.기준 ⁵⁾
				개학 전	개학 후	소계	
서울	38	38	150	586	19	605	605
부산	304	304	304	302	2	304	304
대구	70	70	70	240	—	240	240
인천	60	60	60	244	21	265	265
광주	32	32	45	154	—	154	154
대전	45	45	45	149	2	151	151
울산	24	24	24	114	7	121	121
세종	25	25	25	54	—	54	54
경기	975	975	975	1,291	54	1,345	1,345
강원	84	84	84	347	—	347	347
충북	100	100	100	241	14	255	255
충남	118	119	119	413	1	414	414
전북	75	143	143	412	1	413	413
전남	425	425	425	426	—	426	426
경북	152	180	180	461	7	468	468
경남	159	159	159	501	8	509	509
제주	55	55	55	114	—	114	114
계	2,741	2,838	2,963	6,051	134	6,185	6,185

주: 본 자료는 교육부의 늘봄학교 보도자료 내 늘봄학교 준비 상황 통계를 일자별로 정리한 자료임.

자료: 1) 교육부. (2024). 늘봄학교, 초1학년 12.8만명 혜택 본다.

2) 교육부. (2024). 늘봄학교 한 달, 참여학교·학생 크게 늘었다!.

3) 교육부. (2024). 범부처 협력을 통해 늘봄학교 운영을 성공적으로 이어 나간다.

4) 교육부. (2024). 2024년 2학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학교 도입.

5) 교육부. (2024). 제8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8차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 회의 개최.

나. 늘봄학교 이용 아동

2024년 1학기 시작 이후인 3월 11일 기준, 늘봄학교 참여 초등학교의 1학년 학생 182,018명 중 127,874명(70.3%)이 늘봄학교 이용을 희망하였다. 이용 아동 수는 점차 증가하여 6월 28일 기준, 늘봄학교 참여 초등학교 1학년 학생 총 189,683명 중 153,009명(약 80.7%)이 이용하였다. 9월 27일 기준, 전국 모든 초등학교의 1학년 아동 352,769명 중 291,973명이 참여하여 약 82.7%의 1학년 학생이 참여하였다. 주지하다시피 2024년 1학기에는 희망하는 초등학교만 늘봄학교를 운영하였고, 2학기부터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운영하도록 하였다. 특수학교에서도 9월 27일 기준, 초등학교 1학년 학생 1,640명 중 73.4%인 1,205명이 참여하였다.

2024년 교육부에서 발표한 이용 현황 자료들을 종합하면, 2학기 개학 전(8월 9일 기준) 늘봄학교 참여를 희망하였던 초등학교 1학년 약 28만명(참여율 80.0%) 대비 9월 27일 기준으로 약 1.3만명이 증가(참여율 약 1.7% 상승)한 것으로 파악된다. 즉, 2학기 수업 시작 이후 늘봄학교를 이용하는 초등학교 1학년의 수는 점차 증가하였다. 초등학교 1학년 아동 대상 늘봄학교 프로그램은 ① 초1 맞춤형 프로그램(무료, 2시간), ② 늘봄(방과후) 프로그램, ③ 늘봄(돌봄) 프로그램의 3개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인 늘봄학교 이용 아동 현황 및 추세 변화는 다음의 표에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24 늘봄학교 시행에 따른 마을돌봄시설 영향분석 및 발전방향 연구

〈표 2-8〉 늘봄학교 이용 초1 아동 현황(2024년)

(단위: 명)

구분	1학기						2학기					
	3.11.기준 ¹⁾		3.29.기준 ²⁾		6.28.기준 ³⁾		8.9.기준 ⁴⁾				9.27.기준 ⁵⁾	
							개학 전 학교		개학 후 학교			
	초1 학생		초1 학생		초1 학생		초1 학생		초1 학생		초1 학생	
	전체 학생	희망 학생	전체 학생	희망 학생	전체 학생	희망 학생	전체 학생	희망 학생	전체 학생	희망 학생	전체 학생	희망 학생
서울	2,532	1,745	2,530	1,702	8,582	7,333	46,128	32,860	1,446	960	51,330	41,786
부산	21,086	14,781	20,924	18,897	20,924	18,897	20,697	18,727	144	115	20,841	18,842
대구	3,995	2,924	3,995	3,315	3,994	3,417	16,588	13,814	—	—	16,597	14,210
인천	5,366	4,009	5,366	4,009	5,375	4,574	19,846	17,777	1,804	1,619	21,705	19,435
광주	2,142	1,958	2,142	1,930	2,603	2,236	10,884	7,839	—	—	10,868	8,830
대전	1,978	1,633	1,991	1,739	1,984	1,802	10,044	7,725	126	107	10,247	7,877
울산	563	436	566	453	563	473	8,131	6,680	534	442	8,665	7,177
세종	1,178	930	1,151	956	1,170	1,010	4,760	3,932	—	—	4,727	4,041
경기	90,022	57,716	90,022	57,702	90,580	67,791	101,843	78,579	1,366	994	104,354	82,126
강원	6,675	5,275	6,675	5,275	6,643	5,497	9,175	7,872	—	—	9,175	7,872
충북	4,669	3,154	4,669	3,967	4,669	3,992	10,660	8,352	429	328	11,178	8,960
충남	9,693	8,420	9,879	8,545	9,879	8,545	15,887	11,873	26	26	15,922	12,512
전북	3,654	3,361	4,072	3,737	4,062	3,668	11,170	10,471	8	8	11,178	10,460
전남	11,265	8,543	11,095	9,726	11,095	9,730	11,155	9,790	—	—	11,155	9,790
경북	6,004	4,622	6,190	4,792	6,335	5,235	15,877	12,631	230	162	16,041	13,455
경남	6,928	4,858	6,928	4,858	6,928	4,858	23,099	19,265	266	251	23,365	19,513
제주	4,268	3,509	4,298	3,996	4,297	3,951	5,439	5,087	—	—	5,421	5,087
계	182,018	127,874	182,493	135,599	189,683	153,009	341,383	273,274	6,379	5,012	352,769	291,973

주: 본 자료는 교육부의 늘봄학교 보도자료 내 늘봄학교 준비 상황 통계를 일자별로 정리한 자료임.

자료: 1) 교육부. (2024). 늘봄학교, 초1학년 12.8만명 혜택 분다.

2) 교육부. (2024). 늘봄학교 한 달, 참여학교·학생 크게 늘었다!

3) 교육부. (2024). 범부처 협력을 통해 늘봄학교 운영을 성공적으로 이어 나간다.

4) 교육부. (2024). 2024년 2학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학교 도입.

5) 교육부. (2024). 제8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8차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 회의 개최.

다. 늘봄학교 전담인력

늘봄학교 전담인력은 늘봄학교 도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신규 업무가 기존 교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한 지원으로, 기간제 교원, 기타 행정인력, 늘봄실무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담인력은 1학기가 시작된 시점인 3월 11일 기준 3,477명으로 학교당 1.3명 수준으로 파악되었으나, 그 수가 증가하여 가장 최근인 9월 27일 기준으로 학교당 1.5명 수준인 9,250명이 늘봄학교 행정업무를 전담하고 있다(교육부, 2024).

〈표 2-9〉 늘봄학교 전담인력 현황(2024년)

(단위: 명)

구분	1학기						2학기			
	3.11.기준 ¹⁾		3.29.기준 ²⁾		6.28.기준 ³⁾		8.9.기준 ⁴⁾		9.27.기준 ⁵⁾	
	계	학교당	계	학교당	계	학교당	계	학교당	계	학교당
서울	70	1.8	74	1.9	336	2.2	834	1.4	713	1.2
부산	328	1.1	328	1.1	328	1.1	692	2.3	692	2.3
대구	130	1.9	130	1.9	130	1.9	321	1.3	588	2.4
인천	118	2.0	118	2.0	118	2.0	611	2.3	613	2.3
광주	41	1.3	41	1.3	103	2.3	177	1.1	188	1.2
대전	45	1.0	45	1.0	45	1.0	270	1.8	271	1.8
울산	48	2.0	48	2.0	48	2.0	175	1.4	233	1.9
세종	30	1.2	30	1.2	30	1.2	74	1.4	74	1.4
경기	1,149	1.2	1,173	1.2	1,589	1.6	1,685	1.3	1,715	1.3
강원	168	2.0	168	2.0	168	2.0	671	2.0	671	2.0
충북	108	1.1	108	1.1	108	1.1	315	1.2	366	1.4
충남	172	1.5	175	1.5	175	1.5	549	1.3	549	1.3
전북	87	1.2	156	1.1	156	1.1	412	1.0	412	1.0
전남	446	1.0	460	1.1	474	1.1	473	1.1	473	1.1
경북	243	1.6	283	1.6	291	1.6	992	2.1	1,026	2.2
경남	207	1.3	207	1.3	207	1.3	508	1.0	509	1.0
제주	87	1.6	90	1.6	90	1.6	157	1.4	157	1.4
계	3,477	1.3	3,634	1.3	4,396	1.5	8,916	1.4	9,250	1.5

주: 본 자료는 교육부의 늘봄학교 보도자료 내 늘봄학교 준비 상황 통계를 일자별로 정리한 자료임.

자료: 1) 교육부. (2024). 늘봄학교, 초1학년 12.8만명 혜택 본다.

2) 교육부. (2024). 늘봄학교 한 달, 참여학교·학생 크게 늘었다!.

3) 교육부. (2024). 범부처 협력을 통해 늘봄학교 운영을 성공적으로 이어 나간다.

4) 교육부. (2024). 2024년 2학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학교 도입.

5) 교육부. (2024). 제8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8차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 회의 개최.

라. 늘봄학교 프로그램

늘봄학교의 프로그램은 9월 27일 기준, 전국적으로 초1 맞춤형 프로그램 40,575개, 무상 방과후 및 돌봄 프로그램 42,873개가 운영되고 있다. 이를 종합하면, 전국적으로 83,448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17개 시·도 중 경기, 전북, 충남, 전남, 서울의 순으로 초1 맞춤형 프로그램의 수가 많다. 대구와 전북에서는 추가 연계 프로그램은 실시하지 않고 있다. 초1 맞춤형 프로그램과 추가 연계 프로그램을 합산한 초등학교 1개교당 프로그램 평균 수는 13.5개이다. 시·도별로는 세종이 29.3개 프로그램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부산 22.8개, 제주 21.2개, 광주 18.6개의 순이다.

〈표 2-10〉 늘봄학교 초1 맞춤형 프로그램 현황(2024년 2학기)

(단위: 개, 개교)

구분	8.9.기준 ¹⁾	9.27.기준 ²⁾				
		초1 맞춤형	추가 연계	소계	학교 수	학교 당 프로그램 수
서울	2,646	3,278	2,306	5,584	605	9.2
부산	1,395	1,395	5,548	6,943	304	22.8
대구	1,439	2,579	—	2,579	240	10.7
인천	1,076	1,138	1,361	2,499	265	9.4
광주	321	321	2,537	2,858	154	18.6
대전	685	829	710	1,539	151	10.2
울산	557	557	518	1,075	121	8.9
세종	1,349	1,507	76	1,583	54	29.3
경기	5,913	5,963	13,199	19,162	1,345	14.2
강원	1,103	1,103	1,662	2,765	347	8.0
충북	2,779	2,819	1,402	4,221	255	16.6
충남	4,480	4,480	2,482	6,962	414	16.8
전북	5,789	5,771	—	5,771	413	14.0
전남	3,853	3,853	3,199	7,052	426	16.6
경북	2,578	2,665	2,741	5,406	468	11.6
경남	2,222	2,071	2,965	5,036	509	9.9
제주	246	246	2,167	2,413	114	21.2
계	38,431	40,575	42,873	83,448	6,185	13.5

주: 본 자료는 교육부의 늘봄학교 보도자료 내 늘봄학교 준비 상황 통계를 일자별로 정리한 자료임.

자료: 1) 교육부. (2024). 2024년 2학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학교 도입.

2) 교육부. (2024). 제8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8차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 회의 개최.

마. 늘봄학교 교실

희망하는 학생 모두가 늘봄학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 안팎의 다양한 공간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특히 초등학교 1학년 교실을 학생들이 안전하게 머무를 수 있도록 아동 친화적 환경으로 개선하였으며, 8월 9일 기준 개선 예정인 2,878실에 더불어 6,334개의 초등교실과 151개의 특수교실 등 총 9,363개 교실에 대한 환경 개선을 준비하였고, 가장 최근 자료인 9월 27일 기준, 완료 예정인 1,361실을 포함하여 9,288개의 초등교실과 208개의 특수교실 등 총 9,496개 교실에 대해 초1 아동 친화적 교실로 환경 개선을 완료하였다.

〈표 2-11〉 늘봄학교 초1 아동친화적 교실 구축 현황(2024년 2학기)

(단위: 개)

구분	2학기					
	8.9.기준 ¹⁾			9.27.기준 ²⁾		
	완료	예정	계	완료	예정	계
서울	560	399	959	679	280	959
부산	210	0	210	210	33	243
대구	159	0	159	158	—	158
인천	112	13	125	123	3	126
광주	510	132	642	510	132	642
대전	133	357	490	533	—	533
울산	164	377	541	541	—	541
세종	92	44	136	92	44	136
경기	817	620	1,437	1,068	369	1,437
강원	170	10	180	170	10	180
충북	721	13	734	727	7	734
충남	349	12	361	349	12	361
전북	180	478	658	609	49	658
전남	269	200	469	269	200	469
경북	289	131	420	290	130	420
경남	1,562	91	1,653	1,562	91	1,653
제주	37	1	38	37	1	38
계	6,334	2,878	9,212	7,927	1,361	9,288

주: 본 자료는 교육부의 늘봄학교 보도자료 내 늘봄학교 준비 상황 통계를 일자별로 정리한 자료임.

자료: 1) 교육부, (2024). 2024년 2학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학교 도입.

2) 교육부, (2024). 제8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8차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 회의 개최.

바. 늘봄학교 교사연구실

늘봄학교에 교실을 내어준 교사들이 머무를 수 있는 교사연구실은 9월 27일 기준 4,546개가 구축되었고 446실 추가 구축을 예정하여 총 4,992개가 구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이미 확보된 특수학교의 99개 늘봄학교 교사연구실을 추가하면, 총 5,091개의 교사연구실이 구축될 것으로 보인다.

〈표 2-12〉 늘봄학교 교사연구실 구축 현황(2024년 2학기)

(단위: 개)

구분	2학기					
	8.9.기준 ¹⁾			9.27.기준 ²⁾		
	완료	예정	계	완료	예정	계
서울	203	127	330	233	97	330
부산	241	0	241	241	127	368
대구	132	0	132	135	—	135
인천	253	11	264	258	7	265
광주	138	16	154	138	16	154
대전	192	0	192	192	—	192
울산	121	0	121	121	—	121
세종	44	7	51	44	7	51
경기	1,382	192	1,574	1,464	110	1,574
강원	152	4	156	152	4	156
충북	108	2	110	108	2	110
충남	105	32	137	105	32	137
전북	51	24	75	68	7	75
전남	548	9	557	557	—	557
경북	132	8	140	132	8	140
경남	540	20	560	540	20	560
제주	58	9	67	58	9	67
합계	4,400	461	4,861	4,546	446	4,992

주: 본 자료는 교육부의 늘봄학교 보도자료 내 늘봄학교 준비 상황 통계를 일자별로 정리한 자료임.

자료: 1) 교육부, (2024). 2024년 2학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학교 도입.

2) 교육부, (2024). 제8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8차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 회의 개최.

제2절 마을돌봄시설 제도 현황

1. 법적 근거 및 목적

마을돌봄사업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마을돌봄시설인 지역 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를 활용하여 아동의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의미한다(보건복지부, 2023).

이에 따라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의 설치 근거에 따라 설립된 ‘아동복지시설’로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운영되던 공부방에서 2004년 7월 아동복지시설로 법제화되어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 지역아동센터는 정규 교육과정 이후 지역사회 돌봄이 필요한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보호·교육·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보건복지부, 2024a).

반면, ‘다함께돌봄센터’는 지역 중심의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방과 후 초등 돌봄의 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시설로서 설립·운영되고 있다. 2019년 「아동복지법」이 개정되면서 근거 조항이 신설되었고 「아동복지법」 제44조의 2(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따른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 및 초등돌봄의 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운영된다(보건복지부, 2024b). 다만, 서울은 다함께돌봄센터가 아닌 ‘우리동네키움센터’로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의 차이점은 이용료이다. 지역아동센터의 이용료는 무료인 반면, 다함께돌봄센터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 2의 제4항에 근거하여 지자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 1인당 월 10만원을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아동의 보호자에게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센터는 수납한도액 내에서 지역여건 및 제공서비스 등에 따라 수납액을 시설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외부강사 등에 의한 특별활동 프로그램 운영 시에는 시설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적 범위 내에서 월 10만원 한도를 초과하여 프로그램별 이용료 수납이 가능하다(보건복지부, 2024b).

<표 2-13>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 개요

구분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법적근거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 아동복지시설	「아동복지법」 제44조의 2 사회복지시설
지원대상	18세 미만 아동	6~12세 아동
운영주체	법인, 개인 등 민간, 지자체	지자체(민간위탁 가능)
운영방식	시·군·구에 등록된 법인, 개인 등 신고 운영	지자체가 직영, 민간 위탁, 공동 운영
지원내용	보호, 교육, 급·간식, 정서지원, 학습지도, 체험활동, 참여활동 등	상시 및 일시 돌봄, 학습지도, 체험활동, 참여활동 등
이용료	무료이용 원칙 ¹⁾	월 10만원 이내
프로그램	돌봄 및 급식제공, 학습지도, 체험활동, 참여활동, 정서적 지원, 문화서비스 등	안전한 보호, 긴급상황 발생시 돌봄, 체험활동, 교육, 문화, 예술 및 체육 프로그램, 방과후 돌봄서비스 등

자료: 1) 보건복지부, (2024a). 2024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안내

2) 보건복지부, (2024b). 2024년 다함께돌봄 사업안내

2. 추진체계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를 통한 마을돌봄사업의 추진체계는 유사하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관련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 운영 지침을 마련하고, 법과 제도개선, 예산지원 등 사업을 총괄한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종사자 교육 및 컨설팅, 시설 운영 지원, 연구 조사, 평가 지원의 역할을 한다. 시·도는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조정하며, 예산을 집행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광역돌봄협의회를 통한 돌봄서비스 연계·조정 등을 담당한다. 광역돌봄협의회는 시·도 수준의 지역돌봄협의체로 광역자치단체가 주관 운영하며 시·도의 돌봄지원사항을 협의·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지역아동센터는 시·도별로 시설 운영을 지원하는 시·도 지원단이 별도 존재한다. 시·군·구는 예산집행, 지도점검의 기능을 하며, 기초돌봄협의회를 통한 돌봄서비스의 연계·조정 등을 수행한다. 기초돌봄협의회는 시·군·구 수준의 지역돌봄협의체로 기초자치단체가 주관 운영하며 지자체, 학교, 교육지원청 등의 역할 연계 및 조정의 역할을 한다.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는 방과후 및 방학중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유사기관과의 돌봄서비스를 연계·조정한다.

1) 지역아동센터 이용료: 무상원칙이나, 일반아동에 한해 지역여건 및 시설별 사정 등을 고려하여 시설장이 매년 운영위원회와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거쳐 월 10만원 한도 내 이용료 책정 가능

〈표 2-14〉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 추진체계

추진주체	기능 및 역할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보건복지부	- 기본계획 수립, 지침 마련, 법령·제도개선 등 사업총괄 - 국고보조금 지원, 아동복지교사 예산지원·사업총괄 및 평가 - 사업운영 지도·점검, 평가총괄 및 표준화 모델 개발·보급 - 시설정보시스템 개편 및 관리 총괄 - 방과후 돌봄서비스 추진 기관간의 서비스 연계·조정	- 기본계획 수립, 법령 및 지침 제·개정 등 제도개선 - 평가 및 컨설팅, 현장지도·점검 등 사업관리 총괄 - 국고보조금 교부 및 관리 - 자원 연계를 위한 부처 간 연계 및 조정 등
아동권리 보장원	- 종사자 교육기획, 프로그램 개발, 컨설팅 등 시설운영 지원 - 시·도 지원단 사업 조정·평가 및 아동복지교사 운영지원 - 시설정보시스템 관리지원 및 전산관리시스템 구축·관리 - 연구개발 및 시설 평가사업 지원 - 홍보, 민간자원 개발·연계 지원 등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 중앙부처 방과후 돌봄서비스 추진 업무 지원 등	- 평가 및 컨설팅, 종사자 교육 등 시설운영 지원 - 다함께돌봄사업 전산시스템 구축·관리 - 다함께돌봄사업 홍보 및 연구·조사 등
시·도	- 사업계획의 검토·조정 및 국고보조금 예산집행 - 관할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지도, 점검 - 아동복지교사 시도별 사업총괄 및 지도점검 - 시·도 평가사업 총괄 - 광역돌봄협의회 등을 통한 시·도 방과후 돌봄서비스 추진 기관간의 서비스 연계·조정 등 - 시·도 지원단 설치·지원 및 관리·감독 * 광역돌봄협의회: 시·도 수준의 지역돌봄협의체로 광역자치단체가 주관 운영하며 시·도의 돌봄지원사항 협의·조정 역할	- 시·도별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 총괄 - 시·군·구 사업 지도·점검 및 국고보조금 예산 집행 - 광역돌봄협의회를 통한 돌봄서비스의 연계·조정 등
시·도 지원단	-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교육, 컨설팅 등 시설운영 지원 -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및 평가사업 등 지원 - 시·도 특성에 따른 홍보, 정보관리, 민간자원 개발·연계 및 네트워크 구축 등 지역아동센터 지원 - 시·도 방과후 돌봄서비스 추진 업무 지원 등	—
시·군·구	- 시·군·구 지역아동센터 관리, 예산지원 등 운영 - 시·군·구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이용·종결 관리 - 아동복지교사 예산집행, 운영관리(채용·계약, 배정·노무, DB관리 등) - 지역아동센터 지도·점검, 후원금 내역 관리 - 기초돌봄협의회 등을 통한 시·군·구 방과후 돌봄서비스 추진 기관간 서비스 연계·조정 등 * 기초돌봄협의회: 시·군·구 수준의 지역돌봄협의체로 기초자치단체가 주관 운영하며 지자체, 학교, 교육지원청 등의 역할 연계 및 조정 역할	- 시·군·구 사업계획 수립 및 센터 설치·운영 - 예산집행 및 지도·점검 등 센터 운영관리 - 기초 돌봄협의회를 통한 돌봄서비스의 연계·조정 등
센터	- 방과후 돌봄서비스 제공 - 방과후 돌봄서비스 추진기관 및 지자체 협조 등	- 초등학생 대상 방과후·방학중 돌봄서비스 제공 - 학교,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등과 돌봄서비스 연계·조정

자료: 1) 보건복지부. (2024a). 2024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안내. p.5

2) 보건복지부. (2024b). 2024년 다함께돌봄 사업안내. p.5.

3. 이용 아동 기준

가. 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는 연령 기준과 아동 특성 기준이 적용된다. 우선적으로 연령 기준에 따라 18세 미만의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이 지역아동센터 이용 대상으로 선정된다. 다음으로 아래의 표에 제시된 기준에 의거하여 우선돌봄아동, 일반아동, 돌봄특례아동으로 구분된다. 2024년부터는 우선돌봄아동 중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아동이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로 자격기준이 완화되었다. 즉, 지역아동센터는 취약가구 외에도 2자녀 이상인 가구의 아동도 우선돌봄아동에 해당한다. 시설별 신고정원의 50% 이상은 우선돌봄아동이어야 하고, 일반아동은 50% 범위 내에서 등록이 가능하나 지역특성에 따라 일반아동은 60%까지 확대 가능하다. 특히, 농어촌이나 도서벽지 지역은 일반아동이 70% 범위 내에서 등록이 가능하다.

〈표 2-15〉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기준

구분		이용 아동 기준
연령 기준		• 18세 미만 아동으로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재학중인 아동 • 단, 아래와 같은 경우 이용 가능 – 지역아동센터 이용 중 아동이 고등학교로 진학한 경우 – 18세 이상이나 계속해서 지역아동센터 이용하는 고등학생 – 학교 밖 청소년으로 18세 미만의 아동 – 초등학생 또는 중학생 형제·자매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중이며 형제·자매가 모두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미취학아동이거나 고등학생이어도 이용가능 – 지역적인 특성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이용할 수 없는 미취학 아동
아동 특성 기준	우선돌봄아동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자활대상자,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등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 •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이 있는 가구의 아동 또는 등록장애인 아동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의 아동 • 조부모와 손자녀로만 이루어진 조손가구의 아동 • 초·중·고 교육비 지원 대상자인 아동 •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아동
	일반아동	• 우선돌봄에 해당하지 않는 아동
	돌봄특례아동	• 일반아동에 해당되나, 시·군·구청장이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우선돌봄아동으로 선정 가능

자료: 보건복지부, (2024a), 2024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안내, pp.38-39 재구성.

나. 다함께돌봄센터

다함께돌봄센터는 소득기준과 무관하게 방과후돌봄이 필요한 만 6세~12세 초등학교생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입소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돌봄유형은 일정기간이 정해진 ‘정기돌봄’과 기간을 정하지 않고 갑자기 발생한 사유에 대해 비정기적 돌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일시돌봄’으로 구분된다.

〈표 2-16〉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아동 기준

구분		이용 기준 및 돌봄 유형
연령 기준		• 소득기준과 무관하게 방과후돌봄이 필요한 만 6세~12세 초등학교생 - 단, 만 6세이나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는 아동의 경우(취학 전 졸업반 등) 다함께돌봄센터의 이용이 가능 •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아동의 형제, 자매로 그 형제, 자매가 미취학 아동인 경우에도 지역적 특성 및 센터 정원을 고려하여 이용대상에 포함 가능 • 지역여건, 맞벌이가정,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정 여부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입소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음
돌봄 유형	정기 돌봄	• 일정한 기간이 정해진 정기적 돌봄을 의미 - 예) 매일 2시간 이용, 매우 화요일과 목요일에 3시간 이용 등
	일시 돌봄	• 일정한 기간을 정하지 않고 갑자기 발생한 사유에 의한 비정기적 돌봄을 의미 • 일시돌봄 수요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때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음

자료: 보건복지부, (2024b), 2024년 다함께돌봄센터 사업안내, pp.53-54 재구성.

4. 종사자 배치기준

가. 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2조 및 별표 14와 15에 근거하여 지역아동센터 법정 인력은 직급별로 시설장과 생활복지사로 구성되며, 시설 내 아동의 정원에 따라 종사자가 배치되고 있다. 정원 기준, 아동 50명 초과 시설은 시설장 1인 외 생활복지사 3인과 영양사 1인이 배치된다. 아동 30명 이상 50인 이하 시설은 시설장 1인과 생활복지사 2인, 아동 10명 이상 30명 미만 시설은 시설장 1인과 생활복지사 1인, 아동 10명 미만 시설은 시설장 1인으로 운영되고 있다.

〈표 2-17〉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배치 기준

구분	시설장	생활복지사	영양사
아동 50명 초과 시설	1명	3명	1명
아동 30명 이상 시설	1명	2명	—
아동 10명 이상 30명 미만 시설	1명	1명	—
아동 10명 미만 시설	1명	—	—

자료: 보건복지부. (2024a). 2024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

나. 다함께돌봄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법정 인력은 센터장과 돌봄선생님으로 구분된다. 센터장은 돌봄업무를 수행하면서 센터를 총괄 관리하며, 돌봄선생님은 아동의 돌봄업무를 전담한다. 센터장 1인과 돌봄선생님 1인을 필수인력으로 배치하되, 이용 아동 수와 운영시간 등을 고려하여 돌봄선생님 배치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동 시간대 이용 아동 20명 기준, 1명의 돌봄선생님이 배치되어야 하고, 돌봄서비스 제공 시간동안 돌봄선생님 1인을 포함하여 센터장, 자원봉사자 등 2인 이상 상주를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센터장 및 돌봄선생님 없이 자원봉사자나 자격기준 미달 보조근무자만으로는 돌봄서비스 제공이 불가하다.

5. 프로그램

가. 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은 기본프로그램과 특화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기본프로그램은 보호, 교육, 문화, 정서지원과 지역사회 영역으로 구분되고, 특화프로그램은 지역사회와 대상 특성을 고려하여 운영된다(보건복지부, 2024a).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다음의 표에 제시하였다.

〈표 2-18〉 지역아동센터 운영 프로그램

영역 (대분류)	세부영역 (중분류)	세부프로그램 (소분류)	프로그램 예시 (시설별 선택 운영)
보호	생활	• 일상생활 관리	• 센터생활적응지도, 일상생활지도, 일상예절교육, 부적응아동지도 등
		• 위생건강관리	• 위생지도, 건강지도 등
		• 급식지도	• 급식지도, 식예절교육 등
	안전	• 생활안전지도	• 자녀돌봄 등
		• 안전귀가지도	• 안전귀가지도, 생활안전지도, 어린이통학박스 운행 등
		• 5대안전의무교육	• 교통안전, 실종유괴예방, 약물오남용예방, 재난대비, 성폭력예방 등
교육	학습	• 숙제지도	• 숙제지도, 학교생활관리 등
		• 교과학습지도	• 수준별 학습지도, 온라인교육(IPTV 학습 등), 학습부진아 특별지도 등
	특기적성	• 예체능활동	• 미술, 음악, 체육지도 등
		• 적성교육	• 진로지도, 적성교육(독서, 요리, 과학 등) 등
	성장과 권리	• 인성·사회성 교육	• 인성교육, 사회성교육 등
		• 자치회의 및 동아리 활동	• 자치회의, 동아리 활동 등
문화	체험활동	• 관람·견학	• 공연 및 연극 관람, 박물관 등 견학 등
		• 캠프·여행	• 체험활동, 캠프 및 여행 등
	참여활동	• 공연	• 공연 등
		• 행사(문화/체육 등)	• 전시회, 체육대회 등
정서 지원	상담	• 연고자 상담	• 부모 및 가족상담, 연고자 상담 등
		• 아동상담	• 아동상담 등
		• 정서지원 프로그램	• 정서지원 프로그램 등
	가족지원	• 보호자교육	• 보호자교육 등
		• 행사·모임	• 부모소모임, 가정방문 등
지역 사회 연계	홍보	• 기관홍보	• 기관홍보 등
		• 인적연계	• 자원봉사활동, 인적결연후원, 후원관리 등
	연계	• 기관연계	• 지역조사와 탐방, 전문기관 연계
			• 복지단체 연계 등

자료: 보건복지부, (2024a), 2024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 p.47.

나. 다함께돌봄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프로그램은 기본프로그램과 공통프로그램, 특별활동 프로그램으로 구분된다. 기본프로그램은 이용 아동에 대한 출결 관리를 비롯하여 아동지원과 급·간식 지원이고, 공통프로그램은 숙제·독서 지도와 신체활동, 놀이·휴식, 일상생활

교육 등 아동지원 프로그램이다. 또한 언어활동과 예체능, 과학, 체험활동 등이 특별활동 프로그램에 속한다.

〈표 2-19〉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 프로그램

구분	활동분야	활동내용	서비스 제공 주체
기본 프로그램	출결확인	- 출석과 결석 관련 사항 확인 - 입출입이 잦은 학생에 대한 출결 유의	돌봄선생님 중심으로 운영하되, 센터장 및 자원봉사인력 지원
	아동지원	- 일상생활 교육 - 아동 및 학부모 상담	
	급·간식 지원	- 급식지원(방학) - 간식지원	급·간식 업체 지정 또는 센터에서 조리 등 센터별로 상황을 고려하여 운영
공동 프로그램	숙제·독서지도	- 숙제지도(알림장 확인, 숙제 확인) - 독서지도(읽기, 말하기, 쓰기 등) - 독서활동 프로그램 운영	- 돌봄선생님 중심으로 운영하되, 센터장 및 자원봉사인력 지원 - 대학생 자원봉사, 퇴직교사, 학부모 재능기부 등으로 운영 가능
	신체활동	- 신체놀이, 줄넘기, 자전거, 배트민턴, 축구 등) - 또래놀이(놀이터, 민속놀이, 인형극 등)	
	놀이·휴식	- 자유활동 - 휴식 취하기	
	아동지원	- 일상생활 교육(위생청결교육, 화재 및 안전교육) - 아동 및 보호자 상담	
특별활동 프로그램	언어활동	- 기초외국어 지도(읽기, 말하기, 쓰기 등) - 외국어활동 프로그램 운영	분야별 전문 소양을 갖춘 인력을 중심으로 우영하되, 센터장과 돌봄선생님 지원(모니터링 실시) (단 특별활동 등 내용은 공교육 정상화 추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부합하여야 함)
	예체능	- 예체능활동 지도(음악, 미술, 체육 등) - 예체능활동 프로그램 운영	
	과학	- 과학 지도(드론, 로봇, 과학 상자 등) - 과학 체험활동 프로그램 운영	
	체험활동	- 문화예술 체험(영화, 난타, 박물관, 시장 등) - 문화 체험활동 프로그램 운영(요리, 화해 등)	

자료: 보건복지부(2024 b). 2024년 다함께돌봄센터 사업안내. p.51.

6. 운영시간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시간을 보면, 지역아동센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1일 8시간 이상을 상시 운영(공휴일 제외)을 원칙으로 한다. 필수운영시간은 학기 중이거나 방학에 따라 기본운영시간이 다르다(보건복지부, 2024a). 맞벌이 부부 등 부모의 퇴근 시간을 고려하여 학기 중 지역아동센터 필수 운영시간은 20시

까지 운영된다.

각 센터에서는 매 학기 시작 전후(2~3월, 8~9월) 돌봄 필요시간을 확인하고, 19시 이후 돌봄 수요가 없는 센터의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자체 보고 후 필수 운영시간을 13:00~19:00로 조정 가능하다. 운영시간 조정 후에도 일시돌봄 등 수요가 발생할 경우 해당일은 20시까지 운영해야 한다(보건복지부, 2024a).

다함께돌봄센터도 표준 서비스 제공시간을 포함하여 주 5일, 1일 8시간 이상을 상시 운영하되, 맞벌이 가구의 출퇴근 시간 초등돌봄 지원을 위해 표준운영시간 외 아침과 저녁시간 각 2시간씩 시간을 연장하여 운영한다. 초등학교 학기·방학 중에는 표준 서비스 제공시간을 포함하되 지역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시간을 조정한다(보건복지부, 2024b).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2-20>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시간

구분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필수 운영시간	표준 운영시간	연장 운영시간
필수 운영시간	학기 중	13:00~20:00	14:00~19:00	아침: 7:00~9:00 저녁: 19:00~21:00
	방학 (단기방학 포함)	12:00~17:00	9:00~18:00	18:00~20:00
휴일 운영		- 토요일과 공휴일,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5.1)은 휴무가 원칙이나 지역여건과 센터 실정에 따라 아동이 방임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운영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 운영시 지역아동센터는 시설장 또는 생활복지사 1인 이상 근무, 다함께돌봄센터는 시설장 또는 돌봄선생님 1인 이상 근무해야 하며 그 외 자원봉사자 등을 적극 활용함		

자료: 1) 보건복지부. (2024a). 2024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 p.45.

2) 보건복지부. (2024b). 2024년 다함께돌봄센터 사업안내. pp.46~47.

3)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3. 1.9). 방과 후 돌봄 필요 아동에게 촘촘한 돌봄서비스 제공-20시까지 돌봄시간 연장, 우선돌봄아동 확대 등-

이 외에 지역아동센터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재해 등의 긴급한 사유로 초·중·고등학교 등이 휴업명령이나 휴교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지역아동센터의 휴무를 원칙으로 하고 휴무에 대한 사항을 보호자 및 이용아동 등에게 알려야 한다(보건복지부, 2024a).

7.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정부는 아동 특성 및 배경에 따라 특수한 돌봄서비스 욕구가 있는 아동의 돌봄 사각 지대 해소를 위해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을 제공하고 있다. 본 사업의 목적은 지역아동센터 서비스 수준에 따라 추가적인 예산을 지원하여 시설의 운영 역량을 제고하고, 특화서비스 등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다.

먼저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는 장애, 다문화, 북한이탈주민 아동의 특수 전용시설을 운영하거나 특수 아동 비율이 다른 센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 저녁돌봄(20시를 초과하여 1시간 이상 운영하는 시설), 일요일·공휴일 운영 등 연장 운영으로 인한 추가지원이 필요한 경우, 시·군·구별 수요를 반영하여 선정 가능하다.

다음으로 ‘토요운영 지역아동센터’는 이용아동 중 토요돌봄서비스 수요가 있거나 토요일 운영 시설 중 운영 역량 및 서비스 제공수준이 높은 시설이 선정된다. 이들 기관은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다양한 토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특성별 지역아동센터로 선정된 기관에 대해서는 아래의 표와 같이 지원 예산액 및 시설 프로그램을 감안하여 예산의 추가지원이 가능하다.

<표 2-21> 특수목적형 및 토요운영 지역아동센터 선정기준 및 예산지원

구분	선정기준	예산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① 지역적·환경적, 이용아동 특성에 따라 특수한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한 시설(장애, 다문화, 북한이탈주민, 저녁돌봄, 일요일 및 공휴일 운영 등) ② 지원대상 요건 증빙이 가능하거나 별도 프로그램 운영실적이 있는 시설 ③ 평가·지자체 점검결과, 운영상 하자가 없고 운영역량이 우수한 시설 ④ 기타 지자체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준	월 60만원 (±20만원 조정가능) 예산 추가지원
토요운영 지역아동센터	① 토요돌봄서비스를 1년 이상 운영하고 있고 타 센터와 연계가 가능한 곳(이용아동에 따른 2개 이상의 센터 연계 운영가능) ② 이용아동 중 토요돌봄서비스 예상 이용 아동수가 많은 곳 ③ 평가·지자체 점검결과, 운영상 하자가 없고 운영역량이 우수한 시설 ④ 기타 지자체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준	월 30만원 (±10만원 조정가능) 예산 추가지원

자료: 보건복지부. (2024a). 2024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 p.120.

제3절 주요 쟁점 및 시사점

현재 늘봄학교는 도입 초기이고, 각 지자체 차원에서도 이미 지역 특성을 반영한 돌봄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학교와 마을돌봄 현장에서 많은 혼란과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2026년 늘봄학교 전면 확대를 고려하여 마을돌봄시설과 늘봄학교 간 연계·협력 측면에서의 다음과 같이 관련 학계, 교육 및 돌봄 현장, 언론 등에서 주로 제기된 쟁점과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 늘봄학교 시범사업에서 제기된 한계 미극복

늘봄학교는 학교 단위의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인 아동 중심으로 학교돌봄체계를 전환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시범사업 과정에서 제기된 논쟁적 문제점이 본 사업 시행 후에도 해결되지 못한 한계가 있다(이주연 외, 2023; 이성희, 2024).

핵심적으로는 첫째,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다양한 돌봄 사업의 조정·연계 미확립이다. 이로 인해 학교와 지역사회 기반 돌봄의 이용 대상 아동 및 돌봄 제공 시간대의 중복과 유사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사업주체 간 갈등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 둘째, 아동 권리 측면과 교육기관이라는 측면에서의 장시간 학교 내 아동 돌봄에 대한 반대의견, 교내 돌봄 인력 및 공간의 부족, 아동 안전 문제 등의 다양한 문제 제기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 셋째, 강사 수급에 한계가 있어 자원봉사자나 노인일자리사업 인력이 활용되어 교육·돌봄의 질 저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넷째, 학교 밖의 다양한 자원과 연계·협력체계 구축 논의 미흡 및 구축 방식의 구체성 부족이 지적될 수 있다.

나. 늘봄학교 근거법 부재

기존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의 통합 운영 형태로 도입된 늘봄학교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태로 서둘러 시행되었다는 점이 지적된다. 학교 자원과 지역사회 자원을 충분히 활용한 통합적이고 보편적 돌봄체계 구축과 운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법적 기반 마련과 안정적 재원확보가 중요하다. 즉, 늘봄학교의 안정적 운영과 마을돌봄시

설과의 효율적 연계·협력을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법적 기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초등돌봄교실, 방과후학교는 충분한 법적 근거 없이 교육부 고시에 따라 운영되어 왔으며, 지역사회 기반 마을돌봄기관은 주무 부처에 따라 근거법을 달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사업인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는 「아동복지법」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기관별 이용 대상 및 자격 기준, 서비스 제공자의 자격 기준과 처우도 각각 다르다.

놀봄학교는 전적으로 아동 중심의 통합 돌봄·교육 제공을 표방함에 따라 아동이 차별 없이 원하는 서비스를 원하는 곳에서 받을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놀봄학교 근거법이 선결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자원과의 연계·협력 방안에 대한 체계적 운영 모형이 제도적으로 확립되는 것이 타당하다. 기존의 돌봄협의체와 같은 ‘놀봄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협의체 운영에 대한 책임과 역할이 분명하게 제시될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재정지원과 범부처 차원의 공조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와 교육자치가 분리 운영되는 구조이므로 놀봄학교와 마을돌봄시설을 포함한 지역자원의 원활한 연계·협력·활용을 위해서는 놀봄학교 근거법 마련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현 수준의 법적 기반은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교육부 고시 제2022-33호 [별책 1])에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하여 학교와 시·도 교육청은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에 따라 방과 후 활동 또는 방학 중 활동을 운영·지원할 수 있다”(p.9)와 “학교가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에 따라 방과 후 또는 방학 중 활동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p.43)로 언급된 수준에 그친다(이성희, 2024). 이는 기존의 초등돌봄교실이 정규교육 과정에 해당되지 않는 상황에서 관련 근거법 없이 운영되어 온 연장이라고 볼 수 있다. 당시에도 근거법 마련에 대한 요구가 높으나 이해당사자가 많아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마을돌봄시설과의 연계·협력의 주체 등 다양한 관련 문제의 조율과 해결은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여야만 보다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수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교육부(2024)의 놀봄학교 추진방안에 따르면 2024년 하반기에 공간, 인력 확보 및 지자체, 지역사회 연계·협력 등의 내용을 담은 「(가칭) 놀봄학교지원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나,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되지는 않았다.

다. 늘봄학교-마을돌봄시설 연계·협력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미흡

늘봄학교는 원하는 학생 누구에게나 양질의 교육·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2024년 2학기 늘봄학교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 초1 학생 35만 3,098명 중 13만 4,008명(38%)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용교실도 3,552개로 당초 계획했던 9,212개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한국일보, 2024.10.24.). 당초 수요조사보다 훨씬 낮은 이용률로 기대만큼 적극적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가 기존 이원화된 체계에서 일원화된 늘봄학교로의 전환에 대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다만, 교육부는 이에 대해 38%는 늘봄학교에서 제공되는 초1 맞춤형 프로그램, 기존 방과후 및 돌봄 프로그램 중 ‘초1 맞춤형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만을 포함한 수치로 추정되며, 2024년 9월 27일 기준, 모든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늘봄학교에 참여하고 있는 초1 학생은 29.3만 명(참여율 82.7%)이라고 설명자료를 배포하였다(교육부, 2024.10.24.). 이러한 설명 역시 기존 이원화된 체계와 늘봄학교가 현재까지는 큰 차이가 없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늘봄학교는 지역 특성과 거버넌스에 따라 사업 추진 및 진행상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이는 늘봄학교 운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늘봄학교 운영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도 교육청별로 늘봄학교 지원센터와 교육지원청이 적절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환경에서 활용가능한 운영 모형의 개발 및 지원을 위한 교육행정과 일반 자치행정과의 적극적 연계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늘봄학교의 운영 모형이 지자체의 특성과 자원 활용 환경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

또한 늘봄학교는 서비스 공급 확대를 위한 강사 수급 안정을 위해서 프로그램 공급처를 확대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여 프로그램 공급처를 ‘(가칭) 늘봄허브’를 통하여 개방화할 계획이다(교육부, 2024). 늘봄허브를 통해 기존의 인근 지역 중심의 고정적이고 제한적인 프로그램 제공 환경에서 대학, 기업, 기관, 전문업체 등 프로그램 제공자 간의 경쟁을 통한 개방형 수급 구조를 계획하고 있다. 이 경우, 해당 플랫폼의 활용은 학교 안에 국한되기보다는 학교 밖 돌봄 기관에서도 활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늘봄학교와 지역 돌봄 기관의 자원 활용과 프로그램 운영의 경계를 약화시키고 결국 동일한 자원을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지역 돌봄 기관에서 활동 중인 프로

그럼 강사가 늘봄학교 강사로 활동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이처럼 늘봄학교 운영을 위해 지역 돌봄 기관의 물리적 공간자원과 인력자원을 함께 활용하게 되면 다양한 이해 당사자가 관계하게 된다. 따라서 늘봄학교를 위한 일방적인 자원 활용이 아닌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상생과 상호지원, 지역자원의 원활한 연계·협력을 위한 지자체 차원의 지원도 필요하다.



제 3 장

늘봄학교 시행 후 마을돌봄시설 영향분석

제1절 마을돌봄시설 이용 변화(행정조사)

제2절 늘봄학교 시행과 마을돌봄시설 영향(FGI)

제3절 늘봄학교-마을돌봄시설 공급 영향(GIS)

제 3 장

늘봄학교 시행 후 마을돌봄시설 영향분석

제1절 마을돌봄시설 이용 변화(행정조사)

1. 행정조사 개요

본 연구에서는 2024년 늘봄학교 시행 전·후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전국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를 대상으로 행정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는 보건복지부, 17개 시·도,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서울: 우리동네키움센터)의 협조를 통해 2024년 9월 10일~25일까지 수행되었다. 해당 기간 중의 조사표 미제출 기관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2024년 10월 4일까지 조사를 완료하였다.

조사 분석 항목은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의 일반특성, 2024년 늘봄학교 시행 이후 이용 변화, 이용 아동 현황 및 변화이다. 2024년에는 초등학교 1학년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1학년 아동의 이용 변화 여부를 파악하고, 늘봄학교와 마을돌봄 시설간 연계·협력을 제시하고 있어 센터 인근 학교의 늘봄학교와 연계·협력 추진 여부에 대해서도 파악하였다. 또한 이용 아동 현황 및 변화는 2023년 말 기준, 2024년 3월 말(1학기), 2024년 7월 말(여름방학), 2024년 9월 6일(2학기)의 4개 기간으로 구분하여 학년별 현원 변화를 파악하였다.

<표 3-1> 마을돌봄시설 행정조사 내용

구분	조사 내용
일반특성	- 기관 소재지, 센터명, 주소, 운영주체, 운영방식 - (학기 중/방학중) 토요일 및 공휴일 운영 여부
2024년 늘봄학교 시행 이후 변화	- 1학년 아동의 이용 변화: 이용 시간대 변화, 서비스 신청 인원 감소, 늘봄학교 이용을 위한 퇴소 - 센터 인근 학교의 늘봄학교와 연계/협력 추진 여부
이용 아동 현황 및 변화	- 정원, 학년별 현원 (2023.12.31.기준), (2024.3.31.기준, 1학기) (2024.7.31.기준, 여름방학), (2024.9.6.기준, 2학기)

2. 조사 응답 현황

조사에 응답한 기관은 총 5,273개소로, 지역아동센터 4,127개소(78.3%), 다함께돌봄센터 1,146개소(21.7%)였다. 이 중 2024년 9월 6일(2학기) 기준, 이용 아동 모집 중,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로 일시돌봄만 제공 등의 사유로 현원이 0명인 지역아동센터 8개소, 다함께돌봄센터 10개소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최종적으로 분석에 포함된 센터는 총 5,255개소로, 지역아동센터 4,119개소, 다함께돌봄센터 1,136개소였다. 경기도가 1,099개소(지역아동센터 771개소, 다함께돌봄센터 326개소)로 가장 많았고, 지역 특성별로는 도시지역 4,401개소(지역아동센터 3,419개소, 다함께돌봄센터 982개소), 농어촌지역 854개소(지역아동센터 700개소, 다함께돌봄센터 154개소)였다.

<표 3-2> 마을돌봄시설 행정조사 응답 기관 수

(단위: 개소, %)

구분		사례수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수	비율	수	비율
전체		5,255	4,119	78.4	1,136	21.6
지역	서울	664	396	60.2	262	39.8
	부산	276	212	76.8	64	23.2
	대구	221	207	94.1	13	5.9
	인천	218	177	81.6	40	18.4
	광주	330	297	90.0	33	10.0
	대전	170	139	82.2	30	17.8
	울산	86	57	67.1	28	32.9
	세종	22	13	59.1	9	40.9
	경기	1,099	771	70.3	326	29.7
	강원	216	170	78.7	46	21.3
	충북	217	177	81.9	39	18.1
	충남	289	238	82.9	49	17.1
	전북	335	287	85.7	48	14.3
	전남	408	372	91.2	36	8.8
	경북	337	267	79.0	70	21.0
	경남	314	278	88.5	36	11.5
	제주	71	64	90.1	7	9.9
지역특성	도시	4,401	3,419	77.7	982	22.3
	농어촌	854	700	82.0	154	18.0

3. 조사 결과

가. 일반특성

먼저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주체는 법인이 2,036개소(49.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개인 1,853개소(45.0%), 기타 141개소(3.4%), 지자체 직영 88개소(2.1%), 지자체 위탁 1개소(0.0%)의 순이었다. 기타에는 사업자, 일반단체 등이 포함된다.

지역별로는 대구, 대전, 세종, 인천, 제주에 소재한 지역아동센터는 개인과 법인 주체로만 운영되고 있었다. 서울, 울산, 강원은 지자체 직영 운영의 사례가 타 시·도에 비해 높은 비중으로 나타났다.

<표 3-3> 지역아동센터 운영주체

(단위: 개소, %)

구분		사례수	개인	법인	지자체(직영)	지자체(위탁)	기타
전체		4,119	1,853(45.0)	2,036(49.4)	88(2.1)	1(0.0)	141(3.4)
지역	서울	396	105(26.5)	224(56.6)	26(6.6)	－	41(10.4)
	부산	212	91(42.9)	117(55.2)	2(0.9)	－	2(0.9)
	대구	207	98(47.3)	92(44.4)	－	－	17(8.2)
	인천	177	118(66.7)	58(32.8)	－	－	1(0.6)
	광주	297	176(59.3)	107(36.0)	4(1.3)	－	10(3.4)
	대전	139	94(67.6)	45(32.4)	－	－	－
	울산	57	12(21.1)	39(68.4)	5(8.8)	－	1(1.8)
	세종	13	3(23.1)	9(69.2)	－	－	1(7.7)
	경기	771	358(46.4)	375(48.6)	12(1.6)	1(0.1)	25(3.2)
	강원	170	65(38.2)	93(54.7)	12(7.1)	－	－
	충북	177	89(50.3)	84(47.5)	1(0.6)	－	3(1.7)
	충남	238	123(51.7)	105(44.1)	7(2.9)	－	3(1.3)
	전북	287	118(41.1)	163(56.8)	3(1.0)	－	3(1.0)
	전남	372	128(34.4)	220(59.1)	3(0.8)	－	21(5.6)
	경북	264	138(52.3)	111(42.0)	10(3.8)	－	5(1.9)
	경남	278	112(40.3)	157(56.5)	3(1.1)	－	6(2.2)
	제주	64	25(39.1)	37(57.8)	－	－	2(3.1)
지역특성	도시	3,419	1,549(45.3)	1,681(49.2)	59(1.7)	1(0.0)	129(3.8)
	농어촌	700	304(43.4)	355(50.7)	29(4.1)	－	12(1.7)

다음으로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방식은 위탁이 1,073개소(94.4%)로 대다수를 차지하였고, 직영 62개소(5.5%), 공동 1개소(0.1%)의 순이었다. 위탁 중 기타 기관에는 시설관리공단과 같은 공공위탁 등이 포함되었다. 지역특성별로는 도시지역(2.4%)에 비해 농어촌지역(24.7%)에서 직영 운영방식의 비중이 높았다. 반면 도시지역(38.2%)은 농어촌지역(7.8%)에 비해 비영리 사단법인을 통한 위탁 운영방식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3-4>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방식

(단위: 개소, %)

구분		사례수	직영	공동	위탁					
					사회복지법인	비영리사단법인	비영리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민간단체	기타기관
전체		1,136	62 (5.5)	1 (0.1)	175 (15.4)	387 (34.1)	124 (10.9)	274 (24.1)	76 (6.7)	37 (3.3)
지역	서울	262	4 (1.5)	1 (0.4)	47 (17.9)	95 (36.3)	51 (19.5)	27 (10.3)	8 (3.1)	29 (11.0)
	부산	64	—	—	20 (31.3)	25 (39.1)	5 (7.8)	8 (12.5)	3 (4.7)	3 (4.7)
	대구	13	1 (7.7)	—	7 (53.8)	2 (15.4)	1 (7.7)	2 (15.4)	—	—
	인천	40	6 (15.0)	—	4 (10.0)	15 (37.5)	5 (12.5)	7 (17.5)	3 (7.5)	—
	광주	33	—	—	2 (6.1)	14 (42.4)	3 (9.1)	10 (30.3)	4 (12.1)	—
	대전	30	3 (10.0)	—	—	27 (90.0)	—	—	—	—
	울산	28	15 (53.6)	—	8 (28.6)	1 (3.6)	—	4 (14.3)	—	—
	세종	9	—	—	1 (11.1)	—	7 (77.8)	1 (11.1)	—	—
	경기	326	1 (0.3)	—	37 (11.3)	148 (45.4)	7 (2.1)	114 (35.0)	16 (4.9)	3 (0.9)
	강원	46	7 (15.2)	—	2 (4.3)	9 (19.6)	11 (23.9)	14 (30.4)	3 (6.5)	—
	충북	39	—	—	4 (10.3)	6 (15.4)	1 (2.6)	16 (41.0)	12 (30.8)	—
	충남	49	8 (16.3)	—	3 (6.1)	9 (18.4)	10 (20.4)	12 (24.5)	5 (10.2)	2 (4.1)
	전북	48	1 (2.1)	—	4 (8.3)	9 (18.8)	6 (12.5)	21 (43.8)	7 (14.6)	—
	전남	36	4 (11.1)	—	14 (38.9)	5 (13.9)	2 (5.6)	8 (22.2)	3 (8.3)	—
	경북	70	8 (11.4)	—	14 (20.0)	13 (18.6)	8 (11.4)	22 (31.4)	5 (7.1)	—

구분		사례수	직영	공동	위탁					
					사회복지법인	비영리사단법인	비영리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민간단체	기타기관
	경남	36	4 (11.1)	—	5 (13.9)	7 (19.4)	7 (19.4)	6 (16.7)	7 (19.4)	—
	제주	7	—	—	3 (42.9)	2 (28.6)	—	2 (28.6)	—	—
지역특성	도시	982	24 (2.4)	1 (0.1)	151 (15.4)	375 (38.2)	104 (10.6)	232 (23.6)	61 (6.2)	34 (3.5)
	농어촌	154	38 (24.7)	—	24 (15.6)	12 (7.8)	20 (13.0)	42 (27.3)	15 (9.7)	3 (1.9)

학기 중 토요일 운영 관련, 지역아동센터의 40.4%는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특별프로그램이나 행사가 있을 때만 운영이 44.0%로 가장 많았다. 지역특성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도시지역이 농어촌지역보다 매주 토요일 운영한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도시지역은 행사 시 운영 43.0%, 미운영 40.2%, 매주 운영 15.5%의 순이었고, 농어촌지역도 행사 시 운영 48.9%, 미운영 41.4%, 매주 운영 9.0%의 순이었다. 한편 다함께돌봄센터는 지역아동센터보다 월등히 많은 89.3%가 토요일에 운영하지 않으며, 행사 시에만 운영 5.7%, 매주 운영 4.8%였다. 지역특성별로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3-5> 마을돌봄시설 토요일 운영 여부(학기 중)

(단위: 개소, %)

구분	사례수	운영				미운영
		매주	격주	행사 시	월 1회	
전체	5,255	647(12.3)	30(0.6)	1,877(35.7)	21(0.4)	2,680(51.0)
지역아동센터	4,119	593(14.4)	28(0.7)	1,812(44.0)	20(0.5)	1,666(40.4)
도시	3,419	530(15.5)	24(0.7)	1,470(43.0)	19(0.6)	1,376(40.2)
농어촌	700	63(9.0)	4(0.6)	342(48.9)	1(0.1)	290(41.4)
다함께돌봄센터	1,136	54(4.8)	2(0.2)	65(5.7)	1(0.1)	1,014(89.3)
도시	982	44(4.5)	—	57(5.8)	1(0.1)	880(89.6)
농어촌	154	10(6.5)	2(1.3)	8(5.2)	—	134(87.0)

학기 중 공휴일 운영 관련, 지역아동센터는 미운영 64.3%, 행사 시 운영 35.0%였다. 다함께돌봄센터는 미운영 95.9%, 행사 시 운영 2.7%로 나타나 다함께돌봄센터의 공휴일 미운영 비율이 지역아동센터보다 더욱 높았다. 지역특성별로는 지역아동센터

는 농어촌지역(55.1%) 대비 도시지역(66.2%)의 미운영 비율이 높았고, 다함께돌봄센터는 지역특성별로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3-6> 마을돌봄시설 공휴일 운영 여부(학기 중)

(단위: 개소, %)

구분	사례수	운영			미운영
		정기	행사 시	월 1회	
전체	5,255	45(0.9)	1,472(28.0)	1(0.0)	3,737(71.1)
지역아동센터	4,119	29(0.7)	1,441(35.0)	1(0.0)	2,648(64.3)
도시	3,419	22(0.6)	1,134(33.2)	1(0.0)	2,262(66.2)
농어촌	700	7(1.0)	307(43.9)	—	386(55.1)
다함께돌봄센터	1,136	16(1.4)	31(2.7)	—	1,089(95.9)
도시	982	13(1.3)	27(2.7)	—	942(95.9)
농어촌	154	3(1.9)	4(2.6)	—	147(95.5)

다음으로 방학 중 토요일 운영 관련, 지역아동센터는 미운영 44.8%, 행사 시 운영 39.8%였다. 지역특성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도시지역이 농어촌지역보다 방학 중 매주 토요일 운영한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도시지역은 미운영 44.7%, 행사 시 운영 38.8%, 매주 운영 15.4%의 순이었고, 농어촌지역도 미운영 45.6%, 행사 시 운영 44.7%, 매주 운영 8.9%의 순이었다. 한편 다함께돌봄센터는 90.7%가 토요일에 운영하지 않으며, 매주 운영 4.8%, 행사 시에만 운영 4.4%였다. 지역특성별로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3-7> 마을돌봄시설 토요일 운영 여부(방학 중)

(단위: 개소, %)

구분	사례수	운영				미운영
		매주	격주	행사 시	월 1회	
전체	5,255	645(12.3)	28(0.5)	1,689(32.1)	17(0.3)	2,876(54.7)
지역아동센터	4,119	590(14.3)	27(0.7)	1,639(39.8)	17(0.4)	1,846(44.8)
도시	3,419	528(15.4)	23(0.7)	1,326(38.8)	15(0.4)	1,527(44.7)
농어촌	700	62(8.9)	4(0.6)	313(44.7)	2(0.3)	319(45.6)
다함께돌봄센터	1,136	55(4.8)	1(0.1)	50(4.4)	—	1,030(90.7)
도시	982	45(4.6)	—	43(4.4)	—	894(91.0)
농어촌	154	10(6.5)	1(0.6)	7(4.5)	—	136(88.3)

방학 중 공휴일 운영 관련, 지역아동센터는 미운영 65.8%, 행사 시 운영 33.4%였다. 다함께돌봄센터는 미운영 96.6%, 행사 시 운영 2.0%로 나타나 다함께돌봄센터의 공휴일 미운영 비율이 지역아동센터보다 더욱 높았다. 지역특성별로는 지역아동센터는 농어촌지역(57.3%)보다 도시지역(67.6%)의 미운영 비율이 높았고, 다함께돌봄센터는 지역특성별로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3-8> 마을돌봄시설 공휴일 운영 여부(방학 중)

(단위: 개소, %)

구분	사례수	운영			미운영
		정기	행사 시	월 1회	
전체	5,255	46(0.9)	1,397(26.6)	3(0.1)	3,809(72.5)
지역아동센터	4,119	31(0.8)	1,374(33.4)	2(0.0)	2,712(65.8)
도시	3,419	27(0.8)	1,080(31.6)	1(0.0)	2,311(67.6)
농어촌	700	4(0.6)	294(42.0)	1(0.1)	401(57.3)
다함께돌봄센터	1,136	15(1.3)	23(2.0)	1(0.1)	1,097(96.6)
도시	982	13(1.3)	20(2.0)	1(0.1)	948(96.5)
농어촌	154	2(1.3)	3(1.9)	—	149(96.8)

나. 2024년 늘봄학교 시행 이후 변화

정부 계획에 따라 2024년에는 초등학교 1학년만을 대상으로 늘봄학교가 시행되었다. 이 역시 단계적으로 도입되어 1학기에서 여름방학까지는 희망하는 초등학교만 늘봄학교를 시행하고, 2학기부터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시행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따라서 2024년에는 늘봄학교 도입에 따른 마을돌봄시설에의 영향이 크게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2학기에 해당하는 2024년 9월 기준, 마을돌봄시설 이용 대상자인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이용 변화 여부(중복 응답)를 조사한 결과, 전반적으로 늘봄학교 도입 이후 체감하는 변화는 크게 없다는 응답이 73.3%로 가장 높았다. 그러나 늘봄학교 도입 이후 전체적으로 돌봄 신청 인원 감소(22.3%), 주요 이용 시간대 변화(12.7%), 늘봄학교 이용 위한 퇴소(6.0%)의 순으로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영향을 센터유형별로 살펴보면, 늘봄학교 도입 이후 체감하는 변화가 없다는 응답은 지역아동센터 73.5%, 다함께돌봄센터 72.5%로 두 센터 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주요 이용 시간대가 변화’했다는 응답은 지역아동센터 12.4%, 다함께돌봄센터 13.8%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늘봄학교 시행 전에는 센터 등원 시간대가 2시였다면 현재는 이보다 늦어진 3시나 4시로 변화되는 경우이다. ‘돌봄 신청(등록, 대기 등) 인원 감소’를 체감한다는 응답은 지역아동센터 22.2%, 다함께돌봄센터 22.4%였다. 예를 들어, 센터 이용 문의 감소, 센터 이용 대기 중이던 아동이 늘봄학교 이용이 가능하므로 대기를 취소하는 사례가 존재하며,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입소는 감소하고 3학년 이상 아동은 증가하는 것도 사례가 있었다. 다만, 돌봄 신청 인원 감소는 단순히 늘봄학교 외에 전체적인 아동 인구수 감소 요인이 더 크게 작용했을 수 있다. 한편, ‘늘봄학교 이용을 위한 퇴소’는 상대적으로 가장 적어 지역아동센터 4.5%, 다함께돌봄센터 11.3%로 조사되었다. 다른 변화들은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간 차이를 보이지 않았던 반면, 늘봄학교 이용을 위한 퇴소의 변화가 지역아동센터보다 다함께돌봄센터에서 더 높게 나타난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표 3-9> 늘봄학교 시행 이후 마을돌봄시설 이용 변화(초등학교 1학년 아동)

(단위: 개소, %)

구분	사례수	변화 있음(중복 응답)			변화 없음
		주요 이용 시간대 변화	돌봄 신청 인원 감소	늘봄학교 이용 위한 퇴소	
전체	5,255	669(12.7)	1,170(22.3)	314(6.0)	3,850(73.3)
지역아동센터	4,119	512(12.4)	915(22.2)	186(4.5)	3,026(73.5)
다함께돌봄센터	1,136	157(13.8)	255(22.4)	128(11.3)	824(72.5)

늘봄학교 시행 이후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지역아동센터 이용 변화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변화 없다는 응답은 세종이 92.3%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울산(80.7%), 서울과 충남(각 80.3%), 충북(79.1%) 등의 순이었다. 그러나 지역별 편차가 존재하여 대전(62.6%), 부산(63.7%), 제주(64.1%) 등에서는 변화 없다는 응답이 낮아 늘봄학교 시행 이후 지역아동센터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지역특성별로는 도시지역(71.8%)보다 농어촌지역(81.6%)에서 변화 없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주요 이용 시간대가 변화하였다는 응답은 강원(18.8%), 광주와 제주(각 17.2%)에서 타 시·도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지역특성별로는 도시지역(12.8%)과 농어촌

지역(10.7%) 모두 큰 차이 없이 유사하였다. 돌봄 신청 인원 감소는 부산(32.1%), 제주(31.3%), 대전(30.9%), 광주(30.0%), 대구(29.5%)에서 다른 지역보다 높았고, 지역 특성별로는 농어촌지역(14.4%)보다 도시지역(23.8%)에서 높게 나타났다. 늘봄학교 이용을 위한 퇴소는 광주(9.1%), 전북(7.3%), 강원(6.5%)에서 타 시·도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지역특성별로는 도시지역(4.9%)과 농어촌지역(2.9%)에서 큰 차이는 없었다.

<표 3-10> 늘봄학교 시행 이후 지역아동센터 이용 변화(초등학교 1학년 아동)

(단위: 개소, %)

구분		사례수	변화 있음			변화 없음
			주요 이용 시간대 변화	돌봄 신청 인원 감소	늘봄학교 이용 위한 퇴소	
전체		4,119	512(12.4)	915(22.2)	186(4.5)	3,026(73.5)
지역	서울	396	38(9.6)	58(14.6)	5(1.3)	318(80.3)
	부산	212	33(15.6)	68(32.1)	12(5.7)	135(63.7)
	대구	207	32(15.5)	61(29.5)	10(4.8)	137(66.2)
	인천	177	18(10.2)	44(24.9)	7(4.0)	129(72.9)
	광주	297	51(17.2)	89(30.0)	27(9.1)	193(65.0)
	대전	139	22(15.8)	43(30.9)	8(5.8)	87(62.6)
	울산	57	5(8.8)	7(12.3)	1(1.8)	46(80.7)
	세종	13	1(7.7)	—	—	12(92.3)
	경기	771	82(10.6)	150(19.5)	30(3.9)	591(76.7)
	강원	170	32(18.8)	45(26.5)	11(6.5)	113(66.5)
	충북	177	22(12.4)	31(17.5)	6(3.4)	140(79.1)
	충남	238	25(10.5)	39(16.4)	10(4.2)	191(80.3)
	전북	287	37(12.9)	76(26.5)	21(7.3)	204(71.1)
	전남	372	53(14.2)	74(19.9)	22(5.9)	284(76.3)
	경북	264	25(9.5)	53(20.1)	5(1.9)	192(72.7)
	경남	278	25(9.0)	57(20.5)	9(3.2)	213(76.6)
	제주	64	11(17.2)	20(31.3)	2(3.1)	41(64.1)
지역 특성	도시	3,419	437(12.8)	814(23.8)	166(4.9)	2,455(71.8)
	농어촌	700	75(10.7)	101(14.4)	20(2.9)	571(81.6)

다함께돌봄센터의 경우, 변화 없다는 응답이 충남과 제주(각 85.7%)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울산(80.7%), 서울과 충남(각 80.3%), 충북(79.1%) 등의 순이었다. 그러나 부산은 변화 없다는 응답이 37.5%로 매우 낮았다. 지역특성별로는 도시지역(71.1%)

보다 농어촌지역(81.8%)에서 변화 없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주요 이용 시간대가 변화하였다는 응답은 부산(26.6%), 울산(21.4%), 대전(20.0%)에서 높았다. 지역특성별로는 농어촌지역(6.5%)보다 도시지역(15.0%)에서 이러한 변화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돌봄 신청 인원 감소는 부산(59.4%), 대구(30.8%)에서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높았고, 지역특성별로는 농어촌지역(14.9%)보다 도시지역(23.6%)에서 높았다. 늘봄학교 이용을 위한 퇴소는 부산이 39.1%로 높게 나타났다. 지역특성별로는 도시지역(11.6%)이 농어촌지역(9.1%)보다 약간 더 높았다. 특히 부산은 늘봄전용학교를 설립·개소하는 등 적극적으로 늘봄학교에 참여하고 있어 부산 지역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아동 감소에 상당히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된다.

<표 3-11> 늘봄학교 시행 이후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변화(초등학교 1학년 아동)

(단위: 개소, %)

구분		사례수	변화 있음			변화 없음
			주요 이용 시간대 변화	돌봄 신청 인원 감소	늘봄학교 이용 위한 퇴소	
전체		1,136	157(13.8)	255(22.4)	128(11.3)	824(72.5)
지역	서울	262	49(18.7)	53(20.2)	20(7.6)	186(71.0)
	부산	64	17(26.6)	38(59.4)	25(39.1)	24(37.5)
	대구	13	2(15.4)	4(30.8)	1(7.7)	8(61.5)
	인천	40	3(7.5)	9(22.5)	3(7.5)	30(75.0)
	광주	33	4(12.1)	8(24.2)	6(18.2)	25(75.8)
	대전	30	6(20.0)	6(20.0)	4(13.3)	22(73.3)
	울산	28	6(21.4)	5(17.9)	3(10.7)	19(67.9)
	세종	9	—	2(22.2)	—	7(77.8)
	경기	326	39(12.0)	65(19.9)	29(8.9)	250(76.7)
	강원	46	5(10.9)	9(19.6)	6(13.0)	34(73.9)
	충북	39	1(2.6)	7(17.9)	5(12.8)	30(76.9)
	충남	49	2(4.1)	7(14.3)	3(6.1)	42(85.7)
	전북	48	7(14.6)	12(25.0)	5(10.4)	35(72.9)
	전남	36	5(13.9)	6(16.7)	5(13.9)	29(80.6)
	경북	70	8(11.4)	14(20.0)	8(11.4)	52(74.3)
	경남	36	3(8.3)	9(25.0)	4(11.1)	25(69.4)
	제주	7	—	1(14.3)	1(14.3)	6(85.7)
지역 특성	도시	982	147(15.0)	232(23.6)	114(11.6)	698(71.1)
	농어촌	154	10(6.5)	23(14.9)	14(9.1)	126(81.8)

늘봄학교는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종합 교육 프로그램으로, 2024년 9월 현재 지역아동센터와 늘봄학교 간 연계·협력 여부를 조사한 결과, 연계·협력 계획 없음이 53.4%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인근 학교에서 아직 늘봄학교를 본격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있음 22.9%, 연계·협력 계획 있음 16.0%, 연계·협력 중임 7.6%의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부산은 연계·협력 중인 지역아동센터의 비중이 39.2%로 17개 시·도 중 가장 높았던 반면, 대전은 연계·협력 계획 없음이 95.0%로 가장 높았다. 늘봄학교와 연계·협력 계획이 있다는 지역아동센터는 광주(19.9%), 대구(19.8%), 전남(19.6%), 서울(19.2%)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지역특성별로는 도시지역(55.3%)이 농어촌지역(44.3%)보다 연계·협력 계획이 없다는 응답이 높았다.

<표 3-12> 현재 지역아동센터-늘봄학교 연계·협력 여부

(단위: 개소, %)

구분		사례수	연계·협력 중임	연계·협력 계획 있음	연계·협력 계획 없음	인근 학교에서 늘봄학교 본격 시행하지 않음
전체		4,119	315(7.6)	660(16.0)	2,200(53.4)	944(22.9)
지역	서울	396	10(2.5)	76(19.2)	256(64.6)	54(13.6)
	부산	212	83(39.2)	32(15.1)	71(33.5)	26(12.3)
	대구	207	18(8.7)	41(19.8)	122(58.9)	26(12.6)
	인천	177	8(4.5)	30(16.9)	96(54.2)	43(24.3)
	광주	297	18(6.1)	59(19.9)	123(41.4)	97(32.7)
	대전	139	5(3.6)	2(1.4)	132(95.0)	—
	울산	57	4(7.0)	7(12.3)	31(54.4)	15(26.3)
	세종	13	2(15.4)	2(15.4)	5(38.5)	4(30.8)
	경기	771	18(2.3)	138(17.9)	403(52.3)	212(27.5)
	강원	170	19(11.2)	34(20.0)	71(41.8)	46(27.1)
	충북	177	21(11.9)	34(19.2)	87(49.2)	35(19.8)
	충남	238	9(3.8)	25(10.5)	89(37.4)	115(48.3)
	전북	287	15(5.2)	29(10.1)	177(61.7)	66(23.0)
	전남	372	42(11.3)	73(19.6)	159(42.7)	98(26.3)
	경북	264	27(10.2)	22(8.3)	205(77.7)	10(3.8)
	경남	278	14(5.0)	46(16.5)	143(51.4)	75(27.0)
	제주	64	2(3.1)	10(15.6)	30(46.9)	22(34.4)
지역 특성	도시	3,419	243(7.1)	562(16.4)	1,890(55.3)	724(21.2)
	농어촌	700	72(10.3)	98(14.0)	310(44.3)	220(31.4)

다함께돌봄센터와 늘봄학교 간 연계·협력 여부는 계획 없음이 57.1%로 가장 높았고, 연계·협력 계획 있음 20.5%, 인근 학교에서 아직 늘봄학교를 본격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있음 16.7%, 연계·협력 중임 5.6%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특히 부산은 지역아동센터와 달리 늘봄학교와 연계·협력 중인 다함께돌봄센터가 3.1%로 매우 낮고, 연계·협력 계획 없음이 70.3%로 높게 나타났다. 연계·협력 계획이 있다는 응답은 세종(100.0%), 대구(38.5%), 경북(31.4%)의 순으로 17개 시·도 중 높게 나타났다. 연계협력 계획이 없다는 응답은 타 시·도 대비 울산(85.7%)에서 가장 높았고, 인근 학교에서 아직 늘봄학교를 본격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있다는 응답은 타 시·도 대비 충남(42.9%)에서 가장 높았다. 지역특성별로는 농어촌지역(48.7%)보다 도시지역(58.5%)에서 연계·협력 계획 없다는 응답이 높았다.

<표 3-13> 현재 다함께돌봄센터-늘봄학교 연계·협력 여부

(단위: 개소, %)

구분		사례수	연계·협력 중임	연계·협력 계획 있음	연계·협력 계획 없음	인근 학교에서 늘봄학교 본격 시행하지 않음
전체		1,136	64(5.6)	233(20.5)	649(57.1)	190(16.7)
지역	서울	262	6(2.3)	35(13.4)	185(70.6)	36(13.7)
	부산	64	2(3.1)	15(23.4)	45(70.3)	2(3.1)
	대구	13	1(7.7)	5(38.5)	5(38.5)	2(15.4)
	인천	40	1(2.5)	8(20.0)	24(60.0)	7(17.5)
	광주	33	2(6.1)	7(21.2)	16(48.5)	8(24.2)
	대전	30	2(6.7)	4(13.3)	17(56.7)	7(23.3)
	울산	28	1(3.6)	2(7.1)	24(85.7)	1(3.6)
	세종	9	—	9(100.0)	—	—
	경기	326	26(8.0)	75(23.0)	167(51.2)	58(17.8)
	강원	46	4(8.7)	13(28.3)	20(43.5)	9(19.6)
	충북	39	1(2.6)	1(2.6)	27(69.2)	10(25.6)
	충남	49	1(2.0)	10(20.4)	17(34.7)	21(42.9)
	전북	48	4(8.3)	13(27.1)	20(41.7)	11(22.9)
	전남	36	4(11.1)	4(11.1)	23(63.9)	5(13.9)
	경북	70	6(8.6)	22(31.4)	32(45.7)	10(14.3)
	경남	36	3(8.3)	8(22.2)	23(63.9)	2(5.6)
	제주	7	—	2(28.6)	4(57.1)	1(14.3)
지역 특성	도시	982	50(5.1)	200(20.4)	574(58.5)	158(16.1)
	농어촌	154	14(9.1)	33(21.4)	75(48.7)	32(20.8)

다. 이용 아동 현황 및 변화

이용 아동 현황 및 변화 파악 기준 시기는 총 4개 시기로 구분하여 비교하였다. 첫째, 늘봄학교 시행 전인 2023년(2023년 12월 31일 기준), 둘째, 1학년 대상 늘봄학교 시행 시작 시기인 2024년 1학기(2024년 3월 31일 기준), 셋째, 2024년 여름방학(2024년 7월 31일 기준), 넷째, 1학년 대상 늘봄학교 전국 초등학교 시행 시기인 2024년 2학기(2024년 9월 6일 기준)이다.

최종 분석에 포함된 전국 4,119개 지역아동센터의 늘봄학교 시행 전·후의 이용 변화를 살펴보면, 전국적으로 이용 정원 및 현원의 변화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1학년 이용 아동 수는 2023년 말 늘봄학교 시행 전 2.8명, 2024년 1학기 2.1명으로 감소하고, 2024년 여름방학 2.4명, 2024년 2학기 2.5명으로 다시 증가하였다. 2024년 늘봄학교 이용 대상 아동인 1학년 아동은 2024년 1학기, 여름방학, 2학기가 되면서 소폭 증가세를 보였다. 오히려 2023년 기준 1~3학년이었던 아동은 2024년 기준 2~4학년이 되면서 이용 아동수가 증가하거나 유지되는 경향을 보였다.

다음으로 최종 분석에 포함된 전국 1,136개 다함께돌봄센터의 늘봄학교 시행 전·후의 이용 변화를 살펴보면, 정원과 현원 모두 시기별로 유사하게 2023년 말 대비 2024년 1학기과 여름방학까지는 증가세를 보이다가 2024년 2학기에는 감소하였다. 4개 시기별로 정원은 24.4명→25.5명→27.2명→26.8명으로 변화하였고, 현원은 22.4명→23.7명→26.4명→25.1명으로 변화하였다. 1학년 이용 아동 수는 2023년 말 7.0명, 2024년 1학기 5.4명으로 감소하고, 2024년 여름방학 6.6명으로 증가하였다가 2024년 2학기 6.4명으로 다시 감소하였다. 2024년 늘봄학교 이용 대상 아동인 1학년 아동은 2024년 1학기, 여름방학, 2학기가 되면서 증감을 반복하였다. 2023년 기준 1학년이었던 아동은 2024년 기준 2학년이 되면서 이용 아동수가 증가하였으나, 2023년 기준 2학년 이상이었던 아동은 2024년 기준 3학년 이상이 되면서 이용 아동수가 모두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표 3-14> 지역아동센터 평균 이용 아동 수(N=4,119개소)

(단위: 명)

구분		사례수	정원	현원	미취학	초						중	고	학교밖
						1	2	3	4	5	6			
늘봄학교 시행 전	2023년	4,082	28.1	26.1	0.6	2.8	3.6	3.7	3.7	3.7	3.1	4.0	0.9	0.0
늘봄학교 시행	2024년 1학기	4,107	28.3	26.5	0.4	2.1	3.3	3.8	3.7	3.6	3.6	4.8	1.1	0.0
	2024년 여름방학	4,115	28.3	26.7	0.5	2.4	3.5	4.0	3.8	3.6	3.4	4.5	1.0	0.0
	2024년 2학기	4,119	28.3	26.6	0.5	2.5	3.5	4.0	3.7	3.5	3.4	4.4	1.0	0.0

<표 3-15> 다함께돌봄센터 평균 이용 아동 수(2023~2024년)(N=1,136개소)

(단위: 명)

구분		사례수	정원	현원	미취학	초					
						1	2	3	4	5	6
늘봄학교 시행 전	2023년	1,015	24.4	22.4	0.4	7.0	6.9	4.4	2.2	1.1	0.5
늘봄학교 시행	2024년 1학기	1,080	25.5	23.7	0.2	5.4	7.1	5.6	3.1	1.5	0.7
	2024년 여름방학	1,124	27.2	26.4	0.2	6.6	7.7	6.2	3.3	1.6	0.8
	2024년 2학기	1,136	26.8	25.1	0.2	6.4	7.5	5.8	3.0	1.4	0.7

17개 시·도별로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아동 수 변화를 파악하였다. 1) 2023년과 2024년의 초등학교 1학년 이용 아동 수 변화와 2) 2024년 현재 늘봄학교 이용 대상인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2024년 이용 변화를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서울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한 초등학교 1학년 아동 수는 2023년 391개 센터 평균 2.2명에서 2024년 2학기 396개 센터 평균 2.0명으로 전년 대비 평균 0.2명 감소하였다. 그러나 2024년에는 1학기 평균 1.6명, 여름방학 평균 1.9명, 2학기 평균 2.0명으로 2024년 초등학교 1학년인 아동 수는 늘봄학교 시행 기간 소폭 증가세를 보였다.

다함께돌봄센터(서울은 우리동네키움센터)도 지역아동센터와 유사하여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은 2023년 253개 센터 평균 6.9명에서 2024년 2학기 262개 센터 평균 5.0명으로 전년 대비 1.9명 감소하였다. 그러나 2024년에는 1학기 평균 4.1명, 여름방학 평균 5.2명, 2학기 평균 5.0명으로 2024년 초등학교 1학년인 아동 수는 늘봄학교 시행 기간 소폭 증가세를 보였다.

(2) 부산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한 초등학교 1학년 아동 수는 2023년 211개 센터 평균 2.2명에서 2024년 2학기 212개 센터 평균 1.9명으로 전년 대비 평균 0.3명 감소하였다. 그러나 2024년에는 1학기 평균 1.5명, 여름방학 평균 1.8명, 2학기 평균 1.9명으로 2024년 초등학교 1학년인 아동 수는 늘봄학교 시행 기간 소폭 증가세를 보였다.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한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은 2023년 58개 센터 평균 7.2명에서 2024년 2학기 64개 센터 평균 4.9명으로 전년 대비 평균 2.3명 감소하였다. 그러나 2024년에는 1학기 평균 4.5명, 여름방학 평균 5.1명, 2학기 평균 4.9명으로 2024년 초등학교 1학년인 아동 수는 늘봄학교 시행 기간 소폭 증가세를 보였다.

(3) 대구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한 초등학교 1학년 아동 수는 2023년 205개 센터 평균 2.6명에서 2024년 2학기 207개 센터 평균 2.3명으로 전년 대비 평균 0.3명 감소하였다. 그러나 2024년에는 1학기 평균 1.7명, 여름방학 평균 2.2명, 2학기 평균 2.3명으로 2024년 초등학교 1학년인 아동 수는 늘봄학교 시행 기간 소폭 증가세를 보였다.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한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은 2023년 11개 센터 평균 4.1명에서 2024년 2학기 64개 센터 평균 4.5명으로 전년 대비 평균 0.4명 증가하였다. 그러나 2024년에는 1학기 평균 4.6명, 여름방학 평균 4.8명, 2학기 평균 4.8명으로 2024년 초등학교 1학년인 아동 수는 늘봄학교 시행 기간 소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4) 인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한 초등학교 1학년 아동 수는 2023년 174개 센터 평균 2.2명에서 2024년 2학기 177개 센터 평균 2.2명으로 전년 대비 동일하였다. 2024년에는 1학기 평균 1.8명, 여름방학 평균 2.1명, 2학기 평균 2.1명으로 2024년 초등학교 1학년인 아동 수는 늘봄학교 시행 기간 소폭 증가세를 보였다.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한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은 2023년 29개 센터 평균 5.4명에서 2024년 2학기 40개 센터 평균 5.3명으로 전년 대비 평균 0.1명 감소하였다. 그러나 2024년에는 1학기 평균 4.3명, 여름방학 평균 5.7명, 2학기 평균 5.3명으로 2024년 초등학교 1학년인 아동 수는 늘봄학교 시행 기간 여름방학 기간 증가 후 감소하였으나, 전체적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5) 광주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한 초등학교 1학년 아동 수는 2023년 296개 센터 평균 2.9명에서 2024년 2학기 297개 센터 평균 2.6명으로 전년 대비 0.3명 감소하였다. 2024년에는 1학기 평균 2.2명, 여름방학 평균 2.5명, 2학기 평균 2.6명으로 2024년 초등학교 1학년인 아동 수는 늘봄학교 시행 기간 소폭 증가세를 보였다.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한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은 2023년 25개 센터 평균 4.7명에서 2024년 2학기 33개 센터 평균 4.4명으로 전년 대비 평균 0.3명 감소하였다. 그러나 2024년에는 1학기 평균 3.7명, 여름방학 평균 4.6명, 2학기 평균 4.4명으로 2024년 초등학교 1학년인 아동 수는 늘봄학교 시행 기간 여름방학 기간 증가 후 감소하였으나, 전체적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6) 대전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한 초등학교 1학년 아동 수는 2023년과 2024년 모두 139개 센터 평균 2.4명으로 동일하였다. 2024년에는 1학기 평균 2.0명, 여름방학 평균 2.3명, 2학기 평균 2.4명으로 2024년 초등학교 1학년인 아동 수는 늘봄학교 시행 기간 소폭 증가세를 보였다.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한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은 2023년 28개 센터 평균 8.1명에서 2024년 2학기 30개 센터 평균 5.3명으로 전년 대비 평균 2.8명 감소하였다. 그러나 2024년에는 1학기 평균 4.4명, 여름방학 평균 5.7명, 2학기 평균 5.3명으로 2024년 초등학교 1학년인 아동 수는 늘봄학교 시행 기간 여름방학 기간 증가 후 감소하였으나, 전체적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7) 울산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한 초등학교 1학년 아동 수는 2023년 57개 센터 평균 1.7명에서 2024년 2학기 57개 센터 평균 2.2명으로 전년 대비 평균 0.5명 증가하였다. 2024년에는 1학기 평균 1.7명, 여름방학 평균 2.1명, 2학기 평균 2.2명으로 2024년 초등학교 1학년인 아동 수는 늘봄학교 시행 기간 소폭 증가세를 보였다.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한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은 2023년 28개 센터 평균 6.4명에서 2024년 2학기 28개 센터 평균 3.6명으로 전년 대비 평균 2.8명 감소하였다. 그러나 2024년에는 1학기 평균 3.4명, 여름방학 평균 4.1명, 2학기 평균 3.6명으로 2024년 초등학교 1학년인 아동 수는 늘봄학교 시행 기간 여름방학 기간 증가 후 감소하였으나, 전체적으로 소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8) 세종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한 초등학교 1학년 아동 수는 2023년 13개 센터 평균 3.8명에서 2024년 2학기 13개 센터 평균 2.6명으로 전년 대비 평균 1.2명 감소하였다. 2024년에는 1학기 평균 2.1명, 여름방학 평균 2.5명, 2학기 평균 2.6명으로 2024년 초등학교 1학년인 아동 수는 늘봄학교 시행 기간 소폭 증가세를 보였다.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한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은 2023년 7개 센터 평균 6.9명에서 2024년 2학기 9개 센터 평균 5.6명으로 전년 대비 평균 1.3명 감소하였다. 그러나 2024년에는 1학기 평균 3.7명, 여름방학 평균 6.6명, 2학기 평균 5.6명으로 2024년 초등학교 1학년인 아동 수는 늘봄학교 시행 기간 여름방학 기간 증가 후 감소하였으나, 전체적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9) 경기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한 초등학교 1학년 아동 수는 2023년 763개 센터 평균 2.9명에서 2024년 2학기 771개 센터 평균 2.6명으로 전년 대비 평균 0.3명 감소하였다. 2024년에는 1학기 평균 2.2명, 여름방학 평균 2.5명, 2학기 평균 2.6명으로 2024년 초등학교 1학년인 아동 수는 늘봄학교 시행 기간 소폭 증가세를 보였다.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한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은 2023년 286개 센터 평균 8.9명에서 2024년 2학기 326개 센터 평균 9.6명으로 전년 대비 평균 0.7명 증가하였다. 2024년에는 1학기 평균 8.3명, 여름방학 평균 9.4명, 2학기 평균 9.6명으로 2024년 초등학교 1학년인 아동 수는 늘봄학교 시행 기간 증가세를 보였다.

(10) 강원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한 초등학교 1학년 아동 수는 2023년 169개 센터 평균 3.2명에서 2024년 2학기 170개 센터 평균 2.9명으로 전년 대비 평균 0.3명 감소하였다. 그러나 2024년에는 1학기 평균 2.5명, 여름방학 평균 2.8명, 2학기 평균 2.9명으로 2024년 초등학교 1학년인 아동 수는 늘봄학교 시행 기간 소폭 증가세를 보였다.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한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은 2023년 36개 센터 평균 7.3명에서 2024년 2학기 46개 센터 평균 5.9명으로 전년 대비 평균 1.4명 감소하였다. 2024년에는 1학기 평균 5.0명, 여름방학 평균 7.0명, 2학기 평균 5.9명으로 2024년 초등학교 1학년인 아동 수는 늘봄학교 시행 기간 여름방학 기간 증가 후 감소하였으나, 전체적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11) 충북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한 초등학교 1학년 아동 수는 2023년 176개 센터 평균 3.1명에서 2024년 2학기 177개 센터 평균 3.1명으로 전년 대비 동일하였다. 그러나 2024년에는 1학기 평균 2.6명, 여름방학 평균 3.0명, 2학기 평균 3.1명으로 2024년 초등학교 1학년인 아동 수는 늘봄학교 시행 기간 소폭 증가세를 보였다.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한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은 2023년 34개 센터 평균 6.8명에서 2024년 2학기 39개 센터 평균 5.2명으로 전년 대비 평균 1.6명 감소하였다. 그러나 2024년에는 1학기 평균 4.2명, 여름방학 평균 5.1명, 2학기 평균 5.2명으로 2024년 초등학교 1학년인 아동 수는 늘봄학교 시행 기간 여름방학 기간 증가세를 보였다.

(12) 충남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한 초등학교 1학년 아동 수는 2023년 235개 센터 평균 3.0명에서 2024년 2학기 238개 센터 평균 2.7명으로 전년 대비 평균 0.3명 감소하였다. 그러나 2024년에는 1학기 평균 2.4명, 여름방학 평균 2.6명, 2학기 평균 2.7명으로 2024년 초등학교 1학년인 아동 수는 늘봄학교 시행 기간 소폭 증가세를 보였다.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한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은 2023년 43개 센터 평균 7.6명에서 2024년 2학기 49개 센터 평균 7.1명으로 전년 대비 평균 0.5명 감소하였다. 그러나 2024년에는 1학기 평균 6.0명, 여름방학 평균 7.2명, 2학기 평균 7.1명으로 2024년 초등학교 1학년인 아동 수는 늘봄학교 시행 기간 여름방학 기간 증가 후 약간 감소하였으나, 전체적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13) 전북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한 초등학교 1학년 아동 수는 2023년 283개 센터 평균 3.0명에서 2024년 2학기 287개 센터 평균 2.9명으로 전년 대비 평균 0.1명 감소하여 큰 차이가 없었다. 2024년에는 1학기 평균 2.4명, 여름방학 평균 2.8명, 2학기 평균 2.9명으로 2024년 초등학교 1학년인 아동 수는 늘봄학교 시행 기간 소폭 증가세를 보였다.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한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은 2023년 45개 센터 평균 3.5명에서 2024년 2학기 48개 센터 평균 3.9명으로 전년 대비 평균 0.4명 증가하였다. 2024년에는 1학기 평균 3.5명, 여름방학 평균 4.5명, 2학기 평균 3.9명으로 2024년 초등학교 1학년인 아동 수는 늘봄학교 시행 기간 여름방학 기간 증가 후 감소하였으나, 전체적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14) 전남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한 초등학교 1학년 아동 수는 2023년 370개 센터 평균 2.8명에서 2024년 2학기 372개 센터 평균 2.6명으로 전년 대비 평균 0.2명 감소하였다. 2024년에는 1학기 평균 2.2명, 여름방학 평균 2.5명, 2학기 평균 2.6명으로 2024년 초등학교 1학년인 아동 수는 늘봄학교 시행 기간 소폭 증가세를 보였다.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한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은 2023년 31개 센터 평균 6.2명에서 2024년 2학기 36개 센터 평균 4.7명으로 전년 대비 평균 1.5명 감소하였다. 2024년에는 1학기 평균 4.1명, 여름방학 평균 4.7명, 2학기 평균 4.7명으로 2024년 초등학교 1학년인 아동 수는 늘봄학교 시행 기간 증가세를 보였다.

(15) 경북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한 초등학교 1학년 아동 수는 2023년 264개 센터 평균 2.9명에서 2024년 2학기 264개 센터 평균 2.5명으로 전년 대비 평균 0.4명 감소하였다. 2024년에는 1학기 평균 2.2명, 여름방학 평균 2.4명, 2학기 평균 2.5명으로 2024년 초등학교 1학년인 아동 수는 늘봄학교 시행 기간 소폭 증가세를 보였다.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한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은 2023년 66개 센터 평균 5.8명에서 2024년 2학기 70개 센터 평균 6.4명으로 전년 대비 평균 0.6명 증가하였다. 2024년에는 1학기 평균 5.1명, 여름방학 평균 6.4명, 2학기 평균 6.4명으로 2024년 초등학교 1학년인 아동 수는 늘봄학교 시행 기간 증가세를 보였다.

(16) 경남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한 초등학교 1학년 아동 수는 2023년 272개 센터 평균 3.1명에서 2024년 2학기 278개 센터 평균 2.5명으로 전년 대비 평균 0.6명 감소하였다. 2024년에는 1학기 평균 2.2명, 여름방학 평균 2.4명, 2학기 평균 2.5명으로 2024년 초등학교 1학년인 아동 수는 늘봄학교 시행 기간 소폭 증가세를 보였다.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한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은 2023년 30개 센터 평균 3.7명에서 2024년 2학기 36개 센터 평균 5.3명으로 전년 대비 평균 1.6명 증가하였다. 2024년에는 1학기 평균 3.7명, 여름방학 평균 5.1명, 2학기 평균 5.3명으로 2024년 초등학교 1학년인 아동 수는 늘봄학교 시행 기간 증가세를 보였다.

(17) 제주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한 초등학교 1학년 아동 수는 2023년 64개 센터 평균 3.8명에서 2024년 2학기 64개 센터 평균 4.0명으로 전년 대비 평균 0.2명 증가하였다. 2024년에는 1학기 평균 3.8명, 여름방학 평균 4.0명, 2학기 평균 4.0명으로 2024년 초등학교 1학년인 아동 수는 늘봄학교 시행 기간 소폭 증가세를 보였다.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한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은 2023년 5개 센터 평균 2.8명에서 2024년 2학기 7개 센터 평균 4.9명으로 전년 대비 평균 2.1명 증가하였다. 2024년에는 1학기 평균 2.3명, 여름방학 평균 4.0명, 2학기 평균 4.9명으로 2024년 초등학교 1학년인 아동 수는 늘봄학교 시행 기간 증가세를 보였다.

<표 3-16> 서울 지역아동센터 평균 이용 아동 수(2023~2024년)

(단위: 개소, 명)

구분		사례수	정원	현원	미취학	초						중	고	학교밖
						1	2	3	4	5	6			
늘봄학교 시행 전	2023년	391	28.8	26.5	0.2	2.2	2.9	3.0	3.2	3.7	3.2	5.8	2.3	0.0
늘봄학교 시행	2024년 1학기	395	28.9	26.9	0.1	1.6	2.6	3.1	3.2	3.2	3.7	6.6	2.8	0.0
	2024년 여름방학	396	29.0	27.2	0.2	1.9	2.8	3.2	3.3	3.2	3.6	6.3	2.6	0.0
	2024년 2학기	396	29.0	27.1	0.1	2.0	2.9	3.3	3.2	3.2	3.6	6.2	2.5	0.0

<표 3-17> 서울 다함께돌봄센터 평균 이용 아동 수(2023~2024년)

(단위: 개소, 명)

구분		사례수	정원	현원	미취학	초					
						1	2	3	4	5	6
늘봄학교 시행 전	2023년	253	28.2	27.4	0.2	6.9	8.2	6.3	3.4	1.7	0.7
늘봄학교 시행	2024년 1학기	257	28.4	27.5	0.1	4.1	7.1	7.6	5.0	2.5	1.0
	2024년 여름방학	261	30.1	30.0	0.1	5.2	7.7	8.1	5.3	2.6	1.0
	2024년 2학기	262	29.2	28.5	0.1	5.0	7.5	7.7	5.0	2.3	0.9

<표 3-18> 부산 지역아동센터 평균 이용 아동 수(2023~2024년)

(단위: 개소, 명)

구분		사례수	정원	현원	미취학	초						중	고	학교밖
						1	2	3	4	5	6			
늘봄학교 시행 전	2023년	211	26.5	24.6	0.3	2.2	2.9	3.3	3.3	3.5	2.9	5.2	1.1	0.0
늘봄학교 시행	2024년 1학기	211	26.5	24.9	0.1	1.5	2.6	3.2	3.4	3.3	3.3	5.9	1.5	0.0
	2024년 여름방학	211	26.6	25.1	0.2	1.8	2.6	3.4	3.5	3.3	3.4	5.6	1.3	0.0
	2024년 2학기	212	26.8	25.3	0.2	1.9	2.7	3.5	3.5	3.3	3.4	5.5	1.3	0.0

<표 3-19> 부산 다함께돌봄센터 평균 이용 아동 수(2023~2024년)

(단위: 개소, 명)

구분		사례수	정원	현원	미취학	초					
						1	2	3	4	5	6
늘봄학교 시행 전	2023년	58	20.0	17.8	0.1	7.2	5.3	3.5	1.0	0.5	0.1
늘봄학교 시행	2024년 1학기	62	21.5	19.0	0.1	4.5	6.8	4.6	2.1	0.6	0.4
	2024년 여름방학	64	22.6	21.4	0.1	5.1	7.5	5.2	2.3	0.8	0.4
	2024년 2학기	64	22.2	19.4	0.1	4.9	6.8	4.7	2.0	0.6	0.3

<표 3-20> 대구 지역아동센터 평균 이용 아동 수(2023~2024년)

(단위: 개소, 명)

구분		사례수	정원	현원	미취학	초						중	고	학교밖
						1	2	3	4	5	6			
늘봄학교 시행 전	2023년	205	27.6	26.1	0.7	2.6	3.3	3.9	3.6	3.7	3.0	4.6	0.7	0.0
늘봄학교 시행	2024년 1학기	207	28.0	26.7	0.3	1.7	3.1	3.7	3.9	3.7	3.6	5.6	1.0	0.0
	2024년 여름방학	207	27.9	26.9	0.4	2.2	3.4	3.8	4.0	3.6	3.5	5.2	0.9	0.0
	2024년 2학기	207	27.9	26.8	0.4	2.3	3.4	3.8	4.0	3.6	3.4	5.1	0.9	0.0

<표 3-21> 대구 다함께돌봄센터 평균 이용 아동 수(2023~2024년)

(단위: 개소, 명)

구분		사례수	정원	현원	미취학	초					
						1	2	3	4	5	6
늘봄학교 시행 전	2023년	11	18.5	16.1	0.8	4.1	4.0	3.0	2.2	1.1	1.0
늘봄학교 시행	2024년 1학기	13	21.6	17.8	0.3	4.6	4.8	3.2	3.3	0.9	0.7
	2024년 여름방학	13	22.8	20.2	0.5	4.8	5.1	4.4	3.5	1.2	0.8
	2024년 2학기	13	22.1	18.2	0.5	4.5	4.8	3.6	3.2	1.0	0.5

<표 3-22> 인천 지역아동센터 평균 이용 아동 수(2023~2024년)

(단위: 개소, 명)

구분		사례수	정원	현원	미취학	초						중	고	학교밖
						1	2	3	4	5	6			
늘봄학교 시행 전	2023년	174	26.2	24.4	0.2	2.2	3.2	3.5	3.5	3.7	2.8	4.3	0.9	0.0
늘봄학교 시행	2024년 1학기	176	26.7	25.1	0.1	1.8	2.8	3.5	3.7	3.4	3.6	5.0	1.3	0.0
	2024년 여름방학	177	26.6	25.2	0.2	2.1	3.1	3.7	3.8	3.2	3.4	4.6	1.0	0.0
	2024년 2학기	177	26.7	25.2	0.2	2.2	3.2	3.8	3.8	3.2	3.3	4.4	1.0	0.0

<표 3-23> 인천 다함께돌봄센터 평균 이용 아동 수(2023~2024년)

(단위: 개소, 명)

구분		사례수	정원	현원	미취학	초					
						1	2	3	4	5	6
늘봄학교 시행 전	2023년	29	22.1	16.7	0.2	5.4	5.1	3.3	1.6	0.8	0.3
늘봄학교 시행	2024년 1학기	34	22.1	19.1	0.0	4.3	5.5	5.1	3.0	0.8	0.5
	2024년 여름방학	37	24.4	22.9	0.2	5.7	6.6	5.6	3.4	0.8	0.6
	2024년 2학기	40	24.0	20.9	0.1	5.3	6.2	4.9	3.2	0.7	0.6

<표 3-24> 광주 지역아동센터 평균 이용 아동 수(2023~2024년)

(단위: 개소, 명)

구분		사례수	정원	현원	미취학	초						중	고	학교밖
						1	2	3	4	5	6			
늘봄학교 시행 전	2023년	296	25.9	24.0	0.3	2.9	3.5	3.8	3.6	3.7	3.0	3.0	0.2	0.0
늘봄학교 시행	2024년 1학기	296	25.9	24.2	0.2	2.2	3.4	3.6	3.8	3.4	3.5	3.9	0.2	0.0
	2024년 여름방학	297	25.9	24.4	0.3	2.5	3.7	3.7	3.8	3.3	3.3	3.5	0.2	0.0
	2024년 2학기	297	25.9	24.2	0.3	2.6	3.7	3.7	3.7	3.3	3.2	3.4	0.2	0.0

<표 3-25> 광주 다함께돌봄센터 평균 이용 아동 수(2023~2024년)

(단위: 개소, 명)

구분		사례수	정원	현원	미취학	초					
						1	2	3	4	5	6
늘봄학교 시행 전	2023년	25	19.9	16.4	0.3	4.7	5.9	2.2	2.1	0.9	0.3
늘봄학교 시행	2024년 1학기	29	21.7	18.7	0.1	3.7	5.4	5.3	2.1	1.5	0.7
	2024년 여름방학	32	24.3	21.4	0.2	4.6	6.5	5.6	2.5	1.4	0.8
	2024년 2학기	33	23.8	18.8	0.1	4.4	5.8	5.0	1.7	1	0.6

<표 3-26> 대전 지역아동센터 평균 이용 아동 수(2023~2024년)

(단위: 개소, 명)

구분		사례수	정원	현원	미취학	초						중	고	학교밖
						1	2	3	4	5	6			
늘봄학교 시행 전	2023년	139	28.2	26.3	0.7	2.4	3.2	3.7	3.8	3.9	3.4	4.3	0.9	0.0
늘봄학교 시행	2024년 1학기	139	28.2	26.7	0.3	2.0	2.8	3.8	3.6	3.7	3.6	5.5	1.4	0.0
	2024년 여름방학	139	28.3	27.0	0.4	2.3	3.0	3.9	3.9	3.7	3.6	5.1	1.0	0.0
	2024년 2학기	139	28.3	26.8	0.4	2.4	3.0	4.0	3.9	3.7	3.5	4.9	0.91	0.0

<표 3-27> 대전 다함께돌봄센터 평균 이용 아동 수(2023~2024년)

(단위: 개소, 명)

구분		사례수	정원	현원	미취학	초					
						1	2	3	4	5	6
늘봄학교 시행 전	2023년	28	28.0	22.7	0.5	8.1	5.9	4.6	2.3	0.9	0.4
늘봄학교 시행	2024년 1학기	30	27.7	25.0	0.1	4.4	7.9	6.0	3.8	1.9	1.0
	2024년 여름방학	30	28.7	27.9	0.1	5.7	8.4	7.3	3.7	1.8	0.9
	2024년 2학기	30	28.3	26.3	0.2	5.3	8.0	7.0	3.5	1.5	0.8

<표 3-28> 울산 지역아동센터 평균 이용 아동 수(2023~2024년)

(단위: 개소, 명)

구분		사례수	정원	현원	미취학	초						중	고	학교밖
						1	2	3	4	5	6			
늘봄학교 시행 전	2023년	57	23.4	22.3	0.4	1.7	2.8	3.5	3.3	3.7	3.6	3.1	0.2	—
늘봄학교 시행	2024년 1학기	57	23.5	22.4	0.3	1.7	2.1	3.3	3.6	3.2	3.7	4.1	0.4	—
	2024년 여름방학	57	23.5	22.5	0.4	2.1	2.3	3.3	3.7	3.2	3.5	3.6	0.4	—
	2024년 2학기	57	23.5	22.6	0.5	2.2	2.3	3.4	3.7	3.2	3.4	3.5	0.4	—

<표 3-29> 울산 다함께돌봄센터 평균 이용 아동 수(2023~2024년)

(단위: 개소, 명)

구분		사례수	정원	현원	미취학	초					
						1	2	3	4	5	6
늘봄학교 시행 전	2023년	28	21.5	20.0	0.4	6.4	5.4	4.5	2.0	1.0	0.4
늘봄학교 시행	2024년 1학기	28	21.8	20.0	0.1	3.4	6.0	5.0	3.4	1.5	0.7
	2024년 여름방학	28	22.5	21.5	0.1	4.1	6.3	5.0	3.6	1.6	0.7
	2024년 2학기	28	21.3	19.3	0.0	3.6	6.1	4.4	3.1	1.4	0.6

<표 3-30> 세종 지역아동센터 평균 이용 아동 수(2023~2024년)

(단위: 개소, 명)

구분		사례수	정원	현원	미취학	초						중	고	학교밖
						1	2	3	4	5	6			
늘봄학교 시행 전	2023년	13	27.7	25.5	0.8	3.8	3.8	3.5	3.6	4.2	3.1	2.5	0.3	—
늘봄학교 시행	2024년 1학기	13	26.9	25.8	0.7	2.1	4.3	3.8	3.8	3.5	4.1	2.9	0.6	—
	2024년 여름방학	13	26.9	25.6	0.8	2.5	4.1	4.3	3.8	3.5	3.7	2.4	0.6	—
	2024년 2학기	13	26.9	26.0	0.8	2.6	4.3	4.5	3.8	3.6	3.5	2.2	0.6	—

<표 3-31> 세종 다함께돌봄센터 평균 이용 아동 수(2023~2024년)

(단위: 개소, 명)

구분		사례수	정원	현원	미취학	초					
						1	2	3	4	5	6
늘봄학교 시행 전	2023년	7	23.3	23.0	—	6.9	6.1	6.1	2.7	1.1	—
늘봄학교 시행	2024년 1학기	9	23.3	18.7	—	3.7	5.6	4.1	3.1	1.7	0.6
	2024년 여름방학	9	28.1	28.1	—	6.6	6.6	6.9	4.9	2.3	0.9
	2024년 2학기	9	23.8	21.4	—	5.6	6.0	5.0	2.8	1.7	0.4

74 늘봄학교 시행에 따른 마을돌봄시설 영향분석 및 발전방향 연구

<표 3-32> 경기 지역아동센터 평균 이용 아동 수(2023~2024년)

(단위: 개소, 명)

구분		사례수	정원	현원	미취학	초						중	고	학교밖
						1	2	3	4	5	6			
늘봄학교 시행 전	2023년	763	30.5	27.9	0.4	2.9	3.9	3.9	4.0	3.9	3.3	4.4	1.2	0.0
늘봄학교 시행	2024년 1학기	769	30.6	28.6	0.3	2.2	3.6	4.3	3.9	3.9	3.7	5.2	1.4	0.0
	2024년 여름방학	770	30.6	28.7	0.3	2.5	3.8	4.5	4.0	3.9	3.6	4.9	1.2	0.0
	2024년 2학기	771	30.6	28.7	0.4	2.6	3.9	4.5	3.9	3.8	3.5	4.8	1.2	0.1

<표 3-33> 경기 다함께돌봄센터 평균 이용 아동 수(2023~2024년)

(단위: 개소, 명)

구분		사례수	정원	현원	미취학	초					
						1	2	3	4	5	6
늘봄학교 시행 전	2023년	286	25.7	23.9	0.1	8.9	8.1	4.1	1.7	0.8	0.3
늘봄학교 시행	2024년 1학기	309	27.7	26.3	0.0	8.3	8.9	5.6	2.2	0.9	0.4
	2024년 여름방학	322	29.4	28.8	0.0	9.4	9.5	6.1	2.3	1.0	0.4
	2024년 2학기	326	29.2	28.2	0.0	9.6	9.4	5.9	2.1	0.9	0.4

<표 3-34> 강원 지역아동센터 평균 이용 아동 수(2023~2024년)

(단위: 개소, 명)

구분		사례수	정원	현원	미취학	초						중	고	학교밖
						1	2	3	4	5	6			
늘봄학교 시행 전	2023년	169	28.5	26.7	0.8	3.2	4.1	4.0	4.1	3.4	3.0	3.3	0.7	0.0
늘봄학교 시행	2024년 1학기	170	28.7	26.9	0.6	2.5	3.8	4.4	3.8	4.1	3.2	3.8	0.7	0.0
	2024년 여름방학	170	28.9	27.2	0.7	2.8	4.0	4.4	3.8	3.9	3.1	3.7	0.7	0.0
	2024년 2학기	170	29.1	27.3	0.7	2.9	4.0	4.4	3.8	3.9	3.1	3.7	0.6	0.2

<표 3-35> 강원 다함께돌봄센터 평균 이용 아동 수(2023~2024년)

(단위: 개소, 명)

구분		사례수	정원	현원	미취학	초					
						1	2	3	4	5	6
늘봄학교 시행 전	2023년	36	24.5	21.4	0.3	7.3	5.7	3.3	2.4	1.5	0.9
늘봄학교 시행	2024년 1학기	42	26.0	21.9	0.2	5.0	7.4	4.3	1.9	2.0	1.2
	2024년 여름방학	46	28.0	26.0	0.3	7.0	8.1	4.8	2.5	2.1	1.3
	2024년 2학기	46	27.8	23.8	0.3	5.9	7.8	4.5	2.3	1.8	1.2

<표 3-36> 충북 지역아동센터 평균 이용 아동 수(2023~2024년)

(단위: 개소, 명)

구분		사례수	정원	현원	미취학	초						중	고	학교밖
						1	2	3	4	5	6			
늘봄학교 시행 전	2023년	176	28.2	26.2	0.7	3.1	4.0	3.6	3.5	3.8	3.2	3.7	0.5	0.0
늘봄학교 시행	2024년 1학기	177	28.2	26.7	0.5	2.6	3.5	4.3	3.6	3.4	3.7	4.3	0.8	0.0
	2024년 여름방학	177	28.4	27.0	0.6	3.0	3.6	4.4	3.7	3.4	3.6	4.0	0.6	0.0
	2024년 2학기	177	28.4	27.0	0.7	3.1	3.7	4.5	3.6	3.3	3.5	3.9	0.6	0.0

<표 3-37> 충북 다함께돌봄센터 평균 이용 아동 수(2023~2024년)

(단위: 개소, 명)

구분		사례수	정원	현원	미취학	초					
						1	2	3	4	5	6
늘봄학교 시행 전	2023년	34	19.6	19.7	1.1	6.8	4.9	3.6	2.0	1.0	0.4
늘봄학교 시행	2024년 1학기	34	20.1	19.5	0.2	4.2	6.3	4.6	2.3	1.3	0.7
	2024년 여름방학	37	21.3	20.8	0.2	5.1	6.8	4.5	2.4	1.2	0.6
	2024년 2학기	39	21.9	20.5	0.3	5.2	6.8	4.5	2.1	1.1	0.5

<표 3-38> 충남 지역아동센터 평균 이용 아동 수(2023~2024년)

(단위: 개소, 명)

구분		사례수	정원	현원	미취학	초						중	고	학교밖
						1	2	3	4	5	6			
늘봄학교 시행 전	2023년	235	28.9	26.6	1.0	3.0	3.6	4.0	3.7	3.7	3.3	3.5	0.8	0.1
늘봄학교 시행	2024년 1학기	238	29.3	27.1	0.8	2.4	3.6	3.8	4.0	3.6	3.6	4.4	0.9	0.1
	2024년 여름방학	238	29.3	27.4	1.0	2.6	3.8	4.0	4.0	3.6	3.5	4.1	0.8	0.1
	2024년 2학기	238	29.4	27.3	1.0	2.7	3.8	4.0	4.0	3.6	3.4	4.0	0.8	0.1

<표 3-39> 충남 다함께돌봄센터 평균 이용 아동 수(2023~2024년)

(단위: 개소, 명)

구분		사례수	정원	현원	미취학	초					
						1	2	3	4	5	6
늘봄학교 시행 전	2023년	43	23.6	22.0	0.7	7.6	6.9	3.1	2.0	1.0	0.7
늘봄학교 시행	2024년 1학기	44	24.1	22.1	0.6	6.0	7.1	4.0	2.2	1.4	0.9
	2024년 여름방학	48	27.2	26.0	0.8	7.2	7.7	5.2	2.7	1.5	1.0
	2024년 2학기	49	27.1	24.7	0.6	7.1	7.8	4.6	2.3	1.3	1.0

<표 3-40> 전북 지역아동센터 평균 이용 아동 수(2023~2024년)

(단위: 개소, 명)

구분		사례수	정원	현원	미취학	초						중	고	학교밖
						1	2	3	4	5	6			
늘봄학교 시행 전	2023년	283	27.1	25.4	1.0	3.0	3.6	3.9	3.6	3.7	3.0	3.3	0.6	0.0
늘봄학교 시행	2024년 1학기	287	27.7	26.2	0.5	2.4	3.5	4.0	4.1	3.6	3.4	3.9	0.7	0.0
	2024년 여름방학	287	27.6	26.3	0.8	2.8	3.6	4.0	4.1	3.6	3.3	3.5	0.6	—
	2024년 2학기	287	27.6	26.3	0.8	2.9	3.7	4.1	4.0	3.5	3.2	3.5	0.6	—

<표 3-41> 전북 다함께돌봄센터 평균 이용 아동 수(2023~2024년)

(단위: 개소, 명)

구분		사례수	정원	현원	미취학	초					
						1	2	3	4	5	6
늘봄학교 시행 전	2023년	45	21.2	17.3	0.9	3.5	5.4	3.2	1.9	1.7	0.7
늘봄학교 시행	2024년 1학기	48	21.2	17.8	0.6	3.5	3.8	4.6	2.6	1.7	1.1
	2024년 여름방학	48	21.1	20.0	0.8	4.5	4.3	5.0	2.8	1.6	1.1
	2024년 2학기	48	21	18.4	0.6	3.9	3.8	4.7	2.7	1.6	1.1

<표 3-42> 전남 지역아동센터 평균 이용 아동 수(2023~2024년)

(단위: 개소, 명)

구분		사례수	정원	현원	미취학	초						중	고	학교밖
						1	2	3	4	5	6			
늘봄학교 시행 전	2023년	370	27.6	25.9	1.0	2.8	3.5	3.8	4.0	4.0	3.3	3.2	0.3	0.1
늘봄학교 시행	2024년 1학기	370	27.5	25.7	0.7	2.2	3.1	3.8	3.7	3.9	3.7	4.0	0.4	0.1
	2024년 여름방학	372	27.3	26.0	0.8	2.5	3.3	4.1	3.7	3.9	3.5	3.7	0.3	0.1
	2024년 2학기	372	27.3	25.9	0.9	2.6	3.4	4.1	3.7	3.8	3.4	3.6	0.3	0.1

<표 3-43> 전남 다함께돌봄센터 평균 이용 아동 수(2023~2024년)

(단위: 개소, 명)

구분		사례수	정원	현원	미취학	초					
						1	2	3	4	5	6
늘봄학교 시행 전	2023년	31	28.1	24.0	2.3	6.2	5.6	4.7	2.9	1.7	0.6
늘봄학교 시행	2024년 1학기	35	27.9	24.1	1.3	4.1	6.3	5.7	3.5	2.3	1.0
	2024년 여름방학	36	27.6	26.4	1.4	4.7	7.2	6.2	3.7	2.3	1.0
	2024년 2학기	36	26.5	23.9	1.2	4.7	6.8	5.2	3.1	1.9	0.9

<표 3-44> 경북 지역아동센터 평균 이용 아동 수(2023~2024년)

(단위: 개소, 명)

구분		사례수	정원	현원	미취학	초						중	고	학교밖
						1	2	3	4	5	6			
늘봄학교 시행 전	2023년	264	28.1	25.8	1.0	2.9	3.6	3.5	3.8	3.6	3.2	4.1	0.4	0.0
늘봄학교 시행	2024년 1학기	264	28.3	26.1	0.4	2.2	3.4	3.9	3.6	3.7	3.6	4.7	0.6	0.0
	2024년 여름방학	264	28.2	26.3	0.6	2.4	3.5	4.1	3.6	3.7	3.5	4.4	0.5	0.0
	2024년 2학기	264	28.2	26.2	0.6	2.5	3.5	4.1	3.6	3.6	3.5	4.4	0.4	0.0

<표 3-45> 경북 다함께돌봄센터 평균 이용 아동 수(2023~2024년)

(단위: 개소, 명)

구분		사례수	정원	현원	미취학	초					
						1	2	3	4	5	6
늘봄학교 시행 전	2023년	66	23.3	21.3	0.7	5.8	6.0	4.4	2.2	1.4	0.7
늘봄학교 시행	2024년 1학기	66	23.7	22.1	0.3	5.1	6.3	4.9	2.9	1.6	1.0
	2024년 여름방학	70	25.5	24.9	0.5	6.4	6.9	5.4	3.0	1.6	1.0
	2024년 2학기	70	25.0	23.9	0.6	6.4	6.6	5.1	2.8	1.4	0.9

<표 3-46> 경남 지역아동센터 평균 이용 아동 수(2023~2024년)

(단위: 개소, 명)

구분		사례수	정원	현원	미취학	초						중	고	학교밖
						1	2	3	4	5	6			
늘봄학교 시행 전	2023년	272	27.5	25.7	1.0	3.1	3.4	3.6	3.6	3.6	3.0	3.9	0.7	0.0
늘봄학교 시행	2024년 1학기	274	27.8	26.1	0.5	2.2	3.4	3.7	3.6	3.6	3.5	4.7	1.0	0.0
	2024년 여름방학	276	27.9	26.4	0.6	2.4	3.6	3.8	3.7	3.5	3.4	4.4	0.9	0.0
	2024년 2학기	278	28.1	26.5	0.6	2.5	3.7	3.8	3.7	3.5	3.4	4.2	0.9	0.0

<표 3-47> 경남 다함께돌봄센터 평균 이용 아동 수(2023~2024년)

(단위: 개소, 명)

구분		사례수	정원	현원	미취학	초					
						1	2	3	4	5	6
늘봄학교 시행 전	2023년	30	18.0	15.9	0.3	3.7	5.0	3.9	1.5	1.0	0.4
늘봄학교 시행	2024년 1학기	34	20.8	18.5	0.2	3.7	4.8	5.1	3.0	0.9	0.8
	2024년 여름방학	36	22.6	22.1	0.3	5.1	5.7	6.1	3.3	0.9	0.8
	2024년 2학기	36	22.6	21.6	0.5	5.3	5.6	5.7	3.0	0.9	0.7

<표 3-48> 제주 지역아동센터 평균 이용 아동 수(2023~2024년)

(단위: 개소, 명)

구분		사례수	정원	현원	미취학	초						중	고	학교밖
						1	2	3	4	5	6			
늘봄학교 시행 전	2023년	64	27.7	25.7	1.0	3.8	7.1	4.1	3.2	2.7	1.8	1.4	0.1	—
늘봄학교 시행	2024년 1학기	64	27.6	26.1	2.2	3.8	6.6	4.4	3.2	2.6	1.9	1.3	0.1	—
	2024년 여름방학	64	27.6	26.1	2.4	4.0	6.6	4.3	3.1	2.7	1.8	1.1	0.1	—
	2024년 2학기	64	27.6	26.1	2.5	4.0	6.5	4.3	3.1	2.6	1.8	1.1	0.1	—

<표 3-49> 제주 다함께돌봄센터 평균 이용 아동 수(2023~2024년)

(단위: 개소, 명)

구분		사례수	정원	현원	미취학	초					
						1	2	3	4	5	6
늘봄학교 시행 전	2023년	5	20.2	18.2	—	2.8	5.2	4.6	3.4	1.6	0.6
늘봄학교 시행	2024년 1학기	6	22.7	19.3	—	2.3	5.5	5.0	4.3	1.5	0.7
	2024년 여름방학	7	24.3	21.0	0.3	4.0	5.0	5.1	4.3	1.1	1.1
	2024년 2학기	7	24.3	20.1	0.3	4.9	4.9	4.6	3.7	1.0	0.9

제2절 늘봄학교 시행과 마을돌봄시설 영향(FGI)

1. 초점집단면접(FGI) 개요

2024년 늘봄학교 시행이 지역사회 돌봄 제공 기관인 마을돌봄시설에 미치는 영향, 마을돌봄시설의 늘봄학교 대응 현황, 늘봄학교 및 지역사회 돌봄 이용 대상자인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늘봄학교 및 마을돌봄시설 이용 경험이나 의향, 인식, 욕구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초점집단면접(이하 'FGI')을 실시하였다.

면접 기간은 2024년 9월~10월이었으며, 대면과 비대면을 병행하여 연구자가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하여 직접 질의하는 방식으로 회당 120분 이내에서 집단별 면접을 수행하였다. 면접 참여자에게는 면접의 목적 및 활용 범위를 안내하고 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사전에 구하였다. 자료 분석과 주요 결과 도출을 위하여 인터뷰 내용은 인터뷰 참여자의 동의를 받고 모두 녹음 및 녹화되어 녹취록으로 작성되었다. 구체적인 지역명이나 식별 또는 유추할 수 있는 개인정보는 공개하지 않고 익명 처리하였다.

<표 3-50> FGI 내용

구분	내용	
시·도 지역아동센터 지원단, 다함께돌봄센터 시설장	• 응답자 일반특성	• 성별 • 지역특성, 성별, 연령, 현 센터 근무경력
	• 늘봄학교 시행 이후 마을돌봄시설 변화	• 이용 아동 변화 • 인력 및 프로그램 변화 • 향후 예측되는 변화
	• 마을돌봄시설의 늘봄학교 대응	• 관계기관 간 협의의 필요성 • 늘봄학교와의 연계·협력 • 늘봄학교 대응 • 마을돌봄시설 향후 기능 및 특성화 방안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보호자	• 응답자 일반특성	• 지역특성, 성별, 연령대, 맞벌이 여부, 자녀 수, 늘봄학교 이용 여부, • 마을돌봄시설 이용 여부
	• 늘봄학교와 마을돌봄시설의 이용 경험·의향	• 현재 이용하는 돌봄 경험 및 만족도 • 늘봄학교에 대한 인식 및 이용 의향 • 마을돌봄시설에 대한 인식 및 이용 의향

2. FGI 참여자 일반특성

FGI 참여자는 총 3개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참여 집단은 ① 17개 시·도 지역아동센터 지원단 실무자 17명(집단 A)¹⁾, ② 다함께돌봄센터 시설장 6명(집단 B), ③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보호자 12명(집단 C)으로, 총 35명이 참여하였다. 집단 A는 시·도별 6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집단 B는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지역 소재 센터로 구분하여 지역특성별로 센터장 각 2인이 참여하였다. 집단 C 역시 거주지역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지역으로 구분하여 각 4인의 성인 보호자가 참여하였다. 2024년 현재 초등학교 1학년인 아동의 가정 중 다문화가정,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가구, 장애아동 가구는 없었다.

3개 그룹별 FGI 참여자 일반특성은 익명성 보장을 위하여 식별가능한 정보를 모두 제외하고 다음의 표에 제시하였다.

<표 3-51> FGI 참여자 일반특성(지역아동센터)

구분	연번	성별
A. 시·도 지역아동센터 지원단	A-1	여
	A-2	여
	A-3	남
	A-4	여
	A-5	남
	A-6	여
	A-7	여
	A-8	남
	A-9	남
	A-10	여
	A-11	여
	A-12	남
	A-13	여
	A-14	여
	A-15	여
	A-16	여
	A-17	여

1) 현재 세종은 별도 지원단이 없으며, 충남지원단에서 함께 지원하고 있음.

<표 3-52> FGI 참여자 일반특성(다함께돌봄센터)

구분	연번	지역특성	성별	연령	현 센터 근무경력
B. 다함께돌봄센터 시설장	B-1	대도시	여	44세	5년
	B-2	대도시	여	62세	5년
	B-3	중소도시	여	60세	5년
	B-4	중소도시	여	39세	4년
	B-5	농어촌	여	53세	1년
	B-6	농어촌	여	46세	5년

<표 3-53> FGI 참여자 일반특성(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보호자)

구분	연번	지역특성	성별	연령대	맞벌이	자녀수	늘봄학교 이용	센터 이용		
								지아센	다돌	
C.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보호자	C-1	대도시	여	30대	×	2	o	×	×	
	C-2	대도시	여	30대	×	2	o	×	×	
	C-3	대도시	남	40대	×	1	o	×	×	
	C-4	대도시	여	30대	×	1	×	×	×	(일시돌봄 경험 o)
	C-5	중소도시	여	40대	o	3	o	×	×	
	C-6	중소도시	여	40대	×	1	×	×	×	
	C-7	중소도시	여	30대	×	1	o	×	×	
	C-8	중소도시	여	30대	o	2	×	×	×	(정기돌봄 경험 o)
	C-9	농어촌	여	40대	o	1	o	×	×	
	C-10	농어촌	여	30대	o	4	o	×	×	
	C-11	농어촌	여	40대	o	2	o	×	×	
	C-12	농어촌	여	40대	×	2	o	o	×	

3. FGI 분석 결과

가. 늘봄학교 시행 이후 마을돌봄시설 변화

(1) 이용 아동 변화

2024년 늘봄학교 시행 이후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의 이용 아동 수는 현재까지 심각한 수준의 변화는 없다는 것이 전반적인 의견이었다. 이는 학기 중 및 방학 중 모두 해당하였으며, 특히 아동 과밀 지역에서는 센터 이용을 위한 대기 아동도 여전히 존재하였다. 다만 지역별 차이는 일부 존재하여 일부 센터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이하 ‘초1’) 아동의 이용률이 감소하고 주요 돌봄아동 연령대가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고학년으로 이동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초1 아동 수 감소와 주요 돌봄연령대의 상향이 늘봄학교의 영향인지, 최근의 저출산 영향으로 인한 전반적인 아동 인구 감소에 따른 것인지는 아직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 2024년에는 늘봄학교가 관련 법 제정이나 인프라 구축이 불충분하고 1학년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기존 돌봄제도와 차별성이 크지 않은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전체적인 아동 수의 변화도 없고 어떤 특이점이 보이지 않는, 1학년 수가 더 줄어들었다거나 그런 게 보이지 않습니다. 지자체가 월별 현황을 보고받고 있어 여쭙봤더니 변화가 크게 뚜렷하게 없다. 특히 1학년의 변화가 주목됐었는데 변화가 크게 없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A-1)

지금 늘봄학교를 운영 중이라고 해도 아직까지 저학년 1학년이 감소했거나 이런 것들은 현장에서 느끼지는 못하고 계신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현재 정원이라든지 현원, 대기 인원 같은 경우에는 크게 기존과 다르지 않습니다. (A-5)

이용 아동의 변화는 그렇게 크게 없고요. 근데 다만 사실 아동 인구 자체가 줄고 있기 때문에 정원 변경은 코로나 이후에 이미 시설이 19인 이하로 많이 내려가는 그런 경향들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A-6)

일단 정원, 현원, 대기 인원, 학기 중 시간대별 변화나 학년별 변화 등등 늘봄학교 시행에 의해서 변경된 바는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고요. 오히려 전체 아동 수가 줄고 있어서 초등학교 저학년 특히 1, 2학년이 안 들어오는 거에 대한 고민이 많은 편입니다. (A-14)

오히려 아이들이 많은 곳은 늘 애들이 또 많아요. 시골 친구들은 학원을 못 가니까.
(A-17)

저희 센터가 위치하고 있는 주변의 학교에서는 늘봄학교를 시행하는 곳이 그렇게 아직은 확산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중략] 아직까지 동요는 없다라는 반응들입니다. 방학 중에도 큰 변화는 없습니다. (B-2)

저희 센터는 학교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항상 저희는 정원은 다 차고 여전히 대기 아동도 있는 상황입니다. 방학 때 이용은 더 활발해진 편입니다. (B-4)

무엇보다 현재까지는 초1 이용 아동 수에는 큰 변화가 없으나 늘봄학교의 초1 맞춤형 프로그램(13~15시 운영)을 이용한 후 센터로 이동하는 사례가 증가하여 초1 아동의 센터 이용 시간대가 늦어지는 변화가 주요하게 나타났다. 이로 인해 전체적으로 아동이 이용하는 돌봄 시간대는 15~18시에 더욱 집중되었고, 특히 16~17시가 이용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돌봄 서비스 질 제고 측면에서도 집중 돌봄 시간대에는 추가적인 돌봄 인력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저학년 아동의 이용 시간대 지연과 특정 시간대로의 돌봄 아동 쏠림으로 인해 일부 센터에서는 원활한 프로그램 운영의 어려움이 발생하여 입소 대기 아동 중 늘봄학교를 이용하지 않는 아동을 우선 입소시키는 방법도 고민하고 있었다.

아이들 이용 시간대가 뒤로 밀리는 그런 변화들을 느끼신다고 하셨어요. (A-10)

저희가 모니터링해 보면 대부분 오후 4시 정도 돼야 아이들이 좀 온다라는 느낌을 받더라고요. (A-5)

1학년은 늘봄을 가니까 예전보다 이용 시간이 늦어진 거는 있어요. (A-6)

그나마 조금 변화가 있는 게 1시에서 3시 사이에 이용 인원이 감소했구요. (A-9)

그 전에는 2시 이후에 왔었는데 요즘은 3시 이후에 애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렇다보니 아이들이 물리는 시간은 4시에서 5시 반, 6시까지 이렇게 돼요. (B-5)

시간대별로는 이용률이 가장 높은 시간대는 오후 3시부터 6시 정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그리고 4시 이후는 더 지역아동센터로 많이 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A-11)

전에 비해 1학년은 늘봄으로 인하여 아이를 학교에서 데리고 오는 시간이 조금 뒤로 좀 빠졌죠. 늘봄 시행하면서 바뀐 변화 하나입니다 그거는. (B-3)

계속 1학년, 2학년이 계속 지금 다니고 있는 거에 대한 변화는 없고. 센터 이용 시간이 줄어드는 게 조금 느껴지고 있습니다. [기존 이용 시간대에] 막상 애들이 없어서 진행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버리니까 내년에 대기 아동을 받을 때는 저희가 학교 방과 후를 좀 제한하는 방법을 뒤야 하나 고민 중에 있습니다. (B-4)

지금 아동의 이용률 시간대도 확인을 해봤을 때 4시 이후로 변화하고 있고요. 늘봄학교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아이들이 그 이후에 밥만 먹으러 온다든가 아니면 저녁시간대 집에 가기 전까지 돌봄을 받기 위해서 지역아동센터로 이동하고요. 그래서 지금 시간대가 뒤로 자꾸 밀려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고요. (A-13)

일부 센터에서는 초1 아동이 1학기에 늘봄학교의 초1 맞춤형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가 기대에 미치지 않거나 이용 시간대가 맞지 않아 센터 입소를 하는 사례도 존재하였다. 또한 기존 센터 이용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경우, 늘봄학교를 이용하기보다 센터를 지속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학년 친구 4명이 입소 대기 신청을 했다가 늘봄학교 선정이 됐다면서 1학기에는 늘봄학교 이용을 했고요. 2학기가 되면서부터는 늘봄학교를 해보니 3시 30분에 끝나고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4명이 다시 돌봄센터 재신청을 해서 현재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변동 사항은 없는데. 늘봄으로 갔던 친구들이 다시 센터로 돌아오는 상황이에요. (B-1)

지역아동센터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저녁 식사까지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 보호자들이 굉장히 만족감을 느끼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용하고 있는 아이들은 지역아동센터로 계속 오더라고요. 이용하고 있는 아이들이 빠져나가거나 이러진 않았어요. (A-5)

그러나 일부 센터에서는 늘봄학교 시행 이후 초1 아동의 대기 인원이 감소하는 변화를 경험하였다. 일부에 해당하나 2024년 2학기부터 늘봄학교를 이용하는 아동이 증가하면서 이용 아동 수가 감소하자, 2026년 6학년까지 전면 시행 시 이용 아동 감소 가능성이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지금 센터 의견을 들어보면 고학년은 큰 변화가 없지만 저학년 특히 1학년은 다양한 늘봄에 대한 연락을 받고 고민 중인 학부모들이 있더라. 그리고 1학년 아동들의 대기가 좀 많았는데 늘봄학교 시행한다고 학교에서 연락을 받고 나서는 현재 그 수가 줄어들었다. 그

리고 현재 1학년 비율이 1학기에 비해서 2학기 때 더 줄어드는 것 같더라고요. (A-11)

현원에는 영향이 없으나 대기 인원이 제로 베이스로 변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방학부터 대기 인원들이 줄어들고 있거나 아예 없는 지금 실정이 현저하게 와닿고 있는 부분이라고 하고, 특히 2학기가 되면서 저학년 아이들이 대부분이 늘봄학교 쪽으로 이동하는 것들이 지금 잡히고 있다고 합니다. (A-13)

대기 걸렸던 거에 비해서는 저희도 1학년들이 전에 비해서는 좀 적어서 기존 이용 친구들을 5학년까지 열어서 저희가 돌보고 있고. (B-2)

보호자의 늘봄학교에 대한 인지도 역시 마을돌봄시설 이용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었다. 일부 보호자들은 기존 초등돌봄교실 및 방과후학교와 늘봄학교와의 차이를 크게 인지하지 못하거나 늘봄학교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습득하지 못하였다. 반면 일부 보호자들은 늘봄학교와 마을돌봄시설을 비교하여 더 나은 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였다.

일단 늘봄학교 관련해 학부모님들이 정확하게 이해가 100%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B-1)

‘늘봄이 뭐야? 학교에 있는 거야? 그럼 거기서 뭘 해?’ 학부모들도 잘 몰라요. 저희한테 오려 ‘그 말은 들었어요. 근데 뭐죠?’ 이렇게 하고. (B-3)

일부 지역에서는 맞벌이 부모님들이 문의를 하고 있긴 하나 이게 늘봄과 이렇게 두 개를 놓고 계속 대조하면서 이야기를 하시고 문의를 하시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A-13)

농어촌지역은 특수하게 지역 내 아동인구 감소로 인해 이미 이전부터 매년 센터에 입소하는 아동 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아동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 지역에서는 센터 폐쇄까지 고민하고 있으나, 늘봄학교로 인해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돌봄센터 이용이 감소하는 변화를 크게 체감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아동인구 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여러 돌봄기관들이 동일 아동들에게 경쟁적으로 돌봄을 제공하려는 상황을 우려하였다.

한 학교에서 아동들이 100% 오는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 그곳은 앞으로 더 이상 아이들이 없다고 해서 폐쇄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1년, 2년 남았다고요. (A-5)

아동 인구가 워낙 줄었으니까. 그래서 예전에 비하면 농촌으로 가면 현원이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하는 이런 센터들이 꽤 있는 상태입니다. (A-6)

학교 학급이 학년당 한 반이 사라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서. 사실은 농어촌지역에서는 지역아동센터가 이렇게 역할을 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한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A-16)

저희 지역은 농어촌이 좀 많아서 자체적으로 아이들 인구가 좀 줄어드는 문제는 있는데 늘봄학교 때문에 사실 지역아동센터가 위기라고 느끼는 센터는 아직은 많지 않아요. (A-17)

올해는 지금 1학년이 없어요. (B-5)

(2) 인력 및 프로그램 변화

일부 센터를 제외하고는 대다수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돌봄센터에서는 인력이나 프로그램 면에서도 늘봄학교 시행 이후 큰 변화를 체감하지 않고 있다고 하였다. 프로그램 질적 개선을 위해 노력하려는 모습도 보였다. 법정 종사자는 처우 문제로 이직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나 호봉제가 도입된 후에는 종사자 이직률이 낮아졌으며, 외부 강사는 이탈이 거의 없어 기존에 운영하던 프로그램을 대부분 그대로 제공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외부 강사 시간당 인건비는 프로그램별로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시간당 4만원~5만원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으며, 인건비 인상 등의 변화도 현재로서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외부 강사의 프로그램 시간당 단가도 늘봄학교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내년부터는 인력 유출을 막기 위해 상향조정이 필요해 보인다는 의견이 있었다.

아직은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강사들의 동요도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B-2)

프로그램 운영 수는 아직 줄지는 않았습니니다. 꾸준히 하루에 한두 개 정도는 계속 돌리고 있고, 아이들이 많은 시간 위주로 돌리고 있고, 강사비는 내년에 올려야 할 것 같습니다. (B-4)

인력이나 프로그램 변화는 없어요. 기존 선생님들이 계속 하세요. (B-5)

지역아동센터 인력은 크게 변화가 있지 않은데, 프로그램에 대한 질적인 향상 때문에 질 높은 강사를 섭외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들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A-6)

돌봄 종사자는 법정 종사자와 프로그램 강사를 구분해서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법정 종사자는 환경 안정성, 고용 안정성 이런 부분들로 인해 이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A-3)

강사분들끼리 네트워크가 잘 형성되어 있어서 소개해 주시고, 자원봉사자들 의지하고 이런 상황 아니고, 옛날하고 비교 안 되게 현장에 굉장히 진짜 고급 인력들이 와서 프로그램 진행하는. 강사 선생님들이 이제는 다 고급, 전문인력들이 많이 배치되는 거 같아요. (A-7)

제가 볼 때는 외부 인력은 수요가 아직은 많습니다. 인력 채용이 엄청 두터워요. 강사 선생님들이 주로 지역아동센터를 많이 다니시거든요. 충분히 시설장님들하고 라포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개로 또 다른 데로 가고 또 이렇게 되기 때문에. (A-8)

지역아동센터 인력 운용의 변화에 대해서는 강사비 같은 것이 지금 현재로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프로그램이나 그런 지출 비용, 강사 비용 이런 비용은 그대로 들고 있습니다. 아동들이 많은 적든. (A-11)

한편, 농어촌지역에서는 늘봄학교 시행 이전부터 인력 수급의 어려움을 지속 경험하여 도시지역보다 체감하는 변화가 적다고 하였다.

도시하고 시골하고 달라요. 도시는 인력 층이 많죠.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A-8)

도시지역은 그래도 강사 수급이 많이 힘들지는 않아요. 근데 농어촌지역은 법정 종사자들 한 명 더 줘도 자격 기준에 맞는 사람을 뽑기가 쉽지 않아요. 공고를 아무리 내도 사람이 없어요. 자격증을 소지하고 아이들을 이 시간대에 봐줄 만한 인력이 없는 거예요. (A-17)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늘봄학교 시행 이후 강사 인력 유출이나 종사자 이직의 가능성을 체감하고 있었다. 늘봄학교는 시행 초기이므로 향후 확대 시행을 위해 종사자나 강사 수요가 존재하고 처우 수준도 마을돌봄시설보다 높다. 따라서 늘봄학교가 2026년 전면 확대될 경우, 처우 개선의 문제로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돌봄센터에서 근무하는 내부 인력이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외부 강사가 늘봄학교로 이동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것이다. 다만 현재로서는 프로그램 단가 일부 상향이나 인력의 처우 개선을 보장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으로 검토된다.

지역아동센터 인력이라든지 운용 변화와 관련해서는 고민들은 많이 하고 계십니다. 늘봄학교 인력이 강사라든지 이런 프로그램 위주로 많이 한다고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아동센터도 뭔가 그에 준하는 뭔가를 해야 되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는 아직 지역별로 정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냥 각자 개별 센터들이 고민하시는 단계라고 파악되고요. (A-5)

일부 지역에서는 늘봄학교의 담당자, 종사자 채용 공고를 보고 누가 다른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에게 채용 정보 내용을 문자로 보냈다고 합니다. 늘봄학교 주체가 보냈다고 보다는,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들에게 이런 데 채용을 한다더라, 근데 더 대우가 좋다더라 하는 것들이 퍼져나가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직의 여부는 우리가 알 수 없으나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흔들렸다고 종사자와 인터뷰했을 때 그런 이야기들을 하셨고요. (A-13)

저희는 프로그램 강사분들이 연초에 저희랑 계약서를 작성하셨음에도 불구하고 3월 초에 학교에 자리가 났다고 나가시는 선생님들이 계셔서 참 많이 당황스러운 상황을 겪었어요. 늘봄 행정 실무사라고 해서 교육청에서 실무사를 채용하게 되면 저희 돌봄 선생님들이 약간 전체적으로 다른 센터들도 그렇고 다들 그쪽으로 한번 노려보신다 하셔가지고 그 인력들이 빠지고, 강사는 채용은 좀 한숨 돌려도 내부에서 인력이 조금 빠질까 봐 이게 다들 다른 센터에서도 살짝 걱정하시더라고요. 내부 인력 문제들이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B-4)

종사자의 이동에 대한 염려는 상당히 되는 부분이에요. 계속 늘봄학교 쪽에서 채용을 한다고 하고 그러면 저희 교사들이 그쪽 처우가 아무래도 조금 저희보다는 나오니까 그쪽으로 이직을 하실까 그런 고민들은 많이 하는 상태입니다. (B-6)

(3) 향후 예측되는 변화

2026년 초등학교 6학년까지 전 학년으로 늘봄학교가 시행될 경우, 긍정 및 부정적인 변화가 모두 예측되었다.

먼저 늘봄학교가 전면 확대되어도 이용 변화는 크게 나타나지 않으리라는 예상이었다. 반면, 기관 간 경쟁 관계 심화와 이용 아동 수 감소에 따른 마을돌봄시설 운영 어려움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특징적으로는 지역에 상관없이 아동 과밀 지역에서는 마을돌봄시설 이용이나 운영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였고, 특히 아동인구가 자연감소하는 지역에서는 늘봄학교와 관계없이 이용 대상 아동(현원) 수 감소와 기관 폐업 증가까지도 예상하였다. 센터 현원 변화에 있어서는 신규 등록 아동이 감소하면서 저학년 아동의 비중은 감소하고, 상대적으로 고학년 아동의 비중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2026년이 되어도 갑자기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비율이 빠질 것 같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저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 학교에 오래 남아 있고 싶나라는 생각이 들고, 저학년은 모르겠지만 고학년 같은 경우는 학원도 다니고 이러다 보면 다른 친구들은 다 학교를 떠나서 갔는데 학교에 남아 있고자 하는 욕구가 있을 수 있나 생각이 듭니다. (A-5)

1~2년 안에 이용자 현원이 굉장히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불안한 부분들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A-13)

전체적으로는 사실 큰 변화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지역별로 조금 좀 차이가 나는 게 [아동이 많아서] 지역아동센터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데는 그런 데는 특별하게 변화 없다고 말하는 데가 많고. 근데 반대로 [아동이 적어서] 아주 소수, 3개 이하로 이렇게 포진되어 있는 데는 사실은 늘봄학교 생기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A-16)

인구는 자꾸 감소하는데 다함께돌봄은 어쨌든 아직까지 좀 더 확대되는 여력은 있고. 근데 늘봄이 이렇게 들어가니까 제 생각에는 이거는 사실 그냥 추측하는 거지만 지금은 1학년이지만 개네들이 2학년이 되면 2학년 숫자도 적을 거고 들어오는 1학년도 또 적을 거고. 계속 이렇게 되면 이용 아동 수에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B-5)

아동 수가 거의 현저하게 줄어 들고 있고 이용 아동의 학년이 높아지고 있고 5, 6학년까지 가고 있어서 실제로 이 아이들이 졸업하고 나서 저학년 수가 없어지게 되면 현원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금 예측하고 있어요. (B-6)

다들이나 늘봄학교들과 또 오히려 경쟁 구도로 이렇게 가서 서비스에 대한 고민이 너무 많아서 프로그램을 지역아동센터만의 어떤 프로그램들을 좀 고민하고 있다. 경쟁 구도가 심화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아요. (A-11)

한편, 늘봄학교 시행의 긍정적인 영향으로는 늘봄학교 도입 후 아동 밀집지역 인근 센터는 대기인원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현재 이용 아동 외에도 대기인원이 많아 2년 이상 대기를 하는 센터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즉, 대기 아동의 감소는 향후 이용 아동 감소에 대한 부정적인 우려이면서도 장기간 대기로 인한 민원 해소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저희 센터가 아이들 밀집 지역에 위치하다 보니까 지금 1학년 중 대기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민원이 많았는데 늘봄학교가 누구나 다 대상이 되다 보니 학교에서 돌봄을 이용할 수 있다고 이렇게 안내를 드리면서 민원이 많이 감소한 상황이에요. (B-1)

신도시 개발된 지 좀 됐는데 거기는 지역아동센터가 5개 있는데 대기자가 항상 많다고 그랬어요. 학교도 돌봄교실에서 다 수용을 못한다 할 정도로 그랬는데. 센터에 결원이 생겨서 대기자한테 전화를 했더니 ‘우리 학교에 이용해요.’ 이렇게 대답한다더라. (A-8)

큰 변화가 없으리라고 예측하는 이유 중 하나는 아동이 초등학교 저학년이면 보호자의 선택에 따라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으나,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보호자들이 선행 기초학습을 선호하여 아동 대부분이 학원에 다니므로 출입과 이용 시간이 자유로운 마을돌봄시설을 계속 이용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한 초등학생들이 늘봄학교를 통해 장시간 학교에서 교육과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에 우려를 제기하면서, 아동이 안정적인이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돌봄을 받는 것을 보호자들이 선호하고 아동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장기간 센터를 다니면서 형성된 개별 아동과 그 보호자와의 관계, 애착과 관심, 돌봄 환경 등은 마을돌봄시설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지역아동센터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모두 이용 대상으로 초등학생 시기부터 중학생 시기까지 연속적으로 이용하는 아동이 많다. 따라서 초등학교 시절에 늘봄학교를 이용하다 중학생이 되어 방과 후에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기에는 이용연계가 단절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적되었다.

지금 3, 4학년 친구들은 부모님들이 아무래도 기초학습 위주로 더 선호하셔서 아마 학원 갔다가 저희 돌봄센터를 이용하겠다고 하셔서 내년에도 계속 다니겠다는 의사 표현을 해주시길 하셨어요. (B-1)

아이들이 아침 거의 8시 반부터 학교를 가서 저녁 6시까지 학교에 있는 게 이게 정말 아이들의 교육과 성장과 돌봄으로써 유효한 건지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고 다른 선생님들도 약간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사실은. (B-3)

저희는 맞벌이 가정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녁 7시, 8시까지도 운영하는데 학교에서는 그렇게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오히려 학원으로 빠지는 친구들이 많은 거죠.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원 이용하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저학년 위주로 저희가 아이들을 보고 있고 고학년들은 학원 쪽으로 많이 빠지는 것 같아요. (B-6)

초등돌봄인 늘봄학교 이용 후에 중학생이 되었을 때 센터로 복귀하는게 쉽지 않아요. 애들도 서로 알면서 지낸게 아니니까 어색하고 불편하겠죠. 중학생 이상 아이들이 방과 후에 갈 곳이 지역아동센터 말고는 딱히 없는데 늘봄으로 인해서 이 연계가 무너질 수 있어요. 중학생이 된 아이들은 더 갈 곳이 없어질 수 있는 거죠. (A-10).

지역아동센터의 강점이 학교보다는 아이들의 개별 특성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성장을 지원하고 오랜기간 지켜보면서 함께 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큰 것 같고. (A-11)

학교는 3시 반 이후 수업 끝나고 나서 나갔다가 다시 학교로 오는 게 안 되는데 저희는 센터에 있다 학원 갔다 다시 오고 이런 이동이 좀 자유롭죠. 저희 학부모님들 만족도가 가장 좋으신 게 전자 출결로 아이들의 이동 경로를 다 확인할 수 있어서 긍정적이라고 말씀 주셨었거든요. (B-1)

나. 마을돌봄시설의 늘봄학교 대응

(1) 관계기관 간 협의의 필요성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에서는 늘봄학교에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어렵다는 반응이 대다수였다. 2024년은 늘봄학교 시행 초기로 보건복지부-교육부, 교육(지원)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 간 밀접한 협의를 통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현 시점에서는 지역마다 상황이 각기 다르고 센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없어 늘봄학교 운영 상황을 지켜보거나, 센터에서 직접 학교와의 연계·협력 시도, 프로그램 질적 제고 등의 방안을 고민하는 수준이었다.

복지부와 교육부에서 협의되어야 할 사항들이 많은데 그게 되지 않고 현장으로 내려와 버리니 현장에 있는 시설장들은 지아센, 다돌, 늘봄학교 선생님 모두가 힘든 거예요. (B-3).

돌봄 체제 간에 상생방안을 고려해 봐야 하는데 늘봄학교는 근거법이 없어서 학교가 아니 고서는 예산도 쉽지 않다고 하고, 공간을 나눠쓰자니 기존 이용하는 애들이 있고, 정원 문 제도 있고 (A-10)

근데 진짜 지역마다 센터 편차가 많아요. 환경도, 애들 수도, 프로그램도 지역마다 다 수준 이 달라서 이 편차를 없애는 것부터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늘봄이 들어와 버리니.. 지역 지역아동센터가 어느 정도는 수준을 맞춰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A-13)

지역아동센터가 아무리 시설이 좋다고 해도 늘봄이나 다돌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열악하 고 협소한 면이 있어서... 사실은 늘봄학교 구축과 복합 돌봄을 위한 거대한 건물이 생기는 소식에 진짜 지역아동센터가 더 미래가 어둡다고 생각하신 거고요. (A-16)

학교가 프로그램의 다양성이라든지 맞춤형 교육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과정에 저희랑 중복되는 부분들을 조금 고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학교랑 프로그램 영역에서 연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B-1)

작년에 늘봄학교 이야기가 나오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고민했었고 법인 자체에서도 이야기를 나누면서 기존에 있는 친구들한테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서비스 제공에 포커스를 맞췄어요. (B-2)

(2) 늘봄학교와의 연계·협력

지역사회 연계형 늘봄학교 확산을 위해 지자체별로 (가칭)지역늘봄협의체를 구성하고, 마을돌봄시설과의 연계·협력을 통해 방과후돌봄을 제공하도록 한다. 그러나 이러한 협의체 구성·운영도 전반적으로 아직은 미흡하여 구체적인 연계·협력 방식 논의나 정보 공유가 명확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따라서 일부 센터에서는 협의체 구성·운영의 실효성이나 연계·협력의 필요성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저는 늘봄협의체에 현재 들어가 있어요. 늘봄협의체 회의를 두 번 진행했는데, 뭔가 구체적으로 특별히 논의되고 발전적인 성과가 나오거나 이런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늘봄학교 수요도 많지 않아서 학교에서도 어려워하고...그런데 그 학교만인지는 모르겠네요. (A-4)

저희는 늘봄협의체에 들어가 있거나 연계 이런 거는 아직 없습니다. 요청을 해 오거나 한 적이 없어서 그런 쪽으로는. (A-5)

교육청에서 늘봄협의체 구성해야 된다는 것까지는 알고 계신데 구성조차 아직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하게 되면 협력을 할 수 있는 상태인 것 같기는 합니다. (A-6)

늘봄학교 운영되는 어떤 과정이라든가, 진행되는 어떤 프로그램에 대해서 전혀 현장에서 정보를 습득하기가 어렵다. 즉, 주관하는 교육청이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보 공유를 해주고 있지 않더라고 하는 게 지역에서의 한결같은 이야기입니다. (A-12)

저는 꼭 지역아동센터가 늘봄학교에 연계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A-14)

지자체가 실질적으로 저희 마을돌봄시설이 뭘 필요로 하는지를 모르시니까 그냥 교장 선생님들 모이는 그 협의체에 가서 ‘마을돌봄 앞으로 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고 오셨다고 하면서 저희한테는 그게 실적이라고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B-1)

놀봄학교에서 다함께돌봄센터에서 하는 일들에 대해 협력하자고 계속 구를 통해서도 내려오는데 과연 어떤 것을 협력해 줘야 할 것인가라는 문제들이 굉장히 깊이 지금 현장에서는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B-2)

놀봄협의회라고 해서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교육지원청, 시청, 학교 교장 선생님들 몇 분 이렇게 모여서 어쨌든 출발을 했고요. 서로가 놀봄에 대해서 생각들을 좀 터놓기 시작하는 기회를 9월에 가졌구요. 11월 중으로 해서 다시 한번 회의 소집하시겠다는 거를 당일 전해 들었습니다. (B-3)

저희 지역에서는 연계협력 논의나 협의체 관련해서도 공유되는 내용이 없습니다. (B-5)

저는 사실 지금 기조로 간다면 놀봄학교와는 연계협력이 사실상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B-6)

놀봄학교-마을돌봄시설 간 대표적인 연계·협력은 공간 활용, 프로그램 공유가 실제로 제시된다. 특히 아동 수가 많은 과밀학교의 경우, 학교 내 돌봄 공간이 부족하므로 마을돌봄시설에 아동이 몰리지 않는 시간대인 13~15시까지 초등학교 1학년만 지역아동센터 공간을 빌리는 방식으로 연계·협력을 제안한 사례도 있었다. 그러나 마을돌봄시설은 공간 내 정·현원 규정이 존재하고, 안전 상의 문제도 존재하므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놀봄학교와의 연계·협력 시 기존 이용 아동에 대한 고려, 예산이나 인력 배분, 정원 인정 여부, 정원 초과 시 이용 가능 여부 등 명확한 세부 지침이 안내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교육청 차원에서 센터에 공문을 보내서 공간만 제공, 공간과 프로그램을 같이 제공하는 경우로 해서 45개 센터를 추렸어요. 과밀학교 지역 중심으로 지역아동센터에 여유가 있으면 공간을 같이 사용하자는 거죠. 정원이 모자라는 센터 중심으로 신청을 하고, 그런데 문제는 놀봄학교 아이들이 센터 정원에 포함되는 것인지? 정원 초과 시 정원 외가 되는 것인지? 복지부가 지침에 ‘놀봄학교 아동은 센터 정원으로 인정한다, 하지만 정원 초과 시에는 정원 외로 인정한다’ 이런 식의 지침을 만들어주면 다 만족하시겠죠. (A-14)

지역아동센터 공간은 지역아동센터 이외에는 사용할 수가 없거든요. 전용 공간인데 지역아동센터 이외의 사업에 하는 것은 풀어줘야 하는 부분인 거고, 정원도 정원이지만, 그리고 1시부터 3시까지라고 하지만 이 시간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친구들의 입장에서는 이 애들 때문에 내 공간을 빼앗기는 거니까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게 맞지 않는 게 학교가 과밀이면 센터도 과밀이에요. 애들이 없는 학교는 또 그 반대고. (A-17)

다함께돌봄센터는 공간 대비 정원이 이미 확정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정원을 초과하면 다른 아이들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일시돌봄을 받는 그 인원까지도 공간 대비 확정이 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은 전혀 없습니다. (B-2)

마을돌봄시설-늘봄학교 간 연계·협력은 일방 입장의 추진보다는 사전에 관련기관 간 충분한 운영 방식 논의와 프로그램 공유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는 기관 간 상생의 측면에서도 중요한 점이었다. 무엇보다 마을돌봄시설에서는 늘봄학교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서 마을돌봄시설의 의견이 반영되고, 동일한 프로그램이 학교와 마을돌봄시설에 모두 공유되길 희망하였다.

서비스가 중복됨에도 지역아동센터가 지역사회에서 배제되면서 늘봄학교를 확산시키려고 하는 양상에는 불만이 생기죠. (A-3)

늘봄학교 추진 계획에 따라서 그대로 움직인다고 했을 경우 지아센과 협업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면 우리 지역은 센터 문 닫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A-12)

지아센에서 장소를 그동안 일부 대여를 하거나 빌렸었는데 그거를 일체 빌려주지 않고 서로 소통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소극적이거나 아예 그냥 단절이 되는 이런 상황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A-13)

시도별로 프로그램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고는 하시더라고요. 대학교에 위탁을 줘서도 하고, 교육부에서 지금 어쨌든 예산을 투입해서 개발하고 있는 과정이니 그거를 같이 공유해 주시면은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더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거기서 개발된 거를 보급화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B-1)

한편, 늘봄학교와 마을돌봄시설 간 연계·협력 사례가 많지는 않았으나 일부 지역에 서는 두 기관 간 연계·협력 사례가 기존 및 신규 사례로 존재하였다.

늘봄학교하고 지역아동센터하고 협력하는 사례는 아직 제가 들은 바로는 없어요. (A-6)

저희가 일부 연계협력 사례가 있더라고요. 00시에서는 늘봄학교와 지역아동센터가 방과후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있어요. **시에서는 아침돌봄은 늘봄학교가, 저녁돌봄은 지역아동센터가 주로 담당하는 방식으로 시간대를 나누어 협력하고 있구요. 일부 농어촌 지역에서는 늘봄학교하고 지아센하고 운영 시간대가 중복되지 않게 조정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A-8)

저희는 기존부터 도청하고 교육청이 같이 예산을 투입해서 진행하는 방과 후 연계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이미 그전부터 늘봄학교라는 이름은 아니었지만 지역아동센터와 학교가 연계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어서 덜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지역아동센터도 마을도서관을 같이 운영하는 곳들이 있어서 지역아동센터 정식 등록된 아동하고 일시돌봄 필요한 친구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사실 늘봄학교 때문에 지역아동센터 이용 종료를 하는 경우는 거의 못 봤고, 오히려 긴급 돌봄을 오래 해서 그 친구들이 대기로 등록해 있다가 정식 등록하고 그렸 습니다. (A-17)

□□시에서는 초등학교와 지역아동센터가 협약을 맺고 늘봄을 지역아동센터 쪽으로 위탁을 줬대요. 늘봄 예산을 그 지역아동센터로 주고 아이들 몇 명을 보내는 방식으로요. 간식비, 프로그램비를 주고, 그래서 실제 추가 인력 뽑을 것까지 계획하고 있으시더라고요. (A-17)

xx시 같은 경우는 학교 밖 거점센터가 있어요. 작년에는 시 교육청으로부터 연관 사업을 받아서 저희, 복지관이 같이 협약을 해서 했거든요. 저희는 장비가 많지 않기 때문에 복지 관에 있는 컴퓨터나 태블릿 PC를 이용해서 코딩 수업을 했는데 되게 만족이 높았어요. 그 래서 내부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가장 기본으로 하는 거에 충실하고. (B-3)

늘봄학교 이용 시간대가 아이들이 주로 이용해야 하는 시간에 운영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 니까 더 늘봄학교로 빠지는 일은 아직까지 없는 거죠. (B-6)

(3) 늘봄학교 대응

마을돌봄시설이 늘봄학교에 비해 학부모의 인지도나 선호도, 지원체계, 예산, 인력, 프로그램, 시설환경 등에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낮으므로 늘봄학교에 대응하는 여러 방안을 고민하였다.

먼저 다함께돌봄센터는 이용 비용에 대해 가장 큰 우려를 하였는데, 다른 돌봄기관 은 무료이므로 지자체 차원의 이용 비용 또는 급·간식비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 한 이용 비용 지불 방식도 현금 계좌이체 이외에 바우처나 지역화폐와 같이 다른 결제 수단 확보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용료는 보편적으로 5만원 정도고 간식비 별도로 있어요. 간식비는 2천원에서 2,500원인 데 아이들이 먹은 횟수만큼 사후정산해요. 지역아동센터나 늘봄학교는 무료인데 다함께돌봄 센터만 이용료를 내고 다니는 것 자체가 일단은 좀 그렇죠. 다함께돌봄센터에서는 지자체에 서 별도 지원금이 [보호자에게] 나가면 어떻겠냐라는 그런 의견은 내고는 있어요. (B-1)

센터의 위치가 학교로부터 거리가 있는 곳은 유상, 무상에 대해 학부모들이 예민하다는 말씀을 하시네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크게 영향이 있었다고. 어느 지역은 지역아동센터 하고 형평성 맞춰서 지자체에서 급식을 지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학부모 입장에서 크게 고민할 사항이 없으시더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중략] 지금 다 계좌 이체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영수증 발급이 안 돼요. (B-3)

다함께돌봄센터는 유료이고, 대기도 해야 하는데도 여기가 그래도 더 촘촘하게 안전하게 아이들을 돌볼 수 있다는 엄마들의 믿음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학교 안에서는 다 공짜인데 학교 밖을 나와버리면 돈이 드는 거가 제일 큰 단점인 거죠. (B-4)

처음부터 3만원 받아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우리는 군에서 운영비하고 급식비를 보조를 좀 받아요. 그래서 그걸로 아이들은 충분하게 급간식을 해주고 있고. (B-5)

저희는 사실 이게 지역적인 편차가 좀 큰 것 같긴 한데 사업비는 군에서 100% 지원을 해주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 무료예요. 전액 다 무료다 보니까 저희는 다양하게 운영을 할 수가 있고 급간식도 무료로. 심지어 간식 같은 경우는 품질도 상당히 좋아요. (B-6)

부모님들이 가끔 ‘학교에서 이런 지원 카드가 있는데 이것을 돌봄에서는 쓸 수 없나요?’ 하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었고, 다른 센터에서도 학부모님들이 그런 의뢰가 온대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현재 그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B-3).

또한 늘봄학교보다 시설환경, 교육환경 등에서 마을돌봄시설이 열악하므로,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돌봄센터의 환경 개선의 필요성도 지적하였다. 주로 지자체가 위탁 운영하고, 신규 설치된 다함께돌봄센터보다 지역아동센터의 환경이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상황이다.

진짜 공간을 보면 내가 여기 보내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하는 것은 부모 입장에서는 당연하죠. 그래서 프로그램이 아무리 좋고 돌봄이 촘촘해도 환경이 열악하면 부모들은 다녀보지 않는 한 다른 선택을 할 수있죠. (A-14)

향후 현원 감소 예방을 위해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 중심에서 지역아동센터는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생 이상 연령대의 아동, 다함께돌봄센터도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이용 비중 확대를 검토하고 있었다. 또한 센터마다 이용 특성이 모두 다르므로 현재의 획일적인 필수 시간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전반적으로 이용 아동 정원이 못 미치다 보니까 중학생까지도 케어하자는 경향이 많더라고
요. 그래서 이제는 중학교, 심지어는 고등학생까지도 케어하겠다는 센터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예전에 어렵다고 포기하셨다면 지금은 그 아동까지 우리가 케어하겠다는 마
인드로 많이 바뀌셨더라고요. 이번에 좀 많이 느꼈습니다. (A-5)

사회 정서 학습이 안 되는 그런 측면을 차라리 지역아동센터가 중학교에 대한, 청소년에
대한 돌봄을 적극적으로 시행을 한다고 하면 지역사회 안에서 돌봄 체계가 굉장히 건강할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뿌리가 어쨌든 공부방으로 시작한 거잖아요. (A-16)

저희 센터는 우선순위 이용 아동이 1~3학년인데, 1학년들이 전에 비해서는 좀 적어서 기
존 이용 친구들을 5학년까지 열어서 저희가 돌보고 있고, 다자녀 가정들이 해서 형제자매,
남매들이 이렇게 오고 있는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B-3)

필수 시간을 조금 더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을 줘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센터
아이들 연령대나 특성에 맞춰서 시간대를 조금 선택할 수 있도록 줘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A-17)

인력 유출 방지를 위해서는 처우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프로그램의 질
적 개선을 위한 아동 욕구 기반 프로그램 개발, 외부 강사 단가 상향, 늘봄학교 예산 활
용, 지자체 차원의 재정 지원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프로그램 질은 사실을 강사를 어떻게 섭외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라서. (A-1)

전체적으로 다함께돌봄센터가 종사자들에 대한 경력 산정을 인정해주고 거기에 따라서 호봉
도 같이 인정을 해줘서 본인이 가지고 있던 경력을 다 인정해 주는 그런 분위기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사회복지시설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충분히 도달할 수 있도
록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그렇다면 좀 안정적으로 좀 운영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B-4)

제가 판단했을 때 저희가 크게 영향을 못 느끼는 이유 중 하나는 지자체에서 후원을 잘해
주시기 때문에 프로그램이나 강사 섭외 면에서 늘봄학교보다는 조금 우수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학부모님들도 크게 늘봄학교를 의식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B-6)

늘봄학교에 예산 편성되는 부분들을 기존 돌봄을 시행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돌봄
센터에 확보해 준다면 현장에서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충분히 더 활용할 수 있고 질 높은
프로그램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B-2)

교육청 공무원, 학교장이나 교직원, 학부모 등 지역사회에서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특히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는 편견을 갖는 경우도 많아 보다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마을돌봄시설 홍보·안내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특히, 범부처 차원에서 발표한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의 “놀봄센터”로의 명칭 일원화와 관련하여 센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개선이나 인지도 제고를 위해 명칭 변경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동안 지역아동센터가 수행해 온 역할과 기여도,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돌봄센터의 단순한 명칭 변경의 실효성 등을 고려할 때 명칭 변경보다 마을돌봄시설의 법적·제도적 운영·지원체계 개선이 더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초기에는 저희가 무상 체험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다가, [중략] 저희 지역에서는 다돌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었어요. (B-2)

지역아동센터를 아는 보호자들은 다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동이 이용하는 곳이라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고, 이미지는 그렇긴 한데. (A-4)

[교육청 공무원이] 그 지역에서 아동들을 지역에서 돌본다는 그거 개념조차도 잘 모르고, 취약계층 아동이나 가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상황인 것 같아요. (A-16)

지역아동센터라는 것 자체가 시골 쪽으로 가면 갈수록 그렇게 이미지가 나쁘다 이렇게까지 보여지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름을 바꾸는 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데 한 번 정도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이미지 차원에서라도 명칭이 개선이 되어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A-5)

사실 현장에서는 의견이 반반이긴 한데 지역아동센터 자체가 낙인감이 있으니까 진짜 바뀌어야 된다고 의견을 예전부터 많이 주셨었고. 또 일부는 최근에 이런 뉴스들이 나오면서 지역아동센터가 가지고 있었던 고유의 어떤 그런 것들이 없어질까 봐 좀 쓸쓸해하고 좀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긴 해요. (A-10)

지아센의 명칭에 대해서는 반발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지역아동센터가 아동복지기관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지역사회가 알고 있고, 또 다른 의견은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낙인감이 너무 강해졌기 때문에, 취약계층이라는 낙인감을 감수하기 위해서 놀봄센터로 모두 다 합치는 것도 크게 상관없겠다. 근데 놀봄센터라는 이름으로 또 간다면 놀봄센터라는 이름보다는 아동복지센터로 하거나 아동센터로 하거나 이런 의견들은 좀 다양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A-11)

지역아동센터는 그래도 저소득층, 특수 계층 아이들을 돌보는 그게 법제화되어 있고 그것이 굉장히 큰 특징인데 이거를 지금 무너뜨린다고 한다면 다들과 별다를 게 없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여기는 좀 의견들이 반반 나뉘어져 있긴 합니다. (A-13)

근데 솔직히 이름이 모두 늘봄센터가 된다면 낙인감이 없어질까요? 저는 똑같은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A-15)

늘봄학교 대응을 위해서는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프로그램의 질적 개선에 대한 필요성과 염려가 크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마을돌봄시설에서는 가정과 같은 분위기와 자율적인 활동 등을 통해 이용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현재로서는 마을돌봄시설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대응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하였다.

대학교나 이런 데서 전문적인 프로그램으로 학교에 들어온다고 하면, 아무래도 학부모님 입장에서선 질 높은 교육이 학교에서 진행된다면 거기를 좀 선호할 것 같아요. 다들은 안전하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었는데 갑자기 서비스를 프로그램 질을 높이려고 하는 부분에 조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B-1)

다함께돌봄센터가 아이들의 성장을 정서, 사회, 가족 기능적인 면에서 다 가져가는 것이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긴급돌봄 아동이 발생할 때 학교는 긴급 돌봄을 할 수 있는가? 다함께돌봄센터는 다양한 학교 아이들이 오고 다양한 가정의 아이들이 있어서 대형 가족의 형태를 가지고 가면서... (B-2)

학교나 학원으로 받는 스트레스를 아이들이 해소가 되니, 아이들이 독서 활동이나 영어 노래를 부르면서 영어를 익숙하게 즐겁게 배운다든지. 그래서 돌봄 놀이나 자기 활동이 보장되는 표현되는 돌봄으로 1년간을 해봤는데 그거에 대한 만족은 애들이 높았고요. 학교하고 변별력을 가져서 차별화되는 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것도 필요하고, 때로는 학교 프로그램에서 깊이 다룰 수 없는 내용을 저희 쪽에 편성을 하면 학부모님들의 불안감이나 염려를 보완하면 만족도가 높았어요. (B-3)

센터 이용 만족도가 높은 경우, 해당 아동의 형제·자매나 사촌, 친구들이 소개를 통해 이용하는 사례가 존재하였다. 반면,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한 정보가 없을 경우, 부모들에게 주어지는 선택지는 학교로 집중되었다. 늘봄학교 대응을 위해서는 서비스 질 제고에 초점을 맞추어 지속 이용이 가능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었다.

1학년들이 새로 들어오는 경우는 언니, 오빠들이 저희 센터를 이용하면서 만족한 가정이면 거의 다 들어와요. 그래서 저희는 다자녀 가정이 되게 많아요. 20명 저희 정원의 기준에서 외동은 한 3명 정도고요. 거의 다 그러거나 아니면은 뭐 사촌이 또 이렇게 오고. (B-3)

형, 누나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한 경험에 있는 가정들은 이게 좋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용하는데 지역아동센터에 아예 모르고 늘봄학교를 접했을 경우 늘봄학교를 선택하는 비율은 월등히 많다 이런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A-10)

점점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질 개선을 하려는 욕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기존에는 그냥 매번 해오던 것들을 좀 더 계속 발전하는 방향으로 갔다면 지금은 뭔가 특성화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찾고 계신 것 같다. 그런 면이 조금 더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질적인 부분에서는 긍정적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A-5)

그래서 저희 경쟁력을 높이는 거는 서비스 질을 향상할 수밖에 없거든요. (B-6)

늘봄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공간들이 많을 것 같고, 학교 운동장도 넓고 다양하게 체력 단련 훈련도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축구나 잔디밭도 요즘에 학교가 워낙 잘해놓으니까. 그런데 다들 가볍게 자기들이 와서 그냥 쉼을 얻고 그냥 맛있는 밥 먹고 간식 먹고 이렇게 부담 없이 와서 소통의 장도 되고, 아이들끼리 또래끼리 와서 실컷 놀고 수다 떨고 가는 이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B-5)

지역아동센터는 우선돌봄아동이 지침상 규정되어 있는 반면, 늘봄학교는 이용을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교 아동이 이용 가능하다. 특히,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관계부처 합동 발표자료('24.6)에 의하면, 2025년 늘봄 확대 과정에서 3~6학년 대상으로 저소득층 및 맞벌이가정, 다자녀(2자녀 이상) 가정에도 돌봄교실 우선순위를 부여할 계획이다. 저소득층 가정, 맞벌이 가정, 2자녀 이상 가정 모두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의 우선돌봄아동과 중복된다. 따라서 향후 이용 아동 감소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아동센터도 장기적으로는 우선돌봄아동 자격기준을 완화하고 비중을 지속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지역아동센터가 처음 생길 때 제가 기억하기로 아동복지법 52조, 54조에 보면 지역사회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만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게 지역아동센터였거든요. 근데 차차 지침에 의해서 중학생 이상 이용할 때는 초등학교 때부터 이용하던 아동을 이용한다지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 부분이 보편적 복지로서 계속 기능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차별도 없어야 된다는 것이고. (A-11)

예전에는 돌봄 대기 순위가 있었을 때 기준이 있었어요. 어려운 친구가 우선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대기 1번이 1등이에요. 그리고 지금의 기준에는 맞벌이는 아니지만 다자녀 2명인데 아파트 대규모 단지에 지역아동센터가 생기면 우르르 오세요. 근데 지역아동센터를 우선적으로 이용해야 하는 어머니들은 정보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실제로 지역아동센터에서 먼저 돌봐야 하는 아이들은 오지 않거든요. (A-15)

저는 우선돌봄아동 비중은 장기적으로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자녀 2명의 아동을 다자녀 돌봄 특례로 받기 시작하면서 사실상 실효성이 없어진 거나 다름없거든요. 왜냐하면 거의 다 우선돌봄아동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그걸 50:50으로 할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센터 현장은 낙인감 때문에 굉장히 싫어하는 이걸. 저는 우선돌봄아동을 대기자가 있으면 무조건 먼저 받는다는 조건만 있고 나머지는 없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A-14)

아동인구 감소에 따라 지역아동센터의 현원이 감소하여 적정 정원 조정에 대한 의견도 제시되었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이 요구되고, 아동복지시설 중 지역아동센터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아동인구가 전국적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지역 특성에 따라 아동 수가 적은 곳은 정원을 줄이되, 지원은 일정 수준 유지해야 돌봄서비스 제공이 가능합니다.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정해져 있어서 쉽게 바꾸지 못하는데, 현원이 정원을 못 채우면 우선돌봄아동도 그런 지역에서는 의미 없고, 농어촌은 실제로 거의 다 돌봄 특례 적용이 되니... (A-7)

아동 수가 줄어드니 정원의 일정 정도 조정이 필요하다는 건 인정합니다. 근데 최소한의 기준은 마련해야 해요. 지금 지역아동센터 지침에 의하면 10인 미만의 아동이 있을 경우에 운영비, 인건비가 중단돼 버리는데 이것까지 풀 거냐. 그래서 최소한의 기준을 정했으면 좋겠고, 저는 그게 지금 지침상에 있는 10인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외에 11인부터 시작해서 49인의 구간은 좀 조정할 필요가 있는데, 정원과 현원 차이가 너무 나요. 그리고 29인에서 30인으로 넘어가는 순간 종사자 한 명 더 늘게 됩니다. (A-14)

지역아동센터는 법으로 제한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현원입니다. 종사자 배치 기준이나 인건비 등이 현원과 묶어집니다. 정원 규정은 지역아동센터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아동복지시설을 다 바꿔줘야 하는 거고 지역아동센터만 바꿀 수가 없어서. (A-13)

(4) 마을돌봄시설 향후 기능 및 특성화 방안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관계자들은 「아동복지법」에 근거한 현재의 기능을 유지하되, 지역사회 내 긴급·일시돌봄 대응, 취약계층 아동 돌봄 유지, 초등학교에서

중·고등학교까지 이어지는 연계 돌봄 강화, 연계·협력 기반 거점형 센터 추진 등 다양한 기능 강화 및 특성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학교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돌봄 공백을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도 마을돌봄시설에서 보완한 만큼 돌봄의 전문화와 특성화가 요구된다.

먼저, 다함께돌봄센터 외에도 지역아동센터에서의 긴급·일시돌봄 제공 확대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정기돌봄을 제공하고 있으며, 정원의 일정 비율을 일시돌봄으로 제공할 수 있다.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학대·방임 등의 사유로 긴급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지역아동센터만 있고 다함께돌봄센터가 없는 지역에서는 일시돌봄 이용이 어렵다. 한 사례로 서울시에서는 지역아동센터를 통한 긴급·일시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함께돌봄센터가 지역 안에 생기면서 ‘거기는 일시돌봄이 있는데 지역아동센터는 왜 이런 거 안 해주냐’ 이런 민원도 있었죠. (A-6)

마을돌봄시설 특성화에 대해서는 이미 청소년, 다문화가정, 장애 등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므로 추가적인 필요성에 의구심을 갖기도 하였다.

지금도 많이 있어요. 청소년 특화, 다문화 특화도 있고. (A-3)

ADHD, 경계선지능, 장애아동 등 특성화 관련, 센터 관계자들은 이러한 특수육구 아동에 대한 돌봄은 전문인력, 시설, 예산이 지원되지 않고, 충분히 준비되지 않는다면 쉽지 않을 것임을 지적하였다. 또한 특수육구 아동 돌봄에 따른 종사자 소진과 지역사회 내 기피시설로 낙인 문제 발생 가능성을 우려하였다.

ADHD나 경계선지능 맞춤형 프로그램은 학교에서 낙인감 때문에 보호자들이 잘 신청을 안 해요. 지역아동센터에서 그런 부분들을 동의 얻기가 쉬우니 맞춤형으로 할 수 있지만 양날의 칼이죠. 지역아동센터가 취약계층으로 낙인이 있는데 만약에 이런 특성화 프로그램을 하게 된다면, 필요하지만 더 낙인화가 되고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려고 하는 일반 아동들이 더 줄어들 우려가 있습니다. (A-11)

경계선지능아동 등 학교에서도 어려워하는 아동을 소규모 마을돌봄시설에서 과연 돌볼 수 있겠는가라는 문제 때문에 반발이 많았는데, 인력이나 시설 지원 등 통합돌봄이 가능하도록

준비가 된 상태에서는 검토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돌센터 특성화를 강요하는 듯한 분위기 조성은 대안도 아니고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B-1)

또한 대학이 개발한 놀봄학교 맞춤형 프로그램을 마을돌봄시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하되, 마을돌봄시설에서는 이와 별도로 다문화가정을 포함하여 다양한 배경과 특수욕구를 가진 아동 대상 특성화 프로그램을 개발 및 모델화하여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인근 지역의 2~3개 지역아동센터가 연합으로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프로그램의 질이 중요해지고 있어서 놀봄학교와 지역아동센터가 대학 등에서 개발한 프로그램과 매뉴얼을 공유한다면 공통 프로그램과 센터 특화 프로그램을 함께 제공할 수 있어 유익할 것 같습니다. (A-11)

우수 프로그램 모델화 의견도 나왔는데, 그중 하나가 경계선지능아동, 다문화였어요. 그래서 지역아동센터가 돌봄·보호뿐만 아니라 다양한 특성화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자리매김을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아닐까. 프로그램 질 제고를 위해서라도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A-13)

□□시는 2023년 3월 31일 느린학습아동 다함께돌봄센터를 개소했어요. 처음에는 안내·홍보가 어려웠는데 지금 방학 때도 20명 다 수용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인력을 전일제로 3명 배치해 주셨어요. 시설도 굉장히 넓은 공간을 확보하셔서 안전바도 설치하고 아이들 안전에 주의해서 다 리모델링하고 설치했거든요. [중략] 다문화아동은 MOU 체결을 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다문화 강사나 통역사를 지원받았대요. 그래서 빨리 안정되는 데 도움이 됐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지역의 현황과 조건, 여건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아동의 특성에 맞는 특성화 사업을 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B-3)

특히 경계선지능, 경증 장애 등 특수욕구 아동 돌봄을 위해서는 전문성을 가진, 적정수의 전담인력이 안정적으로 배치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전문성 결여로 인한 돌봄서비스 질 저하와 종사자 소진의 문제가 우려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기피시설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통합형 거점시설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경계선지능아동 돌봄은 치우 개선이 되고 그에 따른 인력 보강만 해준다면 오히려 더 효과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B-6)

장애나 준장애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한데 현재 상황에서 과연 돌봄을 제공하는 센터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일까 의문이 듭니다. 특성화된 센터를 운영한다에 대한 거는 좀 회의적입니다. 종사자 소진도 있고. (B-2)

거점식으로 지역마다 몇 군데씩 필요한 아동들이 이용할 수 있는 특수 시설처럼 그렇게 배치되는 거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인력과 시설과 이런 게 충분히 고민되고 준비된 상황에서 생각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B-4)

장애 특성화라고 할 때, 장애아동만 있거나, ADHD 아동만 있는 센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특성을 가진 아동 일부를 돌볼 수 있는 거점 역할 센터가 필요하다는 거죠. 모든 센터에 특수교사와 상담교사가 있다면 제일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 거점의 역할을 하는 센터가 필요한거죠. 그렇다면 그런 센터에는 특수교사가 기본적으로 2~3명 있어야 하겠죠. 필요 시 타 센터로 파견도 고민할 수 있구요. 거점의 역할을 하는 게 특성화의 진짜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A-14)

다. 늘봄학교와 마을돌봄시설의 이용 경험·의향

인터뷰에 응한 학부모 12명 중 1명의 자녀는 학원만 다니고 있으며 늘봄학교를 이용한 경험이 없었다(C-6). 다른 학부모 1명의 자녀는 다함께돌봄센터 정기돌봄을 이용한 경험이 있으나 학원 이용을 위하여 돌봄을 중단하였다(C-8). 또 다른 학부모 1명의 자녀는 늘봄학교를 이용하다 중단하였고, 다함께돌봄센터 일시돌봄도 잠시 이용한 경험이 있었다(C-4). 농어촌 거주 학부모 1명의 자녀만 현재 늘봄학교와 지역아동센터를 모두 이용 중이었다(C-12). 나머지 8명의 자녀는 현재 모두 늘봄학교를 이용하고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돌봄센터는 이용한 경험이 없었다(C-1, C-2, C-3, C-5, C-7, C-9, C-10, C-11). 이들의 자녀 늘봄학교 이용 후 대부분 사교육도 이용하고 있었다.

(1) 늘봄학교에 대한 인식 및 이용 경험·의향

가) 늘봄학교 이용 이유

학부모들이 자녀의 방과후돌봄으로 늘봄학교를 선호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학교 내에서의 돌봄이 교육과 안전 면에서 신뢰가 높고, 집이나 학원과 거리가 가깝기 때문이었다. 주로 틈새돌봄으로서 아동의 방과 후 늘봄학교를 이용하고, 바로 이어서 학원을 가

는 방식을 선택하였다. 또한 학부모들은 마을돌봄보다는 늘봄학교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질이 높다고 인식하였다.

현재 저희 아이는 늘봄학교를 이용하고 있어요. 그래도 학교 안에 있는게 더 안전하니까요. (C-9)

저도 늘봄학교를 보내요. 거의 매일 수업 끝나자마자 바로 가고 거기서 1시간을 할지 2시간을 할지 선택해요. 일단 학교 안에서의 돌봄이니까 안전하고 가깝고. 또 다른 그냥 과목의 일부라고 생각하게 딱 그 이미지가 있으니까. (C-5)

저는 아무래도 학교 안에 늘봄학교가 부모 입장에서는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아동이라든지 돌봄센터는 집에서 거리나 이런 것들을 고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C-3)

저도 늘봄학교를 더 우선시할 것 같고요. 부모들 입장에서 조금 더 안전하게 아이가 이동 거리도 최소화하고 또 그 안에서 무슨 활동을 하더라도 조금 더 믿을 수 있고. 그리고 늘봄학교 홈페이지를 좀 찾아봤는데 거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이 대학교와 연계해서 그에 대한 만족도도 훨씬 더 높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C-7)

선택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약간 좀 장점이 있는 것 같고요. 프로그램을 본인이 선택을 해서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 좋다고 하더라고요. (C-11)

나) 늘봄학교 인지 경로 및 정도

늘봄학교 홍보는 학교 안내문, 문자, SNS, 외부 광고, 학부모 간 정보공유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제공되었다. 보호자들은 늘봄학교 운영은 인지하고 있으나 제도변화 내용이나 프로그램 유형 등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파악하지 못하였다. 일부 학부모는 늘봄학교 홍보·안내 내용과 실제 운영 방식과의 차이가 존재하여 제도에 대한 혼란이 존재한다고 하였다. 또한 기존의 돌봄이나 방과후를 통합한 늘봄학교로 명칭이 바뀌었다는 것을 대부분 알고 있었으나, “늘봄” 또는 “늘봄학교”보다 기존의 “돌봄”이나 “방과후”라는 용어 사용에 더 익숙하였다.

저는 늘봄학교를 학교안내문에서 계속 문자로 받았고요. 그리고 한 번은 어머님들이 모여서 같이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홍보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SNS나 문자로. 나중에 6학년 까지 확대된다는 것도 안내문으로 오더라고요. (C-1)

저는 늘봄학교를 아파트 광고 부착물에서 봤거든요. 1학년부터 시행된다고 해서 검색을 먼저 해봤는데, 제가 검색해 본 거랑 학교 거랑 좀 많이 달랐어요. 오후 7시까지 봐준다 그렇게 시행이 되는 줄 알았는데, 저희 학교는 전반적인 내용은 전혀 없고 그냥 맞춤형 프로그램, 방과 후 프로그램, 돌봄 프로그램 3개 중 선택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게 늘봄이 돌봄인지 아니면 방과 후 프로그램의 대체인지 솔직히 조금 헷갈리더라고요. (C-2)

처음에 저희가 인지한 개념이 돌봄이었고 중간에 개념이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익숙해서 돌봄이. (C-5)

그냥 학교에서 원래 하던 돌봄이 그냥 그대로 가는 거고, 시간과 명칭만 바뀌었다라고 알고 있었고. 그리고 시간도 저녁 몇 시까지라고는 저는 알고 있고. (C-10)

늘봄학교에 대한 설명은 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돌봄학교, 돌봄교실이라고 해서 그 신청자를 받아서 신청한 사람들이 했던 것 같아요. (C-12)

늘봄학교는 교내 돌봄인프라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지역사회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연계·협력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이 학부모에게 안내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늘봄학교 관련 안내자료에는 늘봄학교가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돌봄센터와도 연계·협력하여 운영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돌봄센터라는 용어를 한 번도 안내문에서 본 적이 없어요. (C-1)

다) 늘봄학교 미이용 이유

반면, 현재 초1 자녀가 늘봄학교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자녀가 늘봄학교 이용을 원하지 않거나, 늘봄학교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거나 아직 어린 1학년 아동이 오랜 시간 학교에 머무르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학부모의 판단이었다.

저희 학교는 2학기부터 늘봄학교 시작을 했고요. 주변 친구들도 보니까 늘봄을 이용하는 아이는 많지 않더라고요. 여러 반이 생기지 않아서. 이게 실상 엄마들한테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안 하시는 건지. 근데 저희 아이는 9월에는 보냈다가 10월부터는 안 보내고 있어요. 학교 내부적으로 시설이 잘 안 갖춰져 있고 뭔가 제도적인 것만 시행하려고 부랴부랴 하는 느낌이 들어서 이게 제대로 운영되는 게 맞나라고 생각이 됐었는데. 급하면 이용할 것 같아요. 그 외에는 굳이 이용을 안 할 것 같기도 하고요. (C-4)

늘봄학교를 들어는 봤는데, 학교에 너무 오랜 시간 두는 것 같으니까 7살, 8살 아이들한테 엄마들이 조금 부담스러워했었어요. 학부모가 보기에다 나라에서 급조한 기분이 들고요. 그냥 학교에 남아 있는 거 심심하다, 학교 한 번씩 가서 보면 애들 그냥 삼삼오오 모여서 그냥 놀고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봄학교 이미지는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C-8)

자녀가 늘봄학교를 이용하더라도 일부 학부모들은 늘봄학교의 자율성 부족과 다양한 프로그램 미흡에 대한 아쉬움을 갖고 있었다. 프로그램 미흡으로 자녀들이 학교에 갇힌 기분으로 지루해하고 이용을 거부한다면, 내년에는 늘봄학교를 이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저는 학교돌봄에 조금 아쉬운 점이 아이들의 자율성이 떨어지더라고요. (C-12)

저는 내년에 늘봄을 안 할 것 같아요. 지금도 [자녀에게] '3시에 나와라 학교에서.' 그렇게 했는데도 자꾸 2시 반에 나오고, 2시에 나오고, 교실 안에 앉아서 그냥 그 시간만 때우는 거라면 아이들도 있기 싫어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예요. 근데 많은 프로그램이 지역과 연계해서 이런 것도 해보고 저런 것도 해보고 한다면 아이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잖아요. (C-10)

학교프로그램이 조금 더 다양화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게 미흡한 거 같아요. 시골이다 보니까 학원 같은 것도 좀 한계가 있어요. (C-11)

(2) 마을돌봄시설에 대한 인식 및 경험·이용 의향

가) 마을돌봄시설 인지 여부 및 정도

인터뷰에 참여한 초1 아동의 부모 대부분은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를 들어본 적이 없었고, 두 센터 관련 정보 접근성도 상당히 낮은 편이었다. 마을돌봄시설 중에서도 지역아동센터보다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한 인지도는 더욱 낮았다. 무엇보다 센터의 명칭이 길고 어려워 더 낮설어하였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이런 센터들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돌봄센터라든지 아동센터 같은 것들은 제가 알기로는 다 정부에서 부처들이 나눠서 운영하는 것 같고. (C-3)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돌봄센터를 들어본 적은 없어요. 맞벌이하시는 분들이 잠시 아이를 맡겨 두는 곳. 아이들이 자유롭게 책을 읽거나 자유시간. 그러니까 학습을 하지 않고 자유롭게 놀고 간식을 먹고 집에 가는 그런 곳 같아요. (C-1)

저희 지역에서는 아동센터의 유무도 모를 정도로 이런 홍보라든가 아니면 대외적인 활동이 조금 부족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전체적인 분위기가 학원이나 다른 사교육에 힘을 많이 쓰는 분위기여서 더 그런 아동센터나 이런 센터를 이용할 거를 고려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C-7)

늘봄학교까지는 대중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역아동센터는 몰랐어요. 뭔가 특수계층이나 그런 이미지는 사실 있거든요. 부모 입장에서 거기에 참여했을 때 조금 마이너스 요인이 있나? 다함께는 뭔가 위탁이 될 것 같고 커리큘럼은 없을 것 같고, 지역 뭐 무슨 센터는 사실 정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름은 너무 어렵고 그 이름에서 무엇을 하는지도 사실은 인지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C-5)

소수의 학부모만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를 알고 있었는데, 이들은 지역아동센터는 주로 저소득층이나 다문화가정의 아동이 다니는 곳으로 인식하여 자녀를 보내기에는 다소 불편한 기관으로 인식하였다. 또한 다함께돌봄센터는 서울 거주자는 우리동네키움센터의 약칭인 ‘키움센터’로 정확히 인지하였던 반면, 다른 지역 거주자는 다함께돌봄센터를 지역 내 센터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들어본 적이 없거나 정확한 돌봄 기능을 인지하지 못하였다.

저는 키움센터는 들어봤는데 아동센터나 다함께센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키움센터는 요즘 많이 활성화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 (C-2)

저는 지역아동센터랑 그 키움센터가 별개라고 생각을 못했고요. 오다 가다 키움센터만 봐서, 동네 친구 엄마를 통해서 시간으로, 매일 보내는 게 아니라 급할 때 보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고, 그래서 그 친구가 갈 때 제가 한 두 번 정도 이용했던 경험이 있고요. 어떻게 될 하고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는 아직까지도 잘 모르고는 있습니다. (C-4)

다함께돌봄센터를 들어본 적은 없고 지역아동센터 들어본 적 있고요. 학교에서 설명하기를 늘봄 안에 돌봄이 있다 하더라고요. (C-11)

들어는 본 것 같은데요. 그게 지역아동센터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매번 신청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오후 8시인가 그 시간까지도 돌봐주신다고, 그래서 그분들은 불편한 거는 있는데 만족은 한다라고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대충 알

기로는 지역아동센터는 개인이 신청을 해서 나라에 어떤 보조금을 받고 진행하는 거로 알고 있고, 다함께돌봄센터는 시에서 운영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C-6)

다함께돌봄센터는 들어본 적이 없어서 아마 맞벌이 자녀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 몇몇만 갈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일반 가정들은 좀 들어가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고, 소수를 위한 정책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C-7)

저는 지역아동센터도 들어봤고 다함께돌봄센터도 들어봤고요. 늘봄학교는 학교에서 시행을 하는 거니까 조금 더 뭔가 믿을만하고 안전하고 이렇게 느끼는 것 같거든요. 지역아동센터라든가 다함께돌봄센터라든가 그런 곳은 조금 뭔가 다른 아이들이 다니는 것 같은 그런 인식이 있어서. (C-9)

나) 마을돌봄시설 인지 경로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돌봄센터를 알고 있는 한 학부모는 본인이 유사 직종에 근무하면서 직접 찾아보는 과정에서 알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를 습득하고 돌봄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다 하더라도 늘봄학교 이용을 선택하였다. 한편, 늘봄학교와 지역아동센터를 모두 이용하는 학부모는 지역 내에서 마을주민 중심의 협동조합 형태로 센터를 설립하면서 지역아동센터를 알게 되었다. 이러한 참여로 인해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연대와 신뢰가 강하였다.

제가 어린이집 선생님을 하고 있어요. 다함께돌봄센터는 1, 2학년 외에 다른 학년들이 갈 수 있다고 알고 있고,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층이라든가 특정 아이들이 다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기준이 변경이 되어서 예전에는 저소득층이라든가 아니면은 저소득층 자녀들 중에서도 맞벌이 자녀들이 주를 이루었다면 요즘에는 아이들 수가 워낙 줄어서 맞벌이 일반 자녀들도 다닐 수 있다고 들었어요. (C-9)

학교 돌봄교실하고 지역아동센터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작년 마을 사람들의 지원으로 협동조합 형식으로 생겼어요. 다함께돌봄센터는 들어본 적이 없고, 지역에도 없는 거 같네요. [지역아동센터는] 개인이 설립한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많은 분들이 힘을 모으고 돈을 모으고 또 장소 섭외까지 해서 만든 것이라서 애정이 좀 각별하고, 거기에서 일하시는 선생님들, 센터장분들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고요. (C-12)

다) 마을돌봄시설 미이용 이유

마을돌봄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를 파악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늘봄학교를 이용하는 학부모들은 근처에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돌봄센터가 아예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이용할 수 없거나, 설치 여부를 전혀 모르거나, 또는 집에서 먼 거리에 센터가 있어 이동 문제로 늘봄학교를 선택하였다. 또한 센터 대기인원으로 인해 대기가 전혀 필요 없는 늘봄학교를 이용한다고 하였다.

지금 학교 돌봄을 이용하는 이유가 제가 시골 쪽 군 단위에서 살고 있어요. 근데 집 근처에는 지역아동센터가 없어요. 그래서 지역아동센터도 한번 보내고 싶다는 생각은 있지만 아이가 학교를 끝나고 나면은 그쪽까지 데려다 줘야 되는데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데려다줄 사람이 없어요. (C-11)

저희 동네 근처에 아동센터가 있는 줄 몰랐어요. 홍보나 이런 것들이 안 되어 있어서 저도 몰랐기도 하고. 그리고 아이가 갈만한 거리에는 없어서 이용 생각은 안해봤어요. 제 주변에서도 이용하는 사람은 한 명도 보지를 못했고. (C-7)

센터를 이용하지 않는다고보다는 저희 군에 있는 그런 센터들은 들어가기가 좀 어려워요. 두 군데 다 대기가 많아요. 그런데 지금 센터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학교에서 1, 2학년 아이들 돌봄을 지금 이용할 수가 있어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돌봄교실을 이용하고 굳이 외부로 나가지는 않고 있어요. (C-9)

키움센터는 이용하고 싶었는데 솔직히 주변에 가까운 거리에 없었기 때문에 이용하지 못했고. 알고 나서 이용하고 싶을 때에는 신청 기간이 있더라고요. 정기 신청. 방학 때 솔직히 3개월이 너무 길어서 이용을 하고 싶어서 확인을 해봤었는데 그게 선착순이고 추첨대로 하다 보니까. 그 인원도 25명이 정원이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좀 가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신청을 못 했었어요. (C-2)

일부 학부모는 아동이 지역아동센터 이용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이용하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지역아동센터는 신고정원의 50% 이상 우선돌봄아동에 대한 자격요건이 적용되나, 우선돌봄아동이 아닌 일반아동도 가능하다. 단, 지역여건 및 수요에 따라 일반아동은 70%까지 등록 가능하다. 이러한 자격요건에 대해서도 학부모들이 명확히 인지하여 이용 신청을 포기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안내가 필요해 보인다.

일단 저소득층, 한 자녀 이런 식으로 제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해당 사항이 없어서 할 수가 없더라고요. (C-6)

저희 지역에는 지역아동센터를 들어가는 순위가 있지 제한은 없었거든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순위는 있어요. 다문화, 다자녀, 조손가정 이런 순위가 있고 저희 같이 맞벌이나 아니면 온전한 가정 친구들은 뒤로. 그래서 대기자가 있더라고요 최근에 들어보니까 (C-10)

일부 학부모는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돌봄센터 이용을 기피하는 요인으로 다양한 연령대의 아동이 함께 이용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특히 초1 자녀가 높은 연령대의 아이들로부터의 위협을 받거나 어울리지 못할 상황을 우려하였다.

키움센터에 잠깐 일시로 보냈을 때도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 섞여 있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큰 형들하고 부딪히게 하기 싫었어요. 급할 때만 보내자라고 해서 그게 한두 번 정도 보냈던 거고. (C-4)

[방금 설명을 들으니] 키움센터는 그래도 초등학교 자녀만 갈 수 있는 걸로 제한이 되어 있는데 근데 아동센터는 18세 미만이잖아요. 그래서 큰 아이들도 간다는 그게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 솔직히 인력은 부족할 것 같은데 아이들이 많으면 그걸 수용해서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마찰 없이 잘 지낼 수 있을지 좀 그런 게 의문스러워서. (C-2)

저는 지역 돌봄이 없기는 하지만 18세까지 가능하다? 여자애여서 그런가 지금 돌봄도 화장실이 하나인 것도 저는 싫거든요. 18세까지 사용 가능하다는 거에서부터 저는 안 보낼 것 같아요. (C-8)

라) 향후 마을돌봄시설 이용 의향

학부모들은 만일 자녀가 안전하게 센터로 이동 가능하고, 센터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습득하여 양질의 프로그램이 제공되는 것이 확인된다면 마을돌봄시설을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아동의 이동을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이나 차량지원이 중요하고, 마을돌봄시설이 늘봄학교와 유사한 수준의 프로그램 질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동네에 있으면 제가 데리고 가기도 편하고 데리고 오기도 편해서 일시적으로는 다함께돌봄

센터를 더 이용할 것 같아요. (C-8)

지역아동센터 활동들 보면 다양한 지원이 있더라고요. 학교에서 집까지 거리가 좀 돼서. 센터의 차량 지원이 되고 프로그램에 대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면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이유가 될 것 같아요. (C-9)

저학년들은 사실은 다양한 체험을 많이 시켜주면 제일 좋은 것 같거든요. 거기에서 아이가 재미있어 한다면 엄마 입장에서는 안 보낼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정보를 제가 몰랐던 건데 만약에 그런 게 만약에 되는 곳이다라고 인지가 됐다면 당연히 가게 하고 싶어요. 학원보다 비용도 저렴한데 프로그램 퀄리티가 좋다는 그 부분만 충족시킬 수 있다면 안 보낼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C-5)

만약에 센터가 집에서 가깝거나 프로그램이 저학년에 맞게 체육이나 미술 이런 좋은 퀄리티 있는 프로그램을 하거나 또 제일 중요한 건 선생님이 전문가이신 분이 아이들을 가르쳐 주신다면 저는 할 의향은 좀 있는 것 같아요. 학원보다 비용도 저렴한데 프로그램 퀄리티가 좋다는 그 부분만 충족시킬 수 있다면 안 보낼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C-1)

위의 지적 사항이 해결된다면 학부모들이 다함께돌봄센터를 선택하고 이용 만족도도 높게 나타날 수 있음을 다음의 사례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학부모는 추가적인 사교육 이용을 위해 다함께돌봄센터 이용을 중단하여 향후 프로그램 질 제고 측면의 노력도 더 필요해 보인다.

다함께돌봄을 이용했고요. 저도 다른 건지는 파악을 못하고 그냥 돌봄 서비스로만 크게 알고 있고요. 인원이 많이 못 들어가니까 대기를 해서 들어갔구요. 픽업 서비스, 밴드 알림장 그런 관리를 엄청 잘해주셔서가지고 프로그램도 짜임새 있고. 학교돌봄은 좀 심심하다는 생각이 있잖아요. 또 애들이 학교에 남아 있는 거를 싫어하더라고요. 선생님이 신호등 건너고 데려가고 간식 먹고. 그러면 피아노 학원 차가 와서 피아노 갔다가 집에 한 5시, 6시 오고. 저는 잘 활용했어요. (C-8)

반면, 마을돌봄시설의 돌봄 기능과 장점을 일정 부분 이해하였더라도 여전히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돌봄센터가 아닌 늘봄학교를 선택하겠다는 응답이 많았다. 무엇보다 마을돌봄에 대한 정보 습득이나 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외부로 이동하지 않는 ‘학교 내’라는 공간에 대한 안전 인식 및 신뢰가 크게 존재하였다. 이런 인식은 자녀가 저학년이기에 더 강하였다. 따라서 안전 이동 보장과 마을돌봄시설에 대한 신뢰 및 인식 제고,

양질의 프로그램 제공이 늘봄학교에 대응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재확인할 수 있다.

우선 초등학교 1학년이다 보니까 학교 밖을 나서는 것 자체가 솔직히 두렵거든요. 학교 율타리에서 안전하게 뭔가 활동을 하고 방과 후 교육을 하고 봐준다면은 저는 늘봄학교를 더 선택할 것 같아요. 프로그램도 이제 시행되고 있는 것 같고 다양해질 것 같고 뭔가 단점이 있으면 개선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우선 제일 중요한 게 안전이랑 보호니까. [중략] 동일 프로그램을 학교하고 센터에서 한다면 학교에서 하는 게 낫죠. 더 안전하고. [중략] 학원 가기 전이라도 친구들하고 학교 안에서 관계를 유지하게 하는게 낫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1학년 엄마들 사이에서 늘봄 수요가 많은 거 같거든요. (C-2)

늘봄을 경험했던 엄마들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아이들이 안정감 있게 지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C-6)

저는 지역아동센터는 이용할 의향은 없고요. 왜냐하면 학교 주변에 없는 것 같아요 우선은. 저는 가까운 게 좋을 것 같아서. 우선은 없기 때문에 이용할 의향도 없고. 키움센터는 이용할 의향이 있는데 아직 저학년 때는 이용을 할 생각은 없고요. (C-4)

마을돌봄시설 이용 확대를 위해서는 특히 이용 신청 방법에 대한 안내와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막상 이용하고 싶어도 어디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이용 신청을 하는 것인지 대다수 부모들은 모르고 있었다. 이밖에 이용 자격기준, 대기 가능성 등 구체적인 내용이 학부모에게 충분히 제공되도록 학교 안내문 등에 포함되는 협조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근데 키움센터는 저도 해보고 싶었는데 이게 신청 자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먼저 내가 알아봐야 하고 해봐야 하고. 벌써 뭔가 너무 번거로움이 많잖아요. 학교는 e알리미로 알려주고 이게 노출이 많은데. 키움센터는 엄마들도 요즘에 신청을 해서 많이 하려고 하더라고요. (C-2)

학교에서 하는 거 말고. 기관이나 위탁으로 맡겼거나 이렇게 민간이 한다거나 하는 것들에 대한 질문은 ‘그거 어떻게 신청해? 어디 읍사무소 가? 동사무소? 아니면 뭐 어디 센터가?’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학교는 금방금방 알 수 있는데. (C-10)

정부가 일단은 학교는 신청하라고 e알리미로 날아오거든요. 그래서 쉽게 접할 수 있는데 지역아동센터 이런 거는 좀 어려워 보여서(C-6)

또한 유료인 ‘비용’에 대한 고민도 향후 검토될 필요가 있다. 현재 늘봄학교와 지역 아동센터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반면, 다함께돌봄센터는 이용 요금이 있다. 일부 학부모는 비록 다함께돌봄센터가 학원비보다는 저렴하지만, 늘봄학교가 무료인 상황에서 프로그램의 질이 학교보다 우수하지 않는 이상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할 의향은 낮아질 것이라고 하였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제가 봤을 때 비용이 약간 비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방과 후 한 과목에 2만 7천 원이거든요. 한 달에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이렇게 든다고 하면 그것도 약간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C-1)

학교랑 비교를 하면 정말 잘 운영이 되고 있어야 학부모가 학교에 대한 신뢰 이상을 가질 수 있잖아요. 학교에서 공인된 그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거를 말고, 돈을 내면서 여기를 선택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C-7)

학부모들의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한 기대는 학교돌봄과는 차별화되는 돌봄 환경과 서비스이다. 단순히 학교에서의 수업 연장이 아닌 다양하고 양질의 프로그램을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만일 연계·협력 방식으로 늘봄학교와 마을돌봄시설에서 동일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학교에서의 돌봄을 선택하겠다는 응답이 대다수였다.

학교에서 충당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아동센터에서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용하고 싶은 마음이 크지만. 사실 저도 엄마된 입장에서 센터의 분위기 이런 것들을 좀 볼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아이가 거기에 참여했을 때 아이한테 영향을 주는 다른 어떤 요소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보고 결정할 것 같습니다. (C-7)

학교 돌봄하고 학교 밖 돌봄하고 프로그램이 같으면 저는 학교 안에서 돌봄을 받을 것 같거든요. 근데 차라리 학교 밖의 돌봄이 학교 돌봄과 다르게 특색 있게 한다면 프로그램을 비교해 봤을 때 학교 밖 돌봄이 오히려 더 교육적이거나 아이한테 더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하시면 그쪽을 택할 것 같지만. 오히려 학교와는 다르게 하는 게 발전을 위해서 더 좋을 것 같아요. (C-4)

제3절 늘봄학교-마을돌봄시설 공급 영향(GIS)

1. 분석 개요

본 절에서는 지리 정보 시스템(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GIS)을 활용하여 늘봄학교,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의 지역별 공급 현황을 파악하였다. 다함께돌봄센터에는 서울의 우리동네키움센터, 학교돌봄터가 모두 포함되었다. 학교돌봄터는 다함께돌봄센터의 한 유형으로 2023.1.1.부터 사회복지시설에 포함되었다.

<표 3-5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저출산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아동 수 감소가 예측되는 가운데 마을돌봄시설 이용 아동 수 자연적 감소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지역아동센터 폐업 증가나 통폐합의 가능성도 존재한다. 따라서 향후 영향 파악을 위하여 2024년 기준 17개 시·도별 아동 수 대비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 공급 수준을 파악하고자 한다. 무엇보다 동일한 지역 아동을 대상으로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늘봄학교와 마을돌봄시설 간 경쟁 관계 양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므로 적정 수준의 마을돌봄시설 설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표 3-54> 2024~2029년 초등학생 수 추계(2023년 기준 추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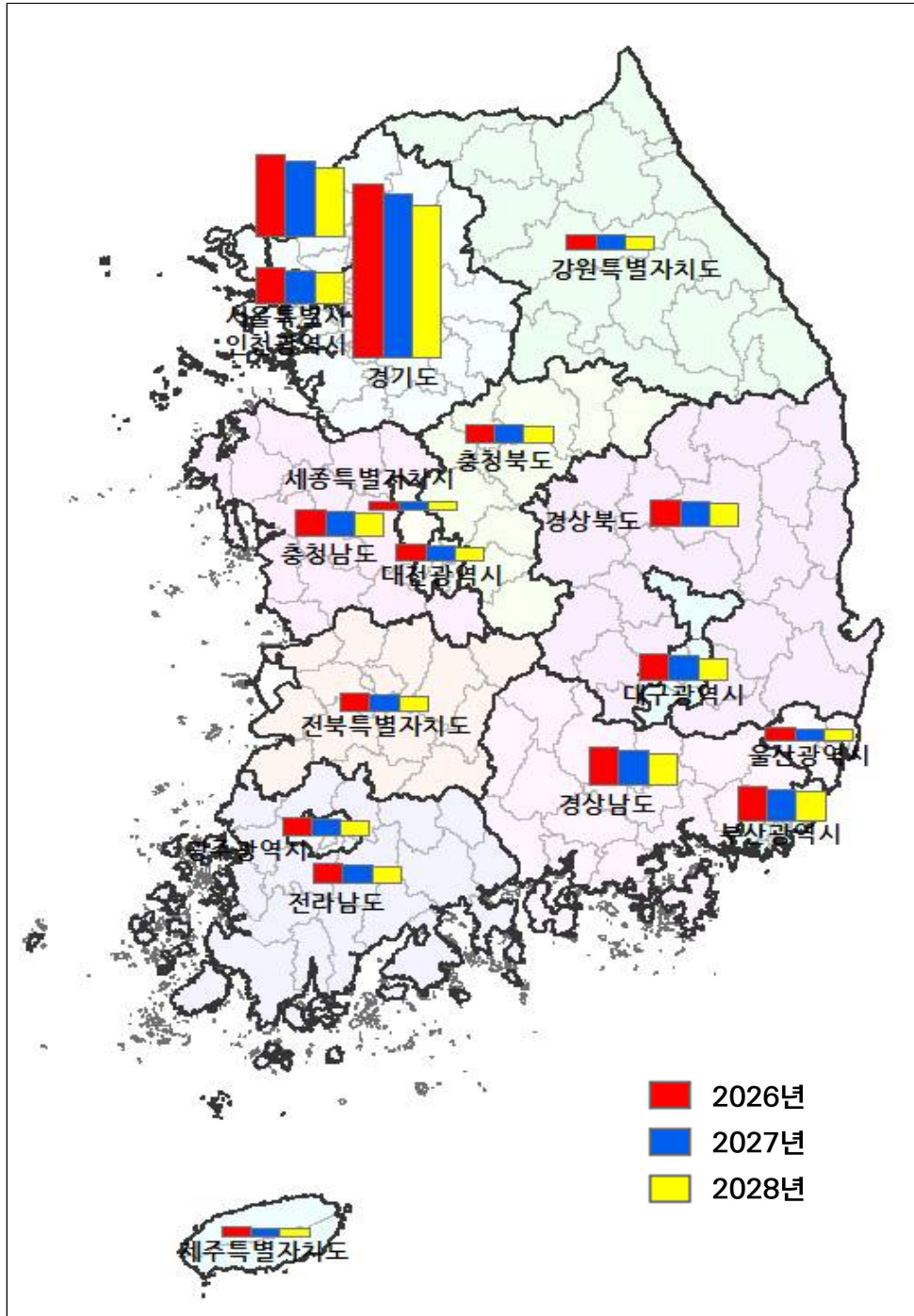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초1	초2	초3	초4	초5	초6
2024	347,950	385,034	428,911	423,926	424,435	470,992
2025	319,935	346,229	385,094	429,112	424,181	424,830
2026	290,686	318,421	346,325	385,330	429,519	424,706
2027	271,282	289,363	318,599	346,596	385,772	430,169
2028	258,447	270,129	289,608	318,932	347,028	386,436
2029	244,965	257,402	270,414	289,960	319,401	347,663

자료: 교육부, (2024), 2023년 초·중·고 학생 수 추계 보정 결과(2024~2029년).

늘봄학교가 1~6학년까지 본격 시행되는 2026년부터의 초등학생 수 감소는 전국적으로 급격히 진행된다. 초등학생 인구수가 가장 많은 경기, 서울 모두 초등학령기 아동 인구수 감소 영향에서 예외일 수 없다. 마을돌봄시설 운영 위기는 늘봄학교 등 정책 영향보다 기본적으로 아동 인구 감소 영향이 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3-1] 17개 시·도별 2026~2028년 초등학생 수 추계(2023년 기준 추계)



2. 분석 결과

가. 전국 단위 영향

2024년 기준, 늘봄학교는 전국 초등학교에서 실시되고 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서울, 경기와 광역시 중심으로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역시 이유 유사한 분포 형태를 보이고 있으나, 지역아동센터는 서울, 경기,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전남 중심으로 다수 분포하고 있다. 반면, 다함께돌봄센터는 서울, 경기, 대전, 광주, 부산에 집중되어 있고, 다른 지역에는 상대적으로 설치 수가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초등학생 수 대비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현황을 살펴보면, 지역아동센터는 아동 인구 대비 전북, 전남 지역에 과밀 설치되었고, 다함께돌봄센터는 아동 인구 대비 일부 강원 지역에 과밀 설치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지역에서는 늘봄학교 확대 시행 시 늘봄학교, 마을돌봄기관 간 경쟁관계가 과하게 양산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매년 초등학생 수가 큰 폭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늘봄학교 중심으로 방과 후 및 방학 중 돌봄이 제공될 경우, 센터 존립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나. 광역 지자체 단위 영향

늘봄학교는 전국적으로 분포하지만, 충분한 돌봄 공간이 마련되거나 오전 7시에서 저녁 8시까지 모든 학년의 아동에게 돌봄을 제공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기본적으로 초등학생 수가 과밀한 학교 인근에는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도 함께 설치되어 있어 돌봄 대기아동이 분산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그러나 일부 지역별로는 늘봄학교,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가 초등학생 수 대비 과다 및 중복적으로 설치된 지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지역에서는 돌봄기관 간 공간과 이용 시간대의 연계·협력이 없다면, 상대적으로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돌봄센터보다 주로 학교에서의 돌봄을 선호하는 학부모들은 늘봄학교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고 기관 간 경쟁이 발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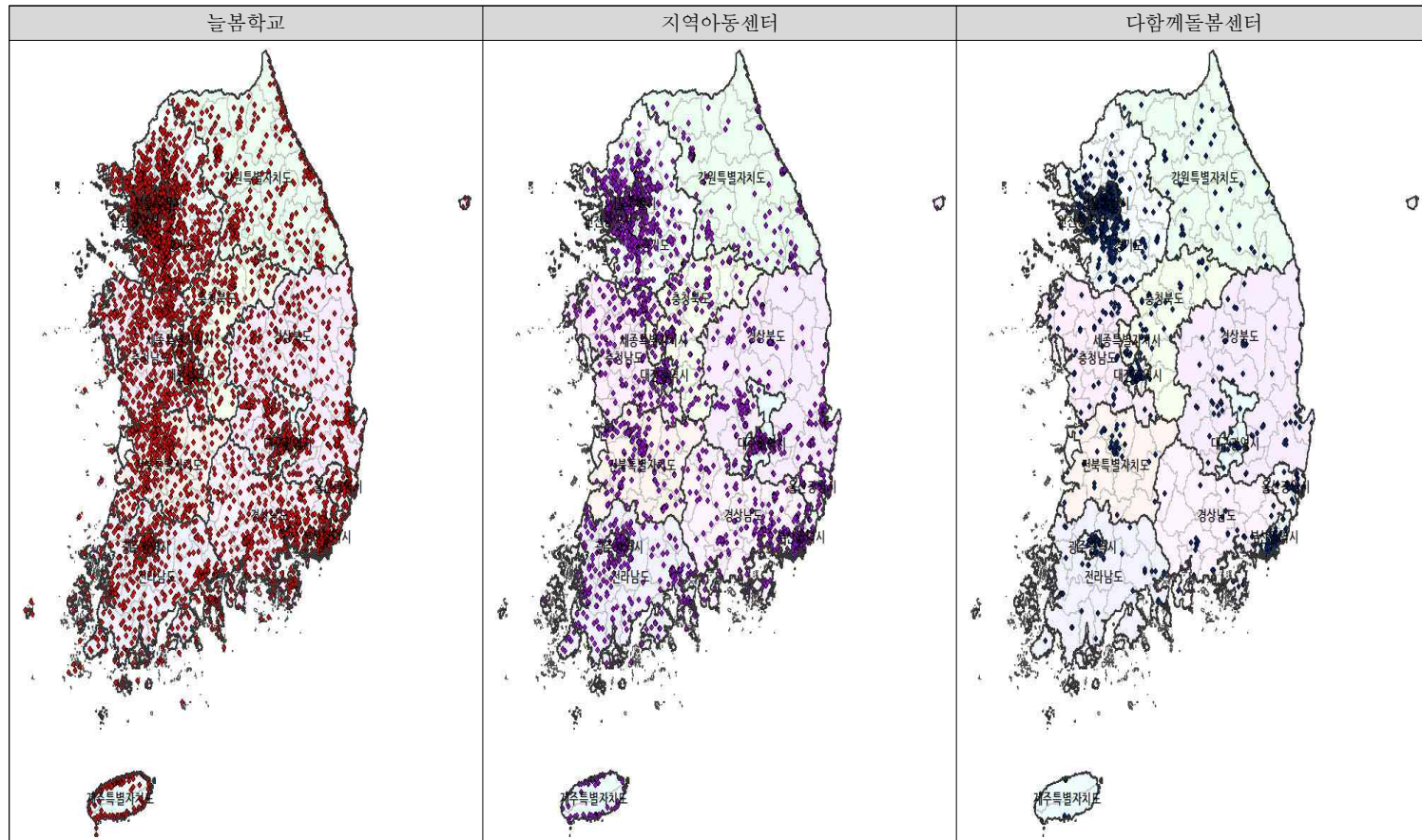
반면, 일부 지역에서는 초등학생 수 대비 과소하게 설치되어 있어 이용 접근성이 제한된다. 특히 농어촌지역에서는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율이 낮고 지역아동센터 설치율

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러한 경우, 늘봄학교 시행으로 인해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수가 감소한다면 등록 일반아동의 비중을 현재 최대 70%에서 더 확대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돌봄센터는 단순히 초등학생 수뿐만 아니라 지역 내 돌봄 욕구도 존재하여야 하므로 마을돌봄시설 공급 조정은 다차원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늘봄학교가 이용을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무상의 돌봄이 제공된다면 이용 자격을 일정 수준 제한하는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돌봄센터는 현재보다 경쟁력이 더 악화될 수 있다. 따라서 특정 집단을 위한 돌봄에서 지역사회 초등학생 아동 전체로 그 대상을 확대하는 것도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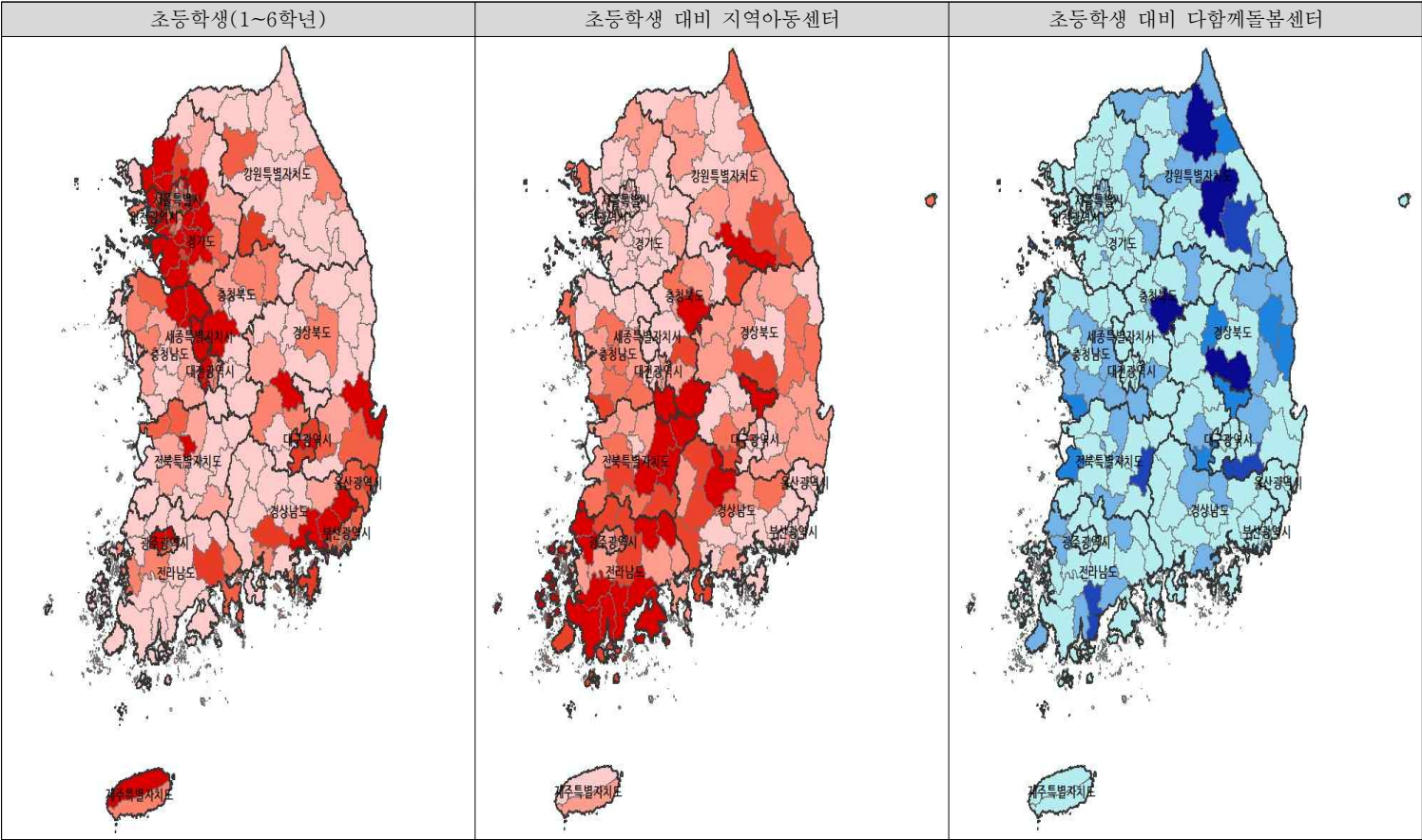
17개 시·도별 늘봄학교,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분포 현황과 초등학생 수 대비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 수 현황은 [그림 3-4]~[그림 3-37]에 제시하였다. 전국 및 지자체별 초등학생(1~6학년) 분포, 초등학생 수 대비 지역아동센터 분포, 초등학생 수 대비 다함께돌봄센터의 범례는 다음과 같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초등학생(1~6학년) 범례	초등학생 대비 지역아동센터 범례	초등학생 대비 다함께돌봄센터 범례
209 - 2,500	0.0 - 0.2	0.1 이하
2,501 - 5,000	0.3 - 0.4	0.1~0.2 이하
5,001 - 10,000	0.5 - 0.6	0.2~0.3 이하
10,001 - 15,000	0.7 - 0.8	0.3~0.4 이하
15,001 - 20,000	0.9 - 1.8	0.4 초과
20,001 - 68,6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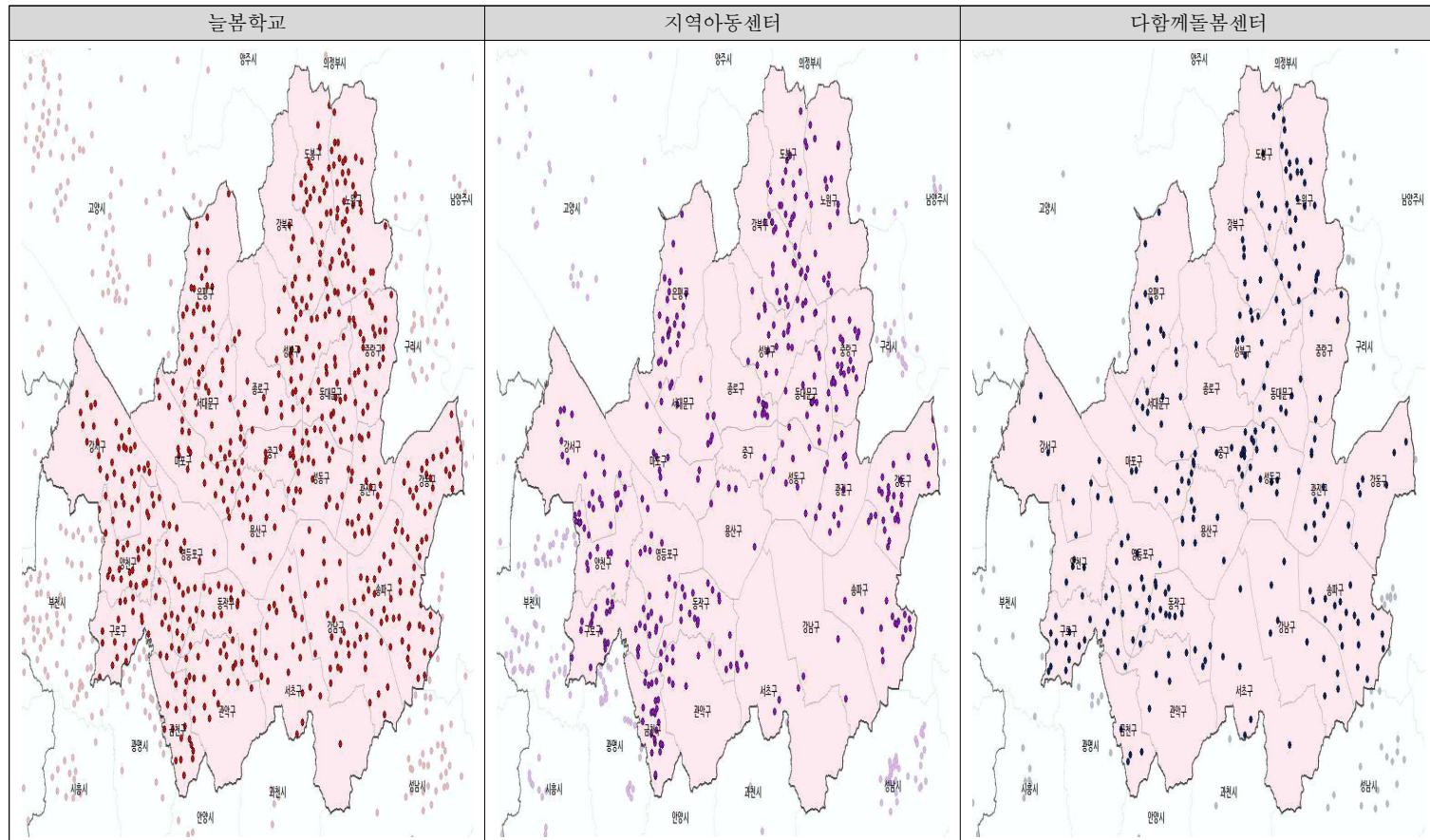
[그림 3-2] 전국 늘봄학교 및 마을돌봄시설 분포 현황(202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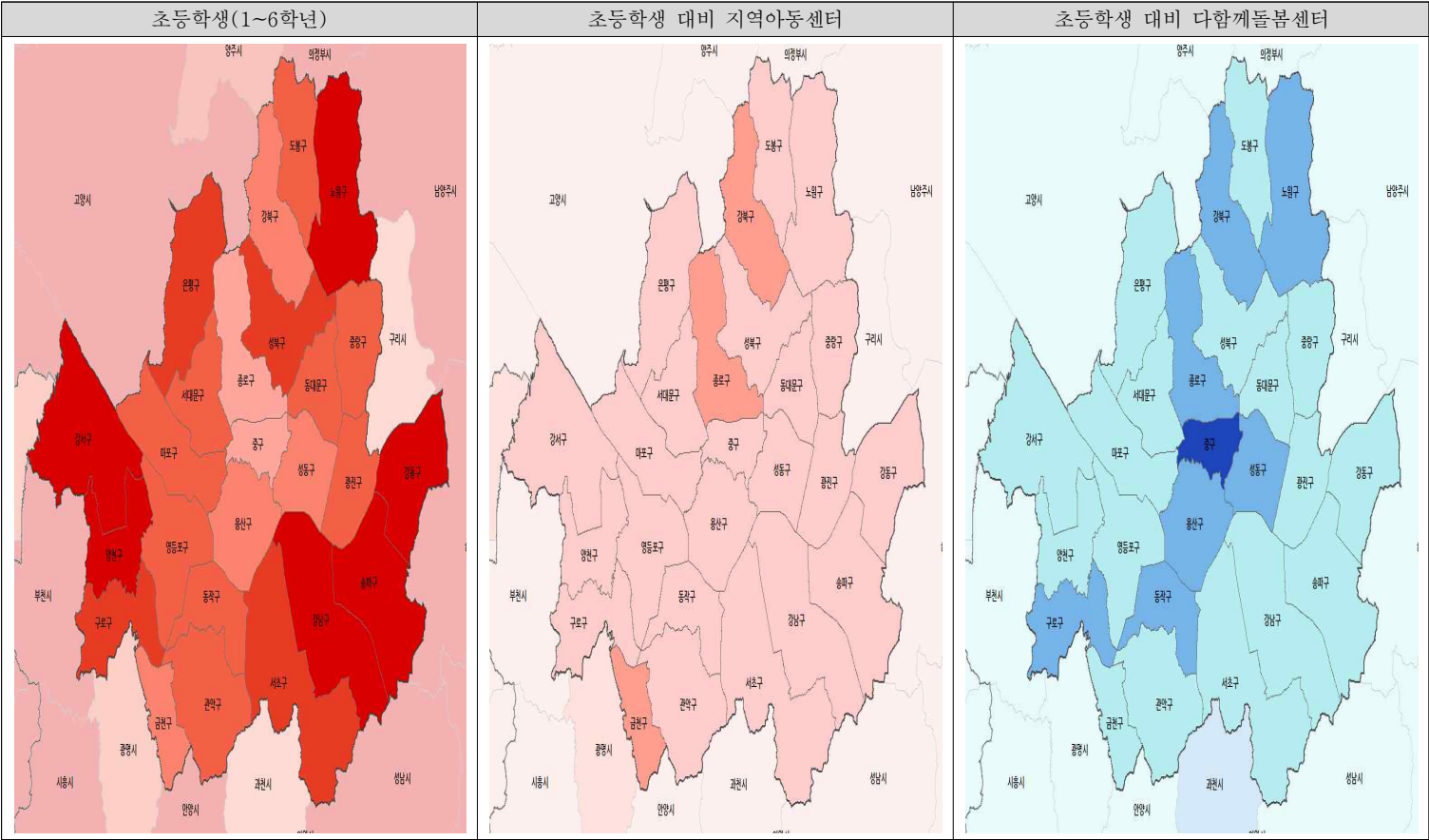
[그림 3-3] 전국 초등학교 현황 및 초등학교 수 대비 마을돌봄시설 분포 현황(202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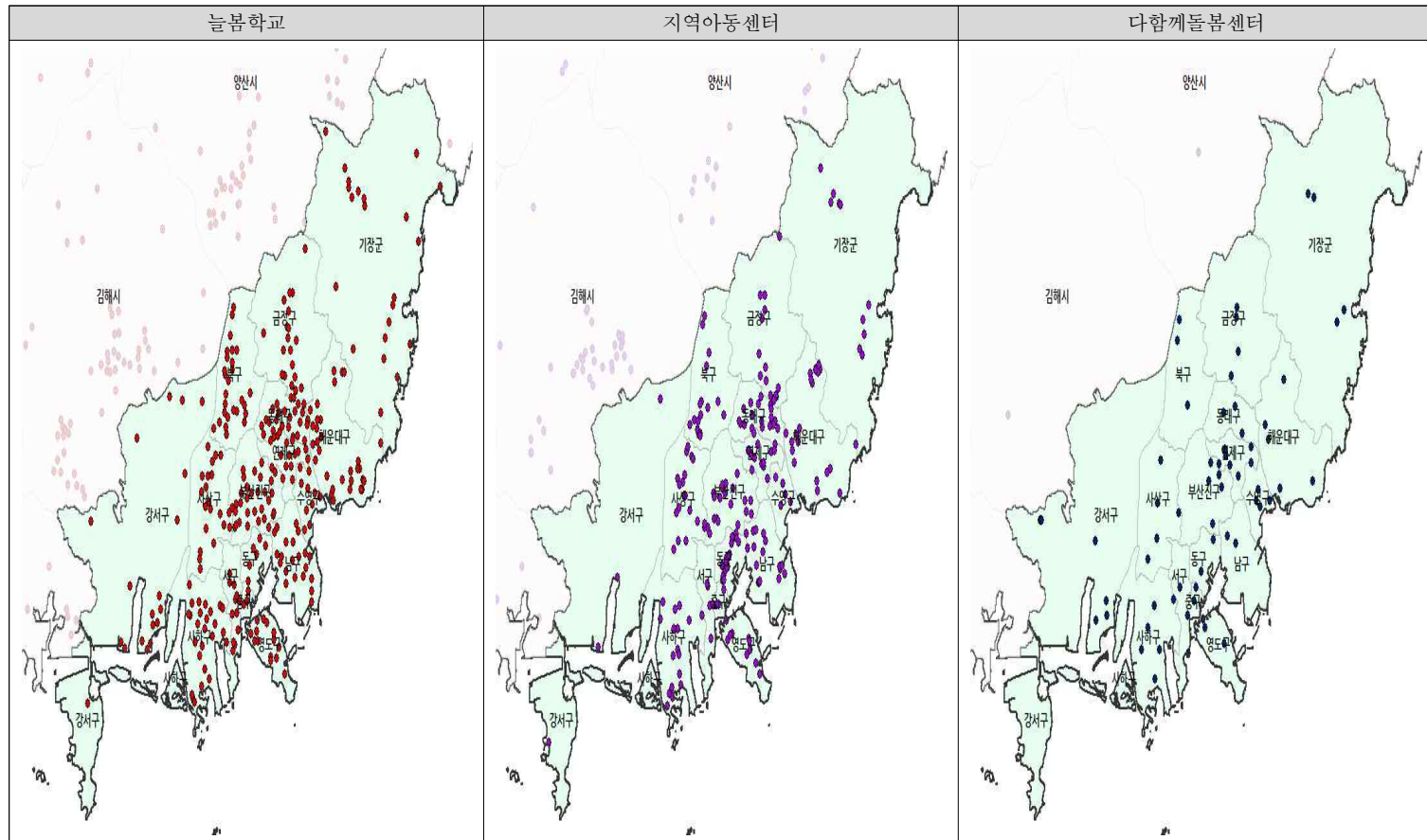
[그림 3-4] 서울 늘봄학교-마을돌봄시설 분포 현황(202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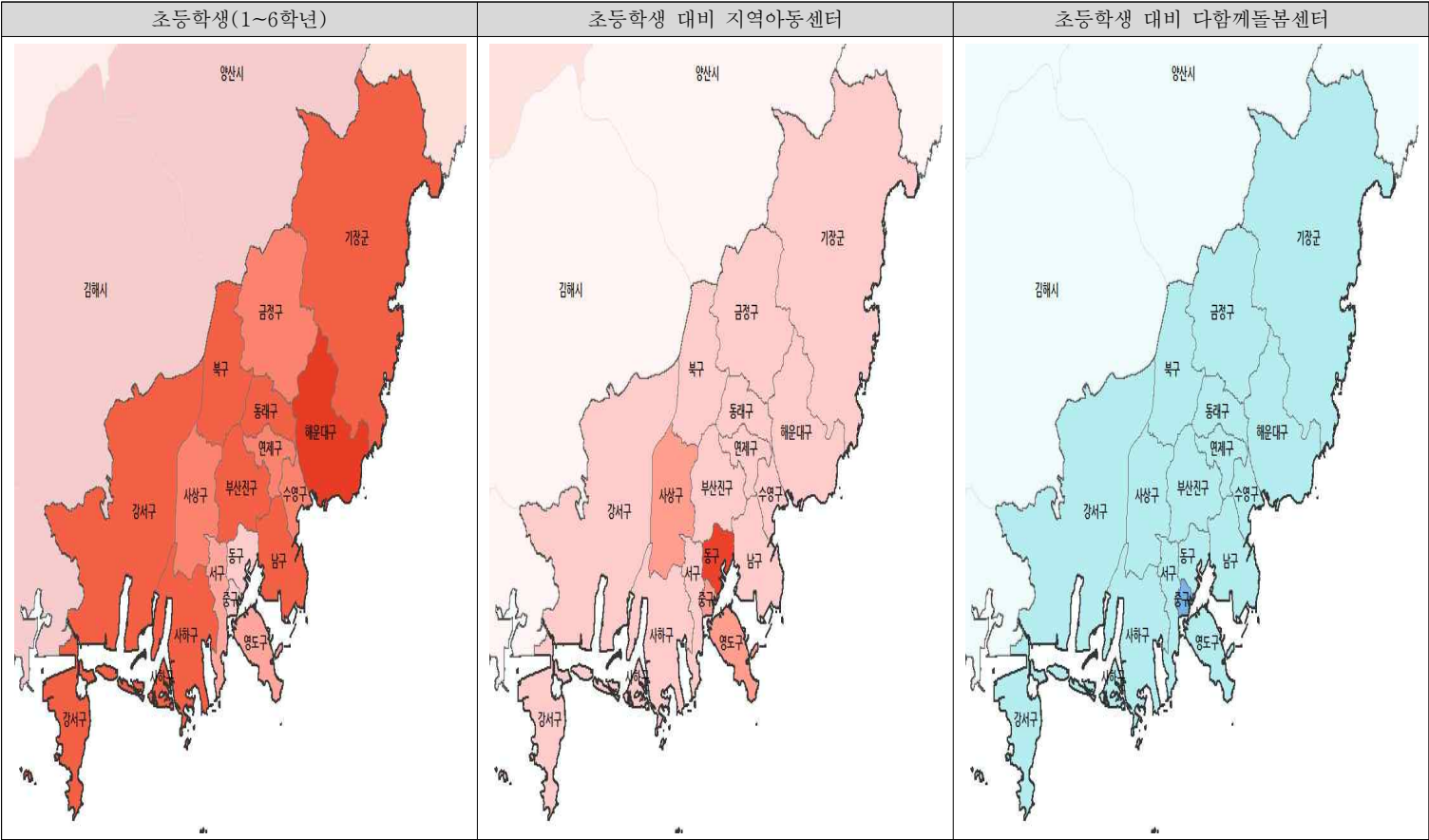
[그림 3-5] 서울 초등학생 현황 및 초등학생 수 대비 마을돌봄시설 분포 현황(202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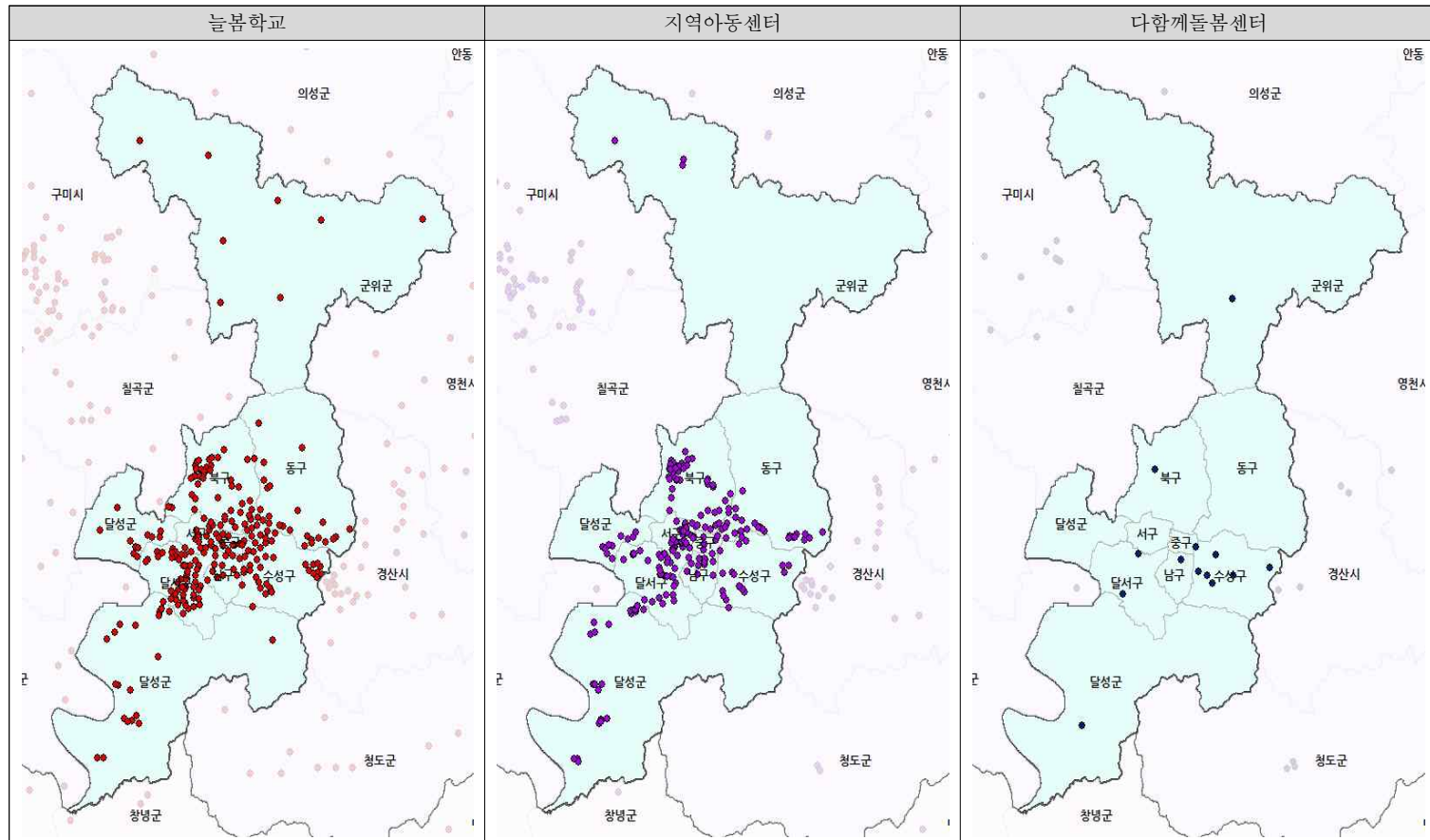
[그림 3-6] 부산 늘봄학교-마을돌봄시설 분포 현황(202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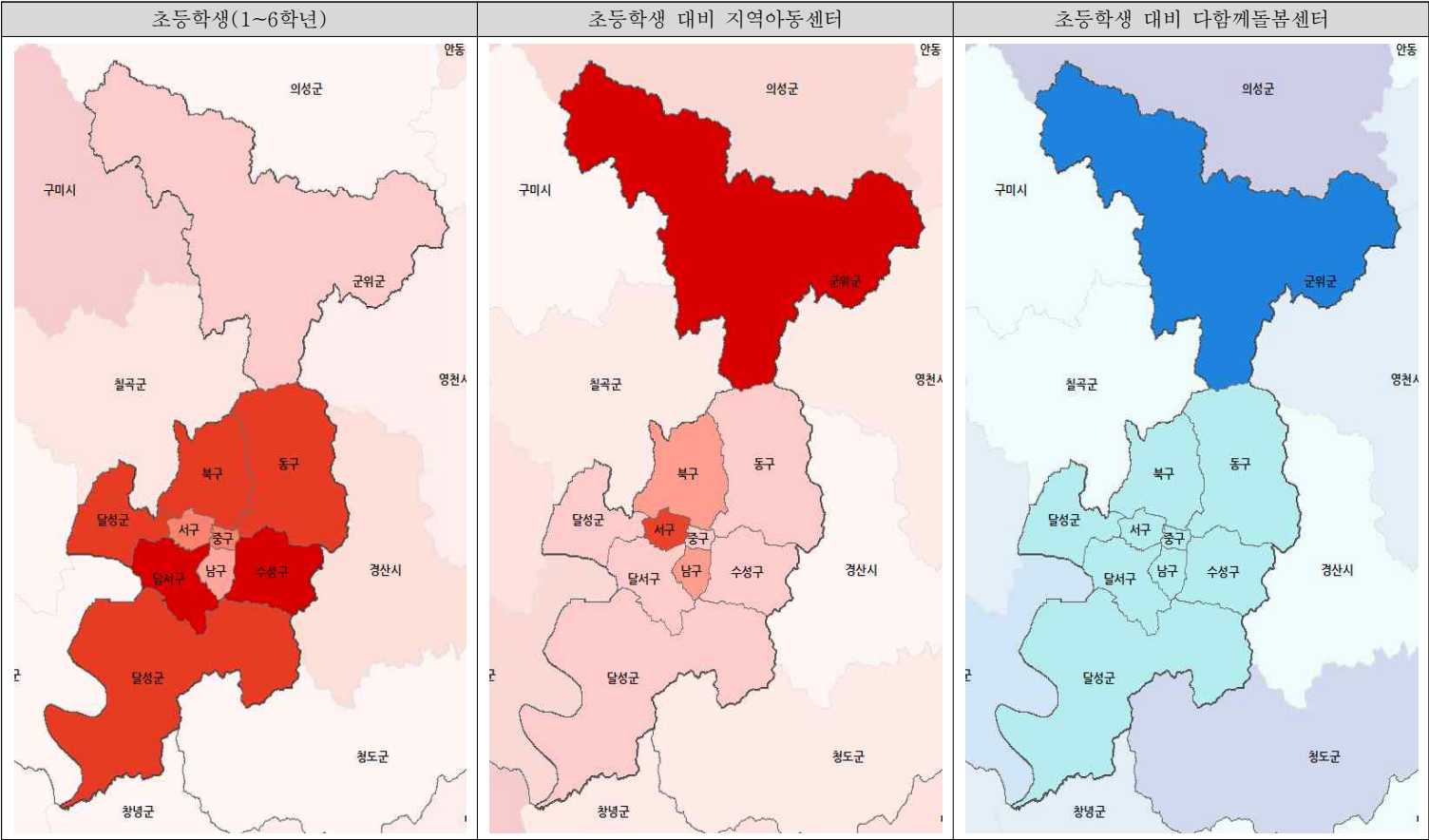
[그림 3-7] 부산 초등학생 현황 및 초등학생 수 대비 마을돌봄시설 분포 현황(202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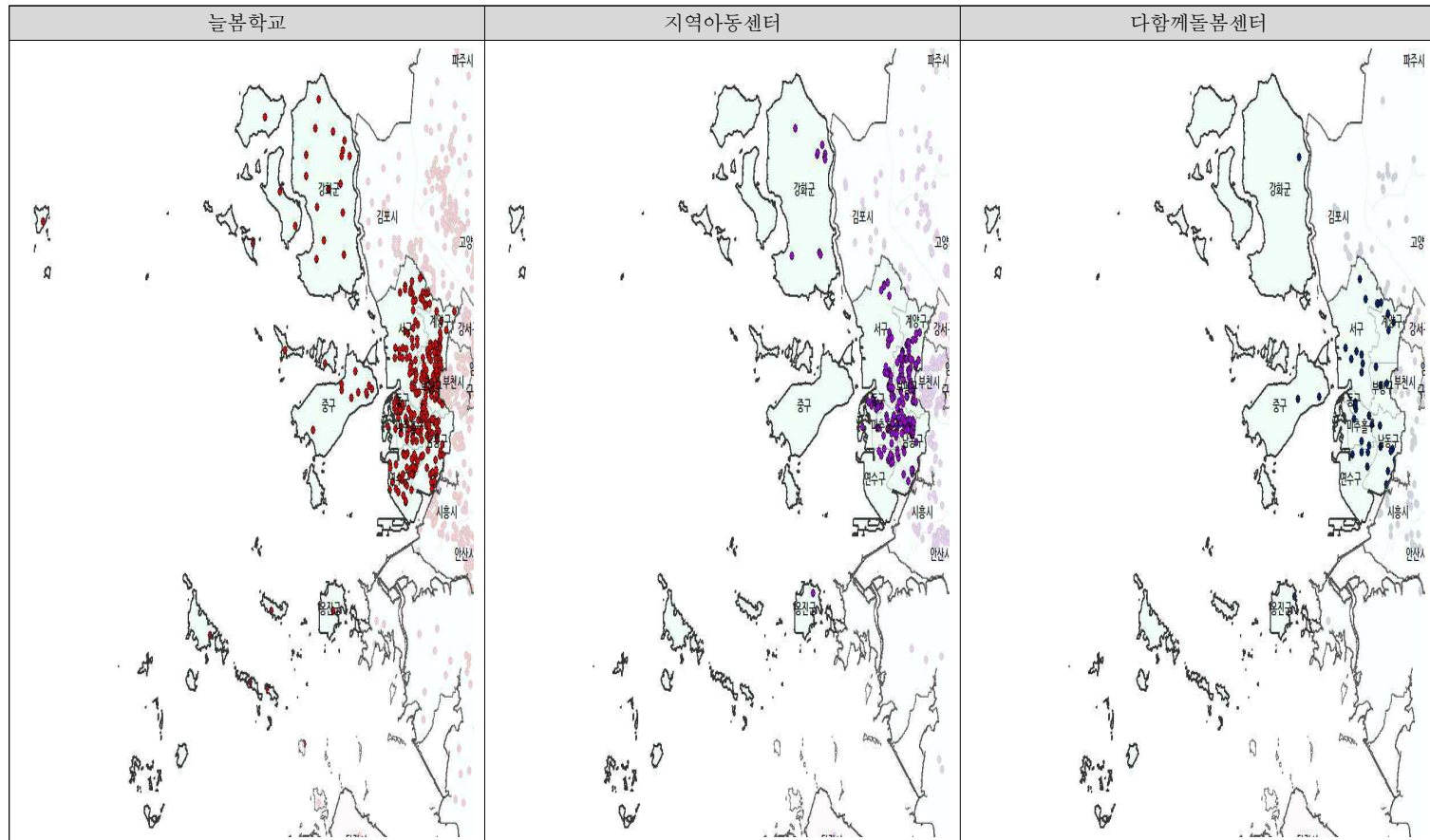
[그림 3-8] 대구 늘봄학교-마을돌봄시설 분포 현황(202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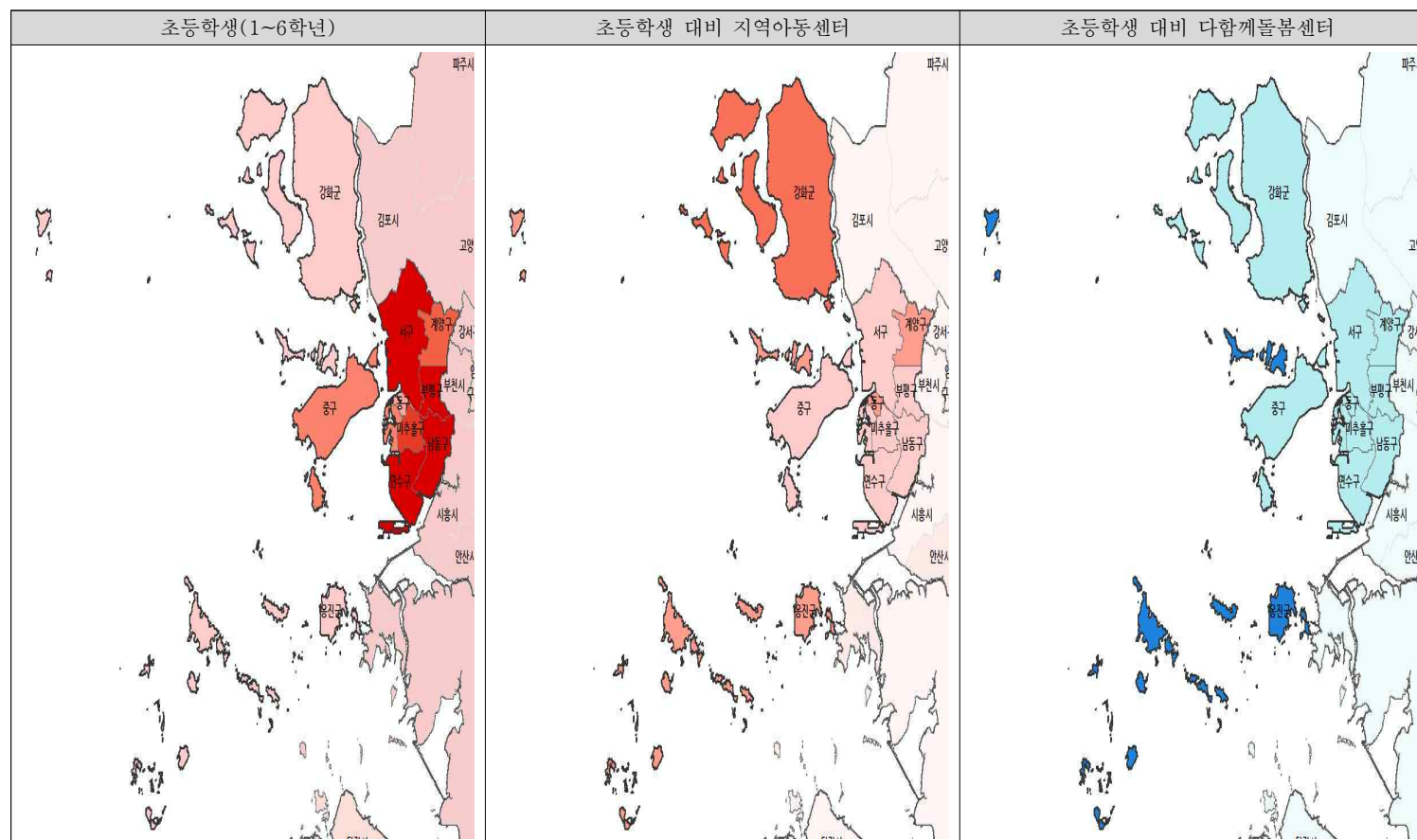
[그림 3-9] 대구 초등학교 현황 및 초등학교 수 대비 마을돌봄시설 분포 현황(202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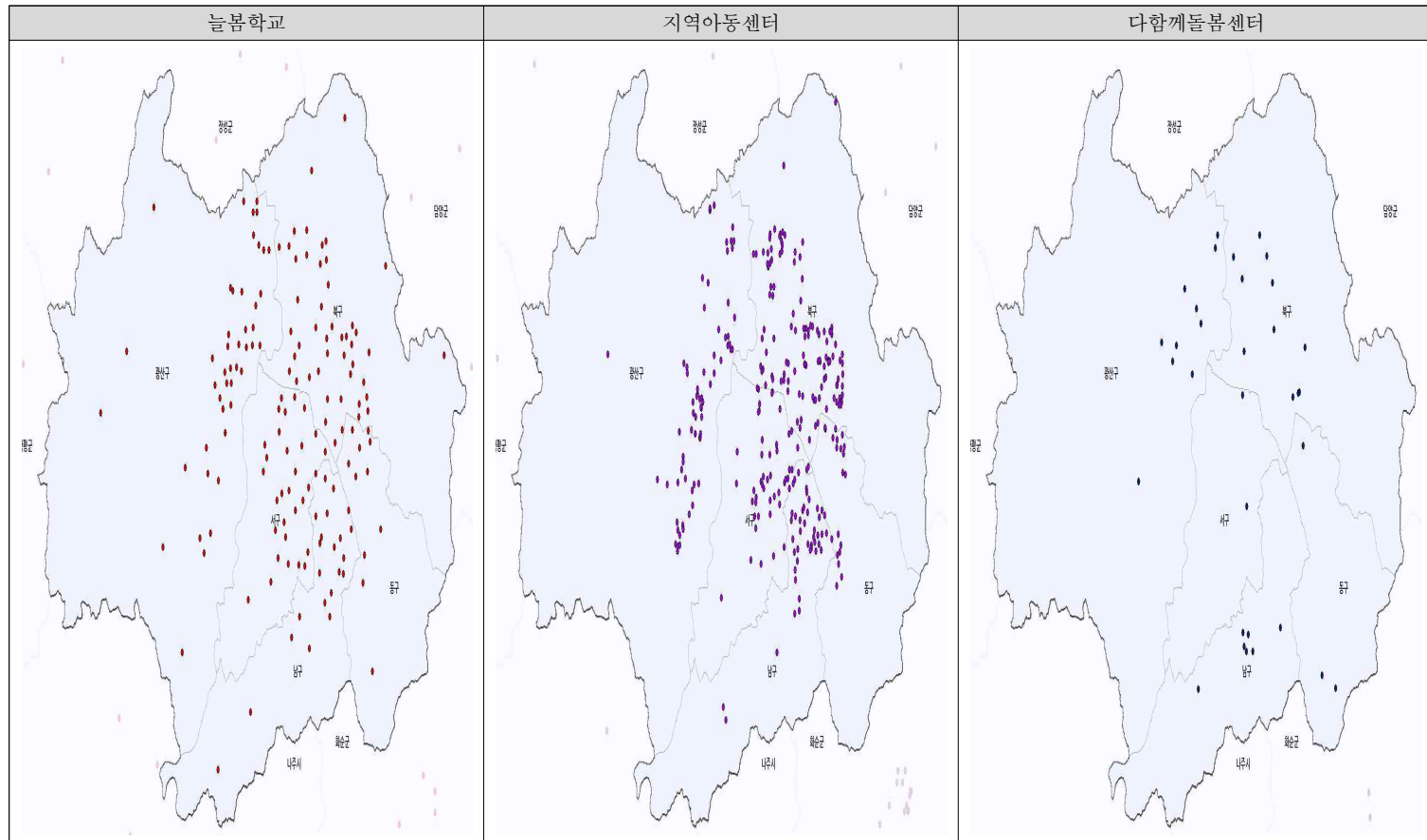
[그림 3-10] 인천 늘봄학교-마을돌봄시설 분포 현황(202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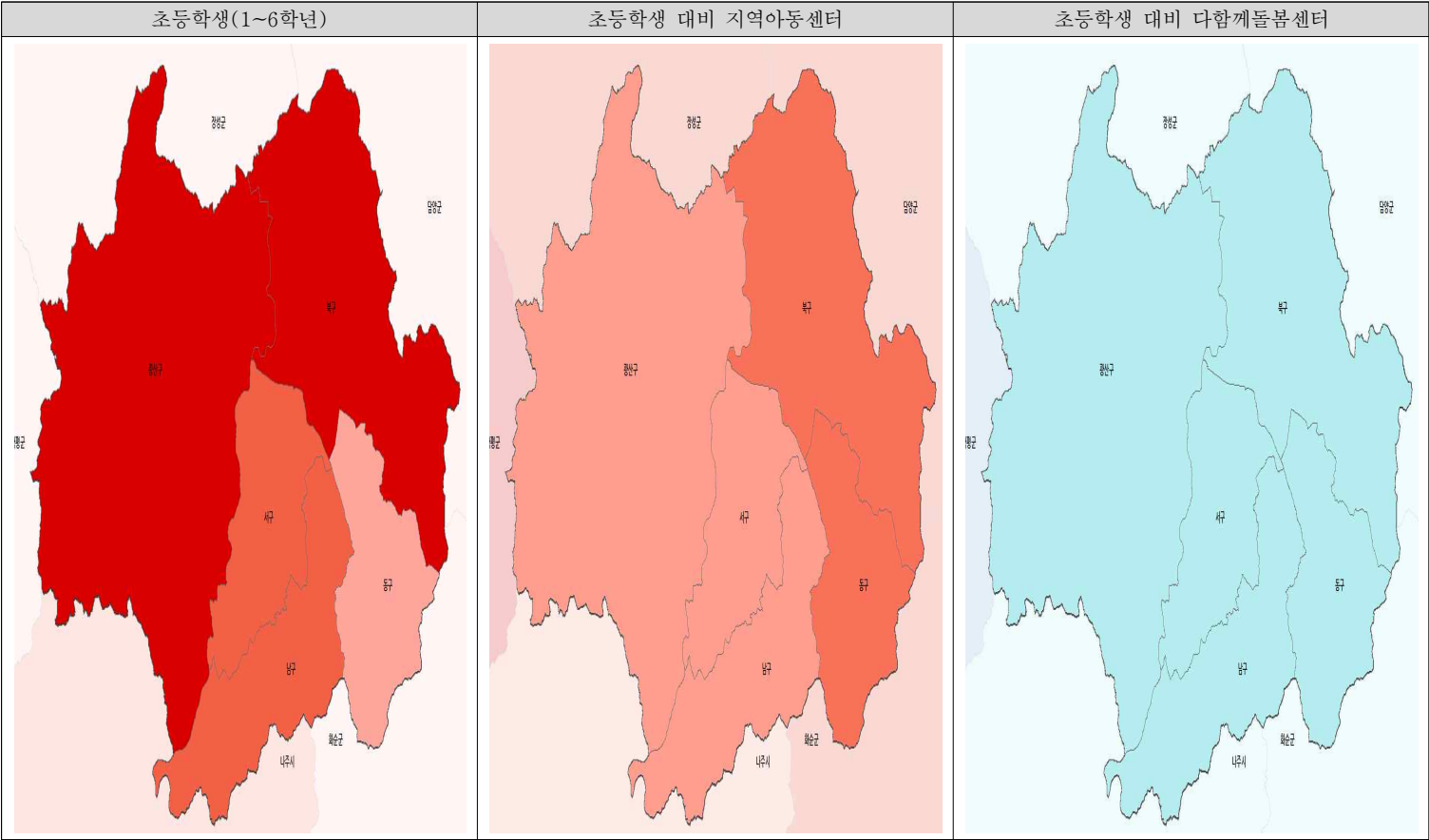
[그림 3-11] 인천 초등학교 현황 및 초등학교 수 대비 마을돌봄시설 분포 현황(202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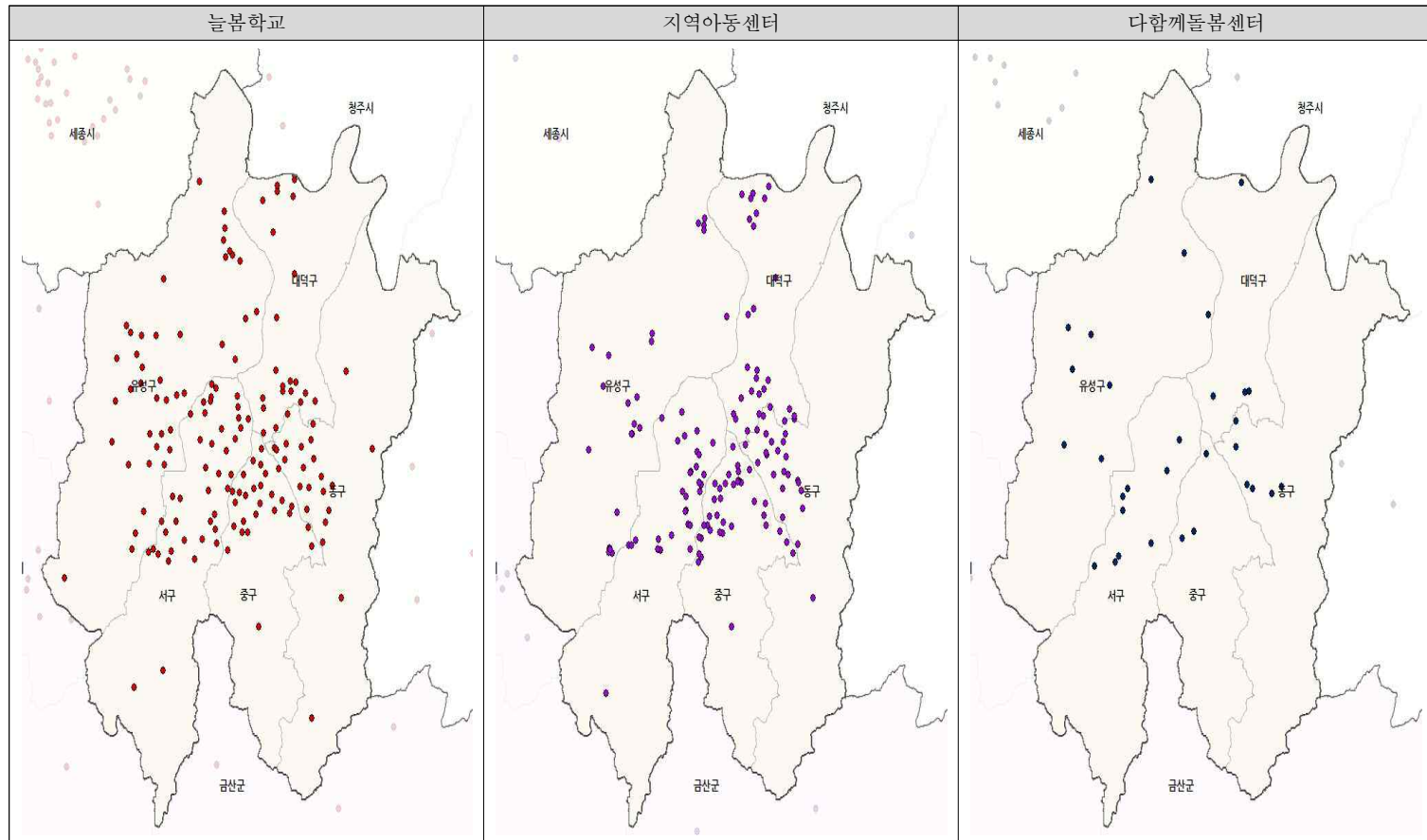
[그림 3-12] 광주 늘봄학교-마을돌봄시설 분포 현황(202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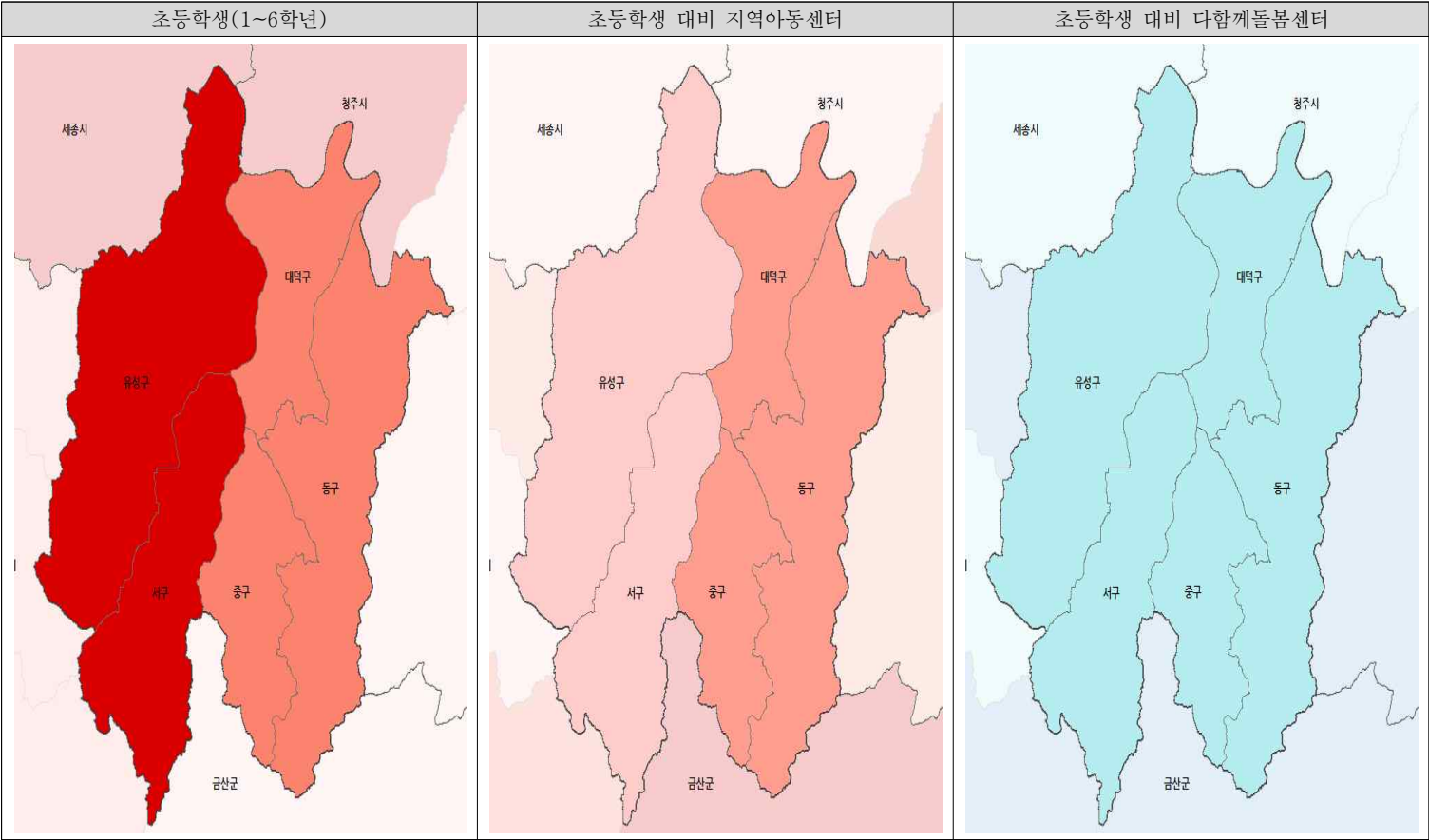
[그림 3-13] 광주 초등학교 현황 및 초등학교 수 대비 마을돌봄시설 분포 현황(202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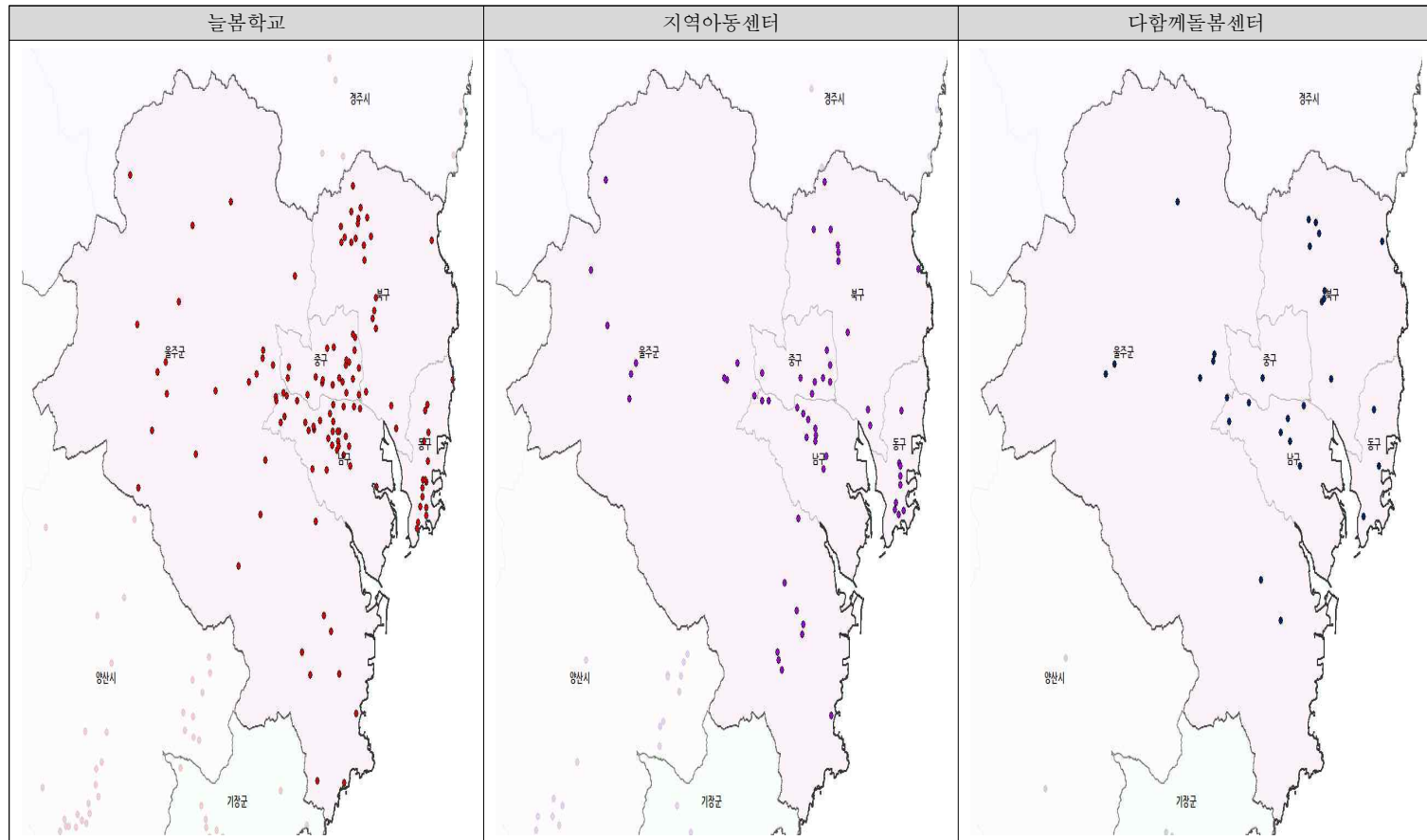
[그림 3-14] 대전 늘봄학교-마을돌봄시설 분포 현황(202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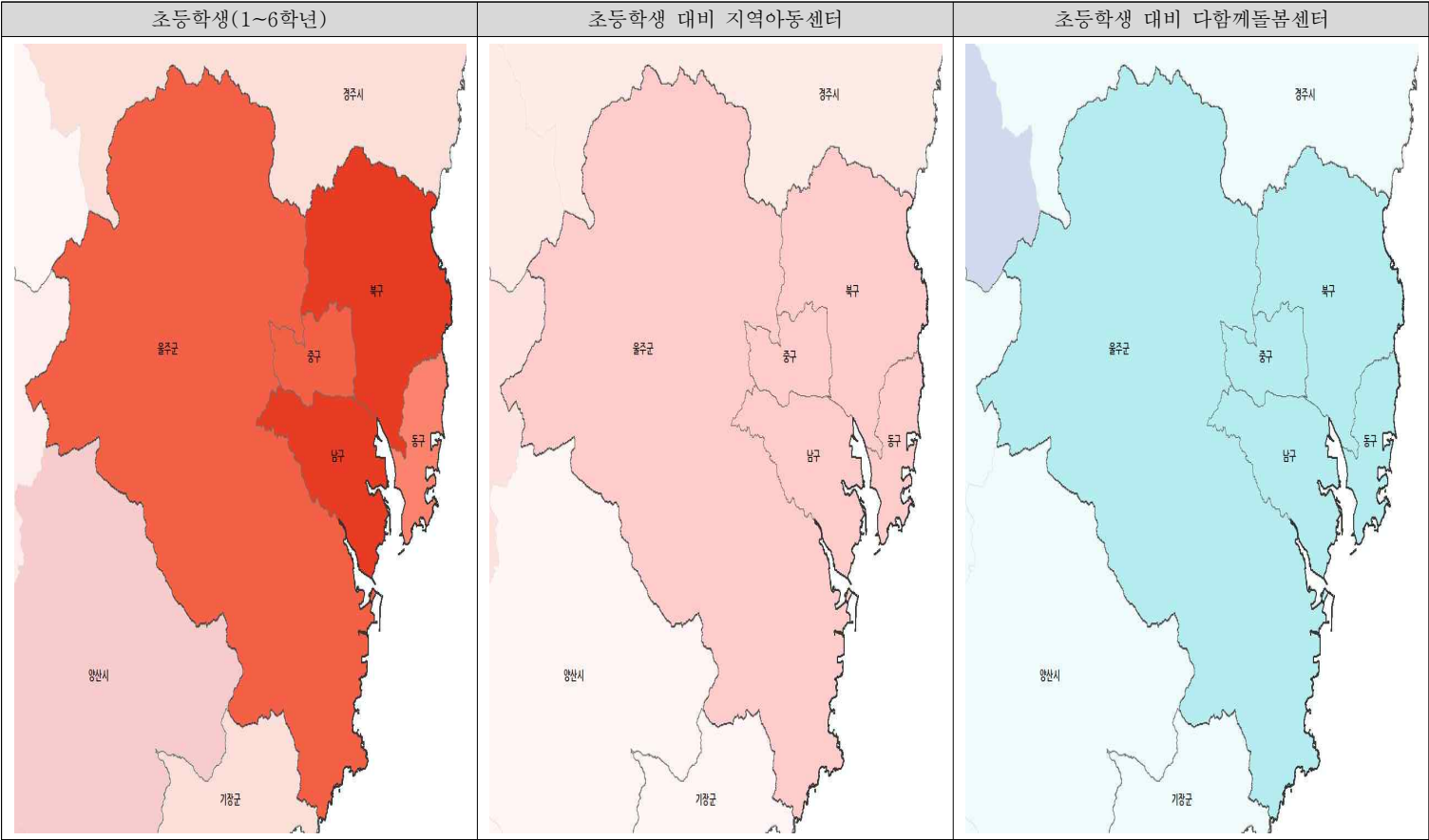
[그림 3-15] 대전 초등학교 현황 및 초등학교 수 대비 마을돌봄시설 분포 현황(202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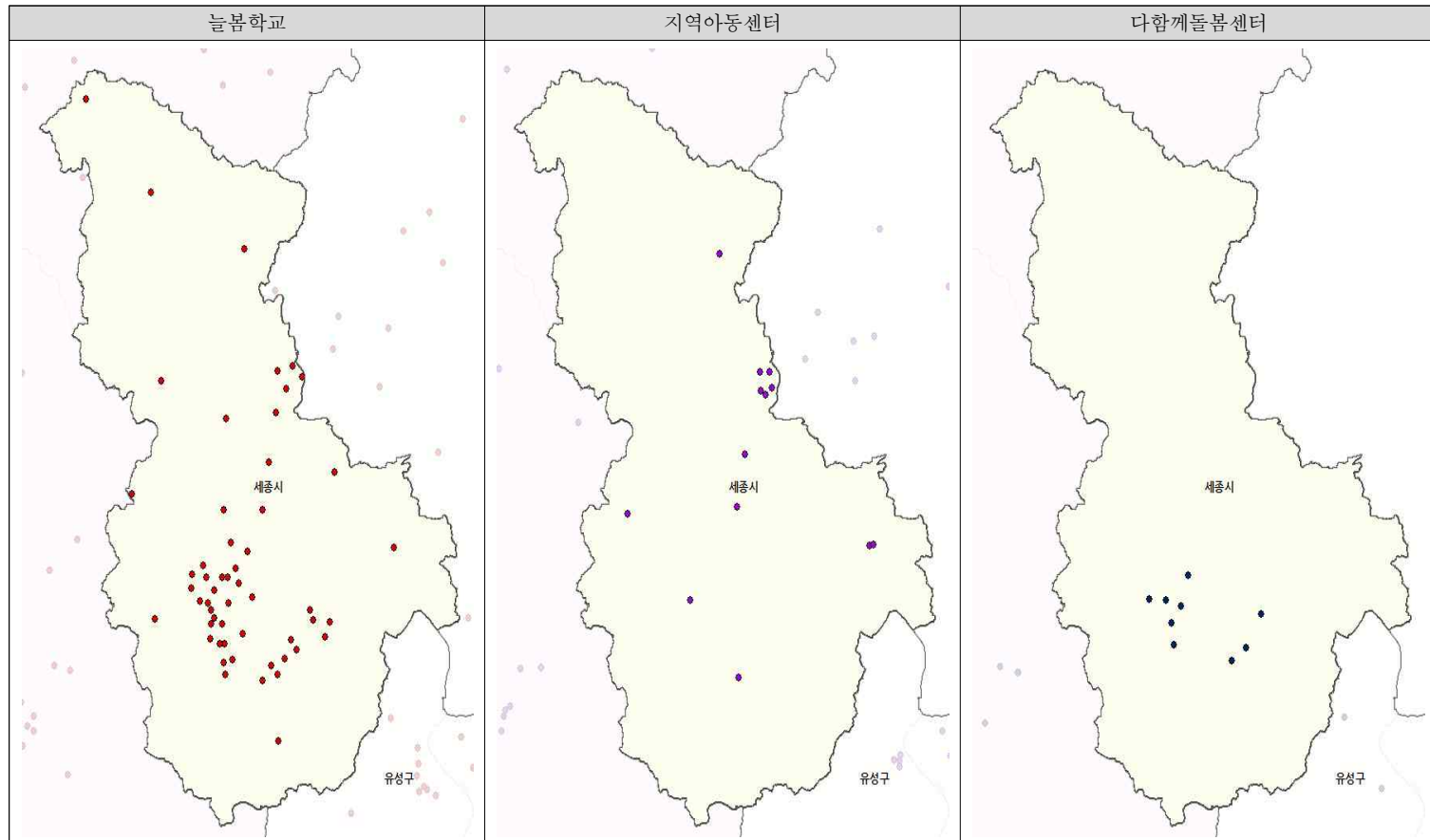
[그림 3-16] 울산 늘봄학교-마을돌봄시설 분포 현황(202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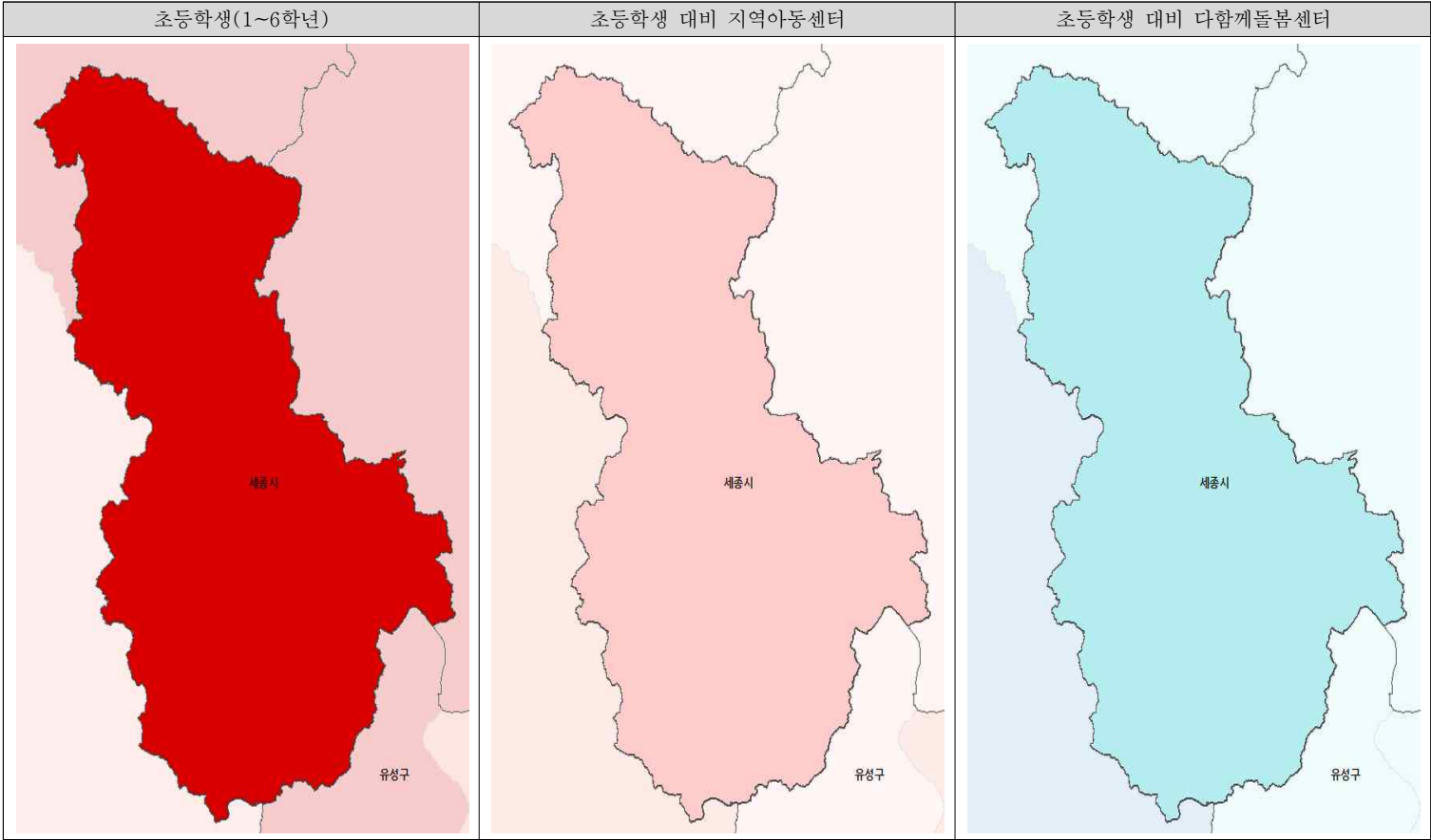
[그림 3-17] 울산 초등학생 현황 및 초등학생 수 대비 마을돌봄시설 분포 현황(202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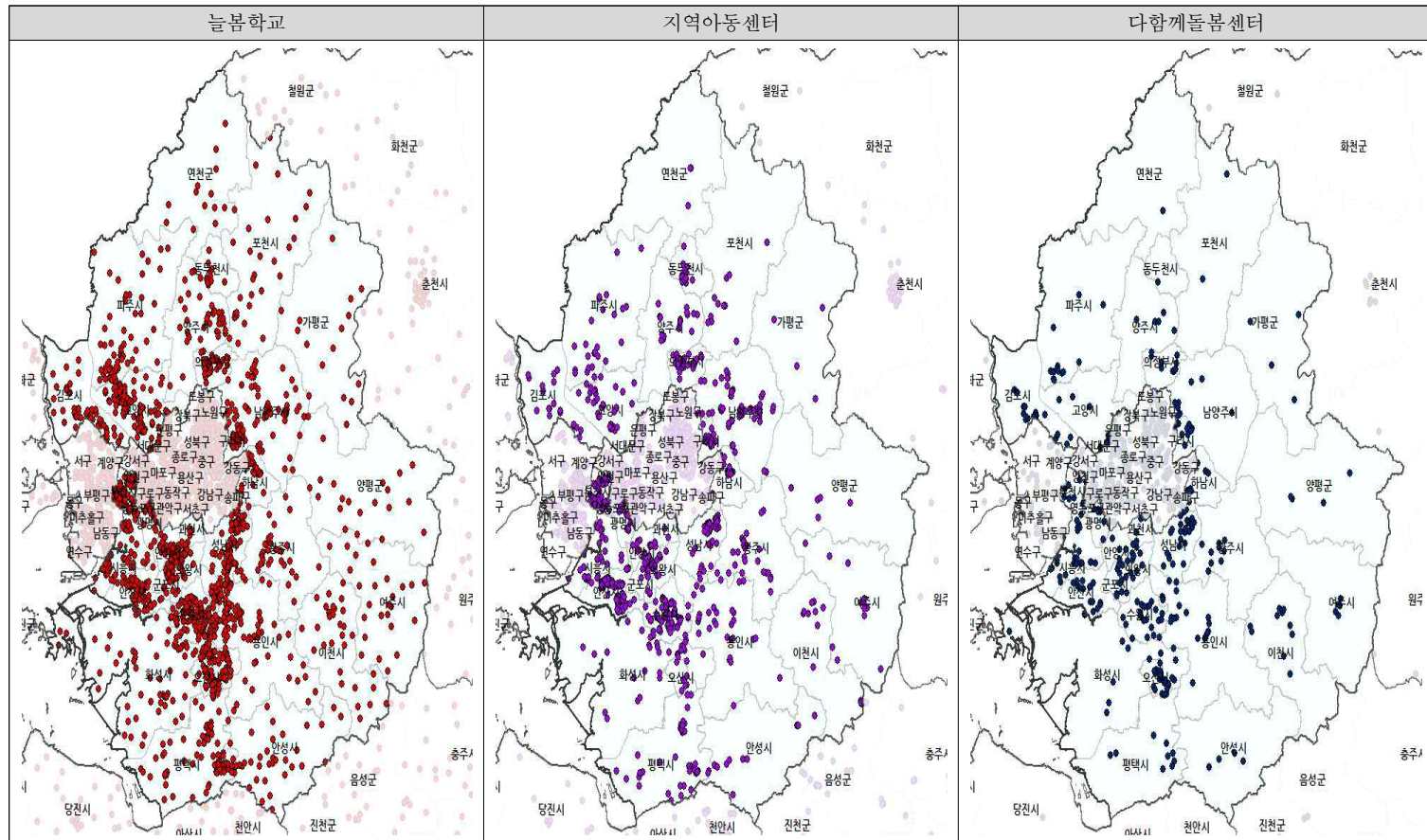
[그림 3-18] 세종 늘봄학교-마을돌봄시설 분포 현황(202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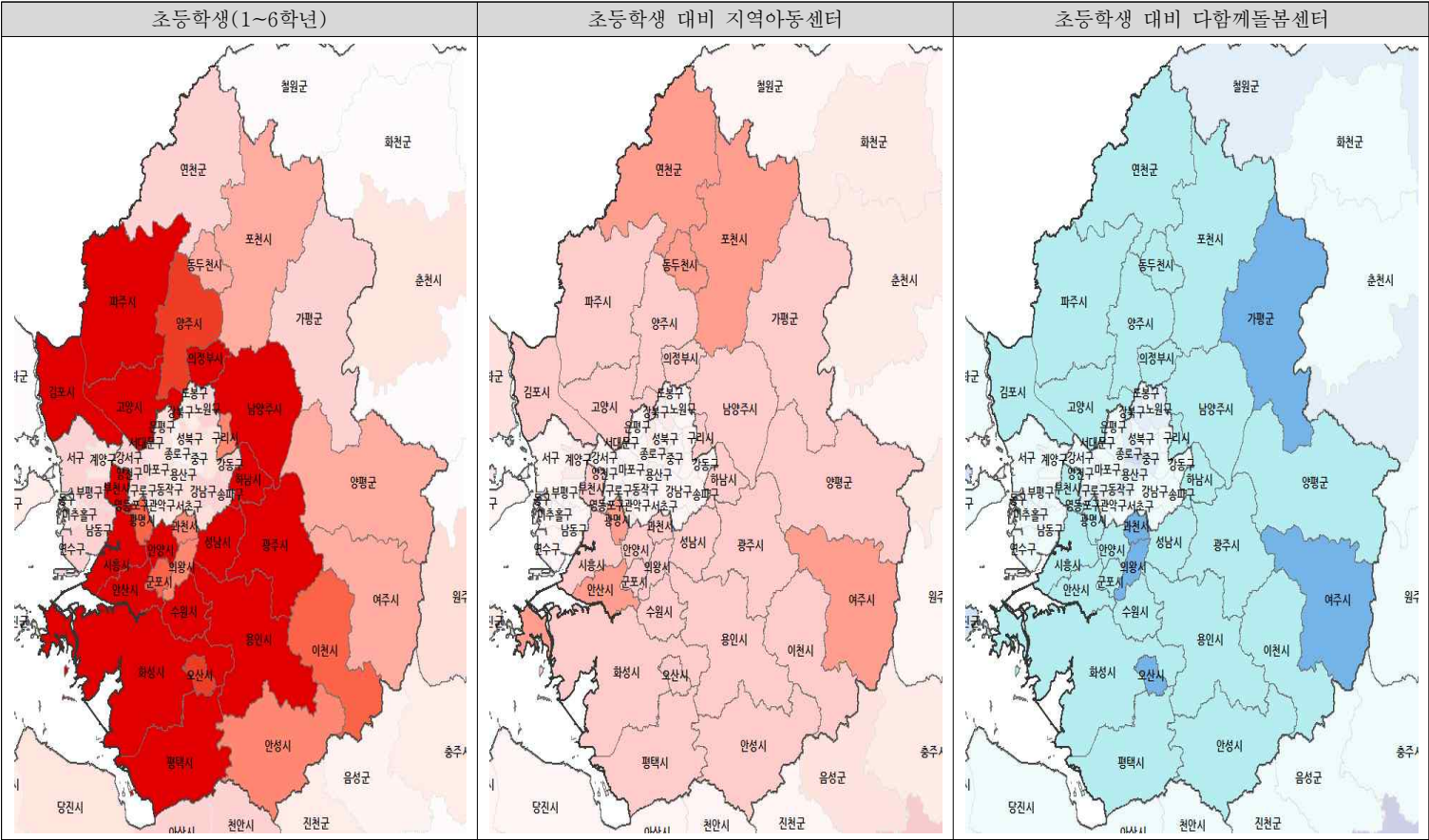
[그림 3-19] 세종 초등학교 현황 및 초등학교 수 대비 마을돌봄시설 분포 현황(202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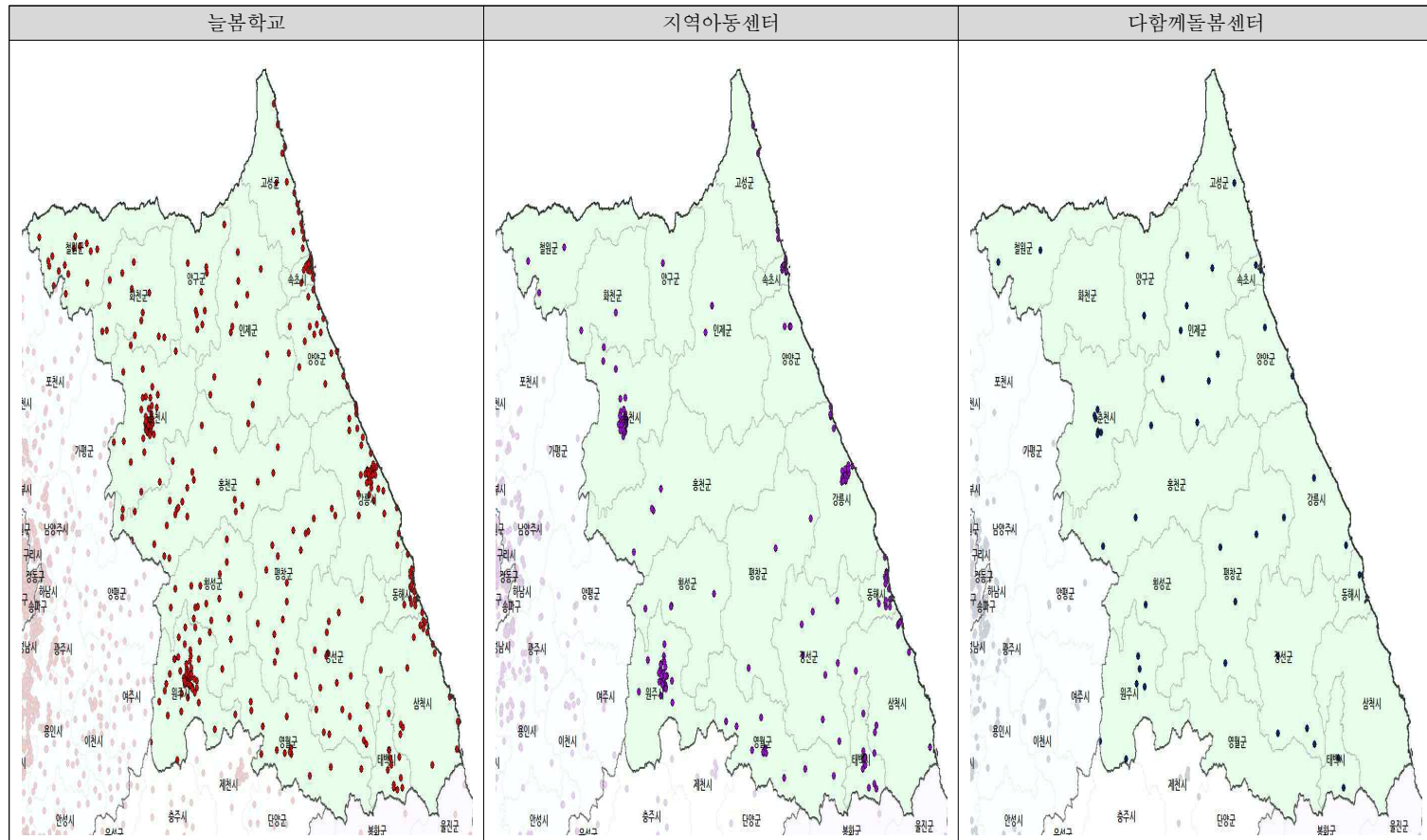
[그림 3-20] 경기 늘봄학교-마을돌봄시설 분포 현황(202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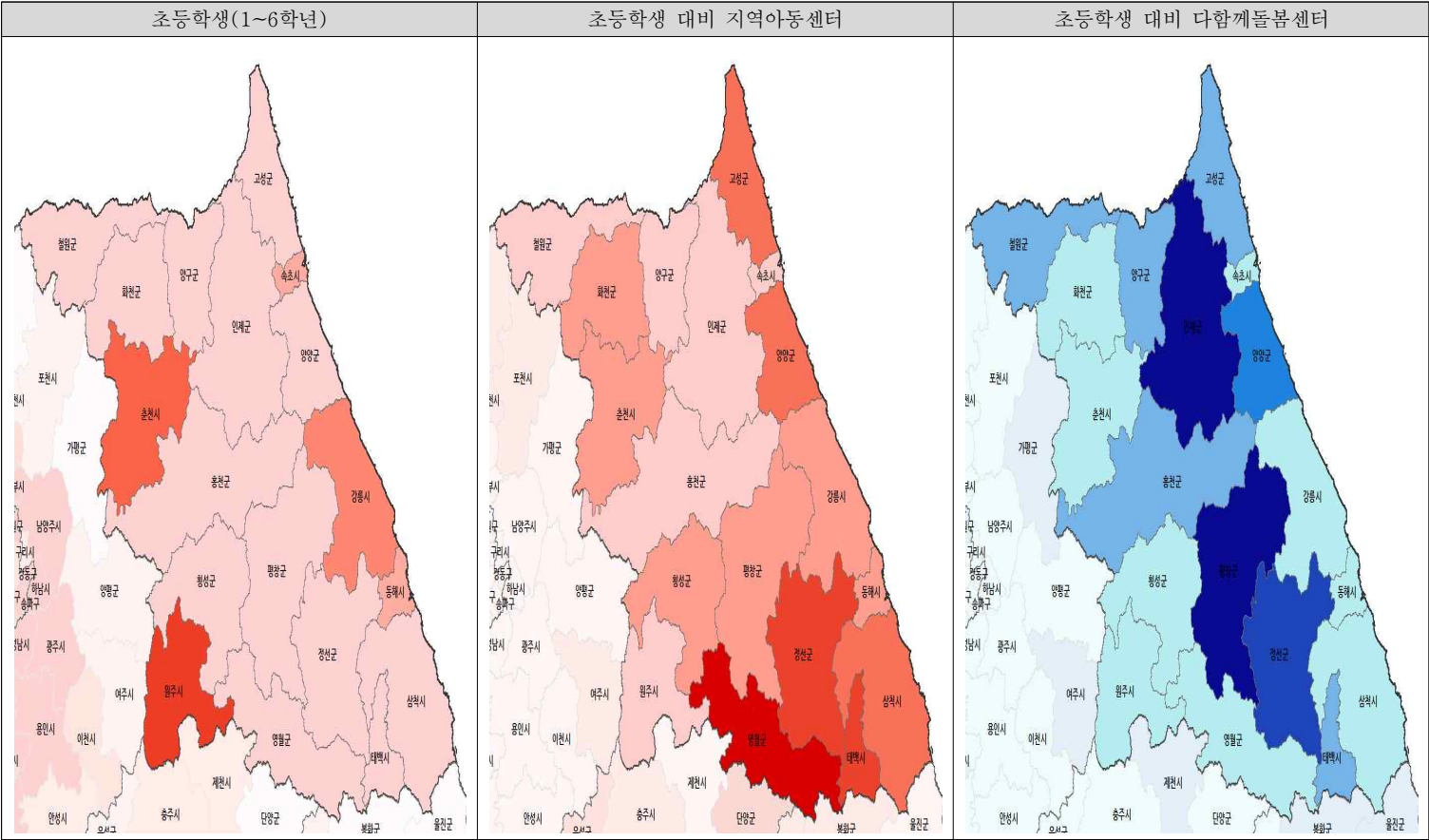
[그림 3-21] 경기 초등학생 현황 및 초등학생 수 대비 마을돌봄시설 분포 현황(202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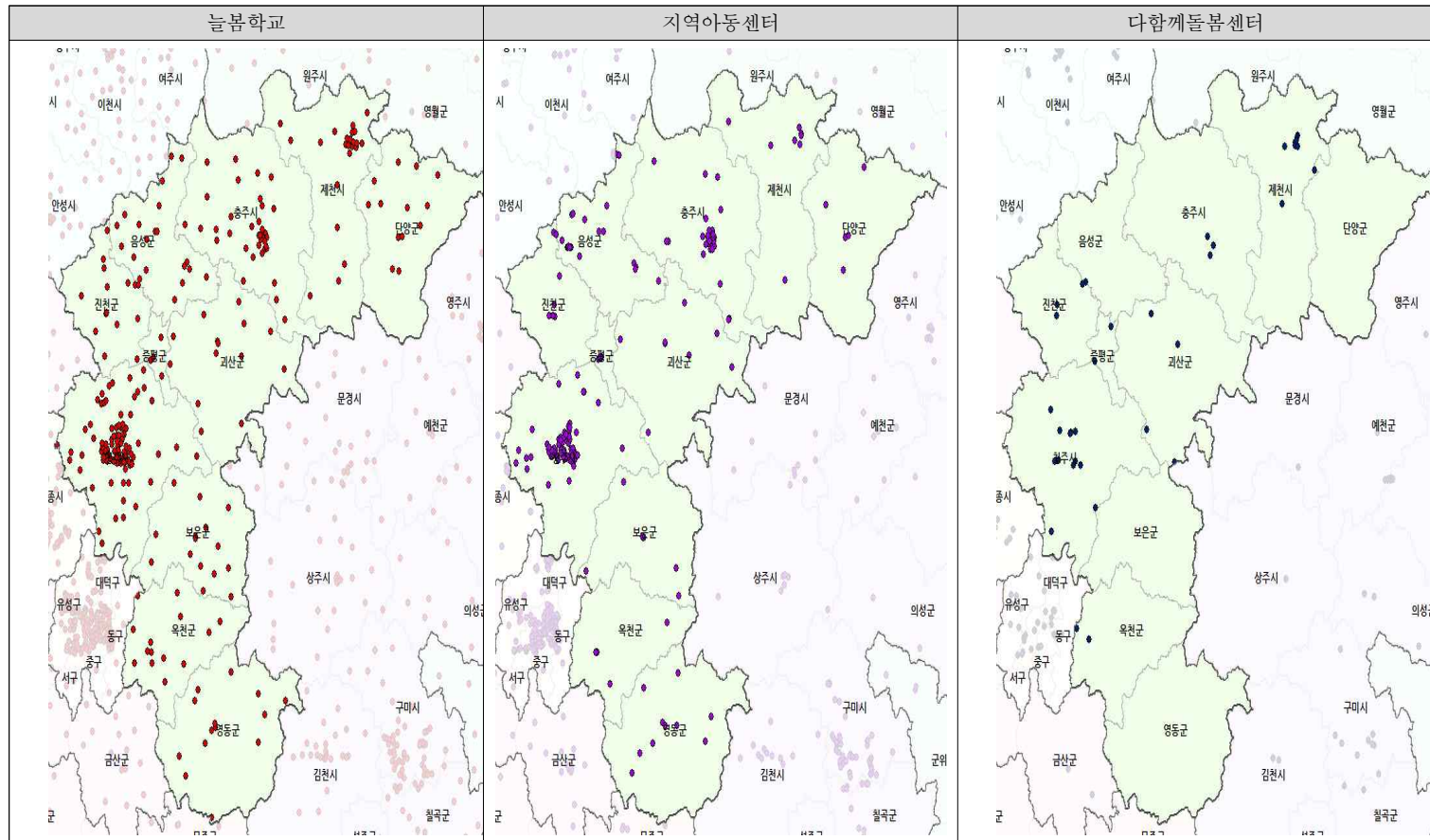
[그림 3-22] 강원 늘봄학교-마을돌봄시설 분포 현황(202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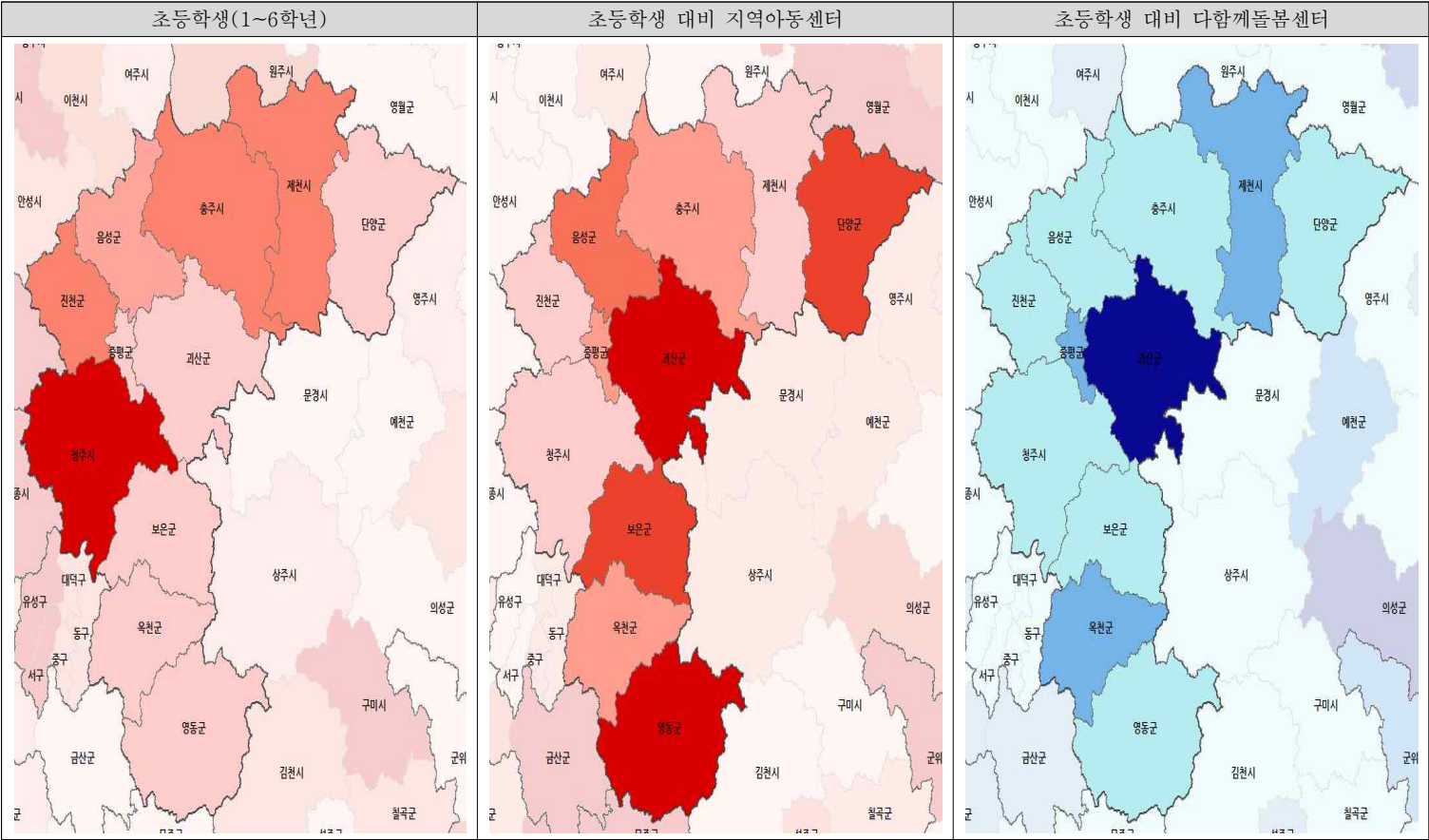
[그림 3-23] 강원 초등학생 현황 및 초등학생 수 대비 마을돌봄시설 분포 현황(202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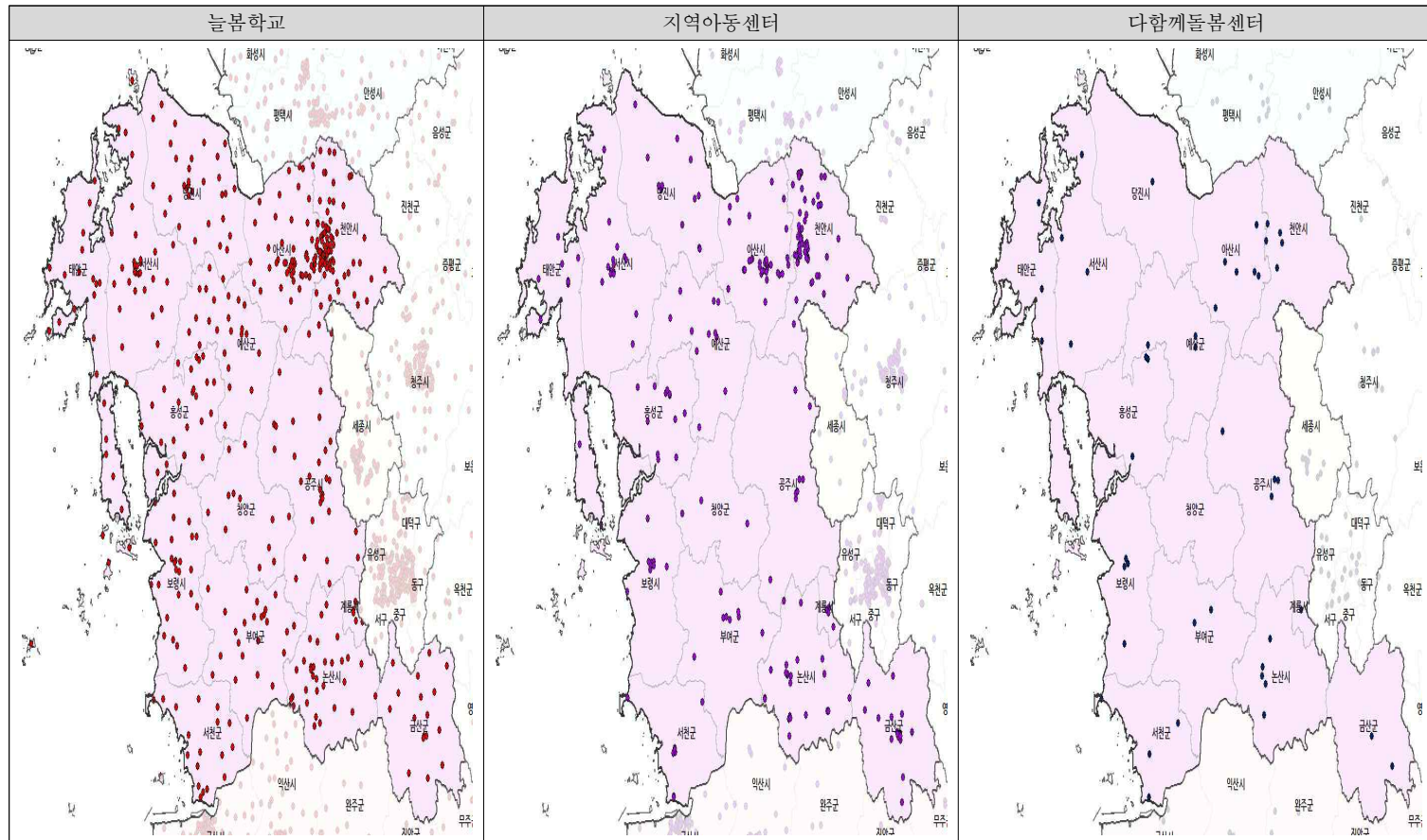
[그림 3-24] 충북 늘봄학교-마을돌봄시설 분포 현황(202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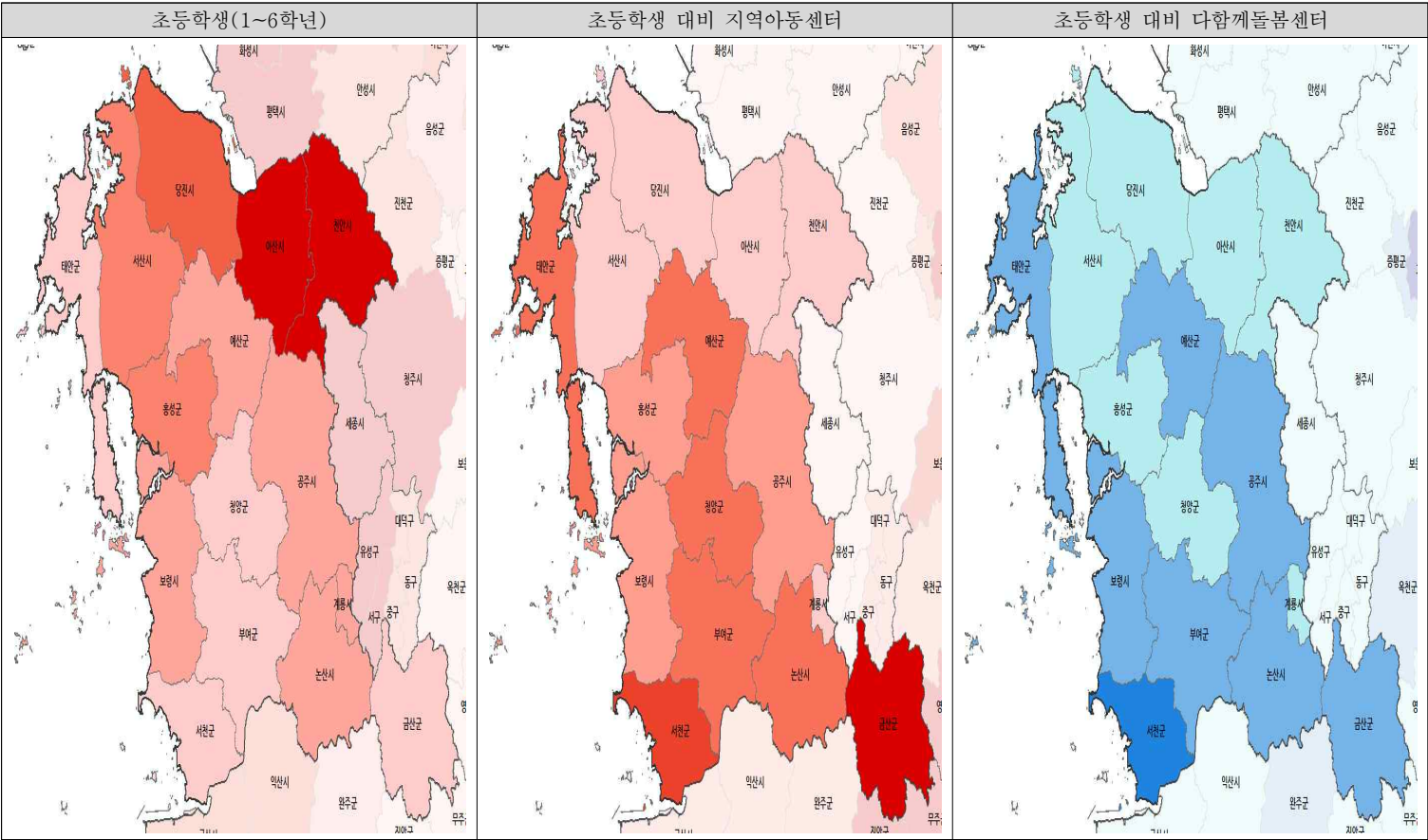
[그림 3-25] 충북 초등학교 현황 및 초등학교 수 대비 마을돌봄시설 분포 현황(202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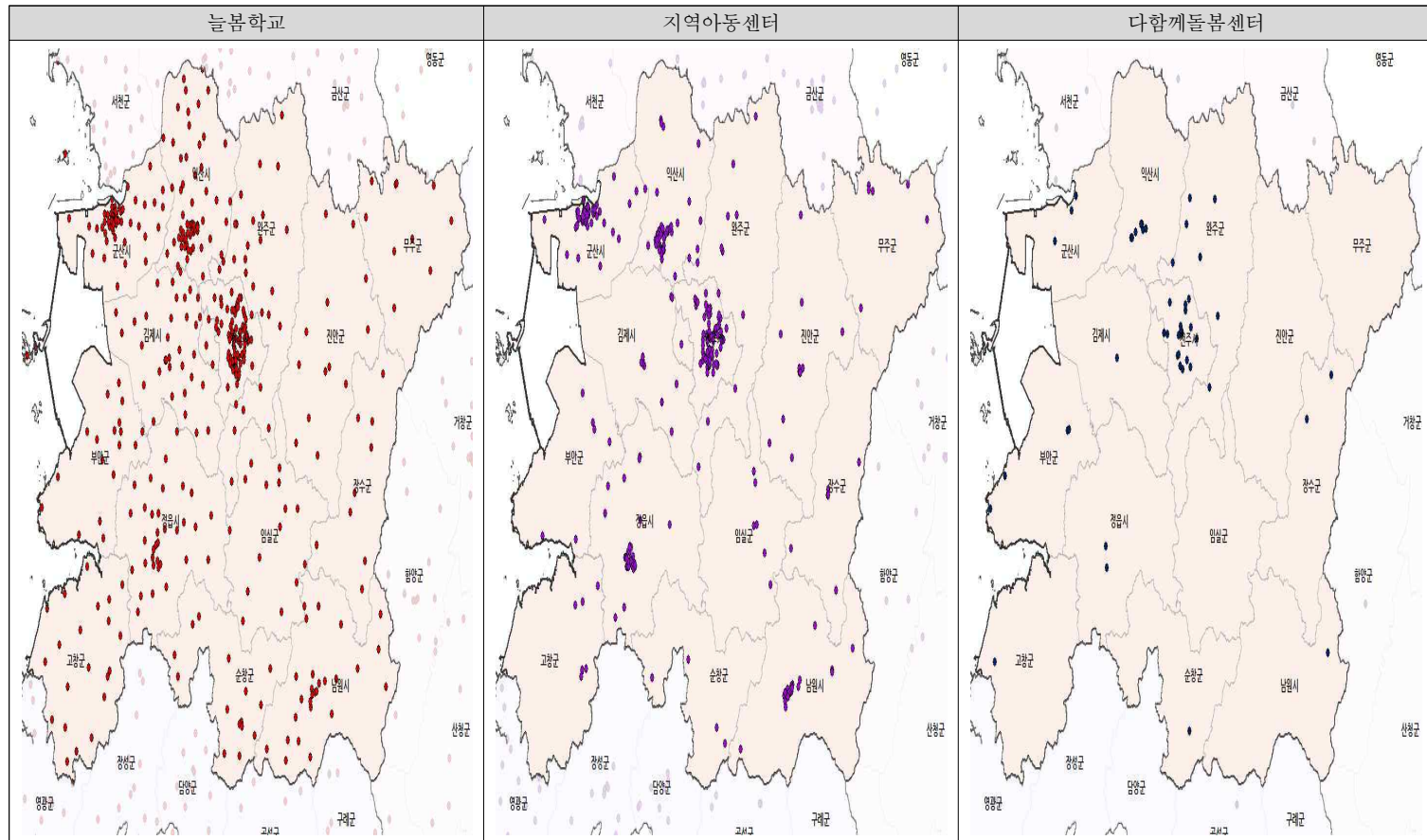
[그림 3-26] 충남 늘봄학교-마을돌봄시설 분포 현황(202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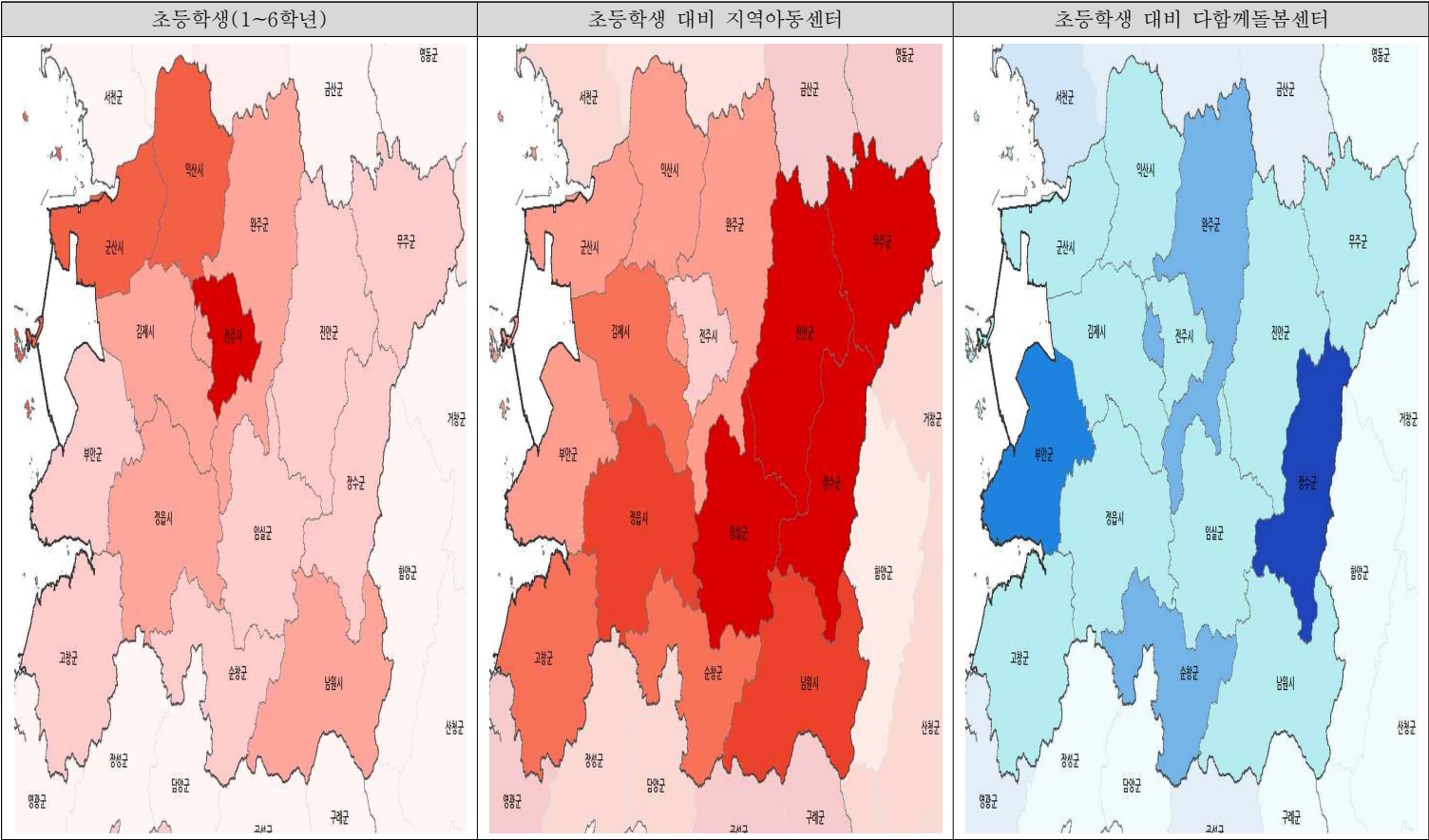
[그림 3-27] 충남 초등학교 현황 및 초등학교 수 대비 마을돌봄시설 분포 현황(202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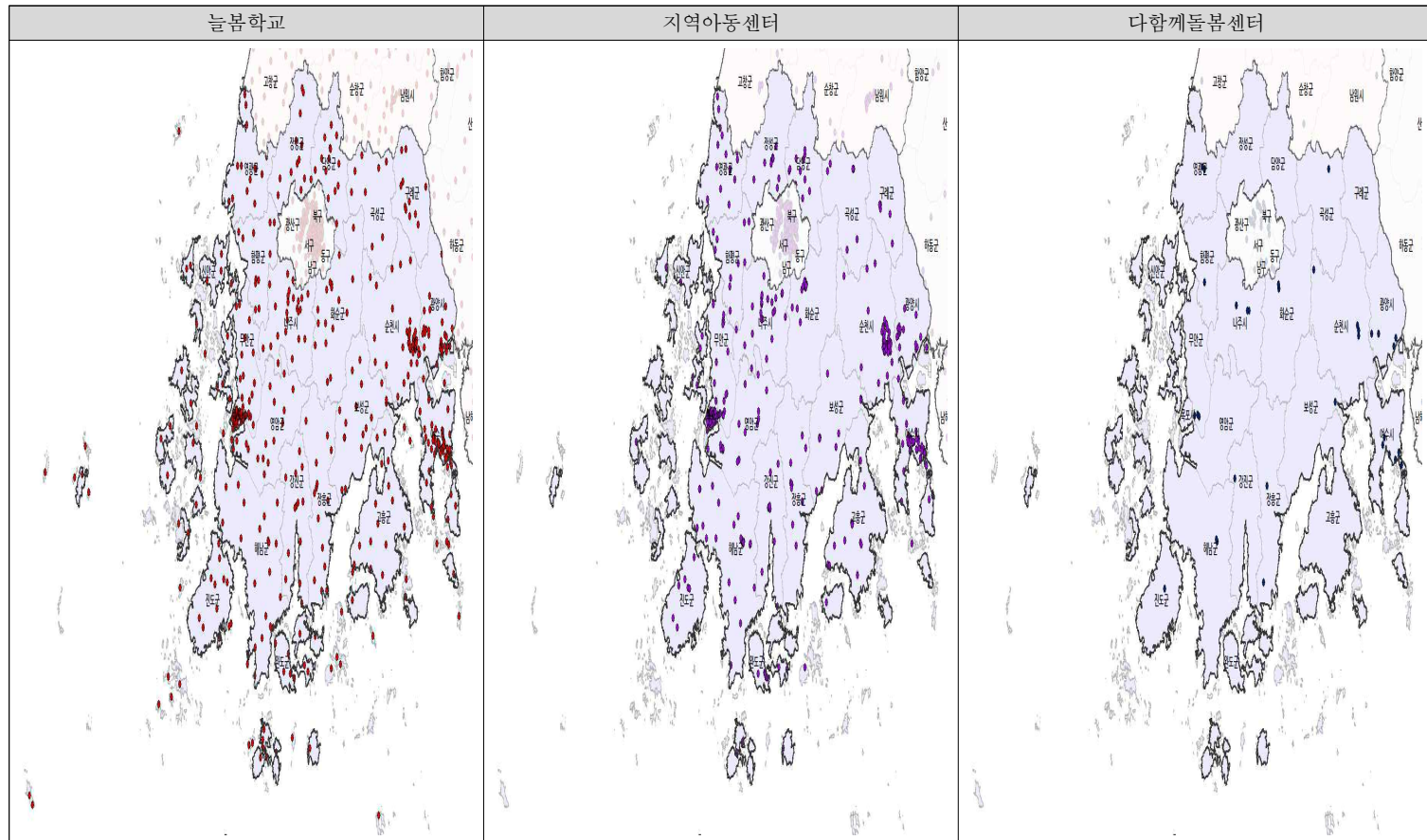
[그림 3-28] 전북 늘봄학교-마을돌봄시설 분포 현황(202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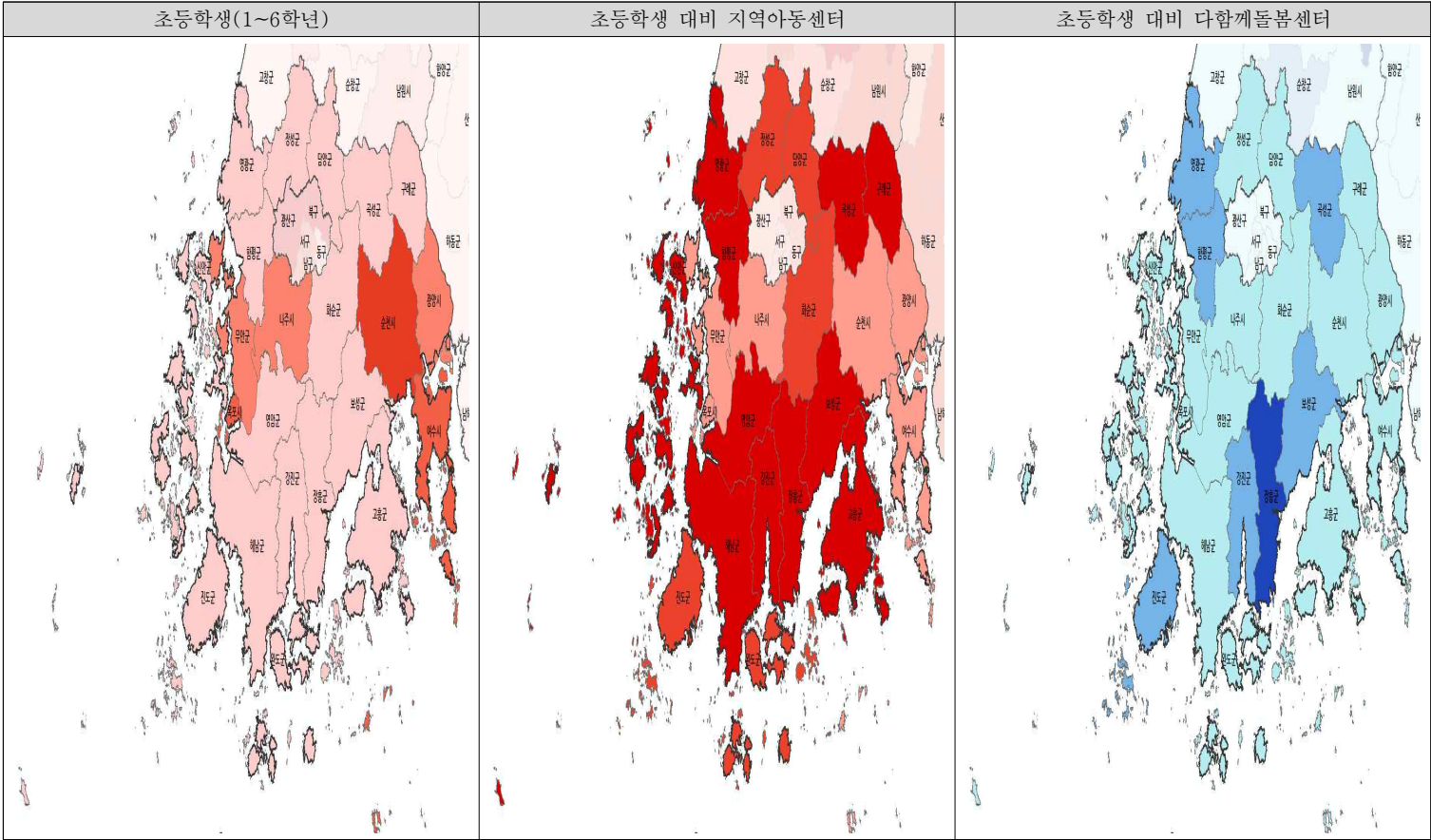
[그림 3-29] 전북 초등학생 현황 및 초등학생 수 대비 마을돌봄시설 분포 현황(202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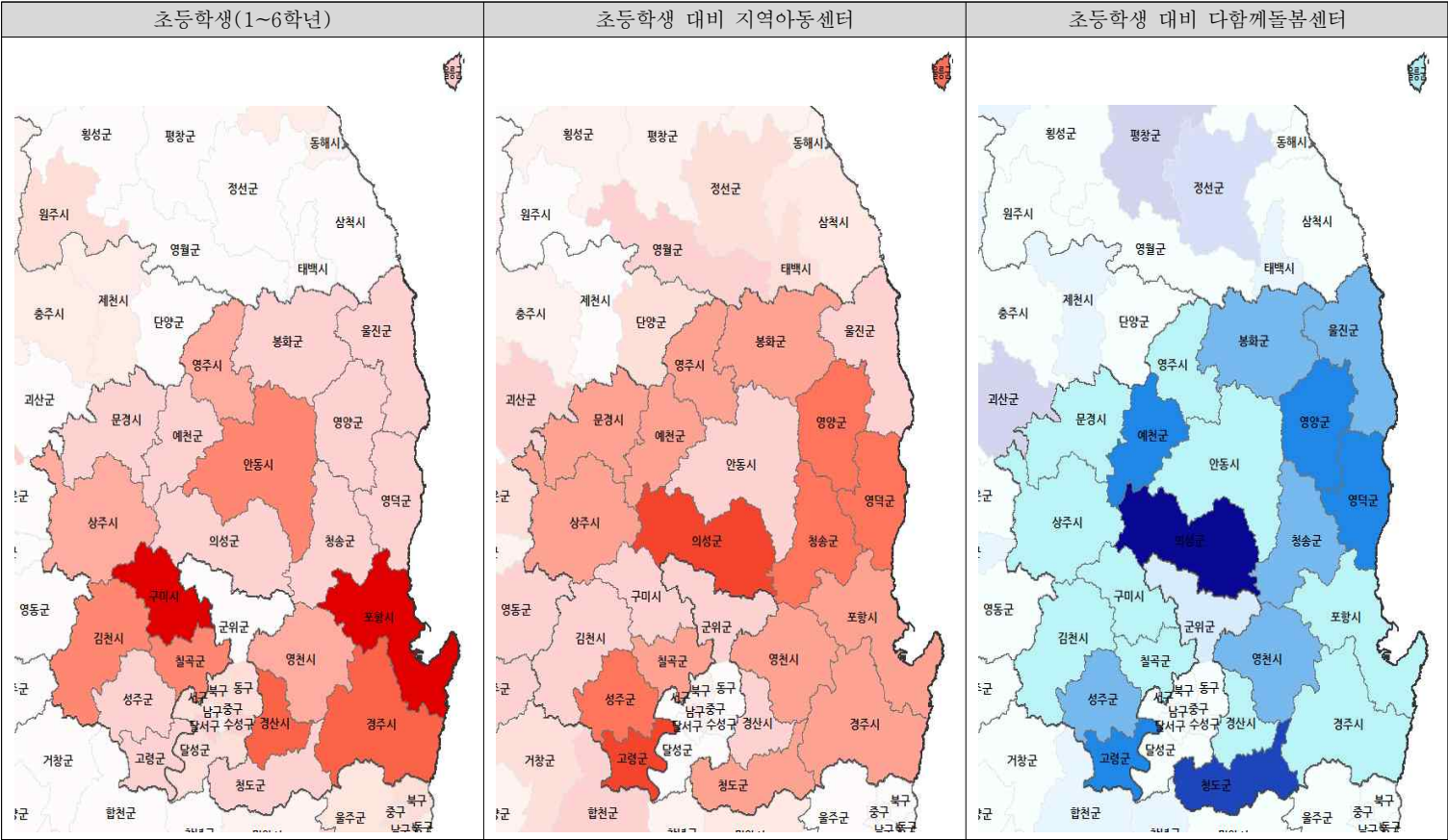
[그림 3-30] 전남 늘봄학교-마을돌봄시설 분포 현황(202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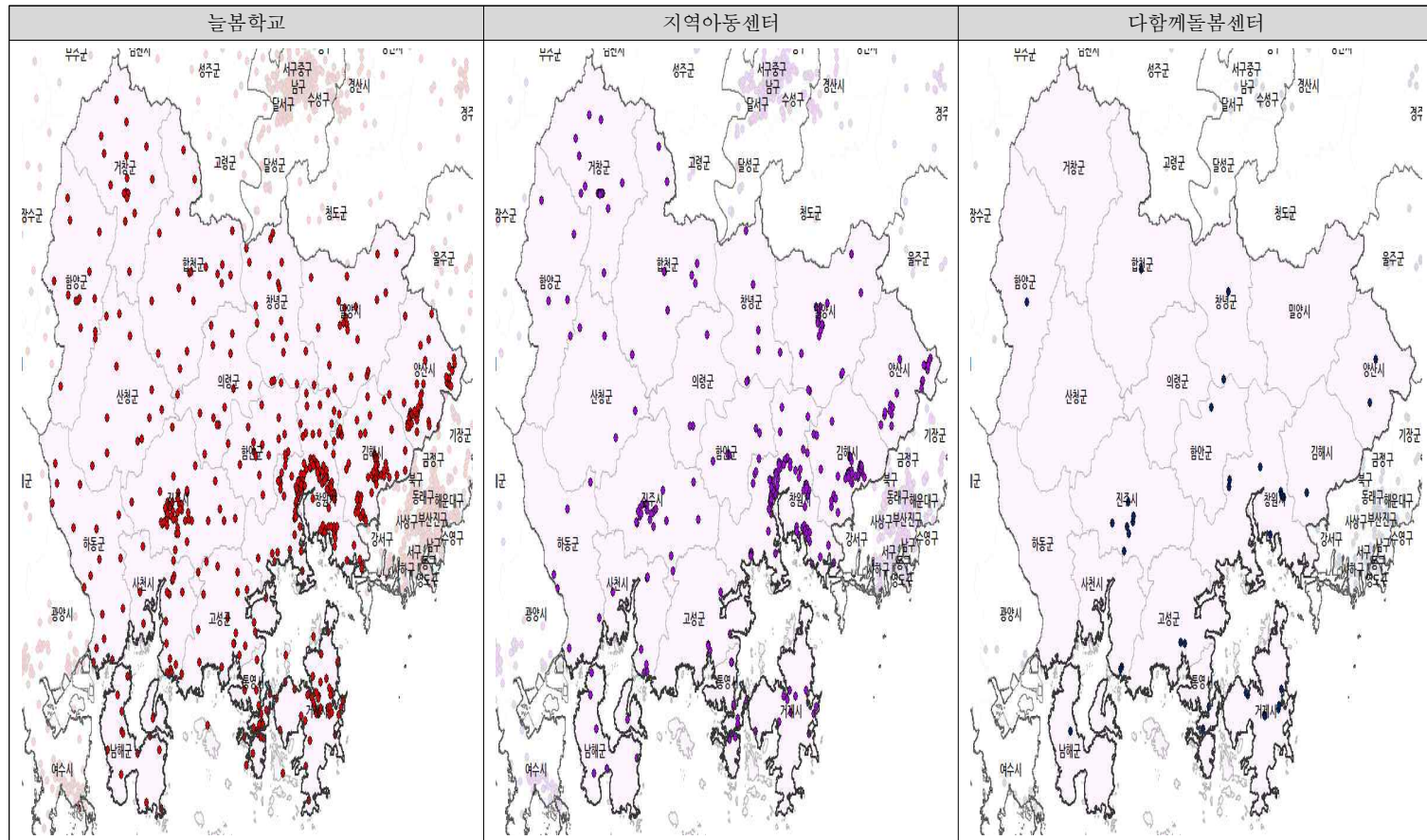
[그림 3-31] 전남 초등학생 현황 및 초등학생 수 대비 마을돌봄시설 분포 현황(202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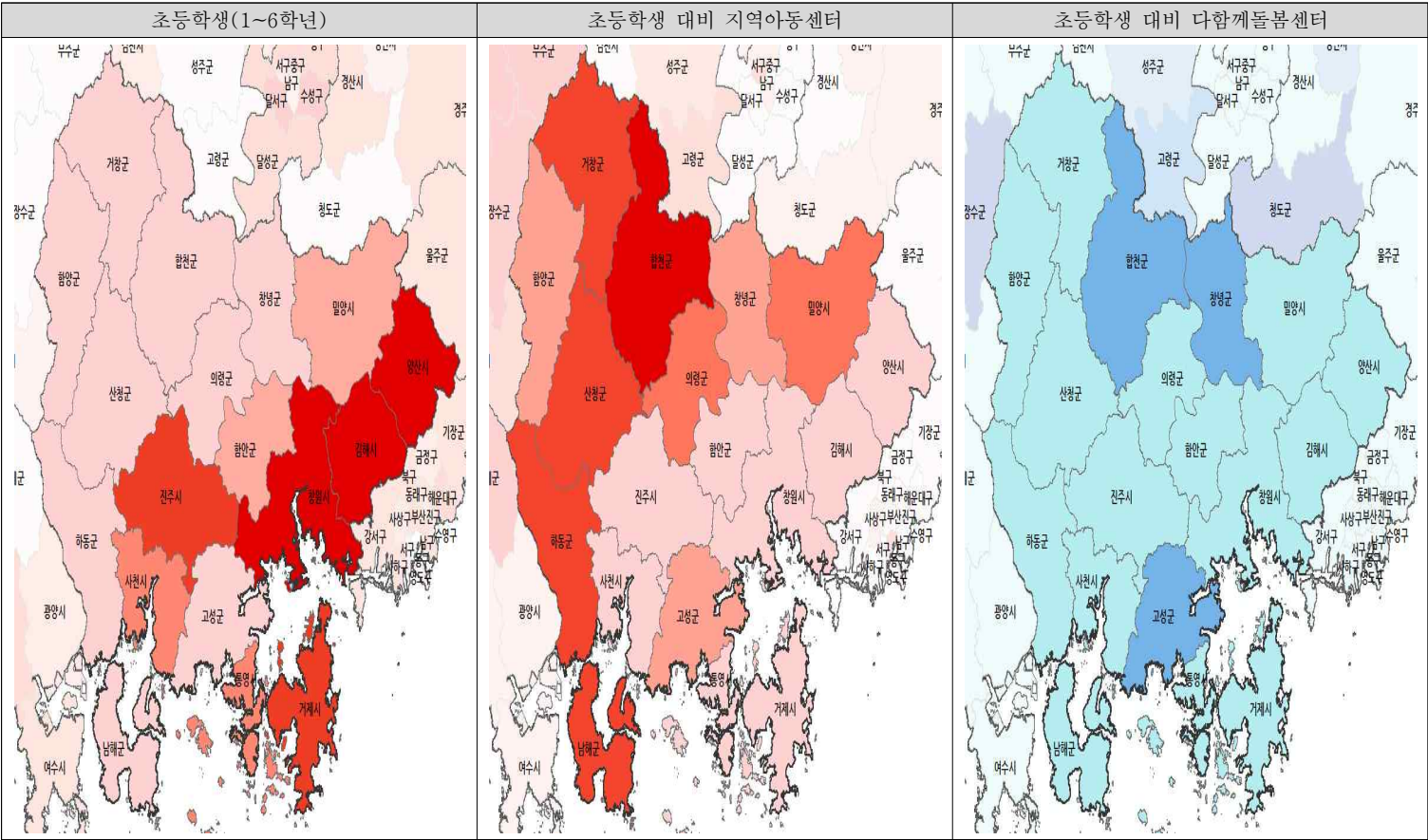
[그림 3-33] 경북 초등학생 현황 및 초등학생 수 대비 마을돌봄시설 분포 현황(202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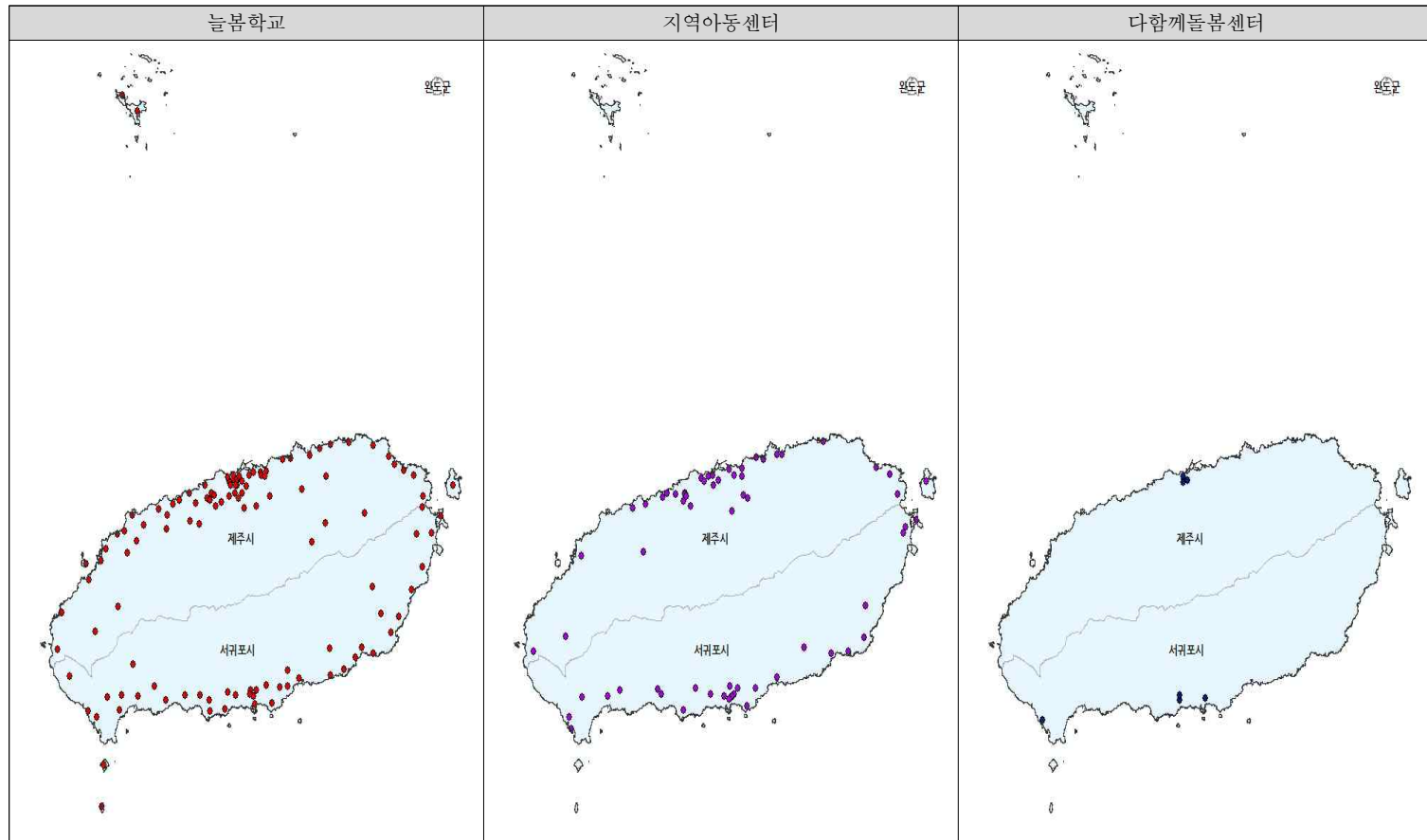
[그림 3-34] 경남 늘봄학교-마을돌봄시설 분포 현황(202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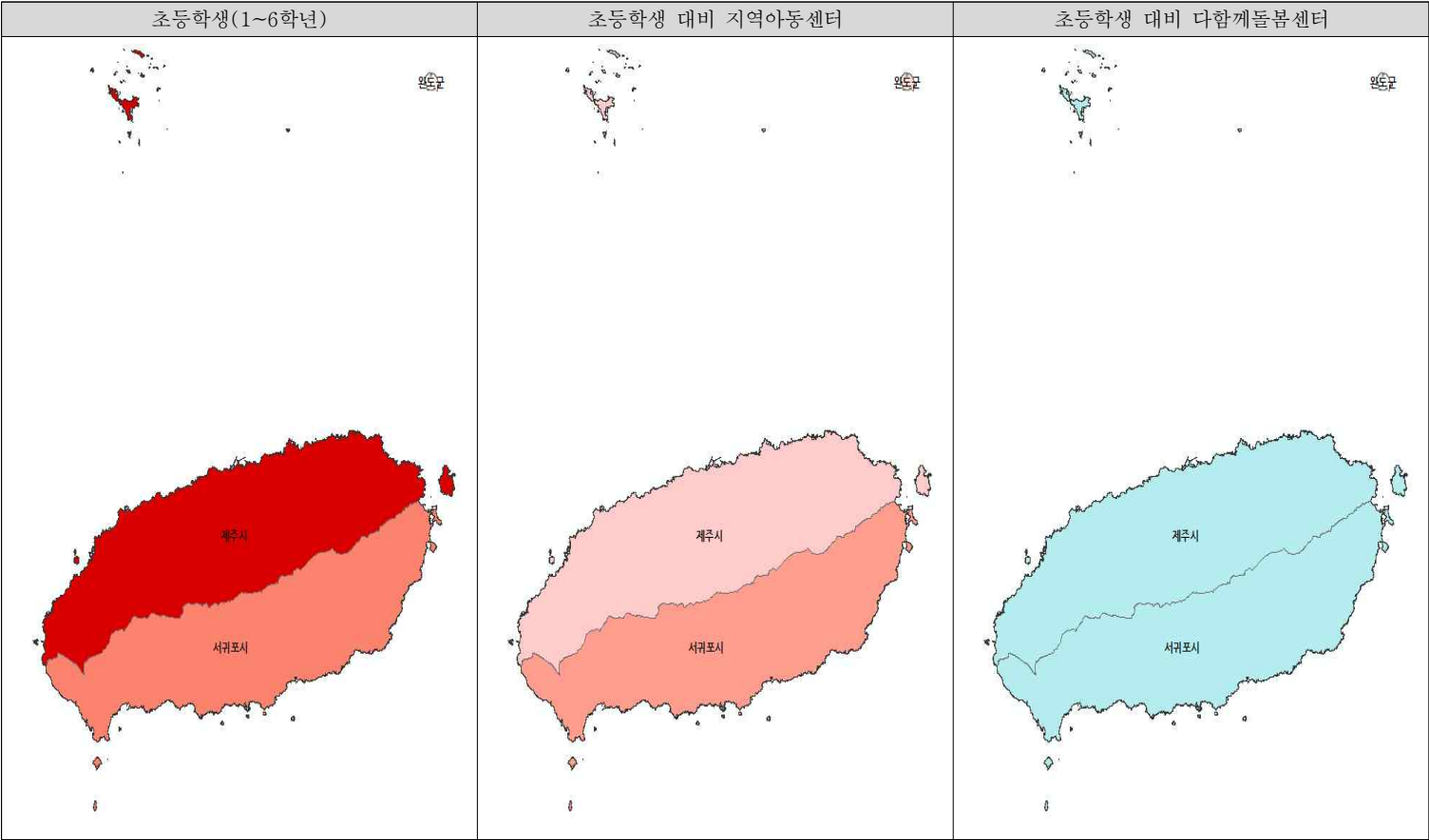
[그림 3-35] 경남 초등학생 현황 및 초등학생 수 대비 마을돌봄시설 분포 현황(202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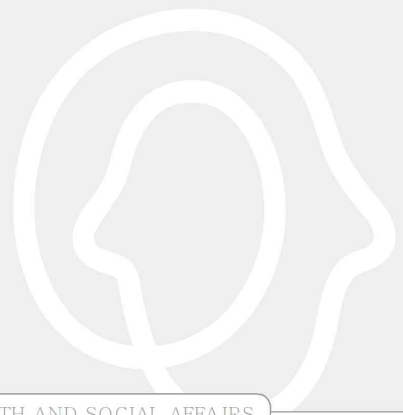


[그림 3-36] 제주 늘봄학교-마을돌봄시설 분포 현황(2024년)



[그림 3-37] 제주 초등학교 현황 및 초등학교 수 대비 마을돌봄시설 분포 현황(2024년)





제 4 장

마을돌봄시설 이용 실태조사

제1절 조사 개요

제2절 조사 결과

제 4 장 마을돌봄시설 이용 실태조사

제1절 조사 개요

1. 조사 설계

본 연구의 일환으로 지역아동센터 또는 다함께돌봄센터(서울: 우리동네키움센터)를 이용 중인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센터 이용 경험과 개선 욕구, 늘봄학교 이용 여부 및 경험을 파악하고자 ‘마을돌봄시설 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표본은 지역별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 수 비례 임의 할당 후 무작위 추출하였다. 조사 수행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의 협조로 조사 대상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에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해당 센터의 협조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본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는 총 2,159명으로, 지역아동센터 이용 중인 아동의 보호자 1,296명,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중인 아동의 보호자 863명이었다. 온라인 조사 방식으로 실시되었으며, 2024년 10월 17일부터 2024년 11월 4일까지 19일간 수행되었다. 늘봄학교는 2024년 2학기부터 1학년만을 대상으로 전국 학교로 확대되어 조사 시기를 해당 기간으로 결정하였다. 조사 대상자에게는 조사에 앞서 본 조사의 목적 및 내용, 개인정보 보장 설명을 하고 자발적 참여 동의를 받았다. 이후 조사 대상자에게 안내된 조사표 웹 링크를 발송, 본인이 직접 접속하여 조사표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표 4-1> 조사 설계 개요

구분	내용
모집단	마을돌봄시설(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을 이용 중인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
표본 규모	유효표본 총 2,159명(지역아동센터 1,296명, 다함께돌봄센터 863명)
표본 추출	지역별 마을돌봄시설(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수 비례 임의할당 후 무작위 추출
조사 방법	온라인 조사, 자기기입식
조사 기간	2024년 10월 17일(목) ~ 2024년 11월 4일(월)

2. 조사 내용

조사 내용은 크게 세 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① 응답자 일반 특성, ② 지역아동센터 또는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경험 및 개선 욕구, ③ 늘봄학교 이용 경험 및 개선 욕구를 파악하였다. 조사표의 주요 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4-2> 조사 내용

구분		조사 항목
응답자 일반 특성		아동과의 관계, 거주지역, 거주지역 특성, 성별, 연령, 가구 유형, 다문화가구 여부, 자녀수, 맞벌이 여부, 수급가구 여부,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성별,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장애 유무,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등록장애 유형,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이 갖고 있는 어려움
이용 경험 및 개선 욕구	지역아동센터	이용 시점, 주된 이용 이유, 일주일 평균 이용일수, 하루 평균 이용시간, 이용 시간대, 이용을 위한 대기 경험 유무, 지역아동센터 만족도, 지역아동센터 전반적 만족도, 지역아동센터 중요도, 지역아동센터 개선사항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시점, 주된 이용 이유, 일주일 평균 이용일수, 하루 평균 이용시간, 이용 시간대, 이용을 위한 대기 경험 유무, 이용을 위한 대기 개월 수, 급식/간식 이용 여부, 월평균 급식비/간식비, 월평균 이용요금, 다함께돌봄센터 만족도, 다함께돌봄센터 전반적 만족도, 다함께돌봄센터 중요도, 다함께돌봄센터 개선사항
늘봄학교 이용 경험		늘봄학교에 대한 인지 정도, 현재 아동의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 운영 여부, 늘봄학교 이용경험, 늘봄학교 프로그램 미이용/중단 이유, 이용 프로그램, 일주일 기준 늘봄학교 프로그램 참여 빈도, 늘봄학교 이용 이유, 늘봄학교 지속/향후 이용 의향, 방과 후 아동 돌봄을 위한 향후 이용희망 기관, 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 지속 이용 의향 유무

제2절 조사 결과

1. 응답자 일반 특성

가. 보호자 특성

조사에 응답한 보호자의 일반 특성을 살펴보면, 응답자의 아동과의 관계는 ‘모(母)’가 81.8%로 가장 많았으며, ‘부(父)’ 13.0%, ‘조부모·친인척 및 기타’는 5.2%였다. 성별로는 ‘여성’ 85.5%, ‘남성’ 14.5%였다. 연령대별로는 ‘40대 이상’이 50.9%, ‘30대’ 46.6%, ‘20대’ 2.5%였다. 거주지역별로는 ‘경기’가 17.1%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서울’(13.5%), ‘경북’(8.3%), ‘경남’(6.6%)의 순이었다. 지역특성별로는 도시인 ‘동 지역’ 74.3%, 농어촌인 ‘읍면 지역’ 25.7%였다. 가구유형별로는 ‘양부모가구’ 82.8%, ‘한부모가구’ 13.2%, ‘기타가구’ 2.2%, ‘조손가구’ 1.8%였다. ‘비(非)다문화가구’ 87.1%, ‘다문화가구’ 12.9%였다. ‘맞벌이’ 가구는 73.1%, ‘외벌이’ 가구는 26.9%였다. ‘비수급 가구’는 85.5%, ‘수급가구’ 7.4%, ‘차상위가구’ 7.1%였다.

<표 4-3> 응답자 일반 특성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비율
전체		(2,159)	100.0
아동과의 관계	부	(281)	13.0
	모	(1,767)	81.8
	조부	(25)	1.2
	조모	(31)	1.4
	친인척	(39)	1.8
	기타	(16)	0.7
성별	남성	(314)	14.5
	여성	(1,845)	85.5
연령	20대	(53)	2.5
	30대	(1,006)	46.6
	40대 이상	(1,100)	50.9

<표 4-3> 응답자 일반 특성(계속)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비율
거주지역	서울	(292)	13.5
	부산	(135)	6.3
	대구	(76)	3.5
	인천	(88)	4.1
	광주	(85)	3.9
	대전	(101)	4.7
	울산	(64)	3.0
	세종	(31)	1.4
	경기	(370)	17.1
	강원	(104)	4.8
	충북	(108)	5.0
	충남	(114)	5.3
	전북	(99)	4.6
	전남	(133)	6.2
	경북	(180)	8.3
	경남	(143)	6.6
	제주	(36)	1.7
거주지역 특성	동 지역	(1,604)	74.3
	읍면 지역	(555)	25.7
가구 유형	양부모가구	(1,788)	82.8
	한부모가구	(286)	13.2
	조손가구	(38)	1.8
	기타	(47)	2.2
다문화가구 여부	다문화가구임	(278)	12.9
	다문화가구 아님	(1,881)	87.1
맞벌이 여부	맞벌이	(1,578)	73.1
	외벌이	(581)	26.9
수급가구 여부	수급가구	(160)	7.4
	차상위가구	(154)	7.1
	비수급 일반가구	(1,845)	85.5

나. 아동 특성

한편, 늘봄학교와 마을돌봄의 대상인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특성은 ‘여아’ 50.5%, ‘남아’ 49.5%였으며, ‘장애’가 있는 아동은 1.2%로 극소수였다. 초등학교 1학년 아동 중 장애가 있는 아동 25명의 등록장애 유형은 ‘자폐성장애’가 40.0%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지적장애’(24.0%), ‘언어장애’(16.0%), ‘특수아동’과 ‘청각장애’(각 8.0%), ‘발달장애’(4.0%)의 순으로 나타났다. 등록장애는 아니나 아동이 갖고 있는 어려움을 살펴본 결과, ‘어려움이 없다’는 응답은 73.1%였고, 어려움이 있다는 응답은 ‘사회성 부족’(9.3%), ‘과잉행동·주의력 부족(ADHD)’(7.6%), ‘감정조절 어려움’(6.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60.0%(1,296명)는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이 현재 다니고 있는 기관이 ‘지역아동센터’이고, ‘다함께돌봄센터’는 40.0%(863명)로 나타났다. 지역아동센터 이용 시점은 ‘2024년 1학기부터’가 71.0%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19.2%), ‘2024년 여름방학부터’(5.7%), ‘2024년 2학기부터’(4.1%) 순으로 나타났다.

<표 4-4> 초등학교 1학년 아동 일반 특성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비율
전체		(2,159)	100.0
아동의 성별	남성	(1,069)	49.5
	여성	(1,090)	50.5
아동의 장애 유무	없음	(2,134)	98.8
	있음	(25)	1.2
기관 유형	지역아동센터	(1,296)	60.0
	다함께돌봄센터	(863)	40.0

<표 4-5>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등록장애 유형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자폐성장애	지적장애	언어장애	특수아동	청각장애	발달장애	χ^2
전체		(25)	40.0	24.0	16.0	8.0	8.0	4.0	—
아동의 성별	남성	(14)	50.0	14.3	7.1	14.3	7.1	7.1	5.993
	여성	(11)	27.3	36.4	27.3	0.0	9.1	0.0	
아동의 장애 유무	없음	(0)	—	—	—	—	—	—	—
	있음	(25)	40.0	24.0	16.0	8.0	8.0	4.0	
기관 유형	지역아동센터	(19)	31.6	31.6	21.1	10.5	5.3	0.0	9.101
	다함께돌봄센터	(6)	66.7	0.0	0.0	0.0	16.7	16.7	

주: *p<.05, **p<.01, ***p<.001

<표 4-6>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이 갖고 있는 어려움

(단위: 명, %, 복수응답)

구 분		사례수	없음	과잉행동· 주의력 부족 (ADHD)	인지능력 부족 (경계선 지능)	회피· 방어적 태도	폭력적 태도	감정조절 어려움	사회성 부족	한국어 미숙	기타
전체		(2,159)	73.1	7.6	5.1	3.3	1.9	6.7	9.3	4.6	1.5
아동의 성별	남성	(1,069)	67.4	10.9	5.9	4.3	3.0	7.6	10.0	4.7	2.0
	여성	(1,090)	78.7	4.5	4.3	2.3	0.7	5.8	8.6	4.6	1.1
아동의 장애 유무	없음	(2,134)	73.9	7.3	4.5	3.3	1.8	6.3	8.7	4.3	1.4
	있음	(25)	8.0	36.0	56.0	4.0	4.0	40.0	60.0	36.0	12.0
기관 유형	지역아동센터	(1,296)	65.0	10.0	7.3	4.7	2.4	8.1	11.9	6.7	1.4
	다함께돌봄센터	(863)	85.2	4.1	1.7	1.2	1.0	4.5	5.4	1.5	1.7

주: 카이제곱 검정통계량 계산 불가

초1 아동이 현재 이용하고 있는 마을돌봄시설은 지역별 차이를 보여 울산(84.4%), 대구(84.2%), 광주(82.4%), 전남(82.0%), 전북(78.8%), 제주(75.0%), 경남(73.4%)은 다함께돌봄센터보다 지역아동센터 이용률이 월등히 높았다. 반면 부산(57.8%), 충남(54.4%), 경기(52.2%), 경북(51.7%)은 지역아동센터보다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비중이 절반을 넘었다.

특히 지역아동센터 이용률은 특정 집단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먼저 지역특성별로는 동 지역(59.0%)보다 읍면 지역(62.9%)에서, 가구유형별로는 양부모 가구(55.4%)보다 한부모가구(81.5%)와 조손가구(89.5%)에서, 비다문화가구(55.4%)보다 다문화가구(91.4%)에서, 비수급 일반가구(57.0%)보다 차상위가구(86.4%)와 수급가구(69.4%)에서 지역아동센터 이용률이 높았다.

<표 4-7>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이 현재 다니고 있는 마을돌봄시설 유형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χ^2
전체		(2,159)	60.0	40.0	—
지역	서울	(292)	54.8	45.2	172.120***
	부산	(135)	42.2	57.8	
	대구	(76)	84.2	15.8	
	인천	(88)	58.0	42.0	
	광주	(85)	82.4	17.6	
	대전	(101)	58.4	41.6	
	울산	(64)	84.4	15.6	
	세종	(31)	54.8	45.2	
	경기	(370)	47.8	52.2	
	강원	(104)	60.6	39.4	
	충북	(108)	61.1	38.9	
	충남	(114)	45.6	54.4	
	전북	(99)	78.8	21.2	
	전남	(133)	82.0	18.0	
	경북	(180)	48.3	51.7	
	경남	(143)	73.4	26.6	
	제주	(36)	75.0	25.0	
지역 특성	동 지역	(1,604)	59.0	41.0	2.538
	읍면 지역	(555)	62.9	37.1	
가구 유형	양부모가구	(1,788)	55.4	44.6	95.016***
	한부모가구	(286)	81.5	18.5	
	조손가구	(38)	89.5	10.5	
	기타	(47)	83.0	17.0	
다문화가구 여부	다문화가구임	(278)	91.4	8.6	130.609***
	다문화가구 아님	(1,881)	55.4	44.6	
맞벌이 여부	맞벌이	(1,578)	53.6	46.4	100.589***
	외벌이	(581)	77.5	22.5	
수급가구 여부	수급가구	(160)	69.4	30.6	57.302***
	차상위가구	(154)	86.4	13.6	
	비수급 일반가구	(1,845)	57.0	43.0	

주: *p<.05, **p<.01, ***p<.001

2. 지역아동센터 이용 경험 및 개선 욕구

가. 지역아동센터 이용 시점

현재 지역아동센터를 이용 중인 초1 아동의 지역아동센터 이용 시점은 ‘2024년 1학기부터’가 71.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19.2%), ‘2024년 여름방학부터’(5.7%), ‘2024년 2학기부터’(4.1%)의 순이었다.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형제·자매가 미취학아동이거나 아동이 어린이집·유치원을 졸업한 이후에는 초등학교 입학 이전에도 지역아동센터 이용이 가능하다. 응답자 중 대구(31.3%), 충남(28.8%) 등에서는 자녀의 미취학 시기 이용 비율이 타 시·도 대비 높은 편이었다.

<표 4-8> 지역아동센터 이용 시점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2024년 1학기부터	2024년 여름방학부터	2024년 2학기부터	χ^2
전체	(1,296)	19.2	71.0	5.7	4.1	—
지역	서울	(160)	23.1	69.4	4.4	3.1
	부산	(57)	17.5	68.4	8.8	5.3
	대구	(64)	31.3	59.4	4.7	4.7
	인천	(51)	7.8	86.3	3.9	2.0
	광주	(70)	15.7	74.3	4.3	5.7
	대전	(59)	13.6	76.3	8.5	1.7
	울산	(54)	14.8	66.7	16.7	1.9
	세종	(17)	0.0	100.0	0.0	0.0
	경기	(177)	18.1	70.6	6.2	5.1
	강원	(63)	11.1	74.6	4.8	9.5
	충북	(66)	10.6	81.8	6.1	1.5
	충남	(52)	28.8	55.8	5.8	9.6
	전북	(78)	15.4	73.1	6.4	5.1
	전남	(109)	25.7	66.1	5.5	2.8
	경북	(87)	23.0	69.0	4.6	3.4
	경남	(105)	24.8	67.6	3.8	3.8
	제주	(27)	14.8	85.2	0.0	0.0
지역 특성	동 지역	(947)	19.5	69.8	6.1	4.5
	읍면 지역	(349)	18.3	74.2	4.6	2.9

주: *p<.05, **p<.01, ***p<.001

나. 지역아동센터 이용 이유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주된 이유 1순위는 ‘집·학교에서 가까워서’가 24.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방과 후/방학 중 마땅히 아동을 돌볼 사람이 없어서’(20.8%), ‘센터의 프로그램이 다양하고 내용이 좋아서’(15.3%), ‘센터가 안전하고 선생님을 신뢰하기 때문에’(9.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특성별로 차이를 보여 도시지역(동 지역)은 집·학교에서의 인접성이 센터 이용의 중요한 요인이었던 반면, 농어촌지역(읍면 지역)에서는 아동을 돌봐줄 사람 필요와 센터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집·학교에서의 인접성보다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주요 원인이었다.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주된 이유는 2순위 기준으로 ‘센터의 프로그램이 다양하고 내용이 좋아서’가 21.6%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센터가 안전하고 선생님을 신뢰하기 때문에’(17.4%), ‘센터에서 급식·간식을 제공하므로’(13.9%), ‘방과 후/방학 중 마땅히 아동을 돌볼 사람이 없어서’(12.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센터 선생님에 대한 신뢰는 1순위에서는 우선순위에서 낮았지만, 2순위에서는 중요하게 나타났다. 한편, ‘돌봄비용 부담 없음’도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여 동 지역 10.7%, 읍면 지역 4.3%로 도시지역에서 비용을 더 고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역특성별 차이를 파악하면, 도시지역에서는 집이나 학교에서 가까운 거리에 센터 설치, 양질의 프로그램 제공 등, 농어촌지역에서는 센터 프로그램, 인력, 급·간식 제공 등이 지역아동센터 이용의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4-9> 지역아동센터 주된 이용 이유

(단위: %, 명)

구분	집·학교 가까워서	늘봄 학교 현재 이용 불가	돌봄 비용 부담 없어서	사고 유비 부담 덜기 위해	아동 돌볼 사람 없어서	센터 에서 급· 간식 제공	센터의 프로그램 다양하고 내용이 좋아서	원하는 시간에 이용 가능	센터가 안전하고 선생님을 신뢰	주변의 소개· 추천	아동 본인이 원해서	기타	계 (수)
1순위	24.1	3.8	6.9	8.1	20.8	5.9	15.3	2.2	9.0	2.8	0.5	0.5	100.0
2순위	4.2	3.5	9.0	5.2	12.5	13.9	21.6	6.5	17.4	4.2	1.6	0.4	(1,296)

<표 4-10> 지역아동센터 주된 이용 이유(1순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집·학교 가까워서	늘봄학교 현재 이용 불가	돌봄비용 부담 없어서	사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아동을 돌볼 사람 없어서	센터에서 급·간식 제공	센터의 프로그램 다양하고 내용이 좋아서	원하는 시간에 이용 가능	센터가 안전하고 선생님을 신뢰	주변의 소개·추 천	아동 본인이 원해서	기타	x ²
전체	(1,296)	24.1	3.8	6.9	8.1	20.8	5.9	15.3	2.2	9.0	2.8	0.5	0.5	—
지역	서울	(160)	11.5	0.0	11.5	0.0	23.1	11.5	30.8	0.0	3.8	7.7	0.0	327.087 *
	부산	(57)	14.3	0.0	21.4	0.0	14.3	21.4	21.4	0.0	7.1	0.0	0.0	
	대구	(64)	33.1	3.8	5.0	8.8	15.0	5.6	13.1	2.5	6.9	5.0	0.0	
	인천	(51)	17.5	0.0	7.0	8.8	15.8	12.3	17.5	3.5	10.5	5.3	0.0	
	광주	(70)	31.3	3.1	6.3	10.9	18.8	1.6	12.5	1.6	9.4	1.6	3.1	
	대전	(59)	37.3	5.9	5.9	3.9	13.7	2.0	17.6	2.0	7.8	3.9	0.0	
	울산	(54)	21.4	2.9	11.4	14.3	27.1	1.4	7.1	4.3	7.1	2.9	0.0	
	세종	(17)	15.3	6.8	8.5	13.6	22.0	6.8	15.3	6.8	3.4	0.0	0.0	
	경기	(177)	16.7	5.6	22.2	16.7	16.7	1.9	7.4	1.9	5.6	5.6	0.0	
	강원	(63)	29.4	0.0	5.9	11.8	17.6	23.5	5.9	0.0	5.9	0.0	0.0	
	충북	(66)	25.4	7.9	6.2	9.0	18.1	8.5	12.4	2.8	6.8	2.8	0.0	
	충남	(52)	17.5	3.2	12.7	6.3	22.2	3.2	14.3	1.6	14.3	3.2	1.6	
	전북	(78)	25.8	7.6	6.1	6.1	30.3	3.0	9.1	0.0	9.1	1.5	1.5	
	전남	(109)	23.1	0.0	1.9	5.8	34.6	1.9	11.5	1.9	15.4	3.8	0.0	
	경북	(87)	28.2	2.6	9.0	3.8	20.5	7.7	12.8	0.0	11.5	1.3	2.6	
	경남	(105)	13.8	1.8	6.4	7.3	19.3	7.3	25.7	2.8	12.8	1.8	0.0	
	제주	(27)	21.8	1.1	2.3	6.9	23.0	9.2	19.5	1.1	12.6	0.0	1.1	
지역 특성	동 지역	(947)	25.7	1.9	1.9	3.8	22.9	4.8	23.8	1.9	8.6	3.8	0.0	69.332 ***
	읍면 지역	(349)	14.8	3.7	11.1	0.0	29.6	7.4	29.6	0.0	3.7	0.0	0.0	

주: *p<.05, **p<.01, ***p<.001

<표 4-11> 지역아동센터 주된 이용 이유(2순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집·학교 가까워서	늘봄학교 현재 이용 불가	돌봄비용 부담 없어서	사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서	아동을 돌볼 사람이 없어서	센터에서 급·간식 제공	센터의 프로그램 다양하고 내용이 좋아서	원하는 시간에 이용 가능	센터가 안전하고 선생님을 신뢰	주변의 소개·추 천	아동 본인이 원해서	기타	χ^2
전체	(1,296)	4.2	3.5	9.0	5.2	12.5	13.9	21.6	6.5	17.4	4.2	1.6	0.4	—
지역	서울	(160)	4.4	4.4	21.9	9.4	13.1	10.6	13.1	4.4	14.4	2.5	1.9	0.0
	부산	(57)	7.0	0.0	8.8	10.5	5.3	19.3	21.1	5.3	15.8	3.5	0.0	3.5
	대구	(64)	4.7	1.6	1.6	3.1	10.9	21.9	18.8	7.8	17.2	9.4	3.1	0.0
	인천	(51)	5.9	5.9	19.6	3.9	21.6	7.8	11.8	3.9	15.7	3.9	0.0	0.0
	광주	(70)	5.7	1.4	5.7	4.3	10.0	18.6	20.0	4.3	24.3	4.3	1.4	0.0
	대전	(59)	5.1	1.7	10.2	6.8	11.9	18.6	18.6	10.2	13.6	1.7	1.7	0.0
	울산	(54)	3.7	5.6	7.4	5.6	11.1	13.0	33.3	11.1	9.3	0.0	0.0	0.0
	세종	(17)	0.0	11.8	23.5	0.0	11.8	0.0	11.8	0.0	35.3	5.9	0.0	0.0
	경기	(177)	2.3	7.3	6.2	4.5	14.1	13.6	24.9	6.8	13.6	5.6	1.1	0.0
	강원	(63)	1.6	6.3	6.3	4.8	9.5	12.7	30.2	6.3	15.9	3.2	0.0	3.2
	충북	(66)	7.6	6.1	6.1	6.1	10.6	9.1	30.3	9.1	9.1	3.0	3.0	0.0
	충남	(52)	3.8	0.0	1.9	5.8	15.4	11.5	13.5	11.5	21.2	13.5	1.9	0.0
	전북	(78)	1.3	3.8	12.8	3.8	19.2	6.4	21.8	3.8	19.2	6.4	1.3	0.0
	전남	(109)	1.8	0.9	4.6	2.8	10.1	21.1	22.9	8.3	22.0	1.8	2.8	0.9
	경북	(87)	8.0	0.0	3.4	4.6	14.9	13.8	25.3	5.7	19.5	3.4	1.1	0.0
	경남	(105)	3.8	2.9	8.6	2.9	9.5	16.2	24.8	4.8	21.0	2.9	2.9	0.0
	제주	(27)	11.1	0.0	0.0	3.7	11.1	7.4	14.8	7.4	33.3	7.4	3.7	0.0
지역 특성	동 지역	(947)	4.9	4.6	10.7	5.8	13.2	12.9	20.1	6.7	15.3	4.2	1.5	0.2
	읍면 지역	(349)	2.6	0.6	4.3	3.4	10.6	16.6	25.8	6.0	22.9	4.3	2.0	0.9

주: *p<.05, **p<.01, ***p<.001

다. 지역아동센터 이용 시간

현재(학기 중) 일주일 평균 지역아동센터 이용일 수는 평균 4.4일로, 5일이 69.1%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2일(10.0%), 3일(9.1%), 4일(5.4%) 등의 순이었다.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한 6일 이용은 3.9%, 7일 이용은 0.5%에 불과하였다. 지역아동센터는 하루 8시간 주 5일 이상 운영하고 있다. 다만, 주말 및 공휴일은 지역아동센터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지역특성별로는 읍면 지역(81.7%)이 동 지역(64.4%)보다 일주일에 5일 이용한다는 응답이 높았다. 동 지역 역시 주 5일 이용이 가장 높았으나, 읍면 지역보다 주 2~3일 이용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하루 평균 지역아동센터 이용 시간은 평균 3.7시간으로, 하루 평균 3시간을 이용한다는 응답이 25.9%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4시간(25.8%), 5시간(19.3%), 2시간(18.4%) 등의 순이었다. 하루 평균 이용 시간이 1시간 또는 7시간 이상은 극소수에 불과하였다. 지역아동센터의 학기 중 필수 운영시간은 14~20시, 방학 및 공휴일 필수 운영시간은 12시~17시이다.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시간대(복수응답)는 16시~17시가 77.2%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17시~18시(70.4%), 15시~16시(68.4%), 14시~15시(50.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특성별로는 읍면 지역은 동 지역보다 16~19시 이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구체적으로 16시~17시는 읍면 지역 84.5% vs. 동 지역 74.4%, 17시~18시는 읍면 지역 79.1% vs. 동 지역 67.2%, 18시~19시는 읍면 지역 45.6% vs. 동 지역 34.3%로 차이를 보였다.

<표 4-12> 일주일 평균 지역아동센터 이용일 수

(단위: 명, %, 평균(일))

구분		사례수	1	2	3	4	5	6	7	계	평균	t, F
전체		(1,296)	2.0	10.0	9.1	5.4	69.1	3.9	0.5	100.0	4.4	—
지역	서울	(160)	5.0	11.3	20.6	8.1	50.0	5.0	0.0	100.0	4.0	7.223***
	부산	(57)	1.8	17.5	5.3	3.5	68.4	3.5	0.0	100.0	4.3	
	대구	(64)	0.0	10.9	14.1	9.4	50.0	15.6	0.0	100.0	4.5	
	인천	(51)	2.0	9.8	7.8	11.8	62.7	2.0	3.9	100.0	4.5	
	광주	(70)	0.0	12.9	7.1	4.3	72.9	1.4	1.4	100.0	4.5	
	대전	(59)	3.4	20.3	5.1	3.4	64.4	3.4	0.0	100.0	4.2	
	울산	(54)	5.6	20.4	5.6	5.6	55.6	7.4	0.0	100.0	4.1	
	세종	(17)	0.0	5.9	11.8	11.8	58.8	11.8	0.0	100.0	4.6	
	경기	(177)	2.3	15.8	14.1	5.1	61.0	0.6	1.1	100.0	4.1	
	강원	(63)	3.2	15.9	14.3	9.5	57.1	0.0	0.0	100.0	4.0	
	충북	(66)	1.5	6.1	10.6	10.6	71.2	0.0	0.0	100.0	4.4	
	충남	(52)	1.9	1.9	3.8	3.8	82.7	3.8	1.9	100.0	4.8	
	전북	(78)	0.0	2.6	5.1	2.6	83.3	6.4	0.0	100.0	4.9	
	전남	(109)	0.9	8.3	2.8	2.8	80.7	4.6	0.0	100.0	4.7	
	경북	(87)	2.3	2.3	2.3	1.1	89.7	2.3	0.0	100.0	4.8	
	경남	(105)	0.0	0.0	2.9	2.9	87.6	5.7	1.0	100.0	5.0	
	제주	(27)	0.0	0.0	3.7	0.0	96.3	0.0	0.0	100.0	4.9	
지역 특성	동 지역	(947)	2.2	11.1	10.8	6.5	64.4	4.3	0.6	100.0	4.4	-4.564***
	읍면 지역	(349)	1.4	6.9	4.6	2.3	81.7	2.9	0.3	100.0	4.7	

주: *p<.05, **p<.01, ***p<.001

<표 4-13> 하루 평균 지역아동센터 이용 시간

(단위: 명, %, 평균(시간))

구분		사례수	1	2	3	4	5	6	7	8	9	10	계	평균	F
전체		(1,296)	2.2	18.4	25.9	25.8	19.3	5.2	1.9	0.6	0.2	0.4	100.0	3.7	—
지역	서울	(160)	2.5	22.5	33.8	19.4	12.5	5.6	0.0	1.9	1.3	0.6	100.0	3.6	2.344 **
	부산	(57)	5.3	21.1	17.5	29.8	22.8	3.5	0.0	0.0	0.0	0.0	100.0	3.5	
	대구	(64)	3.1	25.0	26.6	21.9	17.2	6.3	0.0	0.0	0.0	0.0	100.0	3.4	
	인천	(51)	2.0	9.8	19.6	41.2	25.5	2.0	0.0	0.0	0.0	0.0	100.0	3.8	
	광주	(70)	2.9	22.9	22.9	25.7	17.1	4.3	2.9	0.0	1.4	0.0	100.0	3.6	
	대전	(59)	1.7	15.3	25.4	22.0	25.4	8.5	1.7	0.0	0.0	0.0	100.0	3.9	
	울산	(54)	5.6	18.5	9.3	25.9	14.8	5.6	14.8	3.7	0.0	1.9	100.0	4.3	
	세종	(17)	0.0	0.0	23.5	17.6	35.3	23.5	0.0	0.0	0.0	0.0	100.0	4.6	
	경기	(177)	3.4	23.7	22.0	28.2	14.7	2.8	3.4	1.1	0.0	0.6	100.0	3.6	
	강원	(63)	3.2	23.8	25.4	22.2	25.4	0.0	0.0	0.0	0.0	0.0	100.0	3.4	
	충북	(66)	1.5	19.7	33.3	18.2	15.2	4.5	4.5	0.0	0.0	3.0	100.0	3.8	
	충남	(52)	1.9	15.4	28.8	26.9	19.2	3.8	1.9	1.9	0.0	0.0	100.0	3.8	
	전북	(78)	0.0	12.8	33.3	21.8	19.2	11.5	1.3	0.0	0.0	0.0	100.0	3.9	
	전남	(109)	0.9	16.5	33.0	28.4	19.3	1.8	0.0	0.0	0.0	0.0	100.0	3.5	
	경북	(87)	1.1	12.6	19.5	27.6	26.4	11.5	1.1	0.0	0.0	0.0	100.0	4.0	
	경남	(105)	0.0	13.3	23.8	30.5	26.7	4.8	1.0	0.0	0.0	0.0	100.0	3.9	
	제주	(27)	0.0	14.8	33.3	33.3	11.1	3.7	3.7	0.0	0.0	0.0	100.0	3.7	
지역 특성	동 지역	(947)	2.7	19.5	25.9	25.1	19.0	4.2	2.0	0.8	0.3	0.3	100.0	3.7	2.928
	읍면 지역	(349)	0.6	15.5	26.1	27.5	20.1	8.0	1.7	0.0	0.0	0.6	100.0	3.9	

주: *p<.05, **p<.01, ***p<.001

<표 4-14> 지역아동센터 이용 시간대

(단위: 명, %, 복수응답)

구분		사례수	7시~9시	12시~13시	13시~14시	14시~15시	15시~16시	16시~17시	17시~18시	18시~19시	19시~20시	20시 이후
전체		(1,296)	0.8	5.1	26.7	50.9	68.4	77.2	70.4	37.3	8.7	0.9
지역	서울	(160)	5.0	6.9	29.4	57.5	73.1	76.9	64.4	31.9	5.6	2.5
	부산	(57)	0.0	5.3	24.6	54.4	70.2	75.4	73.7	35.1	8.8	0.0
	대구	(64)	0.0	1.6	20.3	51.6	62.5	71.9	70.3	43.8	15.6	3.1
	인천	(51)	0.0	0.0	27.5	64.7	74.5	74.5	68.6	29.4	0.0	0.0
	광주	(70)	0.0	4.3	20.0	41.4	62.9	64.3	62.9	40.0	14.3	0.0
	대전	(59)	0.0	5.1	27.1	42.4	64.4	72.9	78.0	57.6	11.9	1.7
	울산	(54)	0.0	11.1	22.2	37.0	40.7	46.3	44.4	25.9	11.1	0.0
	세종	(17)	0.0	5.9	41.2	88.2	88.2	94.1	70.6	58.8	0.0	0.0
	경기	(177)	1.1	6.2	30.5	54.8	65.0	70.6	58.8	31.6	9.6	1.1
	강원	(63)	0.0	1.6	25.4	49.2	61.9	74.6	63.5	34.9	12.7	0.0
	충북	(66)	0.0	4.5	19.7	42.4	68.2	69.7	62.1	19.7	4.5	0.0
	충남	(52)	0.0	0.0	30.8	44.2	75.0	78.8	84.6	34.6	7.7	3.8
	전북	(78)	0.0	3.8	30.8	53.8	75.6	88.5	78.2	37.2	7.7	0.0
	전남	(109)	0.0	4.6	19.3	37.6	57.8	87.2	81.7	51.4	14.7	0.9
	경북	(87)	0.0	12.6	35.6	60.9	79.3	88.5	87.4	44.8	8.0	0.0
	경남	(105)	0.0	3.8	24.8	50.5	79.0	92.4	81.0	39.0	3.8	0.0
	제주	(27)	0.0	0.0	29.6	51.9	74.1	88.9	77.8	37.0	3.7	0.0
지역 특성	동 지역	(947)	1.1	5.2	25.8	52.0	68.4	74.4	67.2	34.3	8.4	1.2
	읍면 지역	(349)	0.0	4.9	29.2	48.1	68.2	84.5	79.1	45.6	9.5	0.3

라. 지역아동센터 등록 대기 경험

지역아동센터 이용을 위한 등록 대기 경험은 19.7%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등록 대기 경험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41.2%)이었으며, 제주(33.3%), 경남(25.7%), 경북(24.1%), 서울(23.8%) 등에서도 높게 나타났다. 지역특성별로는 동 지역(17.0%)보다 읍면 지역(26.9%)에서 등록 대기 경험이 높았다.

<표 4-15> 지역아동센터 이용을 위한 등록 대기 경험 유무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없음	있음	χ^2
전체		(1,296)	80.3	19.7	—
지역	서울	(160)	76.3	23.8	32.712**
	부산	(57)	80.7	19.3	
	대구	(64)	78.1	21.9	
	인천	(51)	92.2	7.8	
	광주	(70)	91.4	8.6	
	대전	(59)	81.4	18.6	
	울산	(54)	90.7	9.3	
	세종	(17)	58.8	41.2	
	경기	(177)	78.0	22.0	
	강원	(63)	84.1	15.9	
	충북	(66)	86.4	13.6	
	충남	(52)	80.8	19.2	
	전북	(78)	87.2	12.8	
	전남	(109)	78.0	22.0	
	경북	(87)	75.9	24.1	
	경남	(105)	74.3	25.7	
	제주	(27)	66.7	33.3	
지역 특성	동 지역	(947)	83.0	17.0	15.920***
	읍면 지역	(349)	73.1	26.9	

주: *p<.05, **p<.01, ***p<.001

마. 지역아동센터 만족도 및 중요도

먼저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만족도’는 ‘방학 중에도 센터 이용이 가능하다’는 항목이 5점 만점에 평균 4.49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센터 이용으로 보호자의 돌봄(양육) 부담이 줄어들었다’(평균 4.39점), ‘센터 이용으로 보호자의 경제·사회활동에 도움이 되었다’(평균 4.37점), ‘센터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평균 4.35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등교 전이나 저녁 7시 이후에도 센터 이용이 가능하다’는 평균 3.83점으로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다음으로 ‘센터 이용을 위한 대기자 수가 적다’(평균 3.87점), ‘선생님 1인당 담당하는 아동 수가 적정하다’(평균 3.94점), ‘아동이 우선돌봄을 받을 수 있는 자격기준이 있다’(평균 4.01점) 등의 순으로 만족도가 낮았다.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중요도’는 ‘방학 중에도 센터 이용이 가능하다’는 항목이 5점 만점에 평균 4.49점으로 만족도와 동일하게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선생님들과의 의사소통이나 정보 공유가 잘 된다’(평균 4.43점), ‘센터 이용으로 보호자의 돌봄(양육) 부담이 줄어들었다’(평균 4.41점), ‘센터 내부 공간이나 외부 환경이 안전하다’(평균 4.40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등교 전이나 저녁 7시 이후에도 센터 이용이 가능하다’(평균 3.80점), ‘센터 이용을 위한 대기자 수가 적다’(평균 3.98점), ‘아동이 우선돌봄을 받을 수 있는 자격기준이 있다’(평균 4.0점), ‘아동이 집/학교에서 센터까지 이동하기 편하거나 가깝다’(평균 4.21점) 등의 순으로 중요도가 낮았다.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 4.30점이었다. 보통이라는 응답을 제외한 ‘만족한다’(매우 만족 56.3%+만족 23.4%)는 응답은 79.7%였으며, ‘불만족한다’(매우 불만족 0.7%+불만족 5.1%)는 응답은 5.8%였다.

<표 4-16> 지역아동센터 만족도(1)

(단위: 명, 점(5점 만점))

구분	사례수	아동이 집/학교에서 센터까지 이동하기 편하거나 가깝다	등교 전이나 저녁 7시 이후에도 센터 이용이 가능하다	방학 중에도 센터 이용이 가능하다	센터 이용을 위한 대기자 수가 적다	아동이 우선돌봄을 받을 수 있는 자격기준이 있다	센터 내부 공간이나 외부 환경이 안전하다	센터 내부 공간이나 외부 환경이 깨끗하고 쾌적하다	센터에 학습 도구·교구가 충분하다
전체	(1,296)	4.14	3.83	4.49	3.87	4.01	4.22	4.28	4.18
지역	서울	(160)	4.03	3.93	4.36	3.87	4.06	4.21	4.15
	부산	(57)	4.16	3.82	4.60	3.75	4.05	4.16	4.23
	대구	(64)	4.16	3.92	4.63	4.02	4.09	4.25	4.23
	인천	(51)	4.39	3.75	4.57	4.18	4.14	4.24	4.20
	광주	(70)	3.93	3.77	4.23	3.83	3.86	3.97	4.07
	대전	(59)	3.81	3.81	4.24	4.07	4.02	4.19	4.14
	울산	(54)	3.17	3.09	3.80	3.09	3.26	3.31	3.48
	세종	(17)	4.41	3.76	4.76	3.76	4.12	4.59	4.65
	경기	(177)	3.75	3.97	4.32	3.53	3.69	4.02	3.88
	강원	(63)	3.95	4.06	4.62	3.76	3.76	3.84	3.89
	충북	(66)	3.77	3.41	4.12	3.61	3.74	3.71	3.85
	충남	(52)	4.38	3.65	4.56	4.02	3.85	4.38	4.35
	전북	(78)	4.62	3.96	4.73	4.14	4.33	4.59	4.47
	전남	(109)	4.51	4.03	4.72	4.24	4.33	4.61	4.41
	경북	(87)	4.52	4.00	4.77	3.97	4.34	4.56	4.55
	경남	(105)	4.63	3.78	4.84	4.06	4.42	4.64	4.53
	제주	(27)	4.48	3.30	4.96	3.81	3.67	4.41	4.41
지역 특성	동 지역	(947)	4.08	3.83	4.43	3.85	3.99	4.17	4.13
	읍면 지역	(349)	4.28	3.83	4.67	3.92	4.05	4.36	4.30

<표 4-17> 지역아동센터 만족도(2)

(단위: 명, 점(5점 만점))

구분		사례수	선생님들의 자질과 전문성이 우수하다	선생님들과의 의사소통 이나 정보 공유가 잘 된다	선생님 1인당 담당하는 아동 수가 적정하다	센터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센터의 모든 프로그램은 자녀에게 흥미롭고 유익하다	센터의 숙제· 학습지도가 학교 공부에 도움이 된다	센터 이용으로 보호자의 돌봄 부담이 줄어들었다	센터 이용으로 보호자의 경제·사회활동 에 도움이 되었다	아동이 센터에 가는 것을 좋아한다
전체		(1,296)	4.30	4.30	3.94	4.35	4.29	4.29	4.39	4.37	4.29
지역	서울	(160)	4.31	4.31	4.09	4.22	4.28	4.30	4.44	4.32	4.19
	부산	(57)	4.30	4.37	3.93	4.28	4.25	4.46	4.47	4.47	4.35
	대구	(64)	4.48	4.30	4.20	4.45	4.39	4.34	4.41	4.41	4.38
	인천	(51)	4.45	4.41	3.80	4.45	4.37	4.37	4.41	4.59	4.43
	광주	(70)	4.20	4.19	3.96	4.29	4.16	4.10	4.31	4.14	4.14
	대전	(59)	3.97	3.95	3.78	4.19	4.05	4.10	4.19	4.20	3.98
	울산	(54)	3.65	3.69	3.13	3.65	3.54	3.81	3.46	3.69	3.65
	세종	(17)	4.59	4.47	4.00	4.71	4.71	4.53	4.53	4.71	4.53
	경기	(177)	3.99	3.95	3.80	4.19	4.03	4.04	4.12	4.11	3.99
	강원	(63)	4.08	4.08	3.87	4.16	4.22	3.98	4.14	4.16	4.21
	충북	(66)	4.08	4.08	3.80	4.20	4.03	4.02	4.02	3.98	3.94
	충남	(52)	4.50	4.44	3.83	4.42	4.42	4.40	4.54	4.37	4.56
	전북	(78)	4.55	4.63	4.01	4.63	4.56	4.51	4.56	4.63	4.65
	전남	(109)	4.50	4.60	4.07	4.56	4.56	4.56	4.65	4.61	4.50
	경북	(87)	4.62	4.66	3.87	4.64	4.56	4.52	4.71	4.70	4.64
	경남	(105)	4.67	4.70	4.31	4.62	4.62	4.64	4.78	4.75	4.70
	제주	(27)	4.56	4.56	4.00	4.67	4.56	4.48	4.89	4.78	4.52
지역 특성	동 지역	(947)	4.25	4.23	3.94	4.30	4.24	4.25	4.33	4.31	4.23
	읍면 지역	(349)	4.45	4.52	3.94	4.49	4.43	4.40	4.53	4.51	4.46

<표 4-18> 지역아동센터 중요도(1)

(단위: 명, 점(5점 만점))

구분		사례수	아동이 집/학교에서 센터까지 이동하기 편하거나 가깝다	등교 전이나 저녁 7시 이후에도 센터 이용이 가능하다	방학 중에도 센터 이용이 가능하다	센터 이용을 위한 대기자 수가 적다	아동이 우선돌봄을 받을 수 있는 자격기준이 있다	센터 내부 공간이나 외부 환경이 안전하다	센터 내부 공간이나 외부 환경이 깨끗하고 쾌적하다	센터에 학습 도구·교구가 충분하다
전체		(1,296)	4.21	3.80	4.49	3.98	4.00	4.40	4.36	4.30
지역	서울	(160)	4.20	3.88	4.46	3.94	4.06	4.46	4.39	4.36
	부산	(57)	4.14	3.91	4.51	4.07	4.05	4.37	4.40	4.33
	대구	(64)	4.36	3.91	4.61	4.06	4.19	4.42	4.42	4.36
	인천	(51)	4.37	3.67	4.75	3.96	4.27	4.57	4.55	4.49
	광주	(70)	4.17	3.93	4.33	3.89	3.89	4.36	4.13	4.13
	대전	(59)	4.15	3.86	4.39	4.03	3.97	4.17	4.17	4.10
	울산	(54)	3.15	3.07	3.30	3.39	3.41	3.31	3.48	3.59
	세종	(17)	4.47	4.00	4.82	4.24	4.00	4.76	4.82	4.65
	경기	(177)	3.84	3.76	4.33	3.71	3.74	4.10	4.02	4.02
	강원	(63)	3.92	4.10	4.41	3.79	3.83	4.17	4.05	3.76
	충북	(66)	3.92	3.50	4.18	3.85	3.71	4.20	4.09	4.02
	충남	(52)	4.52	3.75	4.69	4.00	4.06	4.54	4.44	4.40
	전북	(78)	4.58	4.15	4.69	4.21	4.27	4.67	4.65	4.60
	전남	(109)	4.35	3.83	4.65	4.27	4.16	4.68	4.69	4.54
	경북	(87)	4.60	3.77	4.89	4.21	4.26	4.79	4.79	4.67
	경남	(105)	4.67	3.78	4.71	4.18	4.21	4.68	4.65	4.60
	제주	(27)	4.63	3.56	4.85	4.26	3.81	4.67	4.67	4.63
지역 특성	동 지역	(947)	4.18	3.82	4.44	3.97	4.02	4.35	4.31	4.27
	읍면 지역	(349)	4.31	3.77	4.63	4.01	3.94	4.53	4.50	4.37

<표 4-19> 지역아동센터 중요도(2)

(단위: 명, 점(5점 만점))

구분		사례수	선생님들의 자질과 전문성이 우수하다	선생님들과의 의사소통 이나 정보 공유가 잘 된다	선생님 1인당 담당하는 아동 수가 적정하다	센터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센터의 모든 프로그램은 자녀에게 흥미롭고 유익하다	센터의 숙제· 학습지도가 학교 공부에 도움이 된다	센터 이용으로 보호자의 돌봄 부담이 줄어들었다	센터 이용으로 보호자의 경제·사회활동 에 도움이 되었다	아동이 센터에 가는 것을 좋아한다
전체		(1,296)	4.37	4.43	4.25	4.36	4.35	4.33	4.41	4.37	4.37
지역	서울	(160)	4.33	4.41	4.25	4.36	4.34	4.36	4.37	4.41	4.24
	부산	(57)	4.40	4.51	4.30	4.40	4.23	4.37	4.44	4.47	4.32
	대구	(64)	4.50	4.41	4.31	4.53	4.42	4.55	4.50	4.50	4.45
	인천	(51)	4.63	4.67	4.37	4.49	4.61	4.45	4.51	4.57	4.63
	광주	(70)	4.34	4.31	4.19	4.30	4.43	4.16	4.26	4.21	4.27
	대전	(59)	4.07	4.19	4.12	4.14	4.12	4.10	4.20	4.22	4.07
	울산	(54)	3.80	3.63	3.44	3.74	3.63	3.59	3.85	3.57	3.63
	세종	(17)	4.71	4.76	4.41	4.53	4.76	4.76	4.76	4.65	4.71
	경기	(177)	4.08	4.14	4.06	3.99	3.99	3.97	4.20	4.00	4.05
	강원	(63)	4.02	4.35	3.98	4.22	4.22	4.10	4.06	4.30	4.29
	충북	(66)	4.21	4.17	4.18	4.06	4.12	4.11	4.17	3.95	4.26
	충남	(52)	4.60	4.62	4.42	4.48	4.56	4.42	4.50	4.42	4.52
	전북	(78)	4.67	4.62	4.46	4.64	4.69	4.67	4.63	4.59	4.65
	전남	(109)	4.50	4.62	4.44	4.56	4.53	4.58	4.62	4.61	4.65
	경북	(87)	4.72	4.82	4.56	4.71	4.69	4.66	4.69	4.76	4.69
	경남	(105)	4.62	4.69	4.40	4.60	4.61	4.60	4.70	4.69	4.68
	제주	(27)	4.67	4.81	4.59	4.78	4.74	4.70	4.85	4.89	4.67
지역 특성	동 지역	(947)	4.34	4.37	4.21	4.31	4.30	4.28	4.37	4.32	4.30
	읍면 지역	(349)	4.47	4.56	4.36	4.48	4.51	4.47	4.50	4.50	4.55

<표 4-20> 지역아동센터 전반적 만족도

(단위: 명, %, 점(5점 만점))

구분		사례수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보통	④ 만족	⑤ 매우 만족	BOT2 (①+②)	MID (③)	TOP2 (④+⑤)	계	평균 점수	SD	t, F
전체		(1,296)	0.7	5.1	14.5	23.4	56.3	5.8	14.5	79.7	100.0	4.30	0.94	—
지역	서울	(160)	1.3	3.8	13.1	33.8	48.1	5.0	13.1	81.9	100.0	4.24	0.91	9.337 ***
	부산	(57)	0.0	3.5	15.8	22.8	57.9	3.5	15.8	80.7	100.0	4.35	0.88	
	대구	(64)	0.0	4.7	14.1	17.2	64.1	4.7	14.1	81.3	100.0	4.41	0.90	
	인천	(51)	2.0	0.0	13.7	23.5	60.8	2.0	13.7	84.3	100.0	4.41	0.88	
	광주	(70)	0.0	7.1	21.4	28.6	42.9	7.1	21.4	71.4	100.0	4.07	0.97	
	대전	(59)	0.0	6.8	15.3	44.1	33.9	6.8	15.3	78.0	100.0	4.05	0.88	
	울산	(54)	0.0	31.5	25.9	11.1	31.5	31.5	25.9	42.6	100.0	3.43	1.24	
	세종	(17)	0.0	0.0	11.8	5.9	82.4	0.0	11.8	88.2	100.0	4.71	0.69	
	경기	(177)	0.6	6.2	26.0	24.9	42.4	6.8	26.0	67.2	100.0	4.02	0.99	
	강원	(63)	0.0	4.8	27.0	17.5	50.8	4.8	27.0	68.3	100.0	4.14	0.98	
	충북	(66)	1.5	12.1	19.7	21.2	45.5	13.6	19.7	66.7	100.0	3.97	1.14	
	충남	(52)	0.0	0.0	7.7	28.8	63.5	0.0	7.7	92.3	100.0	4.56	0.64	
	전북	(78)	0.0	3.8	6.4	19.2	70.5	3.8	6.4	89.7	100.0	4.56	0.78	
	전남	(109)	0.0	0.9	11.9	14.7	72.5	0.9	11.9	87.2	100.0	4.59	0.74	
	경북	(87)	2.3	2.3	1.1	18.4	75.9	4.6	1.1	94.3	100.0	4.63	0.82	
	경남	(105)	1.9	0.0	1.9	20.0	76.2	1.9	1.9	96.2	100.0	4.69	0.70	
	제주	(27)	0.0	3.7	3.7	29.6	63.0	3.7	3.7	92.6	100.0	4.52	0.75	
지역 특성	동 지역	(947)	0.8	5.6	16.1	26.2	51.3	6.4	16.1	77.5	100.0	4.22	0.96	-5.403
	읍면 지역	(349)	0.3	3.7	10.3	15.8	69.9	4.0	10.3	85.7	100.0	4.51	0.85	***

주: *p<.05, **p<.01, ***p<.001

IPA(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기법은 만족도(수행도)와 중요도를 비교평가한 값에 따라 우선순위를 도출하여 유지 또는 개선점을 찾아내기 위해 활용된다. 평균값과 사분면으로 구성된 매트릭스를 이용하여 다음의 네 가지 다면적 의사결정 정보를 제공한다. ‘중점 개선 영역’은 평균보다 중요도는 높으나 만족도는 낮아 우선적인 개선과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한 영역이다. ‘유지/강화 영역은’ 중요하게 인식되면서 만족도도 높으므로 현재 수준 유지나 강화가 필요한 영역이다. ‘점진 개선 영역’은 평균보다 낮은 중요도와 낮은 만족도를 보여 우선순위가 낮고, 점진적인 개선이 필요한 영역이다. 마지막으로 ‘지속 관리(과잉) 영역’은 낮은 중요도에 비해 높은 만족도를 보여 과한 집중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영역이다.

[그림 4-1]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IPA) 개요

높음 ↑ 중요도 ↓ 낮음		Concentrate Here	Keep up the Good Work
		중점 개선 영역 (높은 중요도-낮은 만족도)	유지/강화 영역 (높은 중요도-높은 만족도)
		Low Priority	Possible Overkill
		점진 개선 영역 (낮은 중요도-낮은 만족도)	지속 관리(과잉) 영역 (낮은 중요도-높은 만족도)
	낮음	←	→
		만족도	
		←	→
		낮음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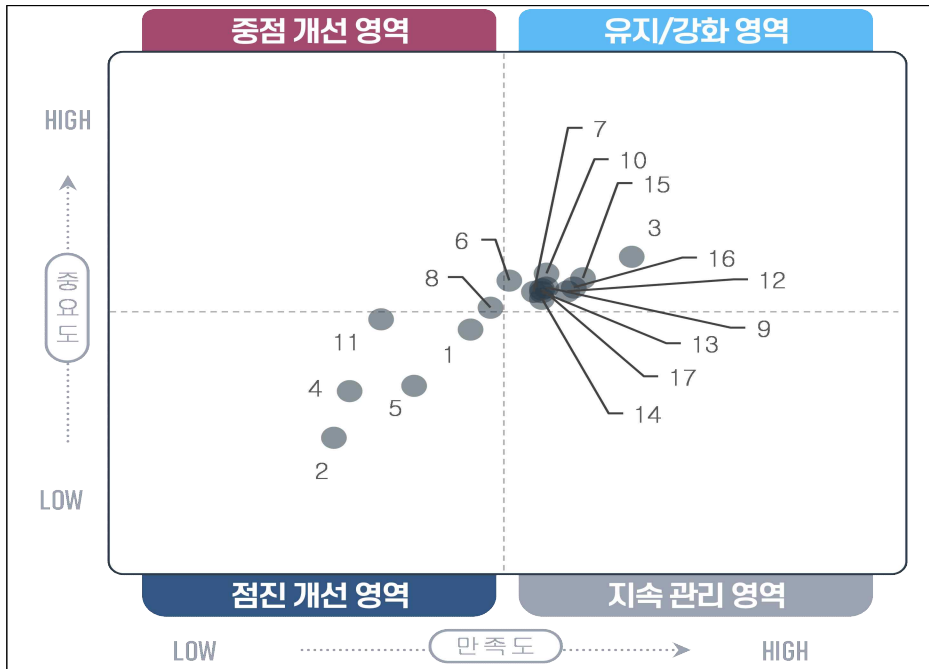
자료: Martilla, J. A. & James, J. C. (1977).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Journal of Marketing, 41(1), 77-79에서 인용하여 재구성.

학부모의 ‘지역아동센터 이용 요인’ 관련 17개 항목의 만족도-중요도를 분석한 결과, ‘센터에 학습 도구·교구가 충분하다’는 사분면의 교차점 중앙에 매우 인접하게 위치하였으나 중점 개선 영역에 포함되었다. 만일 지역아동센터에서 질 높고 다양한 학습 도구·교구를 보강한다면 아동이나 학부모의 센터 이용 만족도가 향상되어 중요도에 부응하는 우수한 성과를 보일 수 있다. 점진 개선 영역은 17개의 항목 중 5개 항목이 해당하였는데, ‘등교 전이나 저녁 7시 이후에도 센터 이용이 가능하다’는 만족도와 중요도가 모두 가장 낮았다. 유지/강화 영역은 17개의 항목 중 11개 항목이 해당하였는데, 이중 ‘방학 중에도 센터 이용이 가능’이 만족도와 중요도가 모두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속 관리(과잉) 영역은 도출되지 않았다.

<표 4-21> 지역아동센터 만족도-중요도 분석

연번	항목	만족도	중요도	IPA
이용 접근성	1. 아동이 집/학교에서 센터까지 이동하기 편하거나 가깝다	4.14	4.21	△ 점진 개선
	2. 등교 전이나 저녁 7시 이후에도 센터 이용이 가능하다	3.83	3.80	△ 점진 개선
	3. 방학 중에도 센터 이용이 가능하다	4.49	4.49	◎ 유지/강화
	4. 센터 이용을 위한 대기자 수가 적다	3.87	3.98	△ 점진 개선
	5. 아동이 우선돌봄을 받을 수 있는 자격기준이 있다	4.01	4.00	△ 점진 개선
시설 환경	6. 센터 내부 공간이나 외부 환경이 안전하다	4.22	4.40	◎ 유지/강화
	7. 센터 내부 공간이나 외부 환경이 깨끗하고 쾌적하다	4.28	4.36	◎ 유지/강화
	8. 센터에 학습 도구·교구가 충분하다	4.18	4.30	☆ 중점 개선
인력	9. 선생님들의 자질과 전문성이 우수하다	4.30	4.37	◎ 유지/강화
	10. 선생님들과의 의사소통이나 정보 공유가 잘 된다	4.30	4.43	◎ 유지/강화
	11. 선생님 1인당 담당하는 아동 수가 적정하다	3.94	4.25	△ 점진 개선
프로그램	12. 센터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4.35	4.36	◎ 유지/강화
	13. 센터의 모든 프로그램은 자녀에게 흥미롭고 유익하다	4.29	4.35	◎ 유지/강화
	14. 센터의 숙제·학습지도가 학교 공부에 도움이 된다	4.29	4.33	◎ 유지/강화
이용 효과	15. 센터 이용으로 보호자의 돌봄(양육) 부담이 줄어들었다	4.39	4.41	◎ 유지/강화
	16. 센터 이용으로 보호자의 경제·사회활동에 도움이 되었다	4.37	4.37	◎ 유지/강화
	17. 아동이 센터에 가는 것을 좋아한다	4.29	4.37	◎ 유지/강화
평균		4.21	4.28	

[그림 4-2] 지역아동센터 만족도-중요도(IPA)



바. 지역아동센터 개선사항

지역아동센터가 현재 상황에서 가장 개선되어야 할 부분 1순위는 ‘프로그램 다양화 및 수준’이 26.2%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아동과 교사 비율’(21.5%), ‘이용 자격기준’(16.4%), ‘센터 주변 환경’(12.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개선 1순위 항목은 지역특성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유사하게 나타났다.

개선되어야 할 부분 2순위는 ‘프로그램 다양화 및 수준’이 20.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아동과 교사 비율’(16.7%), ‘센터 환경·설비·학습교구’(15.0%), ‘센터 주변 환경’(13.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 다양화 및 수준은 1순위와 2순위 모두 가장 높았는데, 동 지역(20.8%)과 읍면 지역(17.8%) 모두 유사한 비중으로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반면, 읍면 지역(22.3%)에서는 동 지역(12.4%)보다 센터 환경·설비·학습교구에 대한 개선 요구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과를 종합하면, 지역아동센터는 프로그램의 양적 및 질적 개선과 함께 현재보다 교사 1인당 돌보는 아동 수가 감소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추가적인 인력 배치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 예산 등의 이유로 인력 증원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돌봄 아동이 집중되는 시간대라도 별도 추가인력을 배치 지원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또한 농어촌지역에는 센터 환경 개선과 설비·학습교구 보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의 지원과 센터의 자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이용 자격기준 관련, 지역아동센터는 늘봄학교나 다함께돌봄센터와 달리 취약계층 아동 중심으로 우선 이용 자격기준이 적용되고, 이에 따른 일부 낙인감도 존재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을 반영한 것으로 유추된다. 이는 아동이 우선돌봄을 받을 수 있는 자격기준에 대한 학부모의 만족도나 중요도와는 다르게 해석될 필요가 있다.

<표 4-22> 지역아동센터 개선사항

(단위: %, 명)

구분	이용 자격기준	프로그램 다양화 및 수준	아동과 교사 비율	시설장· 교사 자질과 전문성	센터 주변 환경	보호자 -교사 의사소통· 정보교환	센터 환경·설비· 학습교구	급식· 간식의 질	기타	계(수)
1순위	16.4	26.2	21.5	6.5	12.7	5.1	7.3	3.2	1.1	100.0 (1,296)
2순위	7.3	20.0	16.7	9.6	13.7	10.3	15.0	6.1	1.3	

<표 4-23> 지역아동센터 개선사항(1순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이용 자격기준	프로그램 다양화 수준	아동과 교사 비율	시설장· 교사 자질과 전문성	센터 주변 환경	보호자 -교사 의사소통· 정보교환	센터 환경·설비· 학습교구	급식· 간식의 질	기타	χ^2
전체		(1,296)	16.4	26.2	21.5	6.5	12.7	5.1	7.3	3.2	1.1	—
지역	서울	(160)	18.8	30.0	16.3	5.0	13.1	6.9	5.6	2.5	1.9	266.937
	부산	(57)	14.0	22.8	28.1	7.0	10.5	1.8	10.5	5.3	0.0	
	대구	(64)	20.3	31.3	9.4	1.6	17.2	3.1	12.5	3.1	1.6	
	인천	(51)	17.6	25.5	17.6	5.9	13.7	9.8	7.8	2.0	0.0	
	광주	(70)	11.4	32.9	15.7	10.0	11.4	5.7	8.6	1.4	2.9	
	대전	(59)	15.3	11.9	25.4	16.9	16.9	5.1	6.8	1.7	0.0	
	울산	(54)	13.0	14.8	27.8	16.7	13.0	5.6	7.4	1.9	0.0	
	세종	(17)	29.4	29.4	29.4	0.0	5.9	5.9	0.0	0.0	0.0	
	경기	(177)	18.1	23.7	23.7	6.2	14.1	3.4	7.3	1.7	1.7	
	강원	(63)	22.2	31.7	17.5	6.3	12.7	1.6	4.8	3.2	0.0	
	충북	(66)	13.6	28.8	15.2	15.2	15.2	6.1	3.0	1.5	1.5	
	충남	(52)	7.7	26.9	23.1	3.8	21.2	3.8	7.7	5.8	0.0	
	전북	(78)	16.7	25.6	32.1	1.3	7.7	6.4	5.1	5.1	0.0	
	전남	(109)	13.8	30.3	25.7	3.7	11.0	3.7	6.4	5.5	0.0	
	경북	(87)	13.8	26.4	29.9	1.1	8.0	8.0	8.0	2.3	2.3	
	경남	(105)	16.2	26.7	18.1	5.7	10.5	4.8	10.5	5.7	1.9	
	제주	(27)	29.6	11.1	11.1	11.1	14.8	7.4	7.4	7.4	0.0	
지역 특성	동 지역	(947)	16.3	26.7	20.5	7.2	12.6	5.3	7.2	3.2	1.2	14.116
	읍면 지역	(349)	16.9	24.6	24.4	4.6	13.2	4.6	7.4	3.4	0.9	

주: *p<.05, **p<.01, ***p<.001

<표 4-24> 지역아동센터 개선사항(2순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이용 자격기준	프로그램 다양화 수준	아동과 교사 비율	시설장· 교사 자질과 전문성	센터 주변 환경	보호자 -교사 의사소통· 정보교환	센터 환경·설비· 학습교구	급식· 간식의 질	기타	χ^2
전체		(1,296)	7.3	20.0	16.7	9.6	13.7	10.3	15.0	6.1	1.3	—
지역	서울	(160)	11.3	21.9	13.8	11.9	17.5	6.3	8.1	6.9	2.5	425.638 ***
	부산	(57)	5.3	26.3	10.5	14.0	14.0	10.5	15.8	3.5	0.0	
	대구	(64)	9.4	15.6	23.4	9.4	14.1	6.3	15.6	6.3	0.0	
	인천	(51)	5.9	13.7	27.5	15.7	11.8	5.9	13.7	5.9	0.0	
	광주	(70)	7.1	11.4	15.7	7.1	21.4	17.1	18.6	1.4	0.0	
	대전	(59)	5.1	20.3	22.0	8.5	8.5	13.6	13.6	6.8	1.7	
	울산	(54)	5.6	29.6	13.0	9.3	14.8	9.3	14.8	3.7	0.0	
	세종	(17)	29.4	17.6	23.5	0.0	5.9	5.9	0.0	5.9	11.8	
	경기	(177)	7.3	17.5	15.3	14.1	15.8	15.8	7.9	4.0	2.3	
	강원	(63)	3.2	17.5	19.0	12.7	17.5	14.3	14.3	0.0	1.6	
	충북	(66)	4.5	25.8	16.7	9.1	15.2	10.6	9.1	9.1	0.0	
	충남	(52)	15.4	19.2	9.6	7.7	5.8	9.6	25.0	5.8	1.9	
	전북	(78)	3.8	20.5	16.7	10.3	12.8	2.6	28.2	3.8	1.3	
	전남	(109)	4.6	16.5	18.3	4.6	11.0	11.0	25.7	6.4	1.8	
	경북	(87)	9.2	17.2	18.4	9.2	8.0	5.7	20.7	11.5	0.0	
	경남	(105)	2.9	24.8	18.1	3.8	11.4	13.3	12.4	13.3	0.0	
	제주	(27)	11.1	33.3	7.4	0.0	14.8	11.1	14.8	3.7	3.7	
지역 특성	동 지역	(947)	7.4	20.8	16.8	10.9	13.9	10.3	12.4	6.1	1.4	34.424*
	읍면 지역	(349)	6.9	17.8	16.6	6.0	12.9	10.3	22.3	6.0	1.1	

주: *p<.05, **p<.01, ***p<.001

3.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경험 및 개선 욕구

가.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시점

현재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 중인 초1 아동의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시점은 ‘2024년 1학기부터’(75.9%),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11.9%), ‘2024년 2학기부터’(6.1%), ‘2024년 여름방학부터’(6.0%)의 순이었다. 지역적 특성 및 센터 정원을 고려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형제·자매가 미취학아동이거나 아동이 어린이집·유치원을 졸업한 이후에는 초등학교 입학 이전에도 다함께돌봄센터 이용이 가능하다. 응답자 수는 적으나 전북(42.9%) 응답자 자녀의 미취학 시기 센터 이용 비율이 높았다.

<표 4-25>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시점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2024년 1학기부터	2024년 여름방학부터	2024년 2학기부터	χ^2
전체		(863)	11.9	75.9	6.0	6.1	—
지역	서울	(132)	19.7	69.7	6.8	3.8	94.188 ***
	부산	(78)	7.7	78.2	7.7	6.4	
	대구	(12)	25.0	66.7	8.3	0.0	
	인천	(37)	5.4	81.1	2.7	10.8	
	광주	(15)	13.3	66.7	6.7	13.3	
	대전	(42)	16.7	73.8	7.1	2.4	
	울산	(10)	10.0	50.0	20.0	20.0	
	세종	(14)	7.1	64.3	21.4	7.1	
	경기	(193)	6.2	83.4	3.1	7.3	
	강원	(41)	14.6	70.7	12.2	2.4	
	충북	(42)	7.1	78.6	7.1	7.1	
	충남	(62)	4.8	91.9	1.6	1.6	
	전북	(21)	42.9	47.6	9.5	0.0	
	전남	(24)	29.2	50.0	12.5	8.3	
	경북	(93)	14.0	72.0	4.3	9.7	
	경남	(38)	5.3	84.2	5.3	5.3	
	제주	(9)	0.0	88.9	0.0	11.1	
지역 특성	동 지역	(657)	12.3	76.1	5.6	5.9	1.270
	읍면 지역	(206)	10.7	75.2	7.3	6.8	

주: *p<.05, **p<.01, ***p<.001

나. 지역아동센터 이용 이유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하는 주된 이유 1순위는 ‘집/학교에서 가까워서’이 33.3%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방과 후/방학 중 마땅히 아동을 돌볼 사람이 없어서’(26.3%), ‘센터의 프로그램이 다양하고 내용이 좋아서’(11.6%), ‘센터가 안전하고 선생님을 신뢰하기 때문에’(7.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특성별로 차이를 보여 동 지역(37.6%)에서는 집·학교에서의 인접성이 다함께돌봄센터 이용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던 반면, 읍면 지역에서는 아동을 돌봐줄 사람이 필요(35.4%)가 다함께돌봄센터 이용의 주요 이유였다.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하는 주된 이유 2순위는 ‘센터의 프로그램이 다양하고 내용이 좋아서’가 19.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방과 후/방학 중 마땅히 아동을 돌볼 사람이 없어서’(17.4%), ‘센터가 안전하고 선생님을 신뢰하기 때문에’(16.7%), ‘원하는 시간에 이용할 수 있어서’(11.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특성별 차이를 파악하면, 도시지역에서는 집이나 학교에서 가까운 거리에 센터 설치, 방과 후나 방학 중 아동을 돌봐줄 수 있는 기관 필요가, 농어촌지역에서는 방과 후나 방학 중 아동을 돌봐줄 수 있는 기관 필요, 다양하고 우수한 센터 프로그램이 지역아동센터 이용의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4-26> 다함께돌봄센터 주된 이용 이유

(단위: %, 명)

구분	집·학교 가까워서	늘봄 학교 현재 이용 불가	돌봄 비용 부담 없어서	사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아동을 돌볼 사람 없어서	센터에서 급·간식 제공	센터의 프로그램 다양하고 내용이 좋아서	원하는 시간에 이용 가능	센터가 안전하고 선생님을 신뢰	주변의 소개· 추천	아동 본인이 원해서	일시 (긴급) 돌봄 가능	계(수)
1순위	33.3	7.1	2.0	2.4	26.3	2.3	11.6	4.2	7.3	2.1	0.7	0.8	100.0
2순위	10.0	2.7	6.0	2.7	17.4	8.2	19.4	11.1	16.7	3.4	1.6	0.9	(863)

<표 4-27> 다함께돌봄센터 주된 이용 이유(1순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집·학교 가까워서	늘봄학교 현재 이용 불가	돌봄비용 부담 없어서	사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아동을 돌볼 사람 없어서	센터에서 급·간식 제공	센터의 프로그램 다양하고 내용이 좋아서	원하는 시간에 이용 가능	센터가 안전하고 선생님을 신뢰	주변의 소개· 추천	아동 본인이 원해서	일시 (긴급) 돌봄 가능	χ^2
전체	(863)	33.3	7.1	2.0	2.4	26.3	2.3	11.6	4.2	7.3	2.1	0.7	0.8	—
지역	서울	(132)	45.5	1.5	3.0	2.3	1.5	9.8	3.8	8.3	0.8	1.5	0.0	271.415 ***
	부산	(78)	34.6	5.1	0.0	1.3	1.3	15.4	2.6	9.0	6.4	1.3	0.0	
	대구	(12)	58.3	0.0	0.0	0.0	0.0	8.3	0.0	8.3	0.0	0.0	8.3	
	인천	(37)	35.1	21.6	5.4	8.1	0.0	2.7	2.7	5.4	2.7	0.0	0.0	
	광주	(15)	40.0	13.3	0.0	0.0	6.7	6.7	13.3	6.7	0.0	0.0	0.0	
	대전	(42)	26.2	11.9	0.0	7.1	0.0	21.4	4.8	9.5	4.8	0.0	0.0	
	울산	(10)	40.0	10.0	0.0	10.0	0.0	20.0	0.0	10.0	10.0	0.0	0.0	
	세종	(14)	21.4	28.6	7.1	7.1	0.0	14.3	0.0	0.0	0.0	0.0	0.0	
	경기	(193)	38.3	7.8	1.0	1.0	1.6	7.8	4.1	4.7	2.1	0.5	1.0	
	강원	(41)	17.1	4.9	4.9	2.4	2.4	24.4	4.9	7.3	0.0	0.0	0.0	
	충북	(42)	19.0	19.0	4.8	2.4	0.0	7.1	0.0	7.1	0.0	2.4	0.0	
	충남	(62)	21.0	1.6	1.6	3.2	6.5	16.1	3.2	16.1	1.6	0.0	1.6	
	전북	(21)	57.1	4.8	0.0	0.0	4.8	4.8	9.5	9.5	0.0	0.0	0.0	
	전남	(24)	41.7	4.2	4.2	4.2	0.0	4.2	0.0	4.2	4.2	0.0	4.2	
	경북	(93)	29.0	2.2	1.1	2.2	3.2	10.8	8.6	7.5	0.0	0.0	1.1	
	경남	(38)	13.2	10.5	2.6	0.0	10.5	15.8	5.3	2.6	5.3	0.0	0.0	
	제주	(9)	0.0	11.1	0.0	0.0	0.0	33.3	0.0	0.0	0.0	11.1	11.1	
지역 특성	동 지역	(657)	37.6	7.3	1.8	2.7	1.4	10.8	4.1	7.2	2.1	0.8	0.8	38.235
	읍면 지역	(206)	19.4	6.3	2.4	1.5	5.3	14.1	4.4	7.8	1.9	0.5	1.0	***

주: *p<.05, **p<.01, ***p<.001

<표 4-28> 다함께돌봄센터 주된 이용 이유(2순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집·학교 가까워서	늘봄학교 현재 이용 불가	돌봄비용 부담 없어서	사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아동을 돌볼 사람 없어서	센터에서 급·간식 제공	센터의 프로그램 다양하고 내용이 좋아서	원하는 시간에 이용 가능	센터가 안전하고 선생님을 신뢰	주변의 소개· 추천	아동 본인이 원해서	일시 (긴급) 돌봄 가능	χ^2
전체	(863)	10.0	2.7	6.0	2.7	17.4	8.2	19.4	11.1	16.7	3.4	1.6	0.9	—
지역	서울	(132)	11.4	3.0	17.4	3.8	13.6	6.8	16.7	6.1	15.2	3.0	3.0	0.0
	부산	(78)	9.0	3.8	2.6	2.6	20.5	5.1	15.4	9.0	26.9	1.3	1.3	2.6
	대구	(12)	0.0	0.0	0.0	0.0	0.0	16.7	50.0	16.7	8.3	8.3	0.0	0.0
	인천	(37)	10.8	2.7	5.4	5.4	27.0	2.7	24.3	10.8	8.1	2.7	0.0	0.0
	광주	(15)	6.7	6.7	0.0	0.0	20.0	6.7	20.0	6.7	26.7	0.0	6.7	0.0
	대전	(42)	11.9	4.8	4.8	7.1	9.5	9.5	9.5	9.5	21.4	11.9	0.0	0.0
	울산	(10)	0.0	0.0	10.0	0.0	10.0	0.0	10.0	50.0	10.0	10.0	0.0	0.0
	세종	(14)	14.3	0.0	0.0	7.1	7.1	7.1	7.1	14.3	7.1	14.3	14.3	7.1
	경기	(193)	14.5	2.1	4.7	1.0	23.3	6.7	18.1	11.9	15.0	1.0	0.5	1.0
	강원	(41)	2.4	0.0	2.4	0.0	7.3	12.2	34.1	9.8	17.1	4.9	4.9	4.9
	충북	(42)	9.5	7.1	4.8	0.0	23.8	7.1	14.3	11.9	19.0	2.4	0.0	0.0
	충남	(62)	8.1	1.6	3.2	1.6	21.0	16.1	22.6	9.7	12.9	3.2	0.0	0.0
	전북	(21)	0.0	4.8	4.8	9.5	4.8	4.8	47.6	19.0	4.8	0.0	0.0	0.0
	전남	(24)	4.2	0.0	8.3	0.0	8.3	8.3	37.5	12.5	16.7	4.2	0.0	0.0
	경북	(93)	8.6	3.2	3.2	5.4	18.3	9.7	12.9	11.8	20.4	3.2	2.2	1.1
	경남	(38)	5.3	0.0	5.3	0.0	13.2	15.8	21.1	15.8	21.1	0.0	2.6	0.0
	제주	(9)	33.3	0.0	0.0	0.0	11.1	0.0	11.1	11.1	0.0	33.3	0.0	0.0
지역 특성	동 지역	(657)	10.8	3.2	7.2	3.0	18.0	6.4	17.2	10.7	17.7	3.3	2.0	0.6
	읍면 지역	(206)	7.3	1.0	2.4	1.5	15.5	14.1	26.2	12.6	13.6	3.4	0.5	1.9

주: *p<.05, **p<.01, ***p<.001

다.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시간

현재 일주일 평균 다함께돌봄센터 이용일 수는 평균 4.5일로, 일주일 평균 5일을 이용한다는 응답이 72.2%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4일(12.5%), 3일(8.5%), 2일(4.5%) 등의 순이었다.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한 6일 이용은 0.2%, 7일 이용은 0.1%에 불과하였으며, 이는 지역아동센터의 주말 및 공휴일 이용률보다 낮았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정기돌봄과 일시돌봄으로 구분되며, 하루 8시간 주 5일 이상 운영하고 있다. 다만, 주말 및 공휴일은 휴무가 원칙이나 지역여건이나 센터 실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하루 평균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시간은 3.2시간으로, 하루 평균 3시간을 이용한다는 응답이 36.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2시간(24.0%), 4시간(20.7%), 5시간(10.4%) 등의 순이었다. 다함께돌봄센터 표준 서비스 제공시간은 학기 중 14시~20시, 방학 중 9시~18시이며, 2022년 3월부터는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시간 연장 시범사업을 실시 중이어서 기본 연장 운영 시간은 7시~9시와 20시~22시이다(방학 중에는 18시~20시 연장 운영). 전반적으로 동 지역은 읍면 지역에 비해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시간이 더 길어, 읍면 지역은 하루 2~3시간 이용의 비중이 높고 동 지역은 하루 2~3시간 외에 하루 4~6시간 이용의 비중도 읍면 지역보다 높았다.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시간대(복수응답)는 '16시~17시'가 82.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15시~16시'(76.2%), '17시~18시'(64.9%), '14시~15시'(52.8%) 등의 순이었다. 지역특성별로도 이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시범사업 시간대인 7시~9시(1.0%)와 20시 이후(0.9%)는 이용률이 매우 낮았다.

<표 4-29> 일주일 평균 다함께돌봄센터 이용일 수

(단위: 명, %, 평균(일))

구분		사례수	1	2	3	4	5	6	7	계	평균	χ^2
전체		(863)	2.0	4.5	8.5	12.5	72.2	0.2	0.1	100.0	4.5	—
지역	서울	(132)	0.8	9.1	10.6	6.1	73.5	0.0	0.0	100.0	4.4	246.262 ***
	부산	(78)	1.3	2.6	3.8	6.4	85.9	0.0	0.0	100.0	4.7	
	대구	(12)	0.0	25.0	0.0	8.3	66.7	0.0	0.0	100.0	4.2	
	인천	(37)	0.0	0.0	8.1	13.5	78.4	0.0	0.0	100.0	4.7	
	광주	(15)	0.0	6.7	0.0	13.3	80.0	0.0	0.0	100.0	4.7	
	대전	(42)	2.4	4.8	7.1	9.5	76.2	0.0	0.0	100.0	4.5	
	울산	(10)	0.0	0.0	10.0	20.0	70.0	0.0	0.0	100.0	4.6	
	세종	(14)	7.1	7.1	28.6	7.1	50.0	0.0	0.0	100.0	3.9	
	경기	(193)	0.5	4.1	7.3	19.2	68.9	0.0	0.0	100.0	4.5	
	강원	(41)	2.4	4.9	12.2	14.6	65.9	0.0	0.0	100.0	4.4	
	충북	(42)	2.4	2.4	4.8	14.3	76.2	0.0	0.0	100.0	4.6	
	충남	(62)	0.0	0.0	3.2	8.1	88.7	0.0	0.0	100.0	4.9	
	전북	(21)	0.0	0.0	19.0	9.5	71.4	0.0	0.0	100.0	4.5	
	전남	(24)	4.2	8.3	12.5	16.7	58.3	0.0	0.0	100.0	4.2	
	경북	(93)	4.3	5.4	9.7	16.1	61.3	2.2	1.1	100.0	4.4	
	경남	(38)	0.0	0.0	15.8	13.2	71.1	0.0	0.0	100.0	4.6	
	제주	(9)	55.6	0.0	0.0	0.0	44.4	0.0	0.0	100.0	2.8	
지역 특성	동 지역	(657)	1.5	5.0	8.4	12.6	72.3	0.2	0.0	100.0	4.5	8.348
	읍면 지역	(206)	3.4	2.9	8.7	12.1	71.8	0.5	0.5	100.0	4.5	

주: *p<.05, **p<.01, ***p<.001

<표 4-30> 하루 평균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시간

(단위: 명, %, 평균(시간))

구분		사례수	1	2	3	4	5	6	7	8	12	계	평균	x ²
전체		(863)	4.2	24.0	36.5	20.7	10.4	3.5	0.2	0.1	0.3	100.0	3.2	—
지역	서울	(132)	3.8	14.4	24.2	30.3	17.4	9.1	0.8	0.0	0.0	100.0	3.7	202.462 ***
	부산	(78)	2.6	17.9	44.9	23.1	9.0	2.6	0.0	0.0	0.0	100.0	3.3	
	대구	(12)	8.3	8.3	25.0	16.7	25.0	16.7	0.0	0.0	0.0	100.0	3.9	
	인천	(37)	5.4	8.1	45.9	24.3	16.2	0.0	0.0	0.0	0.0	100.0	3.4	
	광주	(15)	6.7	13.3	40.0	26.7	6.7	0.0	6.7	0.0	0.0	100.0	3.4	
	대전	(42)	4.8	19.0	28.6	31.0	16.7	0.0	0.0	0.0	0.0	100.0	3.4	
	울산	(10)	0.0	10.0	60.0	30.0	0.0	0.0	0.0	0.0	0.0	100.0	3.2	
	세종	(14)	0.0	21.4	64.3	7.1	7.1	0.0	0.0	0.0	0.0	100.0	3.0	
	경기	(193)	5.2	26.4	40.4	19.7	7.3	0.5	0.0	0.0	0.5	100.0	3.0	
	강원	(41)	4.9	39.0	36.6	12.2	4.9	2.4	0.0	0.0	0.0	100.0	2.8	
	충북	(42)	7.1	23.8	45.2	16.7	2.4	4.8	0.0	0.0	0.0	100.0	3.0	
	충남	(62)	1.6	17.7	41.9	9.7	22.6	3.2	0.0	0.0	3.2	100.0	3.7	
	전북	(21)	0.0	33.3	19.0	33.3	4.8	9.5	0.0	0.0	0.0	100.0	3.4	
	전남	(24)	4.2	37.5	45.8	12.5	0.0	0.0	0.0	0.0	0.0	100.0	2.7	
	경북	(93)	4.3	34.4	30.1	17.2	9.7	3.2	0.0	1.1	0.0	100.0	3.1	
	경남	(38)	2.6	42.1	26.3	18.4	2.6	7.9	0.0	0.0	0.0	100.0	3.0	
	제주	(9)	11.1	44.4	44.4	0.0	0.0	0.0	0.0	0.0	0.0	100.0	2.3	
지역 특성	동 지역	(657)	4.1	20.7	36.8	22.8	11.0	4.0	0.3	0.0	0.3	100.0	3.3	24.831**
	읍면 지역	(206)	4.4	34.5	35.4	14.1	8.7	1.9	0.0	0.5	0.5	100.0	3.0	

*p<.05, **p<.01, ***p<.001

<표 4-31>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시간대

(단위: 명, %, 복수응답)

구분		사례수	7시~9시	12시~13시	13시~14시	14시~15시	15시~16시	16시~17시	17시~18시	18시~19시	19시~20시	20시 이후
전체		(863)	1.0	6.0	29.2	52.8	76.2	82.4	64.9	25.3	4.1	0.9
지역	서울	(132)	3.0	12.9	43.9	68.2	82.6	79.5	61.4	32.6	9.8	1.5
	부산	(78)	0.0	5.1	29.5	66.7	91.0	87.2	61.5	16.7	1.3	0.0
	대구	(12)	0.0	16.7	50.0	83.3	83.3	83.3	58.3	16.7	0.0	0.0
	인천	(37)	0.0	8.1	56.8	75.7	89.2	83.8	48.6	10.8	0.0	0.0
	광주	(15)	0.0	0.0	20.0	40.0	60.0	86.7	86.7	40.0	0.0	0.0
	대전	(42)	0.0	2.4	23.8	50.0	73.8	88.1	73.8	38.1	2.4	2.4
	울산	(10)	0.0	0.0	40.0	60.0	100.0	100.0	70.0	30.0	0.0	0.0
	세종	(14)	0.0	0.0	14.3	28.6	78.6	92.9	78.6	14.3	0.0	0.0
	경기	(193)	0.0	3.6	28.0	58.0	82.9	81.9	53.9	17.6	2.1	0.5
	강원	(41)	0.0	9.8	14.6	34.1	63.4	82.9	73.2	29.3	0.0	0.0
	충북	(42)	0.0	2.4	9.5	35.7	76.2	83.3	71.4	14.3	2.4	0.0
	충남	(62)	1.6	8.1	50.0	62.9	75.8	77.4	72.6	32.3	3.2	0.0
	전북	(21)	9.5	19.0	23.8	23.8	71.4	85.7	71.4	33.3	9.5	9.5
	전남	(24)	0.0	4.2	8.3	37.5	54.2	75.0	45.8	25.0	8.3	0.0
	경북	(93)	2.2	3.2	17.2	29.0	58.1	79.6	80.6	30.1	8.6	2.2
	경남	(38)	0.0	0.0	18.4	44.7	55.3	81.6	71.1	39.5	2.6	0.0
	제주	(9)	0.0	0.0	0.0	11.1	66.7	88.9	77.8	11.1	0.0	0.0
지역 특성	동 지역	(657)	0.9	6.2	31.1	56.9	80.8	82.8	61.6	23.1	3.8	0.6
	읍면 지역	(206)	1.5	5.3	23.3	39.8	61.7	81.1	75.2	32.0	4.9	1.9

라. 다함께돌봄센터 등록 대기 경험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아동 보호자 중 다함께돌봄센터 이용을 위해 대기를 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는 22.5%로 나타났다. 17개 시·도 중에서는 충북(42.9%)과 대구(41.7%)의 대기 경험률이 높았던 반면, 울산(0.0%), 전남(4.2%), 광주(6.7%), 세종(7.1%)은 대기 경험률이 낮았다. 지역특성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표 4-32> 다함께돌봄센터 이용을 위한 대기 경험 유무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없음	있음	χ^2
전체		(863)	77.5	22.5	—
지역	서울	(132)	70.5	29.5	36.156**
	부산	(78)	75.6	24.4	
	대구	(12)	58.3	41.7	
	인천	(37)	81.1	18.9	
	광주	(15)	93.3	6.7	
	대전	(42)	81.0	19.0	
	울산	(10)	100.0	0.0	
	세종	(14)	92.9	7.1	
	경기	(193)	79.3	20.7	
	강원	(41)	70.7	29.3	
	충북	(42)	57.1	42.9	
	충남	(62)	88.7	11.3	
	전북	(21)	76.2	23.8	
	전남	(24)	95.8	4.2	
	경북	(93)	76.3	23.7	
	경남	(38)	84.2	15.8	
	제주	(9)	66.7	33.3	
지역 특성	동 지역	(657)	76.6	23.4	1.456
	읍면 지역	(206)	80.6	19.4	

*p<.05, **p<.01, ***p<.001

마. 다함께돌봄센터 급·간식 이용 여부 및 비용

현재 다함께돌봄센터에서 급식이나 간식 이용 여부에 대해서는 ‘간식만 먹음’이 64.5%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급식과 간식 모두 먹음’(27.2%), ‘급식과 간식 모두 먹지 않음’(7.1%), ‘급식만 먹음’(1.2%)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주로 학기 중에는 간식 위주, 방학 중에 급·간식을 제공하며, 「식품위생법」 제88조(집단급식소)에 의거, 상시 1회 50인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할 경우 시·군·구청 위생관련 부서에 집단급식소로 신고·운영하고 영양사와 조리사를 배치하여야 하며, 영양사가 없는 상시 1회 급식 인원이 50명 미만인 센터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시행령」(‘21.12.14 개정)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하여 위생 및 영양관리를 받아야 한다(보건복지부, 2024b).

다함께돌봄센터에서 급식을 신청했을 경우, 월평균 급식비는 20,756원이었으며, ‘10,000원 미만’이라는 응답이 63.3%로 가장 높았다. 또한 월평균 간식비는 21,134원으로, ‘10,000원 미만’(46.2%)과 ‘10,000원 이상 50,000원 미만’(37.0%)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급·간식비는 지역별로 금액 차이가 존재하나,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급·간식 질 제고를 위해 일부 지자체에서는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지역특성별로는 동 지역은 월평균 급식비 29,414원, 월평균 간식비 24,140원이었던 반면, 읍면 지역은 월평균 급식비 6,329원, 월평균 간식비 11,675원으로 동 지역의 급·간식비가 더 비싼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급식비와 간식비를 제외한 월평균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요금은 평균 23,418원으로, ‘10,000원 미만’이라는 응답이 48.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역특성별로는 동 지역 27,607원, 읍면 지역 10,058원으로 차이를 보였다.

<표 4-33> 다함께돌봄센터에서의 급·간식 이용 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급식만 먹음	간식만 먹음	급식과 간식 모두 먹음	급식과 간식 모두 먹지 않음	χ^2
전체		(863)	1.2	64.5	27.2	7.1	—
지역	서울	(132)	1.5	61.4	29.5	7.6	197.817 ***
	부산	(78)	0.0	84.6	14.1	1.3	
	대구	(12)	0.0	83.3	16.7	0.0	
	인천	(37)	0.0	70.3	24.3	5.4	
	광주	(15)	0.0	93.3	6.7	0.0	
	대전	(42)	0.0	57.1	28.6	14.3	
	울산	(10)	0.0	100.0	0.0	0.0	
	세종	(14)	0.0	85.7	7.1	7.1	
	경기	(193)	2.1	65.8	24.4	7.8	
	강원	(41)	0.0	87.8	12.2	0.0	
	충북	(42)	0.0	76.2	2.4	21.4	
	충남	(62)	0.0	17.7	80.6	1.6	
	전북	(21)	0.0	57.1	33.3	9.5	
	전남	(24)	4.2	50.0	20.8	25.0	
	경북	(93)	1.1	62.4	35.5	1.1	
	경남	(38)	5.3	50.0	26.3	18.4	
	제주	(9)	0.0	77.8	22.2	0.0	
지역 특성	동 지역	(657)	1.1	69.3	22.2	7.5	35.62***
	읍면 지역	(206)	1.5	49.5	43.2	5.8	

주: *p<.05, **p<.01, ***p<.001

200 늘봄학교 시행에 따른 마을돌봄시설 영향분석 및 발전방향 연구

<표 4-34> 다함께돌봄센터에서의 월평균 급식비

(단위: 명, %, 평균(원))

구분		사례수	10,000원 미만	10,000원 이상 50,000원 미만	50,000원 이상 100,000원 미만	100,000원 이상	계	평균 가격	χ^2
전체		(245)	63.3	11.4	19.2	6.1	100.0	20,756	—
지역	서울	(41)	68.3	2.4	26.8	2.4	100.0	17,646	982.376***
	부산	(11)	45.5	9.1	27.3	18.2	100.0	37,618	
	대구	(2)	50.0	0.0	0.0	50.0	100.0	53,000	
	인천	(9)	77.8	0.0	0.0	22.2	100.0	22,222	
	광주	(1)	0.0	100.0	0.0	0.0	100.0	40,000	
	대전	(12)	50.0	16.7	8.3	25.0	100.0	38,500	
	울산	(0)	—	—	—	—	—	—	
	세종	(1)	0.0	100.0	0.0	0.0	100.0	10,000	
	경기	(51)	25.5	13.7	52.9	7.8	100.0	42,961	
	강원	(5)	80.0	20.0	0.0	0.0	100.0	4,800	
	충북	(1)	100.0	0.0	0.0	0.0	100.0	0	
	충남	(50)	98.0	0.0	0.0	2.0	100.0	2,220	
	전북	(7)	71.4	14.3	14.3	0.0	100.0	11,429	
	전남	(6)	66.7	0.0	33.3	0.0	100.0	16,667	
	경북	(34)	64.7	26.5	5.9	2.9	100.0	14,824	
	경남	(12)	83.3	16.7	0.0	0.0	100.0	6,667	
	제주	(2)	0.0	100.0	0.0	0.0	100.0	20,000	
지역 특성	동 지역	(153)	51.0	10.5	29.4	9.2	100.0	29,414	69.734***
	읍면 지역	(92)	83.7	13.0	2.2	1.1	100.0	6,359	

주: *p<.05, **p<.01, ***p<.001

<표 4-35> 다함께돌봄센터에서의 월평균 간식비

(단위: 명, %, 평균(원))

구분		사례수	10,000원 미만	10,000원 이상 50,000원 미만	50,000원 이상 100,000원 미만	100,000원 이상	계	평균 가격	χ^2
전체		(792)	46.2	37.0	15.9	0.9	100.0	21,134	—
지역	서울	(120)	50.8	13.3	35.8	0.0	100.0	21,846	1740.292***
	부산	(77)	29.9	37.7	27.3	5.2	100.0	31,045	
	대구	(12)	41.7	41.7	16.7	0.0	100.0	22,250	
	인천	(35)	57.1	14.3	28.6	0.0	100.0	18,457	
	광주	(15)	13.3	86.7	0.0	0.0	100.0	28,000	
	대전	(36)	16.7	63.9	19.4	0.0	100.0	31,917	
	울산	(10)	0.0	80.0	20.0	0.0	100.0	39,000	
	세종	(13)	7.7	84.6	7.7	0.0	100.0	36,769	
	경기	(174)	35.6	50.6	13.8	0.0	100.0	25,570	
	강원	(41)	51.2	43.9	4.9	0.0	100.0	17,990	
	충북	(33)	36.4	45.5	15.2	3.0	100.0	24,803	
	충남	(61)	96.7	1.6	0.0	1.6	100.0	2,410	
	전북	(19)	78.9	15.8	5.3	0.0	100.0	7,895	
	전남	(17)	76.5	0.0	17.6	5.9	100.0	14,882	
	경북	(91)	50.5	46.2	3.3	0.0	100.0	14,319	
	경남	(29)	65.5	31.0	3.4	0.0	100.0	11,724	
	제주	(9)	11.1	77.8	11.1	0.0	100.0	19,778	
지역 특성	동 지역	(601)	38.3	42.3	18.8	0.7	100.0	24,140	135.599***
	읍면 지역	(191)	71.2	20.4	6.8	1.6	100.0	11,675	

주: *p<.05, **p<.01, ***p<.001

202 늘봄학교 시행에 따른 마을돌봄시설 영향분석 및 발전방향 연구

<표 4-36> 다함께돌봄센터에서의 월평균 이용 요금(급·간식비 제외)

(단위: 명, %, 평균(원))

구분		사례수	10,000원 미만	10,000원 이상 50,000원 미만	50,000원 이상 100,000원 미만	100,000원 이상	계	평균 요금	χ^2
전체		(863)	48.6	20.3	27.8	3.4	100.0	23,418	—
지역	서울	(132)	22.0	5.3	63.6	9.1	100.0	43,098	1310.430***
	부산	(78)	26.9	20.5	46.2	6.4	100.0	38,205	
	대구	(12)	41.7	33.3	25.0	0.0	100.0	26,458	
	인천	(37)	10.8	13.5	70.3	5.4	100.0	46,351	
	광주	(15)	40.0	33.3	26.7	0.0	100.0	23,333	
	대전	(42)	23.8	14.3	61.9	0.0	100.0	36,524	
	울산	(10)	40.0	50.0	10.0	0.0	100.0	13,000	
	세종	(14)	0.0	85.7	14.3	0.0	100.0	32,143	
	경기	(193)	62.2	19.7	17.6	0.5	100.0	15,614	
	강원	(41)	53.7	39.0	7.3	0.0	100.0	13,951	
	충북	(42)	66.7	23.8	4.8	4.8	100.0	16,905	
	충남	(62)	85.5	0.0	4.8	9.7	100.0	12,258	
	전북	(21)	47.6	33.3	19.0	0.0	100.0	18,571	
	전남	(24)	66.7	4.2	29.2	0.0	100.0	15,000	
	경북	(93)	57.0	37.6	5.4	0.0	100.0	10,344	
	경남	(38)	84.2	13.2	0.0	2.6	100.0	5,000	
	제주	(9)	66.7	33.3	0.0	0.0	100.0	9,667	
지역 특성	동 지역	(657)	40.2	21.6	35.0	3.2	100.0	27,607	123.375***
	읍면 지역	(206)	75.2	16.0	4.9	3.9	100.0	10,058	

주: *p<.05, **p<.01, ***p<.001

바. 다함께돌봄센터 만족도 및 중요도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한 ‘만족도’는 ‘방학 중에도 센터 이용이 가능하다’는 항목이 5점 만점에 평균 4.78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센터 이용으로 보호자의 경제·사회활동에 도움이 되었다’(평균 4.65점), ‘센터 내부 공간이나 외부 환경이 깨끗하고 쾌적하다’(평균 4.64점), ‘센터 이용으로 보호자의 돌봄(양육) 부담이 줄어들었다’(평균 4.62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센터 이용을 위한 대기자 수가 적다’(평균 3.77점)와 ‘등교 전이나 저녁 7시 이후에도 센터 이용이 가능하다’(평균 3.78점)는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한 ‘중요도’는 ‘방학 중에도 센터 이용이 가능하다’는 항목이 5점 만점에 평균 4.8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아동이 센터에 가는 것을 좋아한다’(평균 4.74점), ‘센터 내부 공간이나 외부 환경이 안전하다’(평균 4.73점), ‘센터 내부 공간이나 외부 환경이 깨끗하고 쾌적하다’(평균 4.72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등교 전이나 저녁 7시 이후에도 센터 이용이 가능하다’(평균 3.87점)는 중요도가 가장 낮았다.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 4.56점으로 보통이라는 응답을 제외한 ‘만족한다’(매우 만족 64.5%+만족 31.1%)는 응답은 95.6%였으며, ‘불만족한다’(매우 불만족 1.7%+불만족 0.2%)는 응답은 1.9%에 불과하였다. 전반적인 만족도는 지역아동센터보다 다함께돌봄센터에서 더 높았다.

한편, 학부모의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요인’ 관련 17개 항목을 선정하여 만족도-중요도 분석(IPA)을 실시한 결과, 점진 개선 영역은 17개의 항목 중 5개 항목이 해당하였는데, ‘등교 전이나 저녁 7시 이후에도 센터 이용이 가능하다’는 만족도와 중요도가 모두 가장 낮았다. 유지/강화 영역은 17개의 항목 중 12개 항목이 해당하였는데, 이중 ‘방학 중에도 센터 이용이 가능’이 만족도와 중요도가 모두 가장 높게 나타났다. 중점 개선 영역과 지속 관리(과잉) 영역은 모두 도출되지 않았다.

<표 4-37> 다함께돌봄센터 만족도(1)

(단위: 명, 점(5점 만점))

구분	사례수	아동이 집/학교에서 센터까지 이동하기 편하거나 가깝다	등교 전이나 저녁 7시 이후에도 센터 이용이 가능하다	방학 중에도 센터 이용이 가능하다	센터 이용을 위한 대기자 수가 적다	아동이 우선돌봄을 받을 수 있는 자격기준이 있다	센터 내부 공간이나 외부 환경이 안전하다	센터 내부 공간이나 외부 환경이 깨끗하고 쾌적하다	센터에 학습 도구·교구가 충분하다
전체	(863)	4.46	3.78	4.78	3.77	4.13	4.58	4.64	4.52
지역	서울	(132)	4.41	4.08	4.70	4.07	4.37	4.55	4.53
	부산	(78)	4.69	3.74	4.92	3.90	4.18	4.71	4.58
	대구	(12)	4.25	3.92	4.83	4.00	4.17	4.50	4.75
	인천	(37)	4.22	3.68	4.73	3.68	4.00	4.49	4.41
	광주	(15)	4.20	3.20	4.60	4.20	4.20	4.33	4.33
	대전	(42)	4.40	4.07	4.76	3.88	4.17	4.50	4.67
	울산	(10)	5.00	4.00	5.00	4.60	3.90	4.80	4.80
	세종	(14)	4.79	2.86	4.79	4.43	3.79	4.71	4.64
	경기	(193)	4.56	3.65	4.74	3.36	3.98	4.54	4.45
	강원	(41)	4.34	3.85	4.80	3.80	4.15	4.46	4.44
	충북	(42)	4.45	3.67	4.83	3.74	4.29	4.64	4.52
	충남	(62)	4.60	3.97	4.90	3.74	4.29	4.79	4.71
	전북	(21)	4.33	4.00	4.71	3.76	3.95	4.57	4.38
	전남	(24)	4.25	3.33	4.83	4.08	4.04	4.58	4.42
	경북	(93)	4.43	3.96	4.76	3.70	4.08	4.58	4.49
	경남	(38)	4.21	3.34	4.76	3.79	4.21	4.61	4.47
	제주	(9)	4.22	3.00	4.89	3.67	3.56	4.33	4.56
지역 특성	동 지역	(657)	4.47	3.79	4.75	3.78	4.13	4.57	4.51
	읍면 지역	(206)	4.44	3.74	4.87	3.72	4.15	4.60	4.54

<표 4-38> 다함께돌봄센터 만족도(2)

(단위: 명, 점(5점 만점))

구분	사례수	선생님들의 자질과 전문성이 우수하다	선생님들과 의 의사소통 이나 정보 공유가 잘 된다	선생님 1인당 담당하는 아동 수가 적정하다	센터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센터의 모든 프로그램은 자녀에게 흥미롭고 유익하다	센터의 숙제· 학습지도가 학교 공부에 도움이 된다	센터 이용으로 보호자의 돌봄 부담이 줄어들었다	센터 이용으로 보호자의 경제·사회활동 에 도움이 되었다	아동이 센터에 가는 것을 좋아한다
전체	(863)	4.57	4.57	4.27	4.58	4.56	4.34	4.62	4.65	4.61
지역	서울	(132)	4.52	4.55	4.40	4.57	4.54	4.33	4.59	4.64
	부산	(78)	4.63	4.68	4.19	4.60	4.64	4.53	4.69	4.73
	대구	(12)	4.67	4.42	4.58	4.50	4.42	4.50	4.50	4.42
	인천	(37)	4.59	4.54	4.05	4.49	4.51	4.22	4.59	4.68
	광주	(15)	4.67	4.60	4.40	4.60	4.53	4.40	4.40	4.60
	대전	(42)	4.64	4.71	4.38	4.60	4.67	4.43	4.62	4.64
	울산	(10)	4.80	4.60	4.20	4.70	4.80	4.50	4.70	4.60
	세종	(14)	4.64	4.57	4.57	4.79	4.57	4.07	4.64	4.79
	경기	(193)	4.48	4.47	4.17	4.58	4.55	4.20	4.60	4.62
	강원	(41)	4.51	4.56	4.44	4.66	4.68	4.56	4.73	4.78
	충북	(42)	4.67	4.62	4.33	4.69	4.57	4.33	4.62	4.76
	충남	(62)	4.85	4.84	4.42	4.76	4.76	4.55	4.79	4.81
	전북	(21)	4.52	4.52	3.48	4.24	4.10	4.43	4.52	4.33
	전남	(24)	4.46	4.38	4.33	4.33	4.42	4.29	4.58	4.54
	경북	(93)	4.56	4.57	4.31	4.52	4.47	4.29	4.58	4.59
	경남	(38)	4.37	4.39	4.11	4.55	4.45	4.24	4.58	4.45
	제주	(9)	4.67	4.67	4.44	4.67	4.78	4.56	4.78	4.78
지역 특성	동 지역	(657)	4.56	4.56	4.27	4.57	4.56	4.32	4.60	4.64
	읍면 지역	(206)	4.59	4.59	4.29	4.60	4.57	4.40	4.68	4.67

<표 4-39> 다함께돌봄센터 중요도(1)

(단위: 명, 점(5점 만점))

구분	사례수	아동이 집/학교에서 센터까지 이동하기 편하거나 가깝다	등교 전이나 저녁 7시 이후에도 센터 이용이 가능하다	방학 중에도 센터 이용이 가능하다	센터 이용을 위한 대기자 수가 적다	아동이 우선돌봄을 받을 수 있는 자격기준이 있다	센터 내부 공간이나 외부 환경이 안전하다	센터 내부 공간이나 외부 환경이 깨끗하고 쾌적하다	센터에 학습 도구·교구가 충분하다
전체	(863)	4.66	3.87	4.83	4.25	4.29	4.73	4.72	4.62
지역	서울	(132)	4.62	4.05	4.86	4.23	4.42	4.70	4.62
	부산	(78)	4.76	3.79	4.92	4.10	4.19	4.77	4.59
	대구	(12)	4.58	4.08	4.58	4.33	4.33	4.67	4.50
	인천	(37)	4.54	3.76	4.84	4.11	4.30	4.73	4.57
	광주	(15)	4.53	3.00	4.67	4.33	4.27	4.67	4.53
	대전	(42)	4.64	3.93	4.79	4.14	4.24	4.67	4.67
	울산	(10)	4.90	4.00	4.60	4.70	4.10	4.80	4.90
	세종	(14)	4.79	3.29	4.79	4.64	3.79	4.64	4.64
	경기	(193)	4.74	3.87	4.85	4.26	4.32	4.72	4.59
	강원	(41)	4.49	3.78	4.76	4.37	4.24	4.61	4.63
	충북	(42)	4.67	3.88	4.81	4.21	4.33	4.81	4.76
	충남	(62)	4.76	4.26	4.90	4.61	4.52	4.87	4.92
	전북	(21)	4.38	4.00	4.48	3.86	3.81	4.48	4.52
	전남	(24)	4.50	3.29	4.75	3.88	4.00	4.58	4.54
	경북	(93)	4.71	3.90	4.81	4.31	4.26	4.76	4.76
	경남	(38)	4.45	3.61	4.87	4.16	4.18	4.79	4.82
	제주	(9)	4.56	3.56	4.89	4.44	4.56	4.78	4.78
지역 특성	동 지역	(657)	4.67	3.86	4.82	4.24	4.29	4.70	4.68
	읍면 지역	(206)	4.64	3.90	4.86	4.31	4.28	4.82	4.83

<표 4-40> 다함께돌봄센터 중요도(2)

(단위: 명, 점(5점 만점))

구분	사례수	선생님들의 자질과 전문성이 우수하다	선생님들과의 의사소통 이나 정보 공유가 잘 된다	선생님 1인당 담당하는 아동 수가 적정하다	센터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센터의 모든 프로그램은 자녀에게 흥미롭고 유익하다	센터의 숙제· 학습지도가 학교 공부에 도움이 된다	센터 이용으로 보호자의 돌봄 부담이 줄어들었다	센터 이용으로 보호자의 경제·사회활동에 도움이 되었다	아동이 센터에 가는 것을 좋아한다
전체	(863)	4.70	4.71	4.58	4.67	4.69	4.51	4.67	4.68	4.74
지역	서울	(132)	4.64	4.61	4.53	4.64	4.65	4.43	4.64	4.73
	부산	(78)	4.82	4.83	4.55	4.72	4.78	4.58	4.71	4.86
	대구	(12)	4.75	4.67	4.67	4.58	4.67	4.58	4.67	4.50
	인천	(37)	4.68	4.78	4.54	4.70	4.73	4.57	4.59	4.62
	광주	(15)	4.60	4.73	4.53	4.60	4.67	4.40	4.53	4.67
	대전	(42)	4.64	4.71	4.50	4.81	4.67	4.45	4.69	4.71
	울산	(10)	4.80	4.50	4.80	4.70	4.60	4.60	4.90	4.80
	세종	(14)	4.71	4.57	4.64	4.57	4.64	4.21	4.79	4.43
	경기	(193)	4.67	4.68	4.55	4.62	4.65	4.50	4.66	4.76
	강원	(41)	4.68	4.71	4.59	4.68	4.68	4.61	4.66	4.68
	충북	(42)	4.62	4.81	4.67	4.64	4.79	4.52	4.76	4.83
	충남	(62)	4.85	4.87	4.74	4.81	4.82	4.76	4.76	4.84
	전북	(21)	4.48	4.38	4.52	4.48	4.43	4.29	4.38	4.43
	전남	(24)	4.71	4.67	4.50	4.58	4.71	4.46	4.67	4.63
	경북	(93)	4.72	4.77	4.68	4.66	4.67	4.51	4.71	4.75
	경남	(38)	4.68	4.66	4.39	4.71	4.68	4.53	4.61	4.63
	제주	(9)	4.78	4.78	4.67	4.78	4.78	4.67	4.89	4.89
지역 특성	동 지역	(657)	4.67	4.68	4.56	4.65	4.68	4.49	4.66	4.72
	읍면 지역	(206)	4.76	4.80	4.65	4.72	4.71	4.58	4.72	4.80

<표 4-41> 다함께돌봄센터 전반적 만족도

(단위: 명, %, 점(5점 만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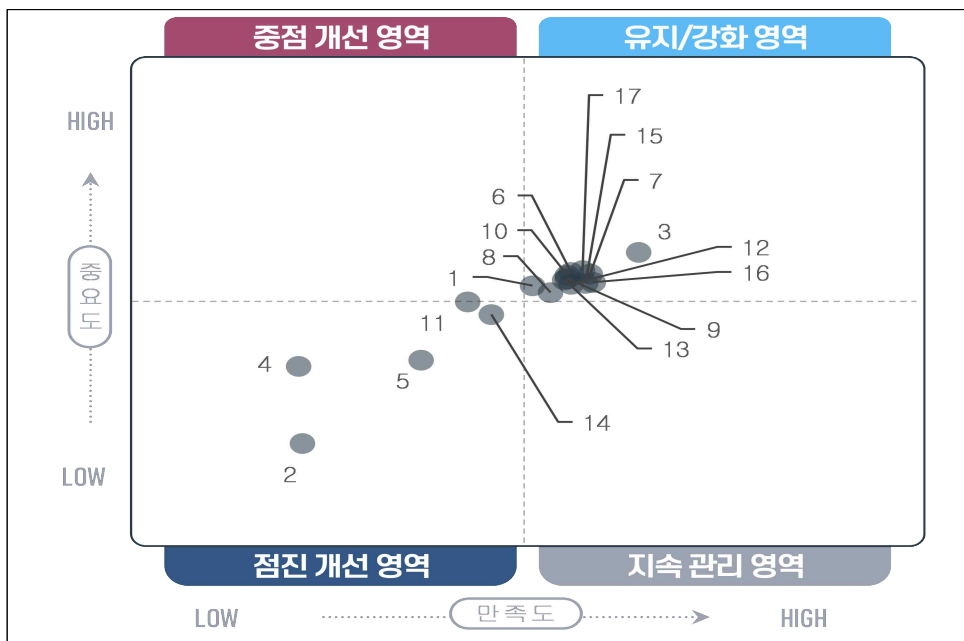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보통	④ 만족	⑤ 매우 만족	BOT2 (①+②)	MID (③)	TOP2 (④+⑤)	계	평균 점수	SD	t, F
전체		(863)	1.7	0.2	2.4	31.1	64.5	2.0	2.4	95.6	100.0	4.56	0.72	—
지역	서울	(132)	0.0	0.0	1.5	43.2	55.3	0.0	1.5	98.5	100.0	4.54	0.53	1.560
	부산	(78)	1.3	0.0	0.0	20.5	78.2	1.3	0.0	98.7	100.0	4.74	0.59	
	대구	(12)	0.0	0.0	0.0	50.0	50.0	0.0	0.0	100.0	100.0	4.50	0.52	
	인천	(37)	0.0	0.0	2.7	45.9	51.4	0.0	2.7	97.3	100.0	4.49	0.56	
	광주	(15)	0.0	0.0	0.0	40.0	60.0	0.0	0.0	100.0	100.0	4.60	0.51	
	대전	(42)	0.0	0.0	2.4	23.8	73.8	0.0	2.4	97.6	100.0	4.71	0.51	
	울산	(10)	0.0	0.0	0.0	10.0	90.0	0.0	0.0	100.0	100.0	4.90	0.32	
	세종	(14)	0.0	0.0	0.0	50.0	50.0	0.0	0.0	100.0	100.0	4.50	0.52	
	경기	(193)	2.6	0.0	4.1	26.4	66.8	2.6	4.1	93.3	100.0	4.55	0.80	
	강원	(41)	0.0	2.4	2.4	31.7	63.4	2.4	2.4	95.1	100.0	4.56	0.67	
	충북	(42)	2.4	2.4	2.4	28.6	64.3	4.8	2.4	92.9	100.0	4.50	0.86	
	충남	(62)	0.0	0.0	1.6	21.0	77.4	0.0	1.6	98.4	100.0	4.76	0.47	
	전북	(21)	4.8	0.0	4.8	57.1	33.3	4.8	4.8	90.5	100.0	4.14	0.91	
	전남	(24)	4.2	0.0	4.2	29.2	62.5	4.2	4.2	91.7	100.0	4.46	0.93	
	경북	(93)	5.4	0.0	3.2	25.8	65.6	5.4	3.2	91.4	100.0	4.46	0.98	
	경남	(38)	2.6	0.0	2.6	34.2	60.5	2.6	2.6	94.7	100.0	4.50	0.80	
제주	(9)	0.0	0.0	0.0	33.3	66.7	0.0	0.0	100.0	100.0	4.67	0.50		
지역 특성	동 지역	(657)	1.4	0.2	2.6	31.8	64.1	1.5	2.6	95.9	100.0	4.57	0.69	0.471
	읍면 지역	(206)	2.9	0.5	1.9	28.6	66.0	3.4	1.9	94.7	100.0	4.54	0.82	

*p<.05, **p<.01, ***p<.001

<표 4-42> 다함께돌봄센터 만족도-중요도 분석 결과(IPA)

구분	항목	만족도	중요도	IPA 분석
이용 접근성	1. 아동이 집/학교에서 센터까지 이동하기 편하거나 가깝다	4.46	4.66	◎ 유지/강화
	2. 등교 전이나 저녁 7시 이후에도 센터 이용이 가능하다	3.78	3.87	△ 점진 개선
	3. 방학 중에도 센터 이용이 가능하다	4.78	4.83	◎ 유지/강화
	4. 센터 이용을 위한 대기자 수가 적다	3.77	4.25	△ 점진 개선
	5. 아동이 우선돌봄을 받을 수 있는 자격기준이 있다	4.13	4.29	△ 점진 개선
시설 환경	6. 센터 내부 공간이나 외부 환경이 안전하다	4.58	4.73	◎ 유지/강화
	7. 센터 내부 공간이나 외부 환경이 깨끗하고 쾌적하다	4.64	4.72	◎ 유지/강화
	8. 센터에 학습 도구·교구가 충분하다	4.52	4.62	◎ 유지/강화
	9. 선생님들의 자질과 전문성이 우수하다	4.57	4.70	◎ 유지/강화
인력	10. 선생님들과의 의사소통이나 정보 공유가 잘 된다	4.57	4.71	◎ 유지/강화
	11. 선생님 1인당 담당하는 아동 수가 적정하다	4.27	4.58	△ 점진 개선
	12. 센터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4.58	4.67	◎ 유지/강화
프로그램	13. 센터의 모든 프로그램은 자녀에게 흥미롭고 유익하다	4.56	4.69	◎ 유지/강화
	14. 센터의 숙제·학습지도가 학교 공부에 도움이 된다	4.34	4.51	△ 점진 개선
이용 효과	15. 센터 이용으로 보호자의 돌봄(양육) 부담이 줄어들었다	4.62	4.67	◎ 유지/강화
	16. 센터 이용으로 보호자의 경제·사회활동에 도움이 되었다	4.65	4.68	◎ 유지/강화
	17. 아동이 센터에 가는 것을 좋아한다	4.61	4.74	◎ 유지/강화

[그림 4-3]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만족도-중요도(IPA)



사. 다함께돌봄센터 개선사항

다함께돌봄센터가 현재 상황에서 가장 개선되어야 할 부분 1순위는 ‘프로그램 다양화 및 수준’이 24.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급식·간식비용 지원’(13.7%), ‘아동과 교사 비율’(12.1%), ‘센터 주변 환경’(11.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개선되어야 할 부분 2순위는 ‘프로그램 다양화 및 수준’이 21.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센터 환경·설비·학습교구’(16.1%), ‘급식·간식비용 지원’(13.4%), ‘센터 주변 환경’(9.2%) 등의 순이었다.

결과를 종합하면, 다함께돌봄센터 개선 사항으로는 프로그램 다양화 및 수준 제고, 아동 대 교사 비율 적정화, 센터 환경·설비·학습교구 보강, 급·간식 비용 지원이 우선적으로 지적되었다. 돌봄 제공의 질 제고, 프로그램 양적·질적 경쟁력 확보 외에 현재 다함께돌봄센터는 늘봄학교나 지역아동센터와 달리 이용자가 이용 비용을 부담하고 추가적으로 급·간식 비용도 지불하고 있어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된다. 학부모들은 비용을 고려하여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는 늘봄학교나 지역아동센터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지원에 대한 논의는 검토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여러 지자체에서는 다함께돌봄센터 급·간식비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표 4-43> 다함께돌봄센터 개선사항

(단위: %, 명)

구분	이용 비용	프로그램 다양화 수준	아동과 교사 비율	시설장· 교사 자질과 전문성	센터 주변 환경	보호자 -교사 의사소통 정보교환	센터 환경·설비 ·학습교구	급식·간식 의 질	급식·간식 비용 지원	기타	계(수)
1순위	8.0	24.7	12.1	4.9	11.4	5.4	6.8	7.5	13.7	5.6	100.0
2순위	4.6	21.8	8.6	7.0	9.2	8.8	16.1	7.9	13.4	2.7	(863)

<표 4-44> 다함께돌봄센터 개선사항(1순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이용 비용	프로그램 다양화 및 수준	아동과 교사 비율	시설장· 교사 자질과 전문성	센터 주변 환경	보호자 -교사 의사소통·정보교환	센터 환경·설비 ·학습교구	급식·간 식의 질	급식·간 식비용 지원	기타	x ²
전체		(863)	8.0	24.7	12.1	4.9	11.4	5.4	6.8	7.5	13.7	5.6	—
지역	서울	(132)	7.6	29.5	15.9	6.8	18.9	3.8	6.1	5.3	2.3	3.8	524.788
	부산	(78)	15.4	24.4	10.3	5.1	6.4	5.1	2.6	5.1	19.2	6.4	
	대구	(12)	8.3	16.7	0.0	8.3	8.3	0.0	16.7	0.0	41.7	0.0	
	인천	(37)	10.8	37.8	18.9	2.7	10.8	0.0	8.1	5.4	5.4	0.0	
	광주	(15)	26.7	6.7	0.0	0.0	13.3	6.7	26.7	6.7	13.3	0.0	
	대전	(42)	16.7	14.3	7.1	0.0	9.5	7.1	9.5	4.8	26.2	4.8	
	울산	(10)	30.0	20.0	10.0	0.0	20.0	0.0	0.0	0.0	20.0	0.0	
	세종	(14)	28.6	14.3	7.1	14.3	0.0	0.0	0.0	0.0	28.6	7.1	
	경기	(193)	3.1	23.3	16.6	5.2	7.3	6.7	8.8	9.8	11.9	7.3	
	강원	(41)	4.9	31.7	12.2	9.8	22.0	2.4	7.3	0.0	9.8	0.0	
	충북	(42)	9.5	31.0	9.5	4.8	7.1	0.0	4.8	4.8	26.2	2.4	
	충남	(62)	3.2	17.7	8.1	4.8	16.1	4.8	4.8	25.8	1.6	12.9	
	전북	(21)	9.5	23.8	23.8	0.0	4.8	4.8	4.8	4.8	23.8	0.0	
	전남	(24)	0.0	29.2	8.3	0.0	12.5	12.5	12.5	4.2	12.5	8.3	
	경북	(93)	4.3	28.0	6.5	4.3	15.1	6.5	3.2	7.5	15.1	9.7	
	경남	(38)	5.3	18.4	10.5	5.3	0.0	15.8	10.5	7.9	23.7	2.6	
	제주	(9)	22.2	11.1	0.0	0.0	11.1	11.1	0.0	0.0	44.4	0.0	
지역 특성	동 지역	(657)	8.7	25.3	12.5	4.7	11.1	4.4	7.2	6.8	13.9	5.5	31.542
	읍면 지역	(206)	5.8	22.8	10.7	5.3	12.1	8.7	5.8	9.7	13.1	5.8	

*p<.05, **p<.01, ***p<.001

<표 4-45> 다함께돌봄센터 개선사항(2순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이용 비용	프로그램 다양화 및 수준	아동과 교사 비용	시설장· 교사 자질과 전문성	센터 주변 환경	보호자 -교사 의사소통·정보교환	센터 환경·설비· 학습교구	급식·간 식의 질	급식·간 식비용 지원	기타	χ^2
전체	(863)	4.6	21.8	8.6	7.0	9.2	8.8	16.1	7.9	13.4	2.7	—
지역	서울	(132)	5.3	20.5	12.1	13.6	10.6	15.9	6.8	6.8	2.3	373.899 *
	부산	(78)	3.8	14.1	9.0	12.8	6.4	12.8	7.7	25.6	0.0	
	대구	(12)	33.3	0.0	8.3	0.0	16.7	0.0	16.7	8.3	8.3	
	인천	(37)	5.4	24.3	2.7	18.9	8.1	8.1	5.4	13.5	0.0	
	광주	(15)	6.7	13.3	0.0	0.0	0.0	13.3	13.3	33.3	6.7	
	대전	(42)	4.8	21.4	14.3	14.3	0.0	11.9	9.5	11.9	2.4	
	울산	(10)	20.0	0.0	0.0	20.0	10.0	20.0	0.0	30.0	0.0	
	세종	(14)	7.1	42.9	7.1	0.0	14.3	7.1	7.1	7.1	0.0	
	경기	(193)	2.6	20.2	8.3	8.3	11.4	19.7	7.3	9.8	3.6	
	강원	(41)	2.4	26.8	9.8	4.9	12.2	26.8	2.4	9.8	0.0	
	충북	(42)	2.4	33.3	7.1	4.8	11.9	16.7	2.4	14.3	2.4	
	충남	(62)	0.0	24.2	8.1	6.5	8.1	22.6	11.3	9.7	4.8	
	전북	(21)	19.0	19.0	9.5	9.5	14.3	4.8	9.5	14.3	0.0	
	전남	(24)	4.2	12.5	4.2	12.5	12.5	4.2	16.7	25.0	4.2	
	경북	(93)	3.2	22.6	8.6	8.6	5.4	16.1	9.7	17.2	5.4	
	경남	(38)	5.3	31.6	7.9	0.0	2.6	21.1	10.5	18.4	0.0	
	제주	(9)	11.1	55.6	0.0	11.1	0.0	0.0	0.0	0.0	0.0	
지역 특성	동 지역	(657)	5.2	20.2	8.7	7.5	9.1	15.2	7.5	13.9	2.6	23.927
	읍면 지역	(206)	2.9	26.7	8.3	5.3	7.8	18.9	9.2	12.1	2.9	

주: *p<.05, **p<.01, ***p<.001

4. 늘봄학교 이용 경험

가. 늘봄학교 인지 정도

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아동의 보호자들이 늘봄학교를 어느 정도 인지하는지 질문한 결과, ‘어느 정도 알고 있음’이 46.7%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들어본 적은 있으나 잘 모름’(36.8%), ‘매우 잘 알고 있음’(10.3%), ‘전혀 모름’(6.2%) 순이었다. 특히 늘봄학교를 전혀 모른다는 응답은 다함께돌봄센터(3.8%)보다 지역아동센터(7.8%) 이용 아동의 보호자가 높고, 서울(13.7%)과 충남(11.4%)에서 높게 나타났다.

<표 4-46> 늘봄학교 인지 정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모름	들어본 적은 있으나 잘 모름	어느 정도 알고 있음	매우 잘 알고 있음	χ^2
전체		(2,159)	6.2	36.8	46.7	10.3	—
기관 유형	지역아동센터	(1,296)	7.8	39.4	43.9	9.0	30.344 ***
	다함께돌봄센터	(863)	3.8	32.9	50.9	12.4	
지역	서울	(292)	13.7	31.5	46.6	8.2	122.027 ***
	부산	(135)	3.7	36.3	48.9	11.1	
	대구	(76)	3.9	43.4	43.4	9.2	
	인천	(88)	5.7	35.2	53.4	5.7	
	광주	(85)	4.7	43.5	37.6	14.1	
	대전	(101)	2.0	48.5	39.6	9.9	
	울산	(64)	6.3	53.1	35.9	4.7	
	세종	(31)	3.2	54.8	41.9	0.0	
	경기	(370)	6.5	42.4	43.0	8.1	
	강원	(104)	4.8	30.8	46.2	18.3	
	충북	(108)	4.6	32.4	46.3	16.7	
	충남	(114)	11.4	38.6	42.1	7.9	
	전북	(99)	7.1	36.4	48.5	8.1	
	전남	(133)	4.5	31.6	48.9	15.0	
	경북	(180)	1.7	27.2	55.0	16.1	
	경남	(143)	4.2	29.4	57.3	9.1	
	제주	(36)	2.8	41.7	52.8	2.8	
지역 특성	동 지역	(1,604)	6.5	37.4	46.1	10.0	2.612
	읍면 지역	(555)	5.4	35.0	48.3	11.4	

주: *p<.05, **p<.01, ***p<.001

현재 아동이 다니는 초등학교의 늘봄학교 운영 여부에 대해 ‘2024년 1학기부터 운영 중임’이라는 응답이 35.6%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잘 모르겠음’(22.2%), ‘운영하지 않음’(14.4%), ‘2024년 이전부터 시범운영 함’(14.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주(33.3%), 세종(25.8%), 전북(23.2%)에서는 아동의 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운영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타 시·도 대비 높았는데, 이는 늘봄학교가 현재 과도기적으로 운영되어 관련 정보가 다소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4-47> 현재 아동이 다니는 초등학교의 늘봄학교 운영 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운영하지 않음	2024년 이전부터 시범운영함	2024년 1학기부터 운영 중임	2024년 2학기부터 운영 중임	잘 모르겠음	x ²
전체		(2,159)	14.4	14.0	35.6	13.8	22.2	—
기관 유형	지역아동센터	(1,296)	17.1	17.1	32.5	10.6	22.6	70.816
	다함께돌봄센터	(863)	10.3	9.4	40.3	18.4	21.6	***
지역	서울	(292)	11.3	8.9	24.0	24.0	31.8	257.169 ***
	부산	(135)	10.4	16.3	46.7	7.4	19.3	
	대구	(76)	6.6	21.1	26.3	23.7	22.4	
	인천	(88)	11.4	15.9	30.7	17.0	25.0	
	광주	(85)	12.9	14.1	38.8	16.5	17.6	
	대전	(101)	9.9	28.7	22.8	21.8	16.8	
	울산	(64)	12.5	17.2	42.2	9.4	18.8	
	세종	(31)	25.8	16.1	16.1	9.7	32.3	
	경기	(370)	15.4	14.1	46.8	4.1	19.7	
	강원	(104)	15.4	22.1	38.5	12.5	11.5	
	충북	(108)	8.3	15.7	41.7	21.3	13.0	
	충남	(114)	21.1	9.6	36.0	10.5	22.8	
	전북	(99)	23.2	13.1	28.3	11.1	24.2	
	전남	(133)	20.3	13.5	36.8	2.3	27.1	
	경북	(180)	9.4	10.0	39.4	23.3	17.8	
경남	(143)	18.9	9.1	31.5	14.0	26.6		
제주	(36)	33.3	8.3	25.0	0.0	33.3		
지역 특성	동 지역	(1,604)	12.9	13.8	36.4	15.0	21.9	17.891
	읍면 지역	(555)	18.7	14.8	33.3	10.3	22.9	**

주: * $p < .05$, ** $p < .01$, *** $p < .001$

나. 늘봄학교 이용 유무 및 경험

초1 아동이 방과 후 지역아동센터 또는 다함께돌봄센터 외에 현재 늘봄학교를 이용하거나 이용한 경험이 있는지 질문한 결과,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이용한 경험이 없고, 현재도 이용하지 않음’이 73.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현재 이용하고 있음’(15.1%),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이용한 경험은 있으나, 현재는 이용하지 않음’(11.4%) 순으로 나타났다. 늘봄학교와 마을돌봄시설을 병행 이용하는 응답은 강원(27.9%), 경북(24.4%), 전남(22.6%), 충북(20.4%)에서 높았으며, 동지역(13.0%)보다 읍면 지역(21.1%)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표 4-48> 늘봄학교 이용 경험 유무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이용한 경험이 없고, 현재도 이용하지 않음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이용한 경험은 있으나, 현재는 이용하지 않음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현재 이용하고 있음	χ^2
전체		(2,159)	73.5	11.4	15.1	—
기관 유형	지역아동센터	(1,296)	72.9	13.2	13.9	11.996 **
	다함께돌봄센터	(863)	74.3	8.8	16.9	
지역	서울	(292)	77.4	7.2	15.4	106.095 ***
	부산	(135)	72.6	16.3	11.1	
	대구	(76)	71.1	13.2	15.8	
	인천	(88)	79.5	12.5	8.0	
	광주	(85)	69.4	16.5	14.1	
	대전	(101)	73.3	14.9	11.9	
	울산	(64)	68.8	26.6	4.7	
	세종	(31)	87.1	6.5	6.5	
	경기	(370)	75.4	14.9	9.7	
	강원	(104)	57.7	14.4	27.9	
	충북	(108)	64.8	14.8	20.4	
	충남	(114)	83.3	3.5	13.2	
	전북	(99)	75.8	11.1	13.1	
	전남	(133)	69.9	7.5	22.6	
	경북	(180)	66.7	8.9	24.4	
	경남	(143)	77.6	4.9	17.5	
제주	(36)	86.1	2.8	11.1		
지역 특성	동 지역	(1,604)	74.8	12.2	13.0	22.057 ***
	읍면 지역	(555)	69.5	9.4	21.1	

주: *p<.05, **p<.01, ***p<.001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거나 이용을 중단한 주된 이유 1순위는 ‘늘봄학교보다 지역아동센터 이용을 선호해서’가 30.3%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늘봄학교보다 다함께돌봄센터 이용을 선호해서’(21.8%), ‘늘봄학교에 대해 잘 몰라서’(20.0%), ‘아동의 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운영하지 않아서’(11.2%) 등의 순이었다.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아동의 보호자들은 마을돌봄시설에 대한 신뢰와 기관 이용 선호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늘봄학교에 대해 잘 알지 못해서 이용하지 않거나 중단하였다는 응답이 차순위여서 늘봄학교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습득될 경우, 마을돌봄시설보다 늘봄학교를 선호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늘봄학교에 대해 잘 몰라서라는 응답이 35.2%로 가장 높았다. 제주는 아동의 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운영하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28.1%로 가장 높았다. 광주, 제주, 경남, 전남은 지역아동센터를 더 선호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모두 40%를 넘었다. 부산(35.0%)과 충남(32.3%)은 다함께돌봄센터를 더 선호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높았다.

2순위는 ‘아동이 원하지 않아서’가 19.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사교육(학원, 과외) 시간과 맞지 않아서’(17.1%), ‘늘봄학교보다 지역아동센터 이용을 선호해서’(13.9%), ‘늘봄학교보다 다함께돌봄센터 이용을 선호해서’(12.0%) 등의 순이었다.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할 경우, 학원 시간과 맞지 않는다는 응답이 20.6%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많은 아동이 방과 후에 학원을 오가며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표 4-49> 늘봄학교 프로그램 미이용/중단 이유(1순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늘봄학교 에 대해 잘 몰라서	아동의 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운영하지 않아서	늘봄학교보 다 지역아동 센터 이용을 선호해서	늘봄학교보 다 다함께 돌봄센터 이용을 선호해서	늘봄학교 프로그램 이 불만족 스러워서	사교육 시간과 맞지 않아서	급식· 간식이 불만족 스러워서	아동이 장애나 다른 어려움이 있어서	아동이 원하지 않아서	기타	x ²
전체		(1,833)	20.0	11.2	30.3	21.8	4.0	5.3	1.1	0.7	3.1	2.5	—
기관 유형	지역아동센터	(1,116)	20.9	13.7	47.0	4.3	3.6	3.9	1.2	0.8	3.2	1.5	728.617 ***
	다함께돌봄센터	(717)	18.5	7.4	4.3	49.1	4.7	7.5	1.1	0.4	2.8	4.0	
지역	서울	(247)	35.2	6.5	23.9	19.8	4.0	6.1	0.4	0.8	1.2	2.0	558.004 ***
	부산	(120)	12.5	7.5	24.2	35.0	5.8	5.0	2.5	0.8	4.2	2.5	
	대구	(64)	17.2	15.6	37.5	12.5	3.1	7.8	1.6	0.0	4.7	0.0	
	인천	(81)	22.2	9.9	30.9	22.2	3.7	4.9	1.2	0.0	0.0	4.9	
	광주	(73)	12.3	9.6	45.2	12.3	5.5	2.7	2.7	1.4	6.8	1.4	
	대전	(89)	9.0	18.0	31.5	23.6	4.5	4.5	2.2	2.2	1.1	3.4	
	울산	(61)	18.0	19.7	24.6	23.0	6.6	1.6	0.0	1.6	3.3	1.6	
	세종	(29)	13.8	20.7	37.9	6.9	3.4	0.0	3.4	3.4	0.0	10.3	
	경기	(334)	17.4	11.1	25.7	28.7	4.5	5.1	0.9	0.0	2.4	4.2	
	강원	(75)	20.0	9.3	33.3	18.7	4.0	10.7	0.0	2.7	1.3	0.0	
	충북	(86)	24.4	10.5	26.7	25.6	2.3	3.5	1.2	0.0	5.8	0.0	
	충남	(99)	23.2	16.2	19.2	32.3	3.0	2.0	0.0	1.0	1.0	2.0	
	전북	(86)	19.8	11.6	33.7	14.0	3.5	7.0	3.5	0.0	4.7	2.3	
	전남	(103)	22.3	13.6	41.7	9.7	1.0	5.8	1.0	0.0	2.9	1.9	
	경북	(136)	11.8	6.6	30.9	27.2	4.4	8.1	0.7	0.0	5.9	4.4	
	경남	(118)	20.3	9.3	42.4	10.2	5.1	5.1	0.8	0.8	5.9	0.0	
	제주	(32)	18.8	28.1	43.8	6.3	0.0	3.1	0.0	0.0	0.0	0.0	
지역 특성	동 지역	(1,395)	20.6	10.3	28.5	23.3	4.4	5.3	1.1	0.9	2.8	2.8	39.389
	읍면 지역	(438)	17.8	14.4	36.1	17.1	2.7	5.3	1.1	0.0	3.9	1.6	

*p<.05, **p<.01, ***p<.001

218 늘봄학교 시행에 따른 마을돌봄시설 영향분석 및 발전방향 연구

<표 4-50> 늘봄학교 프로그램 미이용/중단 이유(2순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늘봄학교에 대해 잘 몰라서	아동의 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운영하지 않아서	늘봄학교보다 지역아동센터 이용을 선호해서	늘봄학교보다 다함께돌봄센터 이용을 선호해서	늘봄학교 프로그램이 불만족스러워서	사교육 시간과 맞지 않아서	급식·간식이 불만족스러워서	아동이 장애나 다른 어려움이 있어서	아동이 원하지 않아서	기타	x ²
전체		(1,833)	9.2	6.8	13.9	12.0	11.3	17.1	5.7	1.6	19.0	3.3	—
기관 유형	지역아동센터	(1,116)	9.2	7.8	18.0	6.3	12.0	14.9	7.3	2.1	20.2	2.3	177.796
	다함께돌봄센터	(717)	9.1	5.3	7.5	20.9	10.2	20.6	3.3	1.0	17.3	4.7	***
지역	서울	(247)	10.1	10.9	15.8	17.8	7.3	10.9	1.6	1.2	21.1	3.2	647.640 ***
	부산	(120)	8.3	3.3	6.7	9.2	21.7	16.7	4.2	2.5	22.5	5.0	
	대구	(64)	12.5	3.1	17.2	7.8	18.8	4.7	9.4	3.1	21.9	1.6	
	인천	(81)	6.2	7.4	22.2	9.9	18.5	14.8	8.6	2.5	8.6	1.2	
	광주	(73)	9.6	2.7	13.7	5.5	12.3	19.2	5.5	2.7	23.3	5.5	
	대전	(89)	7.9	3.4	11.2	11.2	19.1	13.5	12.4	1.1	19.1	1.1	
	울산	(61)	6.6	11.5	11.5	11.5	18.0	21.3	6.6	0.0	11.5	1.6	
	세종	(29)	13.8	13.8	10.3	20.7	3.4	10.3	10.3	0.0	13.8	3.4	
	경기	(334)	10.5	4.8	9.0	14.1	10.8	24.0	5.4	1.8	16.2	3.6	
	강원	(75)	1.3	8.0	14.7	14.7	14.7	13.3	6.7	1.3	22.7	2.7	
	충북	(86)	8.1	5.8	9.3	11.6	14.0	26.7	5.8	1.2	11.6	5.8	
	충남	(99)	12.1	12.1	16.2	12.1	5.1	14.1	9.1	3.0	13.1	3.0	
	전북	(86)	7.0	8.1	19.8	9.3	5.8	18.6	4.7	0.0	26.7	0.0	
	전남	(103)	5.8	6.8	19.4	7.8	12.6	22.3	7.8	1.0	14.6	1.9	
	경북	(136)	9.6	3.7	9.6	9.6	8.1	16.9	4.4	2.2	30.9	5.1	
	경남	(118)	11.9	5.9	23.7	11.0	4.2	13.6	4.2	0.8	21.2	3.4	
	제주	(32)	12.5	15.6	18.8	9.4	0.0	15.6	3.1	3.1	15.6	6.3	
지역 특성	동 지역	(1,395)	8.7	6.4	13.4	12.3	12.3	17.1	5.7	1.9	18.9	3.3	33.534
	읍면 지역	(438)	10.7	8.2	15.5	11.2	8.0	17.1	5.7	0.9	19.4	3.2	

주: *p<.05, **p<.01, ***p<.001

현재 이용하는 늘봄학교 프로그램(복수응답)은 ‘초1 맞춤형(정규수업 후 2시간, 13시~15시)’이 56.0%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초1 선택형(오후늘봄, 초1 맞춤형 프로그램 후 15시~17시)’(22.0%), ‘초1 선택형(오후늘봄, 정규수업 후 13시~17시)’(21.1%), ‘초1 선택형(아침늘봄, 정규수업 전)’(12.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초1 선택형’(17시~20시)는 1.6%에 불과했다.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은 늘봄학교를 13~15시(59.9%)에 가장 많이 이용하고, 다음으로 13~17시(26.1%), 15~17시(19.4%)에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은 늘봄학교를 13~15시(53.6%)에 가장 많이 이용하고, 다음으로 15~17시(23.6%), 13~17시(17.9%)에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늘봄학교 이용에 따라 마을돌봄시설 이용 시간대가 늦어지거나 중복되는 문제를 확인할 수 있다.

<표 4-51> 늘봄학교 이용 프로그램

(단위: 명, %, 복수응답)

구분	사례수	초1 맞춤형 (13시~15시)	초1 선택형 (7시~9시)	초1 선택형 (15시~17시)	초1 선택형 (13시~17시)	초1 선택형 (17시~20시)
전체	(573)	56.0	12.2	22.0	21.1	1.6
기관 유형						
지역아동센터	(351)	53.6	14.8	23.6	17.9	1.1
다함께돌봄센터	(222)	59.9	8.1	19.4	26.1	2.3
지역						
서울	(66)	60.6	9.1	18.2	21.2	6.1
부산	(37)	64.9	5.4	21.6	10.8	2.7
대구	(22)	45.5	18.2	22.7	18.2	0.0
인천	(18)	38.9	5.6	44.4	33.3	0.0
광주	(26)	46.2	15.4	23.1	26.9	0.0
대전	(27)	48.1	25.9	22.2	25.9	0.0
울산	(20)	25.0	15.0	55.0	10.0	0.0
세종	(4)	50.0	0.0	25.0	25.0	0.0
경기	(91)	59.3	19.8	18.7	11.0	0.0
강원	(44)	63.6	4.5	15.9	20.5	0.0
충북	(38)	60.5	21.1	13.2	15.8	0.0
충남	(19)	68.4	0.0	15.8	26.3	0.0
전북	(24)	62.5	8.3	25.0	25.0	4.2
전남	(40)	37.5	12.5	22.5	42.5	2.5
경북	(60)	55.0	10.0	16.7	28.3	1.7
경남	(32)	71.9	6.3	25.0	12.5	3.1
제주	(5)	80.0	0.0	80.0	40.0	0.0
지역 특성						
동 지역	(404)	55.0	12.6	23.0	20.0	2.0
읍면 지역	(169)	58.6	11.2	19.5	23.7	0.6

일주일 기준 늘봄학교 프로그램 참여 빈도는 ‘1주일에 5번(매일)’이라는 응답이 36.5%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1주일에 2번’(29.1%), ‘1주일에 3번’(16.9%), ‘1주일에 1번’(11.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충남(73.7%), 전남(62.5%), 부산(56.8%)에서 매일 이용한다는 응답이 높았다. 지역특성별로는 동 지역(28.7%)보다 읍면지역(55.0%)에서 늘봄학교 프로그램에 매일 참여한다는 응답이 높았다. 동 지역은 읍면지역보다 일주일에 2~3일 이용한다는 응답이 높았다.

<표 4-52> 일주일 기준 늘봄학교 프로그램 참여 빈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일주일에 1번	일주일에 2번	일주일에 3번	일주일에 4번	일주일에 5번	x ²
전체		(573)	11.7	29.1	16.9	5.8	36.5	—
기관 유형	지역아동센터	(351)	10.3	31.1	18.2	5.4	35.0	4.341
	다함께돌봄센터	(222)	14.0	26.1	14.9	6.3	38.7	
지역	서울	(66)	19.7	33.3	22.7	9.1	15.2	115.944 ***
	부산	(37)	5.4	21.6	10.8	5.4	56.8	
	대구	(22)	9.1	36.4	13.6	9.1	31.8	
	인천	(18)	5.6	38.9	16.7	5.6	33.3	
	광주	(26)	11.5	42.3	23.1	7.7	15.4	
	대전	(27)	7.4	48.1	29.6	0.0	14.8	
	울산	(20)	5.0	45.0	35.0	5.0	10.0	
	세종	(4)	25.0	25.0	25.0	0.0	25.0	
	경기	(91)	18.7	33.0	17.6	3.3	27.5	
	강원	(44)	6.8	25.0	15.9	4.5	47.7	
	충북	(38)	2.6	28.9	21.1	5.3	42.1	
	충남	(19)	0.0	10.5	15.8	0.0	73.7	
	전북	(24)	12.5	20.8	20.8	16.7	29.2	
	전남	(40)	5.0	22.5	2.5	7.5	62.5	
	경북	(60)	13.3	16.7	13.3	8.3	48.3	
	경남	(32)	21.9	25.0	6.3	0.0	46.9	
	제주	(5)	20.0	40.0	0.0	0.0	40.0	
지역 특성	동 지역	(404)	12.6	31.7	21.3	5.7	28.7	42.051
	읍면 지역	(169)	9.5	23.1	6.5	5.9	55.0	***

주: *p<.05, **p<.01, ***p<.001

늘봄학교를 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와 병행 이용하는 주된 이유 1순위는 ‘방과 후 늘봄학교 프로그램 이용 시간대가 맞아서’가 31.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늘봄학교 프로그램 비용이 무료이므로’(21.6%), ‘늘봄학교는 별도의 이용 자격기준이 없으므로’(12.6%), ‘늘봄학교는 이용 대기가 필요 없으므로’(12.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1순위로 방과 후 늘봄학교 프로그램 이용 시간대가 맞다는 응답은 동지역(26.7%)보다 읍면 지역(43.8%)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는 농어촌지역 특성상 이동 거리가 멀기 때문에 수업이 종료된 후 이동하지 않고 바로 교내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늘봄학교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2순위 기준으로는 ‘늘봄학교 프로그램 비용이 무료이므로’가 21.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늘봄학교 프로그램이 만족스러워서’(19.9%), ‘방과 후 늘봄학교 프로그램 이용 시간대가 맞아서’(14.8%), ‘사교육을 이용할 필요가 없으므로’(12.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하면, 초1 아동의 보호자들은 방과후 늘봄학교 프로그램 이용 시간대가 맞고 비용이 무료이고 프로그램 만족도 역시 적정하여 마을돌봄시설 이외에 늘봄학교도 함께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마을돌봄시설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비용과 프로그램에 대한 고민이 더욱 필요해 보인다.

222 늘봄학교 시행에 따른 마을돌봄시설 영향분석 및 발전방향 연구

<표 4-53> 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 외 늘봄학교 이용 이유(1순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방과 후 늘봄학교 프로그램 이용 시간대가 맞아서	늘봄학교는 이용 대기가 필요 없으므로	늘봄학교는 별도의 이용 자격기준이 없으므로	늘봄학교 프로그램 비용이 무료이므로	늘봄학교 프로그램이 만족스러워서	사교육을 이용할 필요가 없으므로	아동이 원해서	기타	χ^2
전체	(573)	31.8	12.4	12.6	21.6	10.8	3.8	4.5	2.4	—
기관 유형	지역아동센터	(351)	29.9	13.4	15.7	18.8	11.1	3.7	5.1	2.3
	다함께돌봄센터	(222)	34.7	10.8	7.7	26.1	10.4	4.1	3.6	2.7
지역	서울	(66)	31.8	10.6	7.6	33.3	7.6	6.1	3.0	0.0
	부산	(37)	18.9	16.2	16.2	29.7	8.1	0.0	5.4	5.4
	대구	(22)	36.4	18.2	18.2	13.6	9.1	0.0	0.0	4.5
	인천	(18)	38.9	16.7	16.7	11.1	11.1	5.6	0.0	0.0
	광주	(26)	26.9	11.5	19.2	23.1	7.7	0.0	11.5	0.0
	대전	(27)	22.2	14.8	18.5	33.3	3.7	0.0	3.7	3.7
	울산	(20)	0.0	15.0	45.0	25.0	15.0	0.0	0.0	0.0
	세종	(4)	25.0	25.0	0.0	25.0	0.0	25.0	0.0	0.0
	경기	(91)	27.5	24.2	16.5	18.7	7.7	1.1	3.3	1.1
	강원	(44)	29.5	2.3	15.9	20.5	13.6	6.8	4.5	6.8
	충북	(38)	36.8	7.9	15.8	23.7	5.3	0.0	7.9	2.6
	충남	(19)	52.6	10.5	0.0	10.5	5.3	10.5	10.5	0.0
	전북	(24)	41.7	8.3	8.3	29.2	8.3	0.0	4.2	0.0
	전남	(40)	45.0	10.0	2.5	12.5	15.0	10.0	5.0	0.0
	경북	(60)	38.3	8.3	5.0	16.7	15.0	5.0	5.0	6.7
	경남	(32)	34.4	3.1	3.1	12.5	28.1	9.4	6.3	3.1
	제주	(5)	20.0	0.0	0.0	40.0	40.0	0.0	0.0	0.0
지역 특성	동 지역	(404)	26.7	14.6	13.9	25.7	9.7	2.5	4.5	2.5
	읍면 지역	(169)	43.8	7.1	9.5	11.8	13.6	7.1	4.7	2.4

주: *p<.05, **p<.01, ***p<.001

<표 4-54> 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 외 늘봄학교 이용 이유(2순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방과 후 늘봄학교 프로그램 이용 시간대가 맞아서	늘봄학교는 이용 대기가 필요 없으므로	늘봄학교는 별도의 이용 자격기준이 없으므로	늘봄학교 프로그램 비용이 무료이므로	늘봄학교 프로그램이 만족스러워서	사교육을 이용할 필요가 없으므로	아동이 원해서	기타	x ²	
전체	(573)	14.8	10.3	12.0	21.1	19.9	12.9	6.1	2.8	—	
기관 유형	지역아동센터	(351)	12.3	10.0	11.4	23.9	21.7	12.3	5.1	3.4	22.127
	다함께돌봄센터	(222)	18.9	10.8	13.1	16.7	17.1	14.0	7.7	1.8	
지역	서울	(66)	21.2	12.1	7.6	21.2	15.2	12.1	4.5	6.1	249.856
	부산	(37)	27.0	18.9	13.5	16.2	5.4	16.2	2.7	0.0	
	대구	(22)	4.5	4.5	9.1	22.7	22.7	18.2	13.6	4.5	
	인천	(18)	5.6	5.6	33.3	22.2	16.7	11.1	5.6	0.0	
	광주	(26)	11.5	11.5	15.4	38.5	15.4	3.8	0.0	3.8	
	대전	(27)	11.1	7.4	22.2	22.2	22.2	14.8	0.0	0.0	
	울산	(20)	35.0	35.0	0.0	10.0	10.0	10.0	0.0	0.0	
	세종	(4)	25.0	25.0	25.0	0.0	0.0	0.0	25.0	0.0	
	경기	(91)	7.7	12.1	17.6	20.9	27.5	9.9	3.3	1.1	
	강원	(44)	22.7	9.1	13.6	18.2	18.2	11.4	2.3	4.5	
	충북	(38)	5.3	18.4	7.9	5.3	42.1	15.8	5.3	0.0	
	충남	(19)	10.5	5.3	10.5	26.3	15.8	26.3	5.3	0.0	
	전북	(24)	16.7	4.2	4.2	37.5	16.7	12.5	4.2	4.2	
	전남	(40)	7.5	2.5	5.0	25.0	25.0	15.0	17.5	2.5	
	경북	(60)	18.3	5.0	8.3	25.0	18.3	10.0	11.7	3.3	
	경남	(32)	12.5	0.0	12.5	15.6	15.6	21.9	12.5	9.4	
	제주	(5)	40.0	20.0	20.0	20.0	0.0	0.0	0.0	0.0	
지역 특성	동 지역	(404)	14.4	11.9	13.1	22.0	18.6	12.6	5.0	2.5	19.435
	읍면 지역	(169)	16.0	6.5	9.5	18.9	23.1	13.6	8.9	3.6	

주: *p<.05, **p<.01, ***p<.001

다. 늘봄학교 이용 의향

아동의 방과 후 돌봄을 위해 늘봄학교를 계속 또는 향후 ‘이용 의향이 있다’ 39.9%, ‘이용 의향이 없다’ 60.1%로 나타났다. 기관 유형별로는 지역아동센터(35.4%)보다 다함께돌봄센터(46.6%) 이용 아동의 보호자가 늘봄학교 이용 의향이 더 높았다. 지역별로는 충남(52.6%), 전남(45.9%), 충북(45.4%), 인천(44.3%)에서 늘봄학교 이용 의향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울산(78.1%), 대구(68.4%), 광주(68.2%), 부산(68.1%)에서는 늘봄학교 이용 의향 없음이 더 높았다.

<표 4-55> 늘봄학교 계속 또는 향후 이용 의향 유무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없음	있음	χ^2
전체		(2,159)	60.1	39.9	—
기관 유형	지역아동센터	(1,296)	64.6	35.4	26.935***
	다함께돌봄센터	(863)	53.4	46.6	
지역	서울	(292)	59.2	40.8	32.304**
	부산	(135)	68.1	31.9	
	대구	(76)	68.4	31.6	
	인천	(88)	55.7	44.3	
	광주	(85)	68.2	31.8	
	대전	(101)	65.3	34.7	
	울산	(64)	78.1	21.9	
	세종	(31)	64.5	35.5	
	경기	(370)	59.2	40.8	
	강원	(104)	57.7	42.3	
	충북	(108)	54.6	45.4	
	충남	(114)	47.4	52.6	
	전북	(99)	64.6	35.4	
	전남	(133)	54.1	45.9	
	경북	(180)	57.2	42.8	
	경남	(143)	60.8	39.2	
	제주	(36)	55.6	44.4	
지역 특성	동 지역	(1,604)	60.8	39.2	1.151
	읍면 지역	(555)	58.2	41.8	

주: *p<.05, **p<.01, ***p<.001

‘늘봄학교를 이용할 의향이 없는 응답자’가 방과 후 아동 돌봄을 위해 향후 이용을 희망하는 기관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고자 함’이 49.8%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하고자 함’(38.8%), ‘아이돌봄서비스 등 다른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함’(8.5%), ‘사립학원을 다니고자 함’(2.2%) 등의 순으로 나타나, 마을돌봄시설에 대한 신뢰가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성향은 지역아동센터 이용자보다 다함께돌봄센터 이용자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표 4-56> 방과 후 아동 돌봄을 위한 향후 이용 희망 기관(늘봄학교 이용 의향 없음)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지역아동 센터를 이용하고자 함	다함께돌봄 센터를 이용하고자 함	아이돌봄 서비스 등 다른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함	사립 학원을 다니고자 함	부모· 가족이 집에서 돌봄 예정임	χ^2
전체		(1,298)	49.8	38.8	8.5	2.2	0.7	—
기관 유형	지역아동센터	(837)	76.1	9.4	11.8	2.0	0.6	884.728 ***
	다함께돌봄센터	(461)	2.0	92.2	2.4	2.6	0.9	
지역	서울	(173)	50.3	43.4	4.6	1.2	0.6	213.236 ***
	부산	(92)	31.5	55.4	6.5	3.3	3.3	
	대구	(52)	71.2	17.3	7.7	3.8	0.0	
	인천	(49)	49.0	46.9	2.0	2.0	0.0	
	광주	(58)	58.6	25.9	13.8	0.0	1.7	
	대전	(66)	37.9	43.9	13.6	3.0	1.5	
	울산	(50)	40.0	36.0	18.0	6.0	0.0	
	세종	(20)	60.0	35.0	5.0	0.0	0.0	
	경기	(219)	32.4	50.7	13.7	3.2	0.0	
	강원	(60)	38.3	41.7	20.0	0.0	0.0	
	충북	(59)	39.0	39.0	15.3	6.8	0.0	
	충남	(54)	46.3	48.1	5.6	0.0	0.0	
	전북	(64)	71.9	17.2	9.4	0.0	1.6	
	전남	(72)	77.8	18.1	1.4	1.4	1.4	
	경북	(103)	50.5	45.6	2.9	1.0	0.0	
	경남	(87)	75.9	21.8	0.0	2.3	0.0	
	제주	(20)	80.0	10.0	0.0	5.0	5.0	
지역 특성	동 지역	(975)	46.7	41.8	8.4	2.3	0.8	17.704 **
	읍면 지역	(323)	59.1	29.7	8.7	2.2	0.3	

주: *p<.05, **p<.01, ***p<.001

한편, ‘늘봄학교를 이용할 의향이 있는 응답자’가 아동의 방과 후 돌봄을 위해 지역 아동센터 또는 다함께돌봄센터를 계속 이용할 의향을 질문한 결과, ‘늘봄학교와 지역 아동센터를 함께 이용하고자 함’이라는 응답이 51.5%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늘봄학교와 다함께돌봄센터를 함께 이용하고자 함’(40.3%), ‘늘봄학교만 이용하고, 지역 아동센터나 다함께돌봄센터는 이용할 생각이 없음’(8.2%)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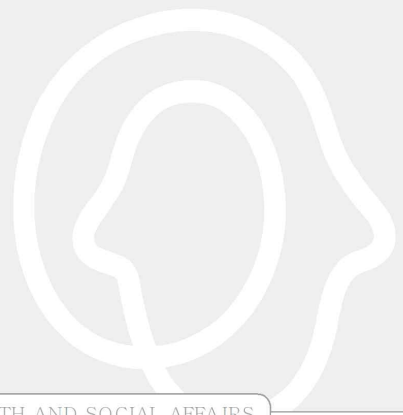
지역아동센터 이용자는 늘봄학교와 지역아동센터를 함께 이용하겠다는 응답이 86.5%, 다함께돌봄센터 이용자는 늘봄학교와 다함께돌봄센터를 함께 이용하겠다는 응답이 80.3%로 모두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구(87.5%), 광주(74.1%), 경남(69.6%)에서 늘봄학교와 지역아동센터를 함께 이용하겠다는 응답이 타 시·도보다 높았다. 반면, 세종(63.6%), 충남(56.7%), 경기(55.6%), 부산(53.5%)에서는 늘봄학교와 다함께돌봄센터를 함께 이용하겠다는 응답이 타 시·도보다 높았다.

<표 4-57> 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 지속 이용 의향 유무(늘봄학교 이용 의향 있음)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늘봄학교만 이용하고,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돌봄센터는 이용할 생각이 없음	늘봄학교와 지역아동센터를 함께 이용하고자 함	늘봄학교와 다함께돌봄센터를 함께 이용하고자 함	χ^2
전체		(861)	8.2	51.5	40.3	—
기관 유형	지역아동센터	(459)	8.3	86.5	5.2	534.668 ***
	다함께돌봄센터	(402)	8.2	11.4	80.3	
지역	서울	(119)	8.4	54.6	37.0	87.394 ***
	부산	(43)	7.0	39.5	53.5	
	대구	(24)	8.3	87.5	4.2	
	인천	(39)	7.7	53.8	38.5	
	광주	(27)	7.4	74.1	18.5	
	대전	(35)	20.0	48.6	31.4	
	울산	(14)	21.4	50.0	28.6	
	세종	(11)	9.1	27.3	63.6	
	경기	(151)	9.3	35.1	55.6	
	강원	(44)	4.5	50.0	45.5	
	충북	(49)	8.2	57.1	34.7	
	충남	(60)	6.7	36.7	56.7	
	전북	(35)	14.3	65.7	20.0	
	전남	(61)	6.6	63.9	29.5	
	경북	(77)	2.6	48.1	49.4	
	경남	(56)	3.6	69.6	26.8	
	제주	(16)	18.8	56.3	25.0	
지역 특성	동 지역	(629)	9.1	52.8	38.2	5.355
	읍면 지역	(232)	6.0	47.8	46.1	

주: *p<.05, **p<.01, ***p<.001



제 5 장

결론

제1절 연구 결과 종합

제2절 마을돌봄시설 발전방향

제 5 장 결론

제1절 연구 결과 종합

1. 늘봄학교 시행에 따른 마을돌봄시설 영향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마을돌봄시설 행정조사와 FGI 분석 결과, 초기 우려와 달리 지역아동센터 또는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들이 체감하는 변화나 영향은 아직까지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늘봄학교가 2024년부터 시행되었으나 기존 학교돌봄을 이용한 경험이 없는 1학년만을 신규 대상으로 실시하고, 2~6학년 아동은 기존과 동일한 돌봄 체계를 적용받기 때문이다. 2025년에 1~2학년으로 대상을 확대하더라도 이 역시 기존 학교돌봄 이용 아동은 늘봄학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로 인해 늘봄학교와 기존 초등돌봄교실 및 방과후돌봄교실과의 차별성은 가시적이지 않다. 또한 늘봄학교가 제도상 과도기 단계에 있어 안정적인 법적·제도적 운영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점도 낮은 변화 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즉, 늘봄학교 근거법이 부재한 상태에서 서둘러 시행되었다는 문제점이 초기부터 지적되었고, 물리적 공간, 프로그램, 인력 구성도 완전히 구축되지 못하였다. 희망하는 1학년 아동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 대기자 발생 문제는 해결되었으나, 학교 현장에서는 혼선이 여전히 존재할 수 있는 구조이다.

둘째, 늘봄학교 시행 이후의 가장 큰 변화는 1학년 아동의 이용 시작 시간대 지연이다. 마을돌봄시설 종사자 FGI 분석 결과, 기존에는 아동의 최초 방문 시간대가 13시~14시였다면 현재는 15시 이후로 늦춰졌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즉, 늘봄학교의 초1 맞춤형 프로그램(13~15시 운영) 참여 후에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하는 1학년 아동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기존에는 수업 종료 및 학교돌봄 시간이 달라 초등학교 저학년과 고학년의 센터 이용 시간대가 분산되었으나, 앞으로는 15~18시에 전체 학년 아동이 더욱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종사자 1인이 돌볼 수 있는 아동의 비율이 증가하고, 공간 활용이나 프로그램 운영 방식에도 변화가 필요해질 수 있다.

셋째, 늘봄학교 시행 이후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하는 아동 중 저학년은 감소하고 고학년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현원 변화는 거의 없으나, 마을돌봄시설 행정조사와 FGI 분석 결과, 일부 센터에서는 1학년 아동의 신규 이용 문의가 감소하고 대기 취소가 증가하였다는 응답이 있었다. 그러나 이는 늘봄학교 영향보다 전반적인 아동 인구 감소로 초등학교 신입생이 점차 감소하는 영향이 더 직접적인 것으로 시설 종사자들은 느끼고 있었다. 일부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수가 점차 감소한다면 초등학교 저학년 중심의 돌봄에서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이나 중·고등학생까지 이용자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주요 돌봄 대상자 변경을 고민하고 있었다.

넷째, 마을돌봄시설-늘봄학교 연계·협력 추진은 미진하였다. 마을돌봄시설 행정조사와 FGI 분석 결과, 2024년 현재 늘봄학교와 연계·협력 중이라는 응답은 7.6%에 불과하였고, 연계·협력 계획이 있다는 응답도 16.0%에 그쳤다. 늘봄학교는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종합 교육 프로그램으로 발표되었다. 그러나 이는 학교 중심의 연계·협력으로, 학교는 필요에 따라 마을돌봄시설 외에도 다양한 외부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늘봄협의체 구성 여부나 연계 협력 관련한 정보도 마을돌봄시설 종사자들에게 충분히 공유되거나 전달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대다수였다. 무엇보다 교육(지원)청, 지자체, 초등학교 등 유관기관의 관심과 마을돌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면 연계·협력 체계 구축은 향후에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다섯째, 늘봄학교 시행 이후 마을돌봄시설의 프로그램 운영 변화나 인력 유출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소수의 센터에서는 아동들이 늦게 센터로 출석하여 원활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인원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고, 처우 문제로 늘봄학교 인력으로 이직하거나, 더 높은 강사 단가로 마을돌봄시설에서 늘봄학교로 외부강사가 이동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는 늘봄학교가 안정되지 않아 내·외부 인력이나 프로그램 운영에 심각한 수준의 변화는 없으나, 마을돌봄시설의 처우 문제가 일정 수준 보장되지 않는다면 인력 유출은 예상된다. 일부 지자체의 호봉제 미도입, 낮은 인건비, 열악한 근무환경은 인력 유출 문제 외에 돌봄서비스 질 저하와도 관련되므로 정부 및 지자체 차원의 지원 확대는 앞으로도 해결해야 할 숙제이다.

여섯째, 늘봄학교 시행 이후에도 학부모들은 늘봄학교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마을돌봄시설에 대한 이해도는 더욱 낮고 관련 정보 습득도 부족하였다. 기존 초등돌봄교실이나 방과후학교 운영 시에도 학부모들은 마을돌봄시설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였다. 1학년 학부모 대상의 FGI 분석 결과, 늘봄학교 이용 부모 대부분은 지역 아동센터나 다함께돌봄센터를 들어본 적이 없다는 응답이 많았고, 이들 기관의 지역 내 설치 여부, 기능, 이용 대상, 이용 신청 방법에 대해서도 정보가 거의 없었다. 무엇보다 늘봄학교가 마을돌봄시설과 연계하여 운영 가능하다는 정보를 습득하지 못하였다. 학교의 늘봄학교 안내에서도 이러한 내용은 전혀 전달되지 않고 있었으며, 마을돌봄시설 관련해서는 쉽고 빠른 정보 접근성도 미흡한 상황이었다. 학부모들은 늘봄학교 프로그램 질은 정확히 판단할 수 없으나 갓 입학한 어린 자녀가 방과 후에 학교 밖으로 이동하지 않고 교내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에 무엇보다 안전하다고 믿고 있었다. 지역사회에서의 마을돌봄에 대한 정보가 학부모들에게 차단되지 않고 충분히 공유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특히 지역아동센터를 알고 있는 부모들은 지역아동센터가 저소득가정이나 다문화가정의 아동이 다니는 곳으로 자신들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높고 두 자녀 이상 가정도 우선돌봄에 해당하는 것을 잘 모르고 있어 센터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과 인식 변화도 필요해 보인다.

일곱째, 현재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하는 학부모들은 해당 센터에 대한 만족도와 신뢰가 높았으나, 센터 차원에서 프로그램 질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마을돌봄시설 이용 실태 및 욕구 조사 결과, 이들은 늘봄학교보다 센터 이용을 더 선호하였고, 향후에도 이용 의향이 높았다. 늘봄학교와 마을돌봄시설을 병행 이용하는 이유로 방과 후에 늘봄학교 프로그램 이용 시간대가 맞고, 무료이며, 별도 이용 자격기준이 없고, 프로그램 수준도 적정함을 꼽았다. 늘봄학교를 계속 이용하겠다는 응답은 지역아동센터보다 다함께돌봄센터에서 더 높았는데, 특히 다함께돌봄센터는 이용 대상 아동이 정확히 중복되므로 향후 비용 문제, 기관 자체적인 돌봄 우선순위 조정 등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지역아동센터 개선사항으로는 프로그램 다양화 및 질적 개선, 아동과 교사 비율 완화가 지적되었으며, 농어촌지역에서는 특히 센터 환경 개선과 설비·학습교구 보강에 대한 욕구가 높았다. 다함께돌봄센터 개선사항 역시 유사하게 프로그램 다양화 및 질적 개선, 급·간식비 지원, 센터 환경·설비·학습교구 보강, 아동과 교사 비율 완화가 우선적으로 지적되었다. 따라서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가장 필요한 상황이다.

제2절 마을돌봄시설 발전방향

1. 마을돌봄시설 특성화

지역에서 늘봄학교,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대상 아동은 초1~6학년이 동일하게 중복되며, 이용 시간, 제공 프로그램도 유사하다. 이로 인해 정해진 아동 수 내에서 유사기관 간 경쟁관계가 양산되고, 학부모 사이에서 선호가 높고 상대적으로 지원이 더 많은 늘봄학교로의 아동 쏠림 우려가 제기되었다.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아동복지시설인 지역아동센터와 틈새 초등돌봄을 제공하는 다함께돌봄센터는 각자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다만,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돌봄욕구를 가진 아동이 증가하고, 이들 아동에 대한 돌봄 사각지대에 존재할 수 있어 이에 대응하는 마을돌봄시설 특성화 방안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첫째, 마을돌봄시설 특성화와 관련하여 그동안 다양한 추진 시도와 노력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평가와 점검을 통해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현재 특수한 돌봄서비스 욕구가 있는 아동의 돌봄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하여 장애·다문화가정(이주배경)·북한이탈주민가정 아동의 비율이 높거나 야간·주말·공휴일 등에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 대상으로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이 제공 중이다.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은 선행연구에서 제안한 개선방안(이주연 외, 2022)과 사업 평가를 통해 현행 지원사업이 더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비와 인건비 지원을 확대하고, 전문성 강화를 위한 종사자 자격기준 마련, 맞춤형 특화 프로그램 개발·적용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점차 다양해지는 특성화 대상 아동이 이용 가능한 통합 운영 센터의 확대가 필요하다. 현재 특성화 확대가 필요한 대상은 지속 증가하고 있는 ‘경계선지능’, ‘ADHD’ 등 ‘등록 장애아동으로 분류되지 않으나 복합적인 특징을 갖고 있어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맞춤형 돌봄과 교육지원이 요구되는 아동’이다. 이러한 아동은 특성상 개별적인 집중 돌봄이 중요하다. 따라서 일정 수준 자격을 갖춘 보조 인력이 별도로 돌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인건비 지원이 보장되어야 하고, 해당 센터의 종사자는 특성화 대상 아동에 대한 전문 지식과 자격기준을 갖출 수 있어야 한다.

셋째, 특수한 욕구를 가진 아동 대상 특성화 프로그램을 개발 및 모델화하여 프로그

램의 질적 수준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분명 특수한 돌봄이 필요한 아동 수요는 존재하나 센터에서 이들 아동에게 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고, 관련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특수육구별 전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모델화할 것을 제안한다. 예를 들면, 경계선지능아동 대상으로는 문해력 제고를 위한 반복적인 기초 학습, 심리정서 지원, 언어발달 지원, 사회성 교육 등의 프로그램이 검토될 수 있다.

2. 서비스 질 개선

첫째, 급·간식비 무료 지원 확대 및 질 제고를 제안한다. 늘봄학교와 지역아동센터는 이용 요금과 급·간식비가 무료라는 점이 주요한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다함께돌봄센터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나 보호자가 이용요금 외에 급·간식비도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다함께돌봄센터 이용료는 일정 수준 자부담이 지자체별로 상이하게 적용된다고 할지라도 우수한 질의 급식과 간식을 보장하며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무상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는 다함께돌봄센터 이용료나 급·간식비를 지원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강원도 원주시는 이용료 10만원 지원, 경북 영천시도 급식비, 간식비 전액 지원, 전남 장수군은 학기 중 간식비 일부 지원, 방학 중 급식비 일부 지원 등을 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지역아동센터에서도 양질의 급·간식 제공이 가능하도록 지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둘째, 늘봄학교와 유사한 수준의 프로그램 제공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조사 결과 마을돌봄시설의 프로그램 질 제고, 학습도구·교구의 양적·질적 보완 요구가 높았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및 관계부처 합동 발표자료('24.6)에 의하면, '다양한 학교밖돌봄 시설에 대해 늘봄학교 수준의 양질의 공간·인력·프로그램 기준 마련'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아동이 방과 후에 어떠한 돌봄기관을 이용하던지 유사한 수준으로 양질의 환경에서 전문인력을 통해 돌봄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늘봄학교와 마을돌봄시설 관계자가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 공동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공통된 프로그램 커리큘럼 공유를 통해 아동이 학교 안팎에서 돌봄을 받더라도 유사한 수준의 돌봄 보장이 필요하다. 향후 프로그램 공급처인 늘봄허브가 구축된다면, 동일한 자원 활용이 예상되어 늘봄학교와 마을돌봄시설의 자원활용과 프로그램 운영의 경계도 약화될 수 있다.

셋째, 돌봄 아동 집중 시간대에 추가 인력 투입이 필요하다. 늘봄학교 시행 이후 가장 큰 변화는 아동 이용시간대가 15시~18시에 집중된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초등 저학년과 고학년의 수업 종료 시간이 달라 돌봄 아동이 분산되는 효과가 있었으나, 늘봄학교와 마을돌봄시설을 병행이용하게 되면서 마을돌봄시설 이용 시작 시간대가 3시 이후로 지연되었다. 따라서 14:30~18:30까지 최소 4시간 추가적인 돌봄 보조인력을 투입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특히 아동 과밀지역 중심으로 이러한 보조인력 추가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 마을돌봄시설 역할 재정립

첫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및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4년 6월에 발표한 “저출생 저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동 자료에 의하면 2025년부터 학교 밖돌봄시설은 (가칭)‘늘봄센터’로 명칭을 통일하여 ‘늘봄’을 초등돌봄 브랜드로 일원화할 예정이다. 학교밖돌봄시설에는 보건복지부 소관의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여성가족부 소관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가 존재한다. 그러나 늘봄학교와 달리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는 「아동복지법」에 근거한 설치·운영 목적이 규정되어 분명한 역할이 존재하므로 단순히 명칭만 통일하고 그 목적과 기능, 세부 운영사항은 현재대로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명칭 통일과 함께 두 센터를 동일 기관으로 통폐합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수반되어야 한다. 어떠한 결정을 내릴 것인지에 따라 마을돌봄시설의 역할이 새롭게 정립되기 때문이다.

1안으로 센터명만 바꿀 경우,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늘봄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하위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게 된다. 그리고 늘봄센터 유형별 목적과 기능을 구분하여 규정해야 한다. 관련 사업 지침에서도 이러한 변경 사항이 반영되어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2안으로 두 센터가 통폐합된다면 관련 법령과 사업 운영, 인력 기준, 시설 설치 기준, 예산지원 기준, 평가 등에 이르는 사업 지침의 전반적인 개정이 요구된다. 다만, 두 센터의 기능을 완전히 동일하게 할 것인지, 특성화 방식으로 구분할 것인지도 논의가 필요하다.

늘봄센터로 명칭이 통일될 경우, 기관에 대한 인지도 제고나 이미지 개선의 긍정적인 효과는 있으나, 기관별 서비스에 대한 혼선이 존재하게 된다. 또한 명칭 통일과 함

께 18세 미만 아동에게 방과 후 및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와 1~6학년 초등학생에게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다함께돌봄센터의 기능 조정이 이루어진다면 예산, 인력, 설치·운영, 이용 대상 등의 세부 사항들이 쟁점화될 수 있다. 또한 늘봄학교 수준의 양질의 공간·인력·프로그램 기준을 두 센터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수준으로 변경하려는 것인지 구체적 계획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둘째, 지역아동센터 우선돌봄아동 비중의 유연화를 통해 취약계층 중심 돌봄에서 전체 아동 돌봄으로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 늘봄학교 이용대상은 ‘희망하는 초등학생 100%’로 이용 자격기준을 모두 배제한 상태에서 이용 우선순위까지 부여하고 있다.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서는 단계적으로 늘봄학교 프로그램 무상 운영 확대 추진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2025년 늘봄학교 확대 과정에서 3~6학년 대상으로 저소득층·맞벌이가정과 더불어 다자녀(2자녀 이상) 가정에도 돌봄교실 우선순위를 부여할 예정이다. 이는 지역아동센터의 우선돌봄아동 기준과 다함께돌봄센터의 주요 이용아동과 일부 중복되므로 일부 학부모는 늘봄학교만 이용하는 선택을 할 수 있다. 2025년 늘봄학교의 적극적인 확대 전략으로 인해 마을돌봄시설은 향후 초등학교 저학년 외에 고학년 이용자 수까지 감소하여 정원 충원이 어려울 수도 있다.

따라서 아동 인구는 지속 감소하고, 늘봄학교는 무상으로 자격 기준 없이 확대를 도모하는 상황에서 마을돌봄시설도 우선 이용 자격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역아동센터의 우선돌봄아동은 취약계층 아동과 2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이며, 시설 정원의 50% 이상은 우선돌봄아동이어야 하고, 일반아동은 50% 범위에서 등록 가능하다. 1안으로 일반아동의 최대 등록범위를 지역 구분 없이 최대 70%로 확대하여 신규 아동 발굴의 어려움을 일정 부분 해소할 필요가 있다. ‘2024년 지역아동센터 사업 안내’에서도 시·군·구청장은 지역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아동 비중을 농어촌 및 도서·벽지지역은 70% 내에서, 그 외 지역은 60% 내에서 임의구역 등으로 구분하여 일반아동 등록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보건복지부, 2024a, pp.39-40). 따라서 이러한 지역별 차등 적용이 아닌 동일 적용 방식으로 일반아동이 최대 70% 이내에 등록 가능하도록 사업지침 변경을 제안한다. 장기적으로 이용 아동 특성을 지속 분석하여 일반아동 등록 비중은 수요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2안으로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역시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으로 이용대상을 설정하고, 대기자 발생 시에만 우선돌봄 혹은 우선순위 아동 기준을 적용하도

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늘봄학교와 마을돌봄 이용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지역사회 내에서 아동과 보호자가 학교돌봄과 마을돌봄 중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지역 아동센터의 연령기준에서 중·고등학생은 지역아동센터를 계속 이용한 아동만 적용되므로 지속 이용이라는 조건을 삭제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

셋째, 지역아동센터는 현재 18세 미만 아동이 이용 가능한 아동복지시설로, 학령기를 구분한 센터 운영을 검토할 수 있다. 이미 청소년 전용 지역아동센터(1318 Happy Zone)가 운영되고 있으나, 전국에 몇 개소만 설치되어 있다. 중·고등학령기 18세 미만 아동이 이용가능한 마을돌봄시설이 지역사회에 충분하지 않으므로 기존 운영 중인 청소년 전용 지역아동센터의 성과와 한계를 종합적으로 심층 평가하여 발전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초등학생에게 집중된 방과 후 돌봄만이 아니라 방과 후에 지역사회 내 돌봄의 기회가 적은 중·고등학생을 위한 안전 공간과 프로그램 제공은 중요하다. 본 연구의 FGI에서도 다양한 연령대의 아동이 지역아동센터를 함께 이용하는 것에 거부감이 존재하였고, 연령별 프로그램 운영에도 센터 내 공간 제약이 존재하였다. 따라서 지역특성과 돌봄 욕구를 파악하여 아동 학령기에 맞는 센터로 다양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4. 마을돌봄시설-늘봄학교 연계·협력 강화

첫째, 마을돌봄시설-늘봄학교 연계·협력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늘봄학교 근거법이 선결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자원과의 연계·협력 방안에 대한 체계적 운영 모형이 제도적으로 확립되는 것이 타당하다.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그 실효성은 의문이다.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와 교육자치가 분리 운영되는 구조이므로 늘봄학교와 마을돌봄시설을 포함한 지역자원의 원활한 연계·협력·활용을 위해서는 늘봄학교 근거법 마련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공간이나 인력을 연계·협력하려고 해도 늘봄학교 예산을 마을돌봄시설 예산으로 일부 전용하는데 한계가 존재한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기존 온종일돌봄체계 구축으로 학교와 마을돌봄기관 간 연계·협력을 추진해 온 바 있다. 예를 들어 경북의 ‘굿센스 사업’은 초등학교,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가 사업에 참여하여 방과 후 및 방학 중, 야간·주말 돌봄서비스, 긴급돌

봄 등을 함께 제공하고 있다. 주요 성과로 아동과 보호자의 만족도가 높고 사업 전반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센터 관계자들의 업무 부담이 과중되고 예산 지원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굿센스 사업 업무의 중심적 역할은 지역아동센터가 담당하였던 반면, 학교 및 지자체 담당자들은 잦은 인사이동으로 담당자 교체와 부재, 사업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기관 간 원활한 협력과 연계가 어려웠다. 따라서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기관 간 업무 분담에 대한 명확한 논의와 협력, 의사소통체계 일원화가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또한 지역 특성과 대상을 고려한 전략적 홍보, 종사자 지원 강화, 이용자 중심의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예산 확대 및 지역사회 관심과 적극적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하나영 외, 2024). 이러한 사례는 마을돌봄시설-늘봄학교 연계·협력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둘째,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돌봄센터는 늘봄학교의 보조·보충적 역할이 아닌 상호 지원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현재 늘봄학교에서 제시하는 연계·협력은 ‘운영공간’ 중심이며, 마을돌봄시설은 늘봄학교 활성화와 안정화를 위한 외부 가용자원 중 하나로 기능할 수 있다. 따라서 늘봄학교를 위한 일방적인 자원 활용이 아닌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상생과 상호지원, 지역자원의 원활한 연계·협력을 위한 보건복지부-교육부, 교육(지원)청, 지자체, 학교 차원의 협의와 지원이 병행 필요하다.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서는 늘봄학교의 방학 중 돌봄 공백 대응을 위해 지자체 돌봄 연계를 제시하고 있다. 늘봄학교의 보충적 역할이 아닌 상호 지원의 관점에서 마을돌봄시설 공간 활용을 통한 방학 중 또는 학기 중 늘봄학교 운영 시 마을돌봄 시설로의 예산 교부, 인력 지원, 프로그램 운영 방식에 대한 구체적 안내가 필요하다. 센터 내 정해진 공간과 정원 문제, 기존 아동에 대한 배려 필요 등으로 인해 프로그램 운영 방식을 기존 아동과 분리독립할 것인지 통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요구된다. 센터 등록 아동과 늘봄학교 아동이 분리독립하여 동 시간대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면, 공간 대여 형식으로 센터 내 다른 공간에서 프로그램이 진행될 것이므로 기존 센터 이용 아동에 대한 배려가 우선되어야 한다. 센터 등록 아동과 늘봄학교 아동이 센터 내 동일 공간에서 동 시간대에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면 센터에 등록되지 않은 늘봄학교 참여 아동이 센터의 현원으로 인정되는지, 그리고 정원을 초과하여 늘봄학교 인원을 수용해도 되는지 등 명확한 지침이 필요하다. 또한 학교 밖에 별도로 설치되는 거점형 늘봄센터 공간을 인근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돌봄센터에서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의 협의가 필요하다.

셋째,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한 지역사회 내 인지도 제고를 위한 전략적이고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교육(지원)청, 학교, 학부모에게 두 센터의 인지도는 상당히 낮은 수준이었다. 학부모들은 지역사회 내 지역아동센터 혹은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여부와 기능, 차이점을 알지 못해 늘봄학교를 선택하는 경우가 다수임이 확인되었다. 또한 센터의 명칭도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워 쉽게 인지하지 못하였다. 무엇보다 늘봄학교가 마을돌봄시설과 연계·협력을 통해 운영 가능하다는 점도 대부분 모르고 있었다.

아동의 보호자들은 돌봄 이용을 위한 신청 방법을 모르거나, 지역별로 상이하게 운영되는 오전·저녁돌봄, 토요일·공휴일 돌봄, 일시돌봄 제공, 특수목적형 센터에 대해서도 정보 공유가 미흡하여 이에 대한 적극적·구체적 안내 필요하다. 현재 지자체에서도 매 학기 시작 전 마을돌봄시설별 정원 및 현원 현황을 파악하여 관할 교육청에 공유하고 있다.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에서도 학기 시작 전에 이용 수요조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별 늘봄학교,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수요를 교육청과 지자체에서 모두 파악이 가능하므로 공유된 정보를 바탕으로 지역 내 초등돌봄의 쏠림이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교육청과 지자체는 총괄 조정의 역할이 가능하다. 이를 바탕으로 지자체-교육(지원)청-초등학교-마을돌봄시설 간 협의를 거쳐 매년 초등학교 입학·개학 전 또는 돌봄 수요조사 시기에 마을돌봄시설 이용 안내 및 홍보 자료를 구체적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이 연계·협력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 또한 지역별로 마을돌봄시설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마을돌봄 이용 대상 아동과 보호자에게 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시설 환경, 제공 프로그램, 돌봄 방식 등에 대한 충분한 안내와 정보 전달을 받을 수 있도록 행사를 개최하고 홍보할 필요가 있다.



- 강지원, 최혜진, 임완섭, 황안나, 안영, 조동훈, 김우성. (2020). 사회보장분야 사각지대 축소와 부정적 지출 관리방안 연구-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보고서2020-51.
- 국회입법조사처. (2024).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 제8권: 교육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한국교육신문. (2023.1.9.). 2025년부터 전국에서 '늘봄학교' 운영... 교육·돌봄 국가책임 강화. [보도자료] 중 (별첨) 늘봄학교 추진방안.
-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boardSeq=93613&lev=0&searchType=null&>
- 김연자, 박현승. (2024). 아동복지제도 방과 후 돌봄서비스에 관한 연구. 산업진흥연구, 9(1).
- 보건복지부. (2024a). 2024년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운영 안내
- 보건복지부. (2024b). 2024년 다함께돌봄센터 사업 안내
- 보건복지부. (2024c). 2024년 아동복지분야 사업안내 1권.
- 보건복지부. (2023.1.9). 방과후 돌봄 필요 아동에게 촘촘한 돌봄서비스 제공-20시까지 돌봄 시간 연장, 우선돌봄아동 범위 확대 등-. [보도자료].
-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374497&tag=&nPage=86](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374497&>tag=&nPage=86)
- 보건복지부. (2023). 2022년 12월말 기준. 전국 지역아동센터 통계조사 보고서.
-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2023). 2022년 12월말 기준. 전국 다함께돌봄센터 통계조사 데이터.
- 사회복지공동모금회.(2023). 2024년 복권기금 야간보호사업 공모사업 신청 안내문.
- 양애경, 정현웅. (2021). 국외 선진 방과 후 활동의 사례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연구. 방과후 학교연구,8(2). 1-36.
- 양윤이, 양애경. (2022). 학교안과 학교밖 돌봄운영의 실태 및 개선점에 관한 인식비교. 방과후 학교연구, 9(1), 1-29.
- 육아정책연구소. (2023). 영유아와 초등자녀의 긴급돌봄 수요분석.
- 이주연, 류정희, 주하나, 박세경, 이보람, 최복천. (2022).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개선 방안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4.06.19.).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보도자료] 중 (별첨) 1 저출생 반전을 위한 대책(관계부처 합동).

<https://www.betterfuture.go.kr/front/notificationSpace/pressReleaseDetail.do?articleId=325>

정영모. (2021). 정부 부처 ‘간’ 온종일 돌봄 정책 비교 및 시설 연계 강화 방안. 문화와 융합, 43(2), 691-703.

하나영, 김하은, 이연주, 정송화. (2024). 마을밀착형 지역특화공모사업 ‘굿센스’ 성과연구: 경상북도를 중심으로. 방과후학교연구, 11(1), 57-86.

Martilla, J. A. & James, J. C. (1977).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Journal of Marketing, 41(1), 77-79.



[부록 1] 마을돌봄시설 이용 실태 및 욕구 조사표

K I H A S 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본 조사표에 기재된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비밀이 보장됩니다.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등에 대한 조항)

통계 작성 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마을돌봄시설 이용 실태 및 욕구 조사

안녕하십니까?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의뢰를 받아 『**늘봄학교 시행에 따른 마을돌봄시설 영향분석 및 발전방향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의 일환으로 마을돌봄시설인 지역아동센터 또는 다함께돌봄센터(서울: 우리동네키움센터)의 이용 경험과 개선 욕구, 2024년부터 시행된 늘봄학교 이용 경험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본 조사는 현재 지역아동센터 또는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전국의 2024년 기준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귀하께서는 온라인/모바일 응답 방식으로 조사에 참여하시며, 설문 응답시간은 약 10분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귀하께서 응답해 주신 모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보호) 및 제34조(통계종사자의 의무)에 따라 통계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그 비밀은 반드시 보장됩니다. 원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조사 참여를 거절할 수 있고, 응답 도중 설문 참여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조사 거절 및 중단으로 인한 위험과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0조(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 조치)에 의거 응답한 내용은 데이터화하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내 보안처리가 되어있는 본 연구의 연구진 컴퓨터에 파일로 보관할 예정이며, 연구 종료 시 전량 폐기할 예정입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지역사회 초등돌봄서비스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귀한 정책 자료로 활용됩니다. 연구의 최종결과물(연구보고서, 데이터)은 비식별화 절차를 거친 이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6조(공공데이터의 제공)에 의해 공개될 수 있습니다. 조사결과는 연구용도로만 사용될 것이며, 국내외 사회복지 및 사회정책 분야의 연구자료로 발표 및 게재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가 연구의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귀하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0월

연구책임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임성은 부연구위원

연구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다음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강현주 연구원 ☎ 000-000-0000

◆ 조사 수행기관: 00000 ☎ 00-000-0000

A. 응답자 일반 특성

❖ 다음은 귀하의 일반적인 특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해 주십시오.

A1. 아동과의 관계	① 부 ② 모 ③ 조부 ④ 조모 ⑤ 친인척 ⑥ 기타 보호자(_____)
A2. 거주지역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세종 ⑨ 경기 ⑩ 강원 ⑪ 충북 ⑫ 충남 ⑬ 전북 ⑭ 전남 ⑮ 경북 ⑯ 경남 ⑰ 제주
A3. 거주지역 특성	① 동 지역 ② 읍·면 지역
A4. 성별	① 남 ② 여
A5. 연령	만 _____세
A6. 가구유형	① 양부모가구 ② 한부모가구 ③ 조손가구 ④ 기타 가구(_____)
A7. 다문화가구 여부	① 다문화가구임 ② 다문화가구 아님
A8. 자녀의 수	(_____) 명 (※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을 포함한 자녀의 수) ※ 자녀가 아닌 경우, 초등학교 1학년 아동과 그 형제·자매의 수를 기입함.
A9. 맞벌이 여부	① 맞벌이 ② 외벌이
A10. 수급가구 여부	① 수급가구 ② 차상위가구 ③ 비수급 일반가구

❖ 다음은 귀댁의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일반적인 특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해 주십시오.

A11. 아동의 성별	① 남 ② 여
A12. 아동의 장애 유무	① 없음 ② 있음(등록장애 유형:_____)
A13. 아동의 어려움 (※ 복수응답)	① 없음 ② 과잉행동·주의력 부족(ADHD) ③ 인지능력 부족(경계선지능) ④ 회피·방어적 태도 ⑤ 폭력적 태도 ⑥ 감정조절 어려움 ⑦ 사회성 부족 ⑧ 한국어 미숙 ⑨ 기타(_____)

❖ 귀댁의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은 현재 지역아동센터 또는 다함께돌봄센터 중 어느 기관을 다니고 있습니까?

A14. 이용 센터	① 지역아동센터 (☞ 영역 B로 이동)
	② 다함께돌봄센터(※ 서울: “우리동네키움센터”) (☞ 영역 C로 이동)

B. 지역아동센터 이용 경험 및 개선 욕구

❖ 귀댁의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지역아동센터 이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해 주십시오.

B1. 아동은 현재 다니는 지역아동센터를 언제부터 이용하였습니까?

- ①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② 2024년 1학기부터 ③ 2024년 여름방학부터 ④ 2024년 2학기부터

B2. 아동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선순위로 2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_____ 2순위: _____) (※ 복수응답)

- ① 집/학교에서 가까워서 ② 놀봄학교(초등돌봄교실)를 현재 이용할 수 없어서
③ 돌봄비용이 부담 없어서 ④ 사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서
⑤ 방과 후/방학 중 마땅히 아동을 돌볼 사람이 없어서 ⑥ 센터에서 급식·간식을 제공하므로
⑦ 센터의 프로그램이 다양하고 내용이 좋아서 ⑧ 원하는 시간에 이용할 수 있어서
⑨ 센터가 안전하고 선생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⑩ 주변의 소개·추천으로
⑪ 아동 본인이 원해서 ⑫ 기타 (_____)

B3. 현재 아동은 1주일에 며칠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합니까? (____)일

B3-1. 그렇다면 아동은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합니까? 평균 (____) 시간/일

B3-2. 아동이 하루에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시간대를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복수응답)

- ① 7~9시 ② 12시~13시 ③ 13시~14시 ④ 14시~15시 ⑤ 15시~16시
⑥ 16시~17시 ⑦ 17시~18시 ⑧ 18시~19시 ⑨ 19시~20시 ⑩ 20시 이후

B4. 2024년 기준, 아동이 지역아동센터 이용을 위해 대기할 한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없음 ② 있음 ③ (____) 개월 대기 (※ 대기 경험이 2회 이상인 경우, 최장 대기기간을 기입)

B5. 귀댁의 아동이 이용하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문항별로 어느 정도 만족하시는지 응답해 주십시오.

구분	내용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불만족
이용 접근성	1. 아동이 집/학교에서 센터까지 이동하기 편하거나 가깝다	①	②	③	④	⑤
	2. 등교 전이나 저녁 7시 이후에도 센터 이용이 가능하다	①	②	③	④	⑤
	3. 방학 중에도 센터 이용이 가능하다	①	②	③	④	⑤
	4. 센터 이용을 위한 대기자 수가 적다	①	②	③	④	⑤
	5. 아동이 우선돌봄을 받을 수 있는 자격기준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시설 환경	6. 센터 내부 공간이나 외부 환경이 안전하다	①	②	③	④	⑤
	7. 센터 내부 공간이나 외부 환경이 깨끗하고 쾌적하다	①	②	③	④	⑤
	8. 센터에 학습 도구·교구가 충분하다	①	②	③	④	⑤
인력	9. 선생님들의 자질과 전문성이 우수하다	①	②	③	④	⑤
	10. 선생님들과의 의사소통이나 정보 공유가 잘 된다	①	②	③	④	⑤
	11. 선생님 1인당 담당하는 아동 수가 적정하다	①	②	③	④	⑤
프로 그램	12. 센터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13. 센터의 모든 프로그램은 자녀에게 흥미롭고 유익하다	①	②	③	④	⑤
	14. 센터의 숙제·학습지도가 학교 공부에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이용 효과	15. 센터 이용으로 보호자의 돌봄(양육) 부담이 줄어들었다	①	②	③	④	⑤
	16. 센터 이용으로 보호자의 경제·사회활동에 도움이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17. 아동이 센터에 가는 것을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B6. 귀댁의 아동이 현재 이용하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보통 ④ 만족 ⑤ 매우 만족

B7. 귀댁의 아동이 이용하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문항별로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응답해 주십시오.

구분	내용	매우 중요하지 않음	중요하지 않음	보통	중요	매우 중요
이용 접근성	1. 아동이 집/학교에서 센터까지 이동하기 편하거나 가깝다	①	②	③	④	⑤
	2. 등교 전이나 저녁 7시 이후에도 센터 이용이 가능하다	①	②	③	④	⑤
	3. 방학 중에도 센터 이용이 가능하다	①	②	③	④	⑤
	4. 센터 이용을 위한 대기자 수가 적다	①	②	③	④	⑤
	5. 아동이 우선돌봄을 받을 수 있는 자격기준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시설 환경	6. 센터 내부 공간이나 외부 환경이 안전하다	①	②	③	④	⑤
	7. 센터 내부 공간이나 외부 환경이 깨끗하고 쾌적하다	①	②	③	④	⑤
	8. 센터에 학습 도구·교구가 충분하다	①	②	③	④	⑤
인력	9. 선생님들의 자질과 전문성이 우수하다	①	②	③	④	⑤
	10. 선생님들과의 의사소통이나 정보 공유가 잘 된다	①	②	③	④	⑤
	11. 선생님 1인당 담당하는 아동 수가 적정하다	①	②	③	④	⑤
프로 그램	12. 센터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13. 센터의 모든 프로그램은 자녀에게 흥미롭고 유익하다	①	②	③	④	⑤
	14. 센터의 숙제·학습지도가 학교 공부에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이용 효과	15. 센터 이용으로 보호자의 돌봄(양육) 부담이 줄어들었다	①	②	③	④	⑤
	16. 센터 이용으로 보호자의 경제·사회활동에 도움이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17. 아동이 센터에 가는 것을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B8. 귀하는 지역아동센터가 현재 상황에서 가장 개선되어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대로 2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_____ 2순위: _____) (* 복수응답)

- ① 이용 자격기준 ② 프로그램 다양화 및 수준 ③ 아동과 교사 비율
 ④ 시설장·교사 자질과 전문성 ⑤ 센터 주변 환경 ⑥ 보호자-교사 의사소통·정보교환
 ⑦ 센터 환경·설비·학습교구 ⑧ 급식·간식의 질 ⑨ 기타(_____)

C.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경험 및 개선 욕구

❖ 귀댁의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다함께돌봄센터 이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해 주십시오.

C1. 아동은 현재 다니는 다함께돌봄센터를 언제부터 이용하였습니까?

- ①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② 2024년 1학기부터 ③ 2024년 여름방학부터 ④ 2024년 2학기부터

C2. 아동이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선순위로 2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_____ 2순위: _____) (※ 복수응답)

- ① 집/학교에서 가까워서 ② 늘봄학교(초등돌봄교실)를 현재 이용할 수 없어서
③ 돌봄비용이 부담 없어서 ④ 사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서
⑤ 방과 후/방학 중 마땅히 아동을 돌볼 사람이 없어서 ⑥ 센터에서 급식·간식을 제공하므로
⑦ 센터의 프로그램이 다양하고 내용이 좋아서 ⑧ 원하는 시간에 이용할 수 있어서
⑨ 센터가 안전하고 선생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⑩ 주변의 소개·추천으로
⑪ 아동 본인이 원해서 ⑫ 일시(긴급)돌봄이 가능해서
⑬ 기타 (_____)

C3. 현재 아동은 1주일에 며칠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합니까? (____)일

C3-1. 그렇다면 아동은 하루에 몇 시간 정도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합니까? 평균 (____) 시간/일

C3-2. 아동이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하는 시간대를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복수응답)

- ① 7~9시(시범사업) ② 12시~13시 ③ 13시~14시 ④ 14시~15시 ⑤ 15시~16시
⑥ 16시~17시 ⑦ 17시~18시 ⑧ 18시~19시 ⑨ 19시~20시 ⑩ 20시 이후

C4. 2024년 기준, 아동이 다함께돌봄센터 이용을 위해 대기를 한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없음 ② 있음 ③ (____) 개월 대기 (※ 대기 경험이 2회 이상인 경우, 최장 대기기간을 기입)

C5. 아동은 현재 다니는 다함께돌봄센터에서 급식이나 간식을 먹고 있습니까?

- ① 급식만 먹음 ② 간식만 먹음 ③ 급식과 간식 모두 먹음 ④ 급식과 간식 모두 먹지 않음

C5-1. (C5에서 ①③ 응답) 급식비는 얼마입니까? (____)원/월

C5-2. (C5에서 ②③ 응답) 간식비는 얼마입니까? (____)원/월

C6. 급식비와 간식비를 제외한 다함께돌봄센터 월 이용요금은 얼마입니까? ()원/월

C7. 귀댁의 아동이 이용하는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해 문항별로 어느 정도 만족하시는지 응답해 주십시오.

구분	내용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이용 접근성	1. 아동이 집/학교에서 센터까지 이동하기 편하거나 가깝다	①	②	③	④	⑤
	2. 등교 전이나 저녁 7시 이후에도 센터 이용이 가능하다	①	②	③	④	⑤
	3. 방학 중에도 센터 이용이 가능하다	①	②	③	④	⑤
	4. 센터 이용을 위한 대기자 수가 적다	①	②	③	④	⑤
	5. 아동이 우선돌봄을 받을 수 있는 자격기준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시설 환경	6. 센터 내부 공간이나 외부 환경이 안전하다	①	②	③	④	⑤
	7. 센터 내부 공간이나 외부 환경이 깨끗하고 쾌적하다	①	②	③	④	⑤
	8. 센터에 학습 도구·교구가 충분하다	①	②	③	④	⑤
인력	9. 선생님들의 자질과 전문성이 우수하다	①	②	③	④	⑤
	10. 선생님들과의 의사소통이나 정보 공유가 잘 된다	①	②	③	④	⑤
	11. 선생님 1인당 담당하는 아동 수가 적정하다	①	②	③	④	⑤
프로 그램	12. 센터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13. 센터의 모든 프로그램은 자녀에게 흥미롭고 유익하다	①	②	③	④	⑤
	14. 센터의 숙제·학습지도가 학교 공부에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이용 효과	15. 센터 이용으로 보호자의 돌봄(양육) 부담이 줄어들었다	①	②	③	④	⑤
	16. 센터 이용으로 보호자의 경제·사회활동에 도움이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17. 아동이 센터에 가는 것을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C8. 귀댁의 아동이 현재 이용하는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보통 ④ 만족 ⑤ 매우 만족

C9. 귀댁의 아동이 이용하는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해 문항별로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응답해 주십시오.

구분	내용	매우 중요하지 않음	중요하지 않음	보통	중요	매우 중요
이용 접근성	1. 아동이 집/학교에서 센터까지 이동하기 편하거나 가깝다	①	②	③	④	⑤
	2. 등교 전이나 저녁 7시 이후에도 센터 이용이 가능하다	①	②	③	④	⑤
	3. 방학 중에도 센터 이용이 가능하다	①	②	③	④	⑤
	4. 센터 이용을 위한 대기자 수가 적다	①	②	③	④	⑤
	5. 아동이 우선돌봄을 받을 수 있는 자격기준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시설 환경	6. 센터 내부 공간이나 외부 환경이 안전하다	①	②	③	④	⑤
	7. 센터 내부 공간이나 외부 환경이 깨끗하고 쾌적하다	①	②	③	④	⑤
	8. 센터에 학습·도구·교구가 충분하다	①	②	③	④	⑤
인력	9. 선생님들의 자질과 전문성이 우수하다	①	②	③	④	⑤
	10. 선생님들과의 의사소통이나 정보 공유가 잘 된다	①	②	③	④	⑤
	11. 선생님 1인당 담당하는 아동 수가 적정하다	①	②	③	④	⑤
프로 그램	12. 센터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13. 센터의 모든 프로그램은 자녀에게 흥미롭고 유익하다	①	②	③	④	⑤
	14. 센터의 숙제·학습지도가 학교 공부에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이용 효과	15. 센터 이용으로 보호자의 돌봄(양육) 부담이 줄어들었다	①	②	③	④	⑤
	16. 센터 이용으로 보호자의 경제·사회활동에 도움이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17. 아동이 센터에 가는 것을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C10. 귀하는 다함께돌봄센터가 현재 상황에서 가장 개선되어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대로 2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_____ 2순위: _____) (* 복수응답)

- ① 이용 비용 ② 프로그램 다양화 및 수준 ③ 아동과 교사 비율
 ④ 시설장·교사 자질과 전문성 ⑤ 센터 주변 환경 ⑥ 보호자-교사 의사소통·정보교환
 ⑦ 센터 환경·설비·학습교구 ⑧ 급식·간식의 질 ⑨ 급식·간식비용 지원
 ⑩ 기타(_____)

D. 늘봄학교 이용 경험

❖ 귀댁의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늘봄학교 이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해 주십시오.

※ **늘봄학교**: 2024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정규수업 외에 안전한 학교공간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하여 학생의 성장·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종합적 교육프로그램. 올해는 ① **초1 맞춤형 프로그램**과 ② **초1 선택형 프로그램**으로 구분

- **(초1 맞춤형)** 희망 학생을 대상으로 정규수업 종료 후 매일 2시간 이내로 1년간 운영되는 무상 프로그램
- **(초1 선택형)** 늘봄(방과후) 프로그램과 늘봄(돌봄) 프로그램으로 구성
 - 늘봄(방과후) 프로그램: 학생·학부모의 요구에 따라 개설되는 수익자 부담 프로그램(비용 발생)
 - 늘봄(돌봄) 프로그램: 아침늘봄(정규수업 전), 오후늘봄(정규수업 후 13시~17시), 저녁늘봄(17시~20시)으로 구분, 프로그램비 무상(오후늘봄 간식비는 비용 발생할 수 있음, 시·도별 상이함)

D1. 귀하는 늘봄학교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 | | |
|---------------|-------------------|
| ① 전혀 모름 | ② 들어본 적은 있으나 잘 모름 |
| ③ 어느 정도 알고 있음 | ④ 매우 잘 알고 있음 |

D2. 현재 아동이 다니는 초등학교에서는 늘봄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 | | | |
|---------------------|---------------------|----------|
| ① 운영하지 않음 | ② 2024년 이전부터 시범운영 함 | |
| ③ 2024년 1학기부터 운영 중임 | ④ 2024년 2학기부터 운영 중임 | ⑤ 잘 모르겠음 |

D3. 아동은 방과 후 지역아동센터 또는 다함께돌봄센터 외에 늘봄학교를 현재 이용하거나 과거에 이용한 경험이 있습니까?

- ①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이용한 경험이 없고, 현재도 이용하지 않음 (☞ D3-1 응답)
- ②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이용한 경험은 있으나, 현재는 이용하지 않음 (☞ D3-1 응답)
- ③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현재 이용하고 있음 (☞ D3-2~6 응답)

D3-1. (D3에서 ① 응답) 아동이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거나 이용을 중단한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선순위로 2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_____ 2순위: _____) (※ 복수응답)

- | | |
|--------------------------|-------------------------------------|
| ① 늘봄학교에 대해 잘 몰라서 | ② 아동의 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운영하지 않아서 |
| ③ 늘봄학교보다 지역아동센터 이용을 선호해서 | ④ 늘봄학교보다 다함께돌봄센터(우리동네키움센터) 이용을 선호해서 |
| ⑤ 늘봄학교 프로그램이 불만족스러워서 | ⑥ 사교육(학원, 과외) 시간과 맞지 않아서 |
| ⑦ 급식·간식이 불만족스러워서 | ⑧ 아동이 장애나 다른 어려움이 있어서 |
| ⑨ 아동이 원하지 않아서 | ⑩ 기타(_____) |

D3-2. (D3에서 ②③ 응답) 아동이 현재 이용하는 놀봄학교 프로그램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복수응답)

- ① 초1 맞춤형(정규수업 후 2시간, 13시~15시) ② 초1 선택형(아침놀봄, 정규수업 전)
 ③ 초1 선택형(오후놀봄, 초1 맞춤형 프로그램 후 15시~17시)
 ④ 초1 선택형(오후놀봄, 정규수업 후 13시~17시) ⑤ 초1 선택형(저녁놀봄, 정규수업 후 17시~20시)

D3-3. (D3에서 ②③ 응답) 아동은 현재 1주일에 며칠 놀봄학교 프로그램을 이용합니까?

- ① 1주일에 1번 ② 1주일에 2번 ③ 1주일에 3번 ④ 1주일에 4번 ⑤ 1주일에 5번(매일)

D3-4. (D3에서 ②③ 응답) 아동이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돌봄센터 외에 놀봄학교도 이용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선순위로 2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_____ 2순위: _____) (※ 복수응답)

- ① 방과 후 놀봄학교 프로그램 이용 시간대가 맞아서 ② 놀봄학교는 이용 대가가 필요 없으므로
 ③ 놀봄학교는 별도의 이용 자격기준이 없으므로 ④ 놀봄학교 프로그램 비용이 무료이므로
 ⑤ 놀봄학교 프로그램이 만족스러워서 ⑥ 사교육을 이용할 필요가 없으므로
 ⑦ 아동이 원해서 ⑧ 기타(_____)

D4. 귀하는 아동의 방과 후 돌봄을 위해 놀봄학교를 계속 또는 향후 이용할 의향이 있습니까?

- ① 없음 (☐ D4-1 응답) ② 있음 (☐ D4-2 응답)

D4-1. (D4에서 ① 응답) 놀봄학교를 이용할 의향이 없다면, 귀하는 아동의 방과 후 돌봄을 위해 향후 어떠한 기관을 이용할지 희망하십니까?

- ①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고자 함 ②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하고자 함
 ③ 아이돌봄서비스 등 다른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함 ④ 사립학원을 다니고자 함
 ⑤ 부모·가족이 집에서 돌봄 예정임 ⑥ 기타(_____)

D4-2. (D4에서 ② 응답) 놀봄학교를 이용할 의향이 있다면, 귀하는 아동의 방과 후 돌봄을 위해 지역아동센터 또는 다함께돌봄센터를 계속 이용하실 생각입니까?

- ① 놀봄학교만 이용하고,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돌봄센터는 이용할 생각이 없음
 ② 놀봄학교와 지역아동센터를 함께 이용하고자 함
 ③ 놀봄학교와 다함께돌봄센터를 함께 이용하고자 함

조사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